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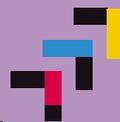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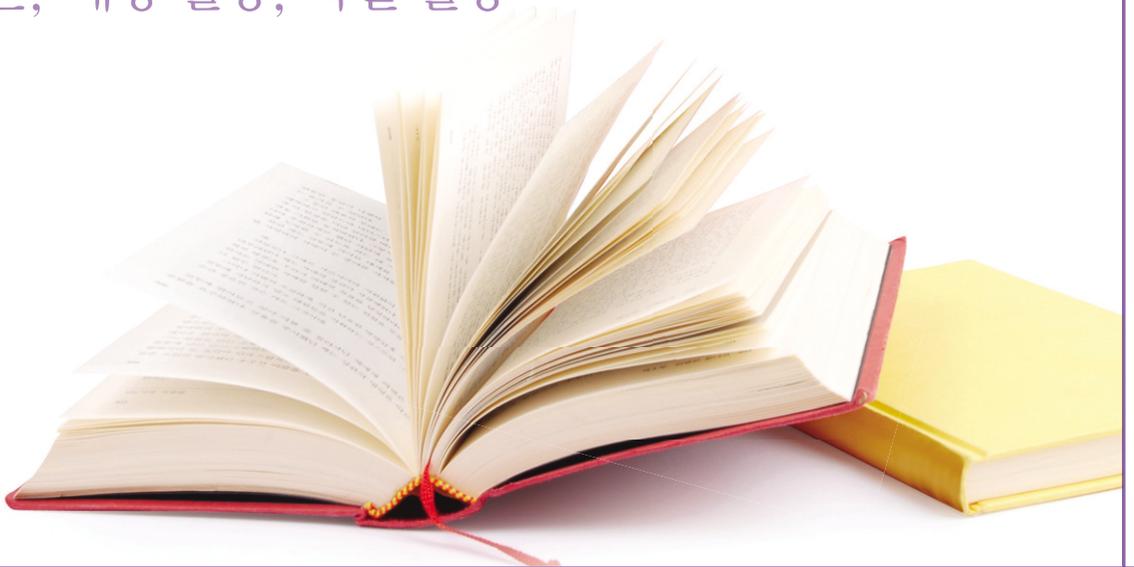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341000-000526-14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1

총론, 재량 활동, 특별 활동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①

총론,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목 차

총 론

I. 교육과정의 이해	9
1. 교육과정의 개념	9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23
II.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40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1945~1946)	41
2. 교수 요목기(1946~1954)	42
3. 제 1 차 교육과정기(1954~1963)	44
4. 제 2 차 교육과정기(1963~1973)	51
5. 제 3 차 교육과정기(1973~1981)	62
6. 제 4 차 교육과정기(1981~1987)	71
7. 제 5 차 교육과정기(1987~1992)	79
8. 제 6 차 교육과정기(1992~1997)	87
9. 제 7 차 교육과정기(1997~2007)	99
III.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115
1. 개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115
2. 추구하는 인간상	121
3.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육 목표	126
4.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과 구성 방침	130

IV.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139
1. 편제	139
2. 시간(단위) 배당 기준	141
V.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145
1. 기본 지침	145
2.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155
3.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174
4.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210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216
[부록 I] 총론의 주요 개정 사항 비교	220
[부록 II] 교육적 인간상의 변천	223
[부록 III]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225
[부록 IV]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위탁 연구 과제 및 발간 도서	251

재량 활동

I. 재량 활동 개정의 배경	259
II. 재량 활동의 의의와 내용	261
1. 재량 활동의 의의	261
2. 재량 활동의 내용	262

Ⅲ.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264
1.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지침	264
2.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266
Ⅳ.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안 예시	285
1. 교과 재량 활동 편성·운영 유형	285
2. 창의적 재량 활동 편성·운영 유형	290
3. 재량 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 편성 예시	299
Ⅴ. 재량 활동의 평가	303
1. 재량 활동 학생 평가	303
2.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306
참고 문헌	310

특별 활동

Ⅰ. 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중점	315
1. 개정의 배경	315
2. 개정의 중점	317
Ⅱ. 특별 활동의 성격	321
Ⅲ. 특별 활동의 목표	324

IV. 특별 활동의 내용	326
1. 내용 체계	326
2. 영역별 목표 및 내용	327
V. 특별 활동의 교수·학습 방법 및 지원	340
1. 계획과 운영 및 지원	340
2. 영역별 지도 방법	347
VI. 특별 활동의 평가	372
1. 특별 활동 평가의 특징	372
2. 특별 활동 평가의 지침	373
VII. 특별 활동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	391
참고 문헌	393
〈부록〉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변천	394

총론

남부호 (교육과학기술부)
박순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미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정영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제윤 (서울특별시교육청)
김재춘 (영남대학교)
나태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나영 (전북교육청)
진동섭 (서울영등일고)
안종선 (충남과학고)
이경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 I. 교육과정의 이해
 - II.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 III.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 IV.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 V.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I. 교육과정의 이해

1. 교육과정의 개념

가. 교육과정의 의미

교육과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된다. 교육과정을 넓게 생각하느냐 좁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전제와 중점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라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누가,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준거와 방법으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느냐에 따라라도 그 의미가 달라진다.

‘쿠레레(currere)’라는 어원으로부터 출발한 ‘교육과정(curriculum)’이라는 용어는 경기 코스, 트랙, 수행해야 할 교수요목(course of study)을 의미한다. 옛날부터 학교는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왔다. 학생들에게 그 ‘무엇’을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행위를 ‘교육’으로 본다면, 그 ‘무엇’이 교육의 내용이 된다. 따라서 의도적이고 공적인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일정 수준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해 놓은 공통적 기준을 ‘교육과정’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 규정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교육을 보는 시각, 인간과 사회를 보는 시각, 즉 사물을 보는 철학적 관점의 차이에서 온다. ‘교육한다’는 말의 핵심이 되는 요소로는 교육의 대상(학생)과 교육 내용(교육과정), 교육하는 사람(교사)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무엇’에 해당되는 것만을 교육과정으로 생각한다면, 교육과정의 개념 규정은 오히려 단순하고 쉬울 것이다. 그러나 가르치고 배우는 내용은 배우는 학생이나 가르치는 교사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선택과 신중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처럼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가 모호하고 사람마다 자신의 철학적 배경 또는 견해나 필요에 따라 제각기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¹⁾ 어떤 사

1) 허친스(Hutchins, R. M., 1936)와 같은 항존주의자는 교육과정이란 ‘시·공간을 초월하여 불변하는 지식에 관한 내용의 계열

람은 교육과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의 주제나 개념을 열거한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학교의 지도 아래 계획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경험이라고도 한다. 또한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하고, 교과목의 모음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으며, 교과와 교과 외의 활동, 상담 지도, 대인 관계 등을 포함하는 학교 내의 모든 교육 활동이라고 하는 등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쓰인다.

교육과정은 내용(content)으로서의 교육과정, 경험(experience)으로서의 교육과정, 계획(plan)으로서의 교육과정, 결과(outcome)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기도 하고, 의도된 교육과정과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공식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으로 나눌 수도 있다. 또한 교육 내용을 결정하는 주체의 역할 분담에 따라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지역 수준 교육과정, 학교 수준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과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태너와 태너(D. Tanner & L. N. Tanner, 1980)는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종합 정리한 바 있는데, 그의 관점에 따르면 교육과정은 ① 지식의 축적 및 조직, ② 사고의 양식, ③ 공동체 경험, ④ 안내된 경험, ⑤ 계획된 학습 환경, ⑥ 인지적·정의적 내용 및 절차, ⑦ 수업 계획, ⑧ 수업 목표, ⑨ 공학적 생산 체제, ⑩ 지식과 경험 등의 10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²⁾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조직하는가?’ 하는 것이다.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교육 내용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따른 교육과정 사조와 관련하여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 등으로 그 내용의 유형을 분류하는 경우도 있다.³⁾

적, 체계적인 조직’이라고 보았고, 카스웰과 캠벨(Caswell & Campbell, 1935)은 교육과정이란 ‘학교나 교사들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모든 경험’으로 보다 폭 넓게 정의하였다. 세일러와 알렉산더(Saylor & Alexander, 1935)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광범위한 교육 목표들과 이와 관련되는 상세한 교육 목표의 성취를 위하여 일련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타바(Taba, H., 1992)는 “교육과정은 학습을 위한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보통 교육 목표와 교육 목적의 진술을 포함한다. 이는 어떤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수반하고, 교육 목표나 내용의 조직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학습과 교수를 의미하거나 나타내 주며, 학습 결과의 평가 계획을 포함하게 된다.”라고 정의하였다.

2) D. Tanner & L. N. Tanner, Curriculum development: theory into practice, 2nd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1980. pp. 3-43.

3) 이귀운은 교육과정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이귀운, 교육과정 연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6, pp. 169-170). 첫째, 교과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는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이 배우는 모든 교과와 교재를 말한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철학적 관점을 분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전통주의적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지식이나 학문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내용 선정의 원천 중 지식을 분류 기준으로 한 것이다. 둘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는 지식이나 학문의 구조를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식이나 학문의 구조는 학습의 전이를 높이며, 기억을 오래 가게 할 뿐만 아니라 고등 지식과 기초 지식간의 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도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철학적 관점에서의 분류에서는 전통주의적 입장에 기초하고 있으며, 내용 선정의 분류 기준에서 보면 지식에 비중을 두고 있다.

셋째, 인지 과정 중심 교육과정은 탐구 결과로서의 지식 그 자체를 가르치기보다는 문제 해결력,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등 사고의 방식이나 학습하는 방법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유형이다. 이 유형의 교육과정은 인지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교

이처럼 교육과정의 개념 체계는 지식, 인간, 사회, 자연, 환경, 문화 등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의도적·계획적인 학교 교육에 적용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교육기본법 제 2 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제시되어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에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 교육감은 이에 근거하여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할 수 있으며(동법 제 23 조 제 2 항),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동법 제 23 조 제 1 항).

이와 같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고시(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문서화된 계획이 제정, 고시 또는 공포된 순서에 따라 제 1 차 교육과정, 혹은 제 7 차 교육과정이라는 명칭을 부여해 왔으며, 제 7 차 교육과정을 수정·보완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2007년 2월 28일 개정 고시되었다.

우리나라의 법규 문서에서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문교부령 제 35 호(1954. 4. 20.)로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시간 배당 기준령’으로, 여기서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 1 장 총칙의 제 2 조). 그 이후, 문교부령 제 119 호(1963. 2. 15.)로 공포된 제 2 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제 2 장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 또한 제 4 차 교육과정의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보고서⁴⁾에서는 “교육과정이란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일

육과정의 구조로 보면 교수 계획과 교육과정을 일원적인 것으로, 그리고 내용 선정 기준으로는 지식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교육의 수단과 목적이 하나의 과정, 즉 경험과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 작용을 중시한다.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철학적 관점에서 진보적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교육의 목적에서 보면 개인과 사회를 동시에 중시하고 있다. 또한 내용 선정의 원천에서 보면 문화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인간의 성장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고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지향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철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보주의적 가치관에 입각하고 있으며, 내용 선정의 원천으로 보면 생활 경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 개건 중심 교육과정은 학교가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 중 사회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한국교육개발원,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연구 보고 제 110 집, 1979. 12., p. 1.

이 답신 보고서에서는 교육과정을 ‘문서화된 계획’이라는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의미를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밝혔다.

- 교육과정에는 학생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 목표와 내용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야 하고, 교수·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운영 계획, 학습 지도, 학습 평가 등의 지침이 제시되어야 한다.
- 교육과정의 내용은 교육 철학, 국가·사회의 요구, 학생의 발달 단계 및 교과의 학문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여 가치 있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갖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일정한 원리와 절차에 따라 선정·조직하여야 한다.

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문서화된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제 4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442 호, 1981. 12. 31.)부터는 어떠한 단일의 교육 사조나 이론의 지배를 탈피하여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인 조화와 복합적인 이론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특히 제 5차 교육과정(문교부 고시 제 87-9호, 1987. 6. 30.)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가에서 정하는 계획은 어디까지나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성격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과정으로 고시되는 문서는 ‘교육과정 기준’, ‘교육과정 요강’ 혹은 ‘교육과정 지침’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타당하다는 것이 논의의 주요 내용이었다. 즉 교육과정은 ‘학생의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마련된 계획’으로서 국가 수준의 계획에서부터 교사와 학생의 계획까지를 포함하는 종합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국가 수준, 지역 수준, 단위 학교의 교사와 학생 수준에 이르기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성취를 의도하여 기성세대의 핵심적 문화 내용으로서의 지식과 사고 양식, 경험을 재구성한 계획이라는 점이 강조되었다.⁵⁾ 이러한 논의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다.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처음으로 교육과정의 성격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수준에서 문서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법적 개념을 분명하게 밝혔다. 즉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따라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여기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핵심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구성 요소에 영향을 주는 제 요인이 관련된다.

제 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1997. 12. 30.)은 제 6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교육 법규에 따라 고시한 국가 수준의 ‘기준’임을 명시하고, ①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③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하는 교육과정, ④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 ⑤ 교육의 질적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이라는 구체적 성격을 강조하였다. 특히 제 6차 교육과정에 이어 제 7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의

5) 한국교육개발원, ‘제 5차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 답신 보고서’, 1986. 6. 30., pp. 84-85.

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우리나라의 교육 실정과 미래 교육에 적합한 현실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인 패러다임(paradigm)을 택하여 여러 가지 이론의 절충적, 종합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의 개념을 규정하였다.⁶⁾

우리 교육을 되돌아보면, 여러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흔히 교육과정을 단순하게 해석하여 교육 내용, 심지어 교과서의 내용으로만 보는 잘못된 관점이 학교 교육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이다. 즉 교육과정은 계획적인 학교 교육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어느 수준과 범위로 가르치고 평가하느냐?’를 문서로 계획한 교육 설계도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단순하게 교육 내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표와 내용, 교육의 방법이나 운영 방식, 교육 평가를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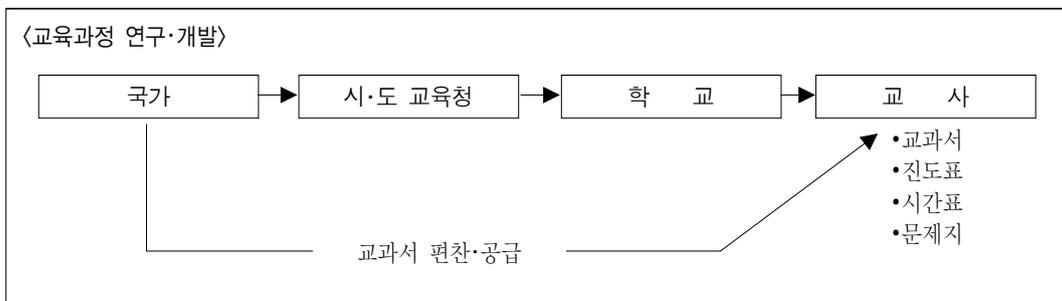
나.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문서화된 계획’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등 세 가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제6차 교육과정에서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합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개선한 것에 따라 이루어진 실제적인 개념 정립이었다고 볼 수 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역할을 분담하여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관리하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다. 즉 교육과학기술부가 법률에 따라 결정,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 중점을 반영한 지역 수준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직접 학생을 교육하는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조정한 학교 수준의 ‘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과정의 의미를 제시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명료화하고자 하였다.

6)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에서 정의된 교육과정의 의미가 그대로 강조되었다. 즉 교육과정의 의미 속에는 교육부 장관이 법률에 따라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감이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급 학교에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그리고 이들 기준과 지침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교육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실정에 알맞게 조정, 편성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 부가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실제 교실 수업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교사가 계획해 놓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계획(연간, 월간, 주간)도 교육과정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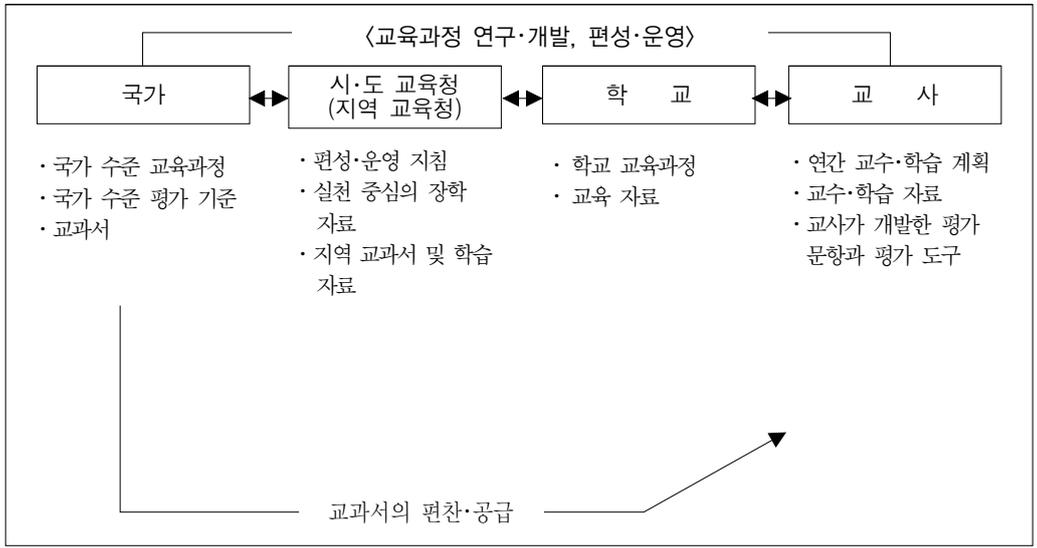
이러한 시도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을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상호 보완적인 흐름 속에서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학교, 교사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역할, 기능의 수준과 위상이 보다 깊이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제 6차 교육과정을 분수령으로 하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 모형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나타내면 [그림 I-1], [그림 I-2], [그림 I-3]과 같다.⁷⁾



[그림 I-1]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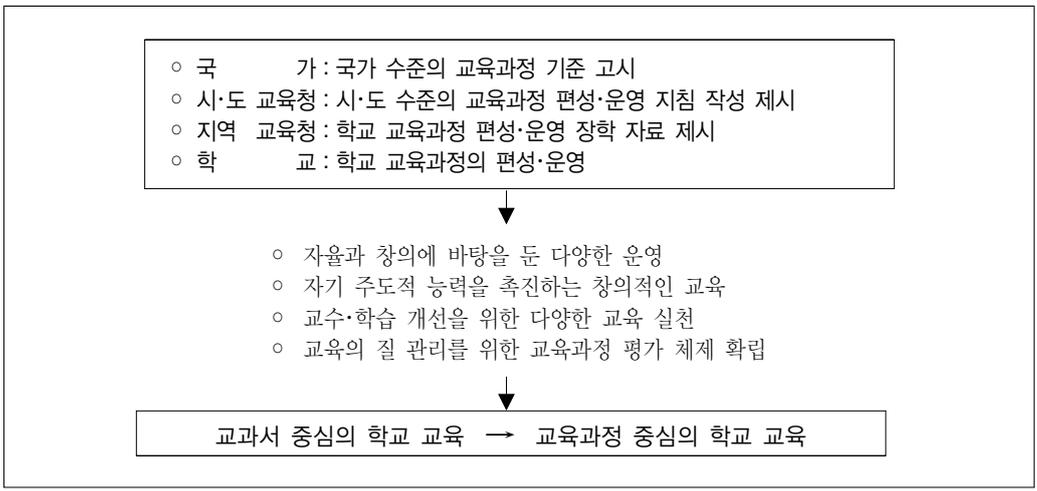
[그림 I-1]을 보면, 제 5차 교육과정기까지의 교육 행정은 국가로부터 시·도 교육청을 거쳐 학교와 교사에 이르는 과정에서 획일성을 중시하는 전달 체제가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교육과정 기준의 개념은 주로 교과서의 편찬·공급과 관련된 범위에서 주목된 경향이 있었다.

7) 교육부,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1),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3), p. 52.



[그림 I-2]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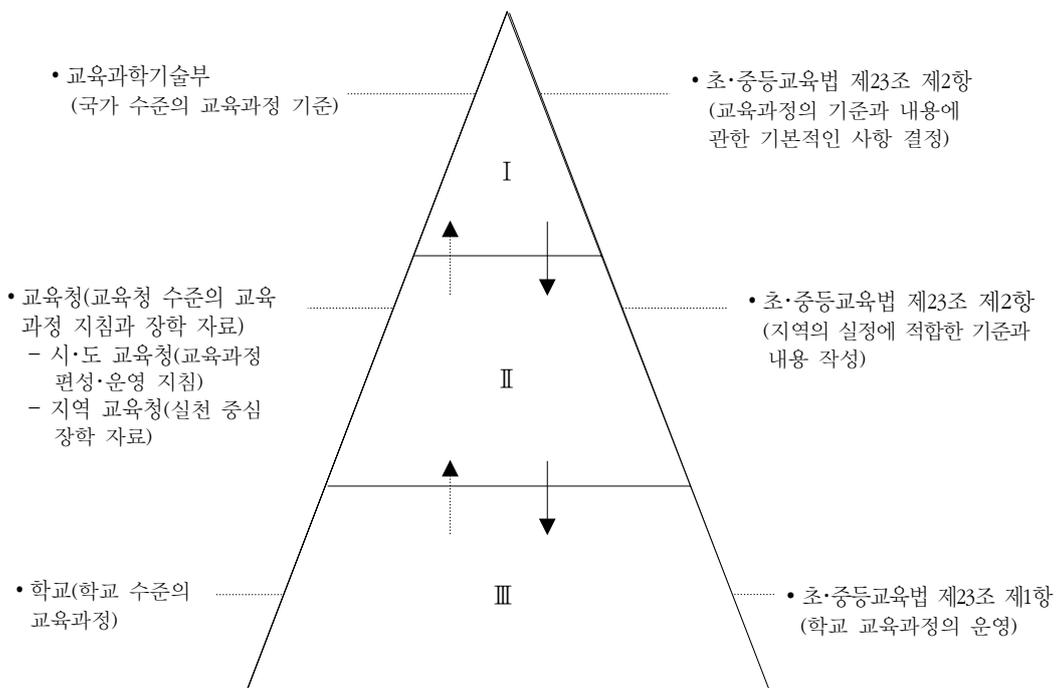
[그림 I-2]와 같이 제 6 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시·도 교육청(지역교육청), 학교, 교사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담당해야 할 역할이 분담되었다.



[그림 I-3]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

[그림 I-3]과 같이 국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한 것은 교육의 질을 효과적으로 지도·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 정책의 획기적 변화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과 자율화를 촉진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 개선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다. 국가에서 계획한 교육과정 문서는 그 자체가 각 학교의 교육과정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상위 수준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이므로 정부의 고시 문서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학교 교육과정’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즉 국가에서 전국의 수많은 학교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구성해 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고시되는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는 교육 내용은 국가 기준이며, 그 자체가 각 학교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그림 I-4] 교육과정의 수준과 위상

[그림 I-4]를 살펴보면, 국가에서 고시한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I)과 이 기준에 따라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및 주민·학부모의 요구,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만든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II)과 각 학교의 실정 및 학생의 실태, 학교 환경, 교원 실태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학교 교육과정'(III)이 있다. 특히, 위의 (I)과 (II)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사 수준의 교수·학습 계획 수립의 바탕이 되는 기준과 지침인 동시에 그 지원 관리 체제로 보아야 한다.

(1) 국가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란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⁸⁾에 입각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 고시하는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는 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과 운영, 평가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문서로 결정, 고시되는 기준 자체를 '교육과정'으로 인식해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는데, 이는 교육과정 문서의 명칭⁹⁾에 따른 오해인 것으로 생각된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고시되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과 관계되는 교육 행정 및 재정, 교원의 양성·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재 개발, 입시 제도, 교육 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 기능하게 되며,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국가, 시·도 교육청, 학교에서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도록 분권화되고 있고,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율·재량권을 점차 확대해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여 법령으로 또는 법령에 따른 고시의 형태로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관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첫째, 초·중등학교 교육은 보통 교육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이 국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거대한 공익사업이 되었고, 대부분의

8) 초·중등교육법(법률 제 8917 호, 1997. 12. 13. 제정·공포, 일부 개정 2008. 3. 21) 제 23조 제 2항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9) 이 같은 교육과정 기준 문서의 명칭은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미국에서는 'Curriculum Guideline', 혹은 'Curriculum Framework', 'Program Guide', 'Minimum Standards' 등의 용어를 주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학습 지도 요령'으로, 타이완에서는 '과정 표준(課程標準)', 프랑스에서는 'programmes et instructions', 영국은 'National Curriculum'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가가 교육과정 개선 사업을 교육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생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중등학교 교육이 자유방임적이고 무관심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교육 내용에 관한 기준 설정권을 갖고 있다.

둘째, 전국의 어느 학교에서나 같은 수준과 질이 보장된 최소한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질적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려면 전국 공통의 기준이 필요하다. 교육의 기회 균등은 입학의 기회균등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국민이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 어떤 교원에 의해 교육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통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고, 타당한 교육 내용의 전국적인 공통 기준이 국가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단계별 교육은 교육 내용의 영역과 범위, 수준, 학습량 등에서 계통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에 대한 학년별 체계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혼란이 생기면 단계별 학교 교육 간의 연계와 교육 이수 및 학습에 장애가 생기고, 위계적이고 계열적인 교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넷째, 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공교육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질 관리가 되도록 교육의 일정 수준을 유지, 향상시키려면 국가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 국가의 교육 수준은 그 나라의 발전과 국력 수준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따라서 각국은 교육 수준을 향상,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사회적, 개인적, 학문적으로 적절한 교육 내용의 수준을 정하고 유지하는 일을 각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국가에서 타당한 수준의 교육 내용 기준을 결정, 제시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에 가해질 우려가 있는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편향된 교화, 선전 등을 방지하여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국가 수준의 기준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교육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의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⁰⁾ 공교육이 이러한 중립성을 확보하려면 교육 외적 체제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압력, 편향된 교화, 선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파제로서의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교육 내적 체제에서의 학교나 교원의 자의적인 독단과 전횡

10) 대한민국 헌법 제 31 조에는, ①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교육 기본법 제 5 조에는, ①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보장,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행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실시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고, 제 6 조에는 '교육의 중립성'에 관해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 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는 임의의 교육과정 운영, 편향, 선동 등을 막기 위한 기준의 필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여섯째, 초·중등학교의 교육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구현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교육 관계법에 초·중등 교육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교육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 기본법 제 2 조에 교육 이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 이념·목표를 달성, 실현하는 일은 국민으로부터 교육 제도와 조직·운영을 위임받은 국가의 일차적인 책임이며, 국가의 교육 행정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에도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¹¹⁾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동시에 이 기준은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 기준이므로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운영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제 2항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①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②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③ 교육청과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④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⑤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2) 지역 수준 교육과정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 내용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므로 각 지역의 특수성과 각 학교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렵거나 세밀하게 규제함이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을 그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 그리고 해당 지역과 학교

11)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별책 1, 1997. 12. 30) 및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 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별책 1, 2007. 2. 28), p. iii.

의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교육 중점 등을 설정하여 관내의 각급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준거로 삼게 하려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교육과정 기준이 전국의 공통적, 일반적, 표준적, 대강적, 요강적인 교육 내용 기준이라면, 시·도 단위의 지역 특성과 실정, 필요,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지역 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므로 각 시·도가 국가 기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보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그 지역의 자연, 사회, 문화, 환경이나 산업, 역사, 전통, 발전 전망, 주민 의식 등은 중요한 검토 관점이 될 수 있다.

즉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은 국가 기준과 학교 교육과정을 자연스럽게 이어 주는 교량적 역할을 하게 되며, 장학 자료, 교수·학습 자료 및 지역 교재 개발의 기본 지침이 될 수 있다.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을 설정하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2 항 등에 제시되어 있다. 제 7 차 교육과정에 이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학교에 제시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이러한 근거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전문적·기술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적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학의 핵심적인 업무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교육 의도와 교육 중점을 각 시·도의 지침에 제시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편성과 운영을 통해 이를 실천하고, 지역이나 학교에 주어진 자율, 재량의 권한을 보장해 줄 수 있게 되었다.

(3) 학교 수준 교육과정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을 통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하게 하고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실천할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최종 결정자는 바로 교사이다. 교사가말로 의도적인 교육을 맡고 있는 학교 교육의 주체이고 실천자이다. 아무리 국가 기준을 잘 만들고 지역 지침을 세밀하게 마련해 주어도 교육 실천자가 명확한 교육 의도를 가지지 않고 교육 목표와 내용을 정확하게 다루지 않거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학교 교육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의 실천자이고 교육의 주체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 학교에서 일련의 교육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지침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 기준과 지침을 자세히 분석하는 동시에 학교의 교원·학생 실태, 교육 실태, 교육 시설·자료 등의 교육 여건 등을 잘 파악하여야 한다. 학교의 여건과 실태에 대한 구체적 인식에 기초하여 그 학교 학생들에게 실천 가능한 교육 설계를 마련하고, 그러한 설계도에 담긴 특색을 구현할 수 있는 운영 계획 및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교 교육과정에는 각 학교의 교육 목표와 중점,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 방법과 운영 방식이 나타나 있어 전국의 각 학교가 제각기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의미하는 실천적,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여 구성되며, 이들 요인에 영향을 주는 조직, 시설, 예산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지식과 그것을 조직하는 사고의 양식, 생활 경험, 공동체 경험 등을 포함하며, 방법은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의미하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둘러싼 제반 관련 요인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을 통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지속적으로 보완, 조정함으로써 학생의 실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전국 공통의 일반적인 국가 수준의 기준을 그대로, 획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의 개별화, 다양화, 자율화를 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융통성 있는 운영과 적극적인 교수·학습의 상호 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둘째, 교육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이나 학교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여 해당 학교의 교육 중점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라는 성격이 있으므로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교육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신장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능력과

육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학교의 지역적인 특수성을 잘 아는 그 학교의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과정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율성과 전문성을 신장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교원의 전문적인 업무이다. 교원이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업무를 수행하는 일은 교원만의 고유한 전문적 영역이다. 또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자율·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교장·교감은 교사들의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이를 보장하고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넷째, 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은 획일성이 커다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우리 교육이 이처럼 획일화된 교육 내용과 방법, 교육 환경을 탈피하여 학생·교원·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교육으로 변화되도록 하려면 단위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하다. 즉 획일적인 지식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여 학생 개인의 적성에 따라 모든 학생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를 탈피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개인의 적성, 능력, 흥미나 관심, 장래 진로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므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흥미, 적성을 수용하고,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면 학생의 발달 단계에 알맞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통하여 학생 개인의 특기, 관심, 흥미를 담은 새로운 영역과 내용을 설정함으로써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 융통성 있고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1 항에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이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단위 학교 수준의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는 국가, 시·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역할 분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 기준은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과 기본 지침이 된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을 탈피하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식·정보의 시대에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천하려면 고정된 관념이나 사고를 탈피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통하여 의도된 교육과 실현된 교육을 접근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이 교육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 ‘교육의 질’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 현장에는 종래부터 어떤 형태나 명칭으로든 ‘학교 교육과정’(‘학교 교육 계획’, ‘교육 실천 세부 운영 계획’ 등으로 불리기도 했음)이 존재해 왔다. 학교의 실정이나 교육 여건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 학교에 알맞은 특색 있고 융통성 있는 ‘교육 설계도’를 창의적으로 마련하여 실천하는 일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의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교육 여건과 환경이 잘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이나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이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되기를 기대하였으며, 이러한 기대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학교 수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일에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고와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¹²⁾

- ①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가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 ②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어 전문가의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 ③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려면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해 있기보다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해 나가는 인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과정 기준 자체의 타당성이나 적합성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 부여된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융통성, 창의성을 어떻게 발휘하느냐?”가 교육 목표 실현의 중요한 변인이 될 것이다.

2.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국가 교육과정과 지역 수준 교육과정, 그리고 학교 수준 교육과정과 관련되는 주요 법규는 다음과 같다.

- ① 대한민국헌법[전부 개정 1987. 10. 29. 헌법 10호]
- ②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5호]
- ③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7호]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 5. 27. 대통령령 제20792호]

12) 이정환,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요’, 교육부, 교육과정 연수 자료, 1998, p. 6.

- 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8852호]
- 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 ⑦ 교육과정심의회규정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 ⑧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 ⑨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 [일부개정 1999. 7. 23. 대통령령 제16479호]
- ⑩ 저작권법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⑪ 저작권법시행령[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6호]
- ⑫ 저작권법시행규칙[일부개정 2008. 3. 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1호]
- ⑬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 ⑮ 영재교육진흥법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⑯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 10. 14. 대통령령 제21081호]
- ⑰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정 2008. 5. 26. 대통령령 제20790호]
- ⑲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정 2008. 6. 1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호]
- ⑳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㉑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40호]
- ㉒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 2008. 2. 29. 법률 제8852호]
- ㉓ 학교보건법[일부개정 2008. 3. 21. 법률 제8912호]
- ㉔ 학교보건법 시행령[전부개정 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

이 밖에도 교육과정 관련 법규에는 교육 조직, 시설·설비, 학사, 장학·학술 연구, 과학·기술·직업 교육, 사회·유아·특수·청소년·체육 교육 및 국경일·휴일·기념일,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과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예규 등이 있다.

가.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등이 보장된다는 점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31조 :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 조 제 1 항에 명시된 ‘능력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권리는 교육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데 하나의 근거가 된다. 개인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 즉 개인차가 고려되는 교육은 시대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이나 강조점이 다소 달랐을 뿐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온 교육의 이상이다. 또 교육이란 개인을 보다 유능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동시에,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교육의 질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기도 한다.¹³⁾ 그러므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라는 것은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소양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 필수 교육’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국민 각자가 가지고 태어난 잠재 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의 장을 국가가 마련해 주어야 함을 뜻한다.

최소의 필수 교육이 평등(equality)의 이념을 강조한다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한 교육은 공평(equity)의 이념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기계적인 평등 논리보다는 학습자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공평의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개인차를 반영하는 교육은 교육 공급자의 관점이 아니라 교육 수요자, 즉 학생의 입장에서 교육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이며, 이는 학습자의 능력 수준 및 요구, 개인적 특성 등에 맞추어 가장 합당한 교육적 처치를 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 제 31 조 제 4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은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전인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을 국가 관리 체제로 하는 공교육 제도에서 국가는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위탁받아 법에 따라 학교 교육을 운영한다. 그리하여 부모와 교사의 지배나 간섭, 또는 포기로부터 침해받을 수도 있는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현대 복지 국가가 국민의 권리 보호자로서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능이다. 학교 교육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부모, 교사, 설립자, 국가 등 교육권을 가진 모든 교육 주체의 중심이 되는 권리(권리 중 우선시 되는 권리)이며, 이 권리는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에 기초한 권리로서 상호 협력 관계에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이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 제한받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보통 교육 단계의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은 아직 가치 판단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정치적 선동이나 왜곡된 진리에 대해서는 비

13) 교육과정개선연구회,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 방안 연구’, 교육부 정책 연구 보고, 1995. 12, p. 3-4.

판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제 가치의 수용에 대한 가소성이 있다. 그러므로 초·중등의 보통 교육은 정치적, 종교적, 개인적 편견에 치우침이 없이 학생에게 보편적인 가치와 원리를 중심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의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헌법상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에 대한 규정은 학생에 대한 보편적 가치와 진리를 배울 권리의 보장, 교육 내용의 전문적 수준 확보, 공교육에 대한 기준 설정과 운영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권리, 교육 내용의 중립성 보장의 준거가 된다.

나. 교육 기본법

교육 기본법에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 2 조 :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세월을 걸쳐 홍익인간, 전인의 육성 등이 교육의 이상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¹⁴⁾ 광복 이후 우리 교육에서 가장 포괄적인 수준의 교육 이념으로 제시된 것 또한 바로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교육 이념이다. 교육 이념이란 ‘교육적 행위 전체를 지휘하는 근본 원리(오천석, 1974)’, 혹은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수준의 활동이나 원리에 대한 교육적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가치 체계(이돈희, 1995)’라고 볼 수 있다.

교육 기본법 제 2조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 능력, 민주 시민의 자질’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과, ‘민주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국가 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이라는 세계적 이념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러한 교육 이념은 우리나라의 교육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맥락에서 지속적으로 재음미되어 왔다. 즉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그 적절성과 의미에 대한 논의가 거듭되어 오면서 1949년 교육법 제정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교육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교육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교육 이념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설정하

14) “널리 인간을 유익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은 1949년에 제정된 교육법 제 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근원은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는 단군 신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인 교육’의 방향은 고종이 1895년에 작성한 교육입국 조서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다. 홍익인간의 교육 이념은 광복 직후 결성된 조선교육심의회에서 제안하여 교육법에 명기하게 되었으며, 홍익인간의 정신은 이 민주주의의 이념과 상통한다는 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는 바탕이 되었다. 교육 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쳐 추구해 나가야 할 교육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의 기저가 된다. 또한 교육 기본법 제3 조에는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학습권이 제시되어 있고, 제4 조에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5 조에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보장 및 학교 운영의 자율성 존중에 관한 사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지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동시에 법적인 기준이 된다.¹⁵⁾

다. 초·중등교육법

(1)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

제 45 조 :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45 조에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 중점과 교육 목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을 규정한 조항은 각각 해당 학교급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학년별 또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되었으나, 교육과정이 학교급별 단위로 운영되는 현실과 초·중등교육법에 학교급별 교육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 학교급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급별 교육 목적은 이전 학교급에서 받은 교육의 성과를 토대로 해당 학교급의 교육이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든 교육 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교육 목표의 진술도 교육자의 입장보다는 학생의 입장 중심으로, 즉 학생의 성장과 진보의 정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술하여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15) 제3 조(학습권) :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 조(교육의 기회균등) :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5 조(교육의 자주성 등) :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2) 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제 23조(교육과정 등) :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1 항은 각 학교는 소정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으로서, 이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각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동법 제 63 조에 따라 관할청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하는 등 행정 책임을 묻는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은 동법 제 23 조 제 2 항에 따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야 하며,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특별 활동·재량 활동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수업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이다.¹⁶⁾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별로 실천 가능하게 마련한 구체적인 교육 실행 계획이므로 학생의 발달 정도,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구성한 연간, 학기 간, 주간 및 일일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포함한다는 의미이고, 교육 자료는 교과서 등의 교과용 도서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발한 실천 중심의 교수·학습 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동법 제 23 조 제 2 항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라는 규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가 된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오늘날의 학교 교육은 거대한 공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가 교육 사업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 많은 투자와 우수 교원 확보, 교육 내용 개혁 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 학교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 내용의 일반적, 공통적인 기준을 국가가 설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보통 교육을 담당하

16) ‘수업’(교수학습, 교수 또는 수업, 학습 지도 instruction)이란, 목표로 설정한 행동 유형의 변화가 학습자에게 일어나도록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에 맞추어 외적 조건과 상황을 설계·개발·관리하는 과정(진위교, 1991, p.289~290.)으로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법규 문서에 쓰인 ‘수업’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수학 연한, 교사의 근무 시간에 따라 일정한 교육 기간에 교실, 체육장 및 학교장이 정한 교육의 장을 포함한 공간에서 교육자인 교사가 피교육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에 의한 교과목을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교구를 활용하여 행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교수·학습 활동’을 통칭하는 포괄적 의미로 쓰인다.

고 있는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 기준 설정권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① 교육의 질적 기회균등 보장, ② 단계별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체계성 유지, ③ 공교육의 일정 수준 질 확보, ④ 교육의 중립성 확보, ⑤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책임 등에서 그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구속력을 지닌다. 그러나 국가 교육과정 기준은 교육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육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융통성 있는 운영 또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 공통의 일반적 기준이기 때문에 각 시·도의 특수성이나 실정, 필요, 요구가 충분히 고려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과 역사, 전통, 자연, 산업, 사회, 문화 등과 지역의 교육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각 시·도의 교육 중점을 특색 있게 설정하고,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그 지역의 학교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시·도 교육감이 이러한 지역 수준의 지침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 23 조 제 2 항에 제시되어 있다. 이 밖에도 관련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교육 기본법 제 5 조 제 1 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20 조 제 6 호의 교육감 관장 사무인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규정이 있다.

(3) 학년도, 학년제, 수업 연한

제 24조(수업 등) :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6조(학년제) : ①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 46조(수업 연한) : 고등학교의 수업 연한은 3 년으로 한다.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학사 일정을 운영한다. 국가 교육과정에는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 배당되어 있으므로, 학교 실정과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배정하여 ‘연간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또한 수업은 주간 수업, 전일제 수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26 조에 제시되어 있듯이,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는 학년제에 의해 학생의 진급과 졸업을 결정하지만 학기제의 특성 또한 다른 학교급에 비해 강조되고 있다.

이 법 제 27 조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 대한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

어 있고,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는 교과목별 조기 이수 대상자의 선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자의 학력 인정,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학칙으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교과용 도서의 사용

- 제 29조 : ①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정 교과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저작권을 가지고 연구 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하여 편찬하는 ‘연구·개발 위탁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명시되어 있는 ‘교과용 도서’라는 용어는 국정 또는 검정의 교과서, 지도서 및 인정 도서를 의미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나 지도서는 ‘국정 도서’라 하고, 민간에서 저작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는 ‘검정 도서’로, 국정·검정 도서가 없는 경우나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를 ‘인정 도서’로 구분하고 있다.¹⁷⁾ 초·중등교육법 제 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 1항의 규정에 따르면,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국정 도서’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검정 도서’,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 ‘인정 도서’를 사용해야 한다.¹⁸⁾

- 17)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740호)’에서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 구분하고 있다.
- 교과용 도서 : 교과서 및 지도서
 - 교과서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
 - 지도서 :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서책·음반·영상 및 전자 저작물 등
 - 국정 도서 : 교육과학기술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
 - 검정 도서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 인정 도서 :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
- 18)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 40조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 중 각급 학교에서 사용할 인정 도서의 인정 권한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특히, 이 규정 제 3조(교과용 도서의 선정) 제 1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 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 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 제 17조 제 2 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국정 도서 또는 검정 도서를 보충할 목적으로 인정을 받은 도서를 국정 도서 또는 인정 도서에 갈음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부교재 등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각 시·도에서 그 지역의 향토사나 향토 문화 등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하기 위해 과목을 설치하거나, 학생들의 과목 신설 요구를 반영하여 과목을 개설한 경우 이러한 과목에 대한 교과서나 지도서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렵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청, 승인을 얻어 편찬·발간한 인정 도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및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 개발의 기본 방향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 신장과 창의성 계발에 적합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는 데 있다.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구체적 자료이기 때문에 국가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 구성 방침, 학교급별 교육 목표,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 그리고 해당 교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기준이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 중심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과서를 편찬하려면 국정, 검정, 인정 도서를 막론하고 교과서 편찬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학생의 창의력과 사고력, 탐구력을 중시하고 교수·학습 현장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자율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재미있고, 친절하며, 활용하기에 편리한 교과서를 편찬하겠다는 기본적인 신념과 구성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다양한 편집,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도입하여 가독성을 보다 증진시켜야 할 것이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학교 교육에서 사용되는 교과서의 모습은 서적 위주의 '교과용 도서'로서의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함께 활용되는 '교육과정 자료'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식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학습자들의 다양성과 개별성,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교과서', '토론 중심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교과서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5) 학교 운영 위원회의 기능

제 32 조 :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 31조에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모든 초등학교·중학교·고등

학교 및 특수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위원회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 목표를 어떠한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를 통하여 성취시킬 것인가를 정해 놓은 ‘기본 설계도’이기 때문에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교육 내용, 방법, 평가에 관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 교육을 설계하는 데 가장 근본이 되는 일이다.

즉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과 지역 수준의 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은 학교장·교감·교사에게 부여된 고유하고도 전문적인 업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의 권한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있지만, 학교 교육과정의 학년별 교과·특별 활동·재량 활동을 어떻게 운영하고 지원하여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일은 지역 사회와 학교, 교원, 학부모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학교장의 학교 경영을 지원해 줌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와 특별 활동 이외 ‘재량 활동’ 영역이 신설, 확대되어 주제 탐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소집단 활동, 자연 체험 활동, 범교과 학습 활동 등 학생의 자기 주도적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창의적 교육 활동을 학교 나름대로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 등을 수용하여 특색 있는 학교로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당해 학교 교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편성해 놓은 ‘재량 활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은 모든 학습 활동에서 실험, 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과 같은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경험이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 특별 활동에서는 시간 운영, 장소 활용, 활동 주제 선정, 학습 집단의 조직, 자원 인사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융통성 있고 탄력적인 운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학부모, 명예 교사, 지역 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인적 자원과 학교 밖의 시설 자원을 잘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경험의 폭을 넓혀 주고,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는 교과외의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특별 보충 수업'의 운영과 지원 방안
- ②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
- ③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방안
- ④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고 도서관(실)을 확충하는 방안
- ⑤ 체육 대회, 합창 대회, 축제 등의 학교 행사 운영을 지원하는 방안
- ⑥ 주 5일 수업제에 의한 토요일 휴업일 운영, 도시와 농·어촌 및 다른 나라 학교와의 교류 체험 학습, 현장 학습 등과 관련한 지원 방안
- ⑦ 귀국자 자녀 특별 학급이나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대책

학교 운영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학교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모색하고자 할 때 특별히 유의해야 할 점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은 교원의 전문적이고도 고유한 업무이기 때문에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관련된 교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대해 심의를 할 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항도 국가 수준의 기본 지침에 규정되어 있음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6) 장학 지도, 학교 규칙, 학생 자치 활동

제 7조 (장학 지도)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 8조 (학교 규칙) :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 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7조 (학생 자치 활동) : 학생의 자치 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제 7 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장학 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장학은 '교육 활동의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¹⁹⁾

19) 한국교육개발원, '교내 자율 장학의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 보고 RR89-13, 1989, p. 24

교육 활동의 개선은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활동의 개선을 그 핵심으로 하여, 단위 학교에서 설정된 교육 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한 집단적이고 협력적인 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장학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교사의 전문적 성장(전문성 신장)’, ‘교수 행위(학습 지도)의 개선’, ‘교육과정 운영의 합리화’, ‘학교 경영의 합리화’, 그리고 ‘학생의 학습 환경 개선’ 등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장학에 관한 여러 표현에는 ‘지도 조언’이 중심적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²⁰⁾ 초·중등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학 지도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 초점이 있다고 하겠다.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 활동에서는 특히 학생의 자주적인 실천 활동을 중시하여, 교사와 학생이 공동 협의하거나 학생 자신의 힘으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게 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치활동은 학교의 규정에 따라 교육적 활동을 조직하고, 학생들이 담당할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학생 자치 활동뿐 아니라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전반을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학교 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며, 이에 관련된 제반 학칙이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제시되어 있으며, 장학 지도 실시 세부 계획 수립에 관하여서는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되어 있다.

(7)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제9조(평가) : 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육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학교생활 기록) :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 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 지도 및 상급 학교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0) 주삼환, ‘장학·교장론 특강’, (서울 : 성원사, 1988), p. 67~73.

장학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또한 장학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 점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학자들 간에 서로 다른 관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장학의 개념 정의에 대하여 ① 행정, ② 교육과정, ③ 수업, ④ 인간관계, ⑤ 경영, ⑥ 지도성의 여섯 가지 접근도 장학이 궁극적으로는 학교와 교실 내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정 또는 방법상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개념 정의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학의 개념은 ‘수업 개선과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도와주는 여러 교육 활동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학생의 학력에 대한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도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학업 성취도 평가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9 조는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 지방 교육 행정 기관과 학교에 대한 국가 수준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평가의 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 조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핵심적 사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이다.²¹⁾ 특히 학교 평가를 시행할 때에는 시책이나 사무 중심의 문서에 의한 형식적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수업 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질 관리 중심의 평가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 조는 평가 결과 기록 방법의 개선과 평가 자료의 활용에 관한 규정이다. 이와 같은 규정 외에도 헌법 제31 조와 관련하여 의무 교육, 취학 의무에 관한 사항이 초·중등교육법 제12 조부터 제16 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교장, 교감, 교사의 ‘학생 교육’에 대한 임무가 동법 제20 조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수업이나 학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관할청에서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동법 제63 조),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때에는 학교의 폐쇄(동법 제65조)까지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초·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교과, 학기, 수업 일수, 수업 운영 방법, 수업 시각 등 학사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 조~제13 조에는 학생의 평가, 평가 대상, 평가 기준, 평가 절차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1) 교과

제 43조(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개정 교육과정 편제에 제시된 국민 공통 기본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의 10 개 교과이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편제는 교과와 과목을 구분하여 교과를 더 광역 단위의 학습 영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²²⁾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 적용하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가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보통 교과는 인문·사회 과목군과 과학·기술 과목군, 체육 과목군, 예술 과목군, 외국어 과목군, 교양 과목군으로 나누어져 있다. 인문·사회 과목군은 국어와 도덕, 사회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과학·기술 과목군은 수학, 과학, 기술·가정에 관련되는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 과목군은 음악, 미술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또, 교양 과목군은 한문, 교양 관련 과목으로 구성되었다. 2007년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서의 예·체능 과목군이 체육 과목군과 예술 과목군으로 분리되어 5개 과목군이 6개 과목군으로 증대되었다.

(2) 학기, 수업 일수, 휴업일 및 수업 시각

제 44조(학기) : 학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 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 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 2 학기는 제 1 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45조(수업 일수) : 학교의 수업 일수는 학교의 장이 정한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 기술 학교 및 특수 학교(유치부 제외) : 매 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 학교의 운영 또는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47조(휴업일 등) : ① 법 제 2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22)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에서는 '교과'와 '과목'을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등은 '교과'로 지칭하고, 국어 교과는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의 '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과학 교과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등의 '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49조(수업 시각) :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 제 24 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동시행령 제 44 조에 제시되어 있다. 특히, 11, 12학년에서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단위 수는 1학기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의 개념이므로,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학기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²³⁾ 매 학년도의 법정 수업 일수는 220일 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10의 범위(22일)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주 5일 수업제의 운영은 이 조항을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 여름·겨울 및 학기말의 휴가 등이 휴업일로 규정되며, 비상 재해 등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장은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²⁴⁾ 또한 학교 일과에서 수업을 시작하고 끝나는 시각도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시간(단위) 배당 기준에는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서 학생들이 이수하여야 할 ‘연간 최소 수업 시수’ 또는 단위가 제시되어 있다. 학교에서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 수업 시수와, 학교에서의 필요에 따라 별도로 확보한 특별 활동 등의 수업 시수를 합하여 연간 총 수업 시수를 산출하고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3)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단위 수는 1학기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의 개념이다. 이러한 단위제의 기본 수업량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상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4) 학교의 수업 일수를 결정할 경우에는 ① 국경일에 관한 법률(1차 개정 2005. 12. 29. 법률 제7771호),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3차 개정 2006. 9. 6. 대통령령 제19674 호)에 의하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19차 개정 2006. 9. 6. 대통령령 제 19675 호)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③ 1월 1일, ④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⑤ (삭제), ⑥ 석가 탄신일(음력 4월 8일), ⑦ 5월 5일(어린이날), ⑧ 6월 6(현충일), ⑨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⑩ 12월 25일(기독교 탄신일), ⑪의 2. 공직 선거법 제 34 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⑫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학급 편성, 수업 운영 방법, 수료 및 졸업

제 46조(학급 편성) : 학교의 학급 편성은 같은 학년, 같은 학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 학급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 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 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정보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 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50조(수료 및 졸업 등)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농·어촌이나 도서 벽지 등에는 소규모의 소인수 학교 또는 학급인 경우 2개 학년 이상의 학생을 1 학급에 수용하는 복식 학급 운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6 조). 복식 학급을 편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의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준별 수업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의도, 교사,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편성할 수 있다.

재량 활동이나 특별 활동의 운영에서는 활동 주제의 특성, 계발 활동 부서의 선택과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학년이나 학급의 벽을 탈피하여 무학년제에 의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통합적인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협력 수업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수업에서는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서나 지도서 등과 같은 교과용 도서 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모든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의 교환, 교류 학습이나 학부모의 책임 아래 여행, 현장 견학, 답사 등과 같은 체험 학습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수업 일수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외 체험 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 규칙으로 정해 두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0 조에서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에 따라 수료 또는 졸업을 학교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 일수는 수업 일수의 2/3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졸업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의미한다.

Ⅱ.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²⁵⁾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변천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의 문제에 대해 먼저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 하나는 교육과정의 기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어떤 기준에 따라 시기 구분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교육과정의 기점과 시기 구분은 연구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학자들마다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본 해설서에서는 8·15 광복을 기점으로 하여 광복이후 정부가 법령 공포 또는 고시한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육과정기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전면 개정 여부에 따라 1차, 2차 등의 차수에 따른 구분 방식을 택하였고, 한 교육과정기의 시작 시점은 법령 공포 또는 고시 일자를 기준으로 하였다.²⁶⁾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와 교수 요목기를 포함하여 모두 9 차례 법령 공포 또는 고시되었다.²⁷⁾

〈표 Ⅱ-1〉의 구분에 따라 각 시기별로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대상은 인문계(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징에 대하여는 별도로 기술하였으며, 특수 학교와 대안 학교 등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25)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은 교육부(2001)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총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 보완하였으며, 제7차 교육과정 부분은 이경환, 박제윤, 권영민(2002)의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의 pp. 154-203에서 고등학교 부분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다.
- 26) 한 교육과정기의 시작 시점의 산정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동일한 시기에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교육과정 개정이 학교급에 따라 연차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학교급에 상관없이 최초 개정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학교급에 따라 교육과정 시기를 달리 적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제5차 교육과정의 경우 국민학교는 1987. 6. 30., 중학교는 1987. 3. 31., 고등학교는 1988. 3. 31.에 각각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이 경우 종전에는 제5차 교육과정기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1987년부터로 고등학교는 1988년부터로 각각 달리 적용하던 것을 이 기준에 따라 1987년으로 통일하였다. 같은 이유로 제3차 교육과정기의 시작 시점은 1973년으로 조정하였다.
- 27) 함중규(2004)는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와 교수 요목기를 합쳐 교수 요목기로 분류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변천은 제, 개정 시기에 따라 크게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 교수 요목기와 1~7차로 구분(교육부, 1995, 2000; 이경환 외, 2002; 허강 외, 2001)하고 있다. 1차, 2차와 같은 분류의 호칭은 제4차 교육과정기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곽상만, 2000: 265), 이러한 차수에 따른 구분은 전면 개정 여부만을 고려한 시간적 경과에 따른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II-1〉 우리나라 교육과정 변천 시기의 구분

구분	시기	비고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	1945 ~ 1946	
교수 요목기	1946 ~ 1954	
제1차 교육과정기	1954 ~ 1963	
제2차 교육과정기	1963 ~ 1973	
제3차 교육과정기	1973 ~ 1981	
제4차 교육과정기	1981 ~ 1987	
제5차 교육과정기	1987 ~ 1992	
제6차 교육과정기	1992 ~ 1997	
제7차 교육과정기	1997 ~ 2007	

1.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기(1945~1946)

우리나라는 8·15 광복으로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났으나, 미군이 국정을 잠정적으로 통치하게 되었다. 서울로 진주한 미군은 1945년 9월 10일부터 군정 장관 아놀드(Arnold, A. V.) 소장을 중심으로 중앙의 행정 기구를 조직하기 시작하였는데, 교육 부문의 책임자로는 락카드(Lockard, E. N.) 대위가 임명되었다.

그는 오천석의 추천으로 교육의 각 분야 지도자 7인(후에 3명 추가)으로 자문 기관인 한국교육위원회(The Korean Committee on Education)를 조직하고, 이 위원회의 건의로 미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을 1945년 9월 17일 일반 명령 제 4 호로 발표하였다.

학무국은 일반 명령 제 4 호를 개정하여 법령 제 6 호로 공포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공립학교의 개학(제1조) : 조선의 공립 소학교는 1945년 9월 24일 월요일에 개학할 것, (2) 교훈(敎訓)의 용어(제4조) : 조선 학교에서의 교훈 용어는 조선어로 함. 조선어로 상당한 교훈 교재를 활용할 때까지 외국어를 사용함도 무방함, (3) 과정(課程)(제5조) : 조선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하거나 실습하지 아니할 것 등의 지시였다(미군정관보, 1945. 9. 29).

중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는 9월 28일 각 도에 별도의 통첩을 보내 10월 1일부터 개교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이 통첩은, 중등학교 교과 과정은 별항과 같은 내용으로 하되, 실업학교는 중등학교 교과 과정 실업 과목을 넣어서 교수하도록 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1970: 160, 함종규, 1984: 26에서 재인용). 이 통첩에 의한 중등학교 교과목 편제와 시간 배당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교육에 대한 긴급조치기의 중등 학교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

(1945. 9. 30.)

교과 학년	공민	국어	지리 역사	수학	물리 화학	가사	재봉	영어	체육	음악	습자	도화	수예	실업	계
1 중학	2	7	3	4	4	-	-	5	3	1	1	1	-	1	32
고녀	2	7	3	3	3	2	2	4	2	2	1	1	1	-	33
2 중학	2	7	3	4	4	-	-	5	3	1	1	1	-	1	32
고녀	2	7	3	3	3	2	3	4	2	2	-	-	1	-	32
3 중학	2	6	4	4	5	-	-	5	3	2	-	1	-	2	34
고녀	2	6	3	2	4	4	3	4	2	2	-	1	1	1	35
4 중학	2	5	4	4	5	-	-	5	3	2	-	-	-	3	33
고녀	2	5	3	3	4	4	4	4	2	2	-	1	1	1	36

【주】 중학 : 남자 중등학교, 고녀 : 고등 여학교

(출처) : 국사편찬위원회, 자료 대한민국사 I, 서울 : 탐구당, 1970, p.173.을 인용한 유봉호, 한국 교육과정사 연구, 서울 : 교학 연구사, 1992, p. 284에서 재인용함.

이러한 교과 편제나 시간 배당은 일제 강점 말기의 중등학교 교과 및 시간 배당을 근간으로 하여 광복 직후 중학교를 개교하기에 앞서 갑자기 정한 것으로서 어떤 일관된 철학적 입장도 세우지 못한 채, 다만 일제의 잔재를 없애고 우리 민족의 손으로 자주적 교육을 하려는 염원 아래 임시로 정한 것이라 하겠다. 교과목은 일본 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수신과(修身科)를 폐지하고 새로운 민주 시민을 양성하는 공민과를 신설한 점, 일본어 중심의 국어가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인 국어로 바뀐 점, 일본 역사 대신 우리 국사로 대치시킨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교육부, 2000: 34).

당시의 중등학교는 현재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포함한 학제로 4년제였으며, 실업학교도 포함하고 있었다. 실업학교는 중등학교 교과 과정에 실업 과목만을 넣어서 교수하도록 하여, 인문계 중등학교와 실업학교 사이의 교과 편제상 차이는 실업 과목을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었다.

수업 시수는 1 주일에 32~36 시간으로 1 일 평균 5~6 시간 정도이며, 교과목의 중점은 국어가 7 시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영어, 수학 교과목의 비중이 컸다.

2. 교수 요목기(1946~1954)

교수요목기의 교육과정은 1946년 9월 20일 제정된 국민학교, 초급 중학교(중학교 전기 3년), 고급 중학교(중학교 후기 3년)의 교과 편제 및 시간 배당을 말한다.

교수 요목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급 중학교(중학교 4, 5, 6학년)의 교과 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 호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이 공포,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수 요목기의 고급 중학교의 교과 과정표는 <표 II-3>과 같다.

1946년 2월 13일에 학제가 6-6-4제로 개편이 되어 중등학교의 경우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광복 직후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교수 요목이 없었다. 다행히 국어는 조선어 학회에서 지어 낸 '중등 국어 독본'이 있었고, 국사는 진단 학회에서 마련한 '국사'가 있었으나, 여타 교과는 학교 자율적 또는 지역적 노력에 의하여 교수 요목을 만들고 교재를 마련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군정청 학무국에서는 1946년 2월 21일 '교수 요목 제정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 요목을 제정하였다.

조선 교육 심의회에서 결정된 새 학제가 적용되는 1946년 가을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군정청은 일부 교수 요목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1946년에 제정된 교수 요목을 분석해 보면, 국어와 영어 과목의 교수 요목은 교수 요지, 교수 방침, 교수 사항, 교수의 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나, 수학과 이과의 교수 요목은 제목만을 열거하고 있을 뿐 교수 목표나 지도시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표 II-3> 교수 요목기의 중학교 4, 5, 6학년 교과 과정표

(1946. 9. 20.)

필수 과목	제4학년	제5학년	제6학년
국 어	3	3	3
사 회 생 활	5	6	5
수 학	5	0	0
과 학	5	5	0
체 육 보 건	3~5	3~5	3~5
외 국 어	0~3	0~3	0~3
계	21~26	16~21	11~16
선택 과목			
국 어	2	2	2
사 회 생 활	(5)	(5)	(5)
수 학	0	5	5
과 학	0	0	5
외 국 어	5	5	5
음 악	1~3	1~3	1~3
미 술	1~3	1~3	1~3

심 실	리 업	0 5~18	0 5~20	5 5~25
합	계	39	39	39

- 【주】 1. 필수 과목 중 외국어는 영어로 하며, 선택 과목 중 외국어는 중어, 불어, 노어, 독어로 함.
 2. 선택 과목 중 사회 생활은 특수 경제 지리를 과하되, 매주 5시간씩 1년간 4, 5, 6 어느 학년에서든지 교수할 수 있으며, 또 어느 생도나 이를 선택할 수 있음.
 3. 실업은 농업, 상업, 공업, 가정, 경제, 기타 지방의 실정에 적용한 학과로 함.
 4. 선택 과목은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요하며, 그에 대한 설비 및 교수 내용은 국정 표준에 의할 것.
 5. 일주 15 시간 이상의 실업을 선택하는 자에 한하여는 체육·보건을 3 시간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 외국어를 필수로 아니 할 수 있음.

(출처) : 합종규, 미 군정 시대의 교육과 교과 과정, 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84, p. 30.

교과 과정표를 중학교 1, 2, 3학년 교과 과정표와 중학교 4, 5, 6학년 교과 과정표로 구분해서 편제한 이유는 당시의 학제가 중등 교육을 6년제의 한 학교로 만들 수 있는 한편 초급 중학교 또는 고급 중학교를 단설할 수 있도록 한 특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합종규, 1984: 30~31).²⁸⁾

교과 편제에서 특이한 점은 ① 공민, 역사, 지리가 사회 생활과로 통합된 점, ② 체육과 보건의 합쳐져서 체육·보건으로 된 점, ③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된 점 등이다.

이때의 교수 요목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의 지도 내용을 상세히 표시하고, 기초 능력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였다. 둘째, 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知力)의 배양 등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교육 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 애족의 교육을 강화하였다(문교부, 문교 개관, 1958: 126; 문교부, 1990: 3에서 재인용).

3. 제 1 차 교육과정기(1954~1963)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1 차 교육과정은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 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1955년 8월 1일 문교부령 제 44 호, 제 45 호, 제 46 호로 각각 공포된 국민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 과정을 말하며, 법령상의 명칭이 교

28) 학제는 6·6·4제를 근간으로 했으나 중등 교육에 있어서는 수업 연한 3년씩의 초급 및 고급 중학교와 6년제의 중학교를 두도록 하여 6·3·3·4제가 병존하는 형태를 취했다. 그 이유는 중등 교육을 2단계로 나눔으로써 경제 사정이 허용치 않아 고급 중학교까지 진학할 수 없는 가정의 자녀에게 초급 중학교만이라도 졸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데 있었다(한국 교육 십 년사 간행회, 한국 교육 십 년사, 풍문사, 1959, p.119.를 인용한 한국교육개발원, 한국 근대 학교 교육 100년사 연구(Ⅲ) - 해방 이후의 학교 교육 -, 서보 인쇄(주), 1998, p.15.에서 재인용).

과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교과 교육과정 시기 또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 시기라고 한다.

제 1 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총론에 해당하는 문교부령 제35호의 별표 4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와 각론에 해당하는 문교부령 제46호 고등학교 및 사범학교 교과 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1호로 개정,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제 1 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표를 제시하면 <표 II-4>와 같다.²⁹⁾

<표 II-4> 제1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

교과목		학년			내 용		
		시간 수	1년	2년		3년	
필수 교과	국어(I)	시간 140(4)	시간 140(4)	시간 105(3)	현대인의 국어 생활을 중심으로 하고 고전 일부를 넣음.		
	사회	일반 사회	105(3)	105(3)	35(1)	정치, 경제, 사회를 중심으로 하고 지리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민주 사회와 공민적 자질을 신장함.	
		도덕	35(1)	35(1)	35(1)	윤리, 도덕을 중심으로 예의를 올바르게 지도함.	
		국사	-	105(3)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역사를 연구함.	
	수학	140(4)	-	-	1차 함수, 2차 함수, 대수, 함수, 3각 함수, 기타 일반 교양으로 필요한 일반 수학의 기초를 연구함.		
	과학	140(4)	-	-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필수로 과한다.		
	체육	35(1)	35(1)	35(1)	건강에 필요한 사항의 연구와 도수, 육상경기, 구기, 기계 체조, 수영, 율동, 체력 검사 등의 실기 지도.		
	음악	140(4)			성악, 악기, 작곡, 감상에 대한 지도와 연구, 도화, 공작, 서도의 실기 및 그 감상에 대한 지도 연구함.		
	미술						
	실업·가정	105(3)	105(3)	105(3)	실업·가정에 관한 이론과 실기를 습득시킨다.		
소계	770(22)	490(14)	420(12)				
선택 교과	보통 과정	국어(II)	105(3)	105(3)	105(3)	현대문, 고전, 문법, 문학, 어학사, 문학사, 한문 등에 관하여 연구.	
		사회	세계사	-	105(3)		현대 세계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세계 문화의 유형과 그 발전의 역사를 고찰함.
			지리	105(3)		-	인문 지리를 중심으로 함.
		수학	해석	-	105~210(3~6)		수학(I)의 기초 위에 해석을 연구함.
			기하	-	70~140(2~4)		수학(I)의 기초 위에 기하를 연구함.

29) 법령 명칭에 특별히 '기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각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로 이해된다. 당시 문교부 장학관이던 심태진에 의하면 '시간 배당령'이라고 할 경우 전국이 똑같은 교육과정을 가지고 운영할 우려가 있어 '시간 배당 기준령'이라고 명명하여 하나의 기준임을 강조함으로써 각 학교에 다소간이라도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주어 지역 사회에 맞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다(김용만 외, 한국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1998, p. 66).

교과목		학년		1년	2년	3년	내 용	
		시간 수						
선택 교과	보통 과정	과 학	물 리	140(4)			필수에서 선택하지 않는 과목 중에서 선 택한다.	
			화 학	140(4)				
			생 물	140(4)				
			지 학	140(4)				
	과 정		교 련	140(4)	140(4)	140(4)	남자 학생에게는 필수로 과한다. 군사에 관한 지 식과 기술을 훈련하여 아울러 심신의 단련을 꾀함 논리, 철학 개론, 교육 원리, 교육사, 교육 심리학, 교육 방법 등 중에서 그 기초를 연구함.	
			철학·교육	-				
			체 육	0~210(0~6)				체육, 음악, 미술 중에서 선택함.
			음 악					
			미 술					
	외 국 어	영 어 독 일 어 불란서어 중 국 어	0~175 (0~5)	0~175 (0~5)	0~175 (0~5)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중에서 하나 또는 둘을 선택하되 문장, 문법에 대한 기초 능력, 회화 능력 및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0~420 (0~12)	0~770 (0~22)	0~770 (0~22)			
			실업, 기타 전문 에 관한 교과	0~420 (0~12)	0~770 (0~22)		0~770 (0~22)	
	특별 활동			70(2)	70(2)	70(2)		
총 계			1190~1365 시간 (34~39)	1190~1365 시간 (34~39)	1190~1365 시간 (34~39)			

【주】 괄호 내의 숫자는 매주 평균 수업 시간량을 표시함.
 (출처) : 문교부령 제35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별표 4, 고등학교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 1954. 4. 20.(공보처, 관보, 호외, 1954. 4. 20, pp. 3~4.)

교수 요목은 짧은 기간에 요목을 제정하느라 다른 교과와의 일관성 결여 등 임시방편적인 성격
 이 강하여 1948년 정부 수립과 1949년 교육법 제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졌다. 교육법 제 155 조에 의하면 “대학, 사범 대학, 각종 학교를 제외한 각 학교의 학
 과,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각 교과의 교수 요지, 요목 및 수업 시간 수는 문교부령으로 정한다.”고 되
 어 있어 문교부는 이러한 교육법에 근거하여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교육과정 제정에 착수하였다.

6·25 전쟁을 겪게 되면서 그 계획은 일단 중단되었으나, 정부가 부산에 옮겨져 있던 1953년 교육과정 개정을 계속하기로 하고 교육계 및 기타 각계의 권위자를 망라한 교육과정 전체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전후 29회의 토의를 거쳐 교수 요목기의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제 1 차 교육과정 제정의 기본 원칙 수립을 통해 각급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을 작성하고, 1954년 4월 20일 문교부령 제 35 호로 공포하였다.

시간 배당 기준령이 정해지자, 이의 후속 작업으로 교과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과정 전체 위원회가 세운 기본 원칙에 따라 각 교과 과정을 성안하여 전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55년 8월 1일 각급 학교 교과 과정을 공포하였다.

이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제 1 차 교육과정이라 부른다.

제 1 차 교육과정기는 흔히 교육과정 개념상 교과 교육과정 강조의 시기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 이유는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 2 조에 “본령에서 교육과정이라 함은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를 말한다.”라고 한 규정과 문교부령 제 46 호가 공포된 관보(공보실, 관보 제1374호, 1955. 8. 1)에 “고등학교 및 사범 학교 교과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로 되어 있는 등 법령상의 명칭에 교육과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교과 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고등학교 교과 과정의 머리말에 있는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에는 당시의 ‘교과 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이에 따라 편찬될 교과용 도서는 본 과정의 지도 목표와 내용을 구현함에 힘쓸 것이며, 본 과정의 세밀한 검토 아래, 지도 범위와 정도를 조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서의 활용은 본 과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다루어질 수 없으며, 모든 학습 자료도 본 과정의 취지 아래 이용되어야 한다 ...” (교육부, 1999: 194).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이나 목표는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교과 과정의 머리말에 제시된 ‘본 과정 제정의 기본 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9: 192-194).

첫째, 사회를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계획안이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실 생활을 개선 향상시킬 수 있는 포부와 이념을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둘째, 육성하여야 할 인간의 구체적 자태를 밝히고 그 구현 방법을 표시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를 구현할 방도로서의 계획안이 되도록 하였다.

셋째, 학생의 인격 발달의 과정과 그 주요한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내용을 학생의 심신 발달 과정과 생활 이상에 맞도록 배열하였다.

넷째, 내용은 적절 필수의 최소량이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내용은 극히 필요 적절한 것에 그쳐, 그 수와 양을 최소한도로 제한하여야 한다. 따라서 엄선한 최소량의 것으로 하여 학습의 부담을 경감하며, 그 중복, 혼란, 과중을 막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은 유기적 통일체로서 각 내용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과거의 교육은 단편적 지식인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여기에서는 전인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으로서 학생의 각 방면의 욕구를 고루 충족하며, 그 개성을 최고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교육과정의 내용은 시대와 지역의 요구에 적응하여야 한다. 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특히 요청되는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등이 강조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리도록 유의하였다.

일곱째, 교육과정은 융통성이 있고,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부령으로서 시행되는 것이지만, 그 내용은 풍부한 자료 단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과정 운용상의 주의'에는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교육 계획과 교과 경영의 기준이라 하고, 각 학교는 이 기준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사회의 특수성과 학생의 실정에 알맞은 독자적 연구와 창의를 기하여야 함을 강조하여 밝히고 있다(교육부, 1999: 194).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 1 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선형 6-3-3-4 학제의 기본 취지를 교육과정령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는 단일 교육과정을 제시하였다. 단일 교육과정을 제시한 이유는 단선형 학제에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는 교육 이념은 교육의 기회 균등으로 학생들에게 계열에 관계없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인문계와 실업계를 구분하여 계열에 따라 서로 다른 교과목을 배우거나 교과목의 시간 배당을 달리한다면, 인문계 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실업계 학생은 인문계 계통의 상급 학교 진학의 기회를 제약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유봉호, 1992: 319). 이러한 이유로 인문 고등학교와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구성을 같은 표로 구성하여 최소한도의 필수 과목을 공통으로 함으로써 정도의 차이나 질적인 저하를 없이 하는데 유의하였다(김용만, 2000: 172).

둘째, 필수 교과 외에 선택 교과를 두어 학생들 각자의 적성 및 취미 등에 따라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선택 교과는 학교장이 선택 결정할 수도 있고 학생으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교과와 과목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교과에 대하여는 「과」라는 말을 붙이기로 하고, 과목에 대하여는 「과」라는 말을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교육부, 1999: 195). 예컨대 과학은 교과이므로 「과」를 붙여 과학과라 부르고, 그 안에 속한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과학 교과에 속한 하위 과목이므로 「과」를 붙이지 않는다.

셋째, 교육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교과 이외의 교육 활동으로 특별 활동이 편성되어,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2개 영역으로 처음 편제되었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6조에 의하면 특별 활동이라 함은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 활동을 말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공보처, 관보 제1095호, 1954. 4. 20).

- (1) 집회 기타 민주적 조직하에 운영되는 학생 활동에 관한 것
- (2) 학생의 개인의 능력에 의한 개별 성장에 관한 것
- (3) 직업 준비 및 이용후생에 관한 것
- (4)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

넷째, 반공·도의 교육이 사회 생활 과목에서 단원 수준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회과에 도덕 과목을 신설하여 매 학년 연간 35시간(주1시간)을 필수로 이수하게 하였다.

다섯째, 교과 시간 배당에 있어 사회(국사, 세계사, 지리), 과학(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악, 미술 등의 교과목의 경우에 2년 또는 3년간 이수할 총 시간수로 제시하고 있어 어느 정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으며, 선택 과목 중 수학(해석, 기하), 외국어 등 일부 교과목의 경우 교과별 기준 시간을 급간으로 표시하여 선택 과목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여섯째, 실업·가정과의 교과 과정은 일반 고등학교를 주로 한 것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실업·가정과를 선정할 때에는 농업, 공업, 수산업 및 가정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되고, 그 이상의 실업 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에서 적당히 선택하도록 하였다. 실업 고등학교 기타 전문 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 전문 과정 중 실업 기타 전문에 관한 교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제22조에 의해 따로 문교부령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기준은 1958년에 이르러서야 제정되었다.

제1차 교육과정은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교육과정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그것은 듀이의 진보주의 교육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문교부, 1988: 170). 그러나 제1차 교육과정은 법적으로 처음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아직도 교육과정을 ‘가르칠 내용의 열거’라는 의미의 교수 요목(course of study)으로 간주하고 있었다(유봉호, 1992: 319).

라. 부분 개정

1956년 4월 24일 문교부령 제53호로 야간제 고등학교(야간 수업을 하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표를 제정하였다. 야간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교과목은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국어, 수학, 과학 등의 교과 이외의 일부 교과목에 대해 이수 시수를 감축하여 줌으로써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1958년 6월 5일 문교부령 제 76 호로 문교부령 제35호의 제22조를 개정하여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를 공포하고³⁰⁾, 실업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교과 시간 배당 기준, 각 학과에서 반드시 선택해야 할 교과목을 <표 II-5>와 같이 예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실업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전문 과정 중 실업 기타 전문에 의한 교과의 선택과 그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였다. 계열은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계, 가정계, 예술계로 구분하였다. 둘째, 각 계열별 학과에서 반드시 선택하여야 할 필수 선택 교과목의 명세표를 제시하였다. <표 II-5>의 예시표에 의하면 각 학교의 장은 수업 시간 배당에 있어서 공통 필수, 전문 교과(필수, 선택)로 나누어 편성하되, 실업 기타 전문 교과에 대하여는 계열별 필수의 경우 제 1 학년에서는 연간 315 시간, 제 2 학년과 제 3 학년에서는 각각 연간 385 시간 이상의 시간을 배정하도록 하였다.

<표 II-5> 제1차 교육과정기의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 예시표

(1958. 6. 5.)

교과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계	내용
공통 필수	전문 이외의 일반 교과	665(19)	385(11)	315(9)	1,365(39)	국어, 사생,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부령 제35호 별지 4에 의함)
	교련	140(4)	140(4)	140(4)	420(12)	
	특별 활동	70(2)	70(2)	70(2)	210(6)	
	소계	875(25)	595(17)	525(15)	1,995(57)	
전문 교과	필수	계열별 필수	315(9)	385(11)	385(11)	1,085(31)
	선택	계열별 선택	0~175 (0~5)	210~285 (6~11)	280~455 (8~13)	490~1,015 (14~29)
합계		1,190~1,365 (34~39)	1,190~1,365 (34~39)	1,190~1,365 (34~39)	3,570~4,095 (102~117)	

【주】 공통 필수는 실업 고등학교로서의 공통적인 필수 교과이며, 전문 교과 중 계열별 필수는 농업 필수 등과 같이 각 계열별로 지정한 필수 교과를 말한다. 예시표에는 전문 교과의 경우 각 계열별로 교과와 배당 시간이 예시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전 계열의 공통 부분만 발췌하여 재구성하였다.

(출처) : 문교부, 실업 고등학교 및 기타 전문 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문교부령 제35호, 제 22조), 1958. 6. 5.(유인물), pp. 3~10.

30) 공보실, 관보, 호외(기2), 1958. 6. 5. pp. 1~9.

4. 제 2 차 교육과정기(1963~1973)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2 차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 119호, 제 120호, 제 121호, 제 122호로 제정, 공포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를 경험 중심 교육과정 또는 생활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

제 2 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제122호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 350 호로 개정, 공포된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으로는 교육과정의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교육부, 1999: 196).

첫째, 구 교육과정은 6·25 전쟁과 휴전 성립 직후에 제정되었고, 그 후 상당한 시일도 경과되었다. 그동안 문화는 발달되고 국내의 정세는 급격히 변동되어 사회 생활의 양상은 크게 변화하였으므로 전면적으로 개정하여야 하게 되었다.

둘째, 구 교육과정은 제정 당시의 비정상적인 사회 상태와 여러 가지 애로나 제약으로 충분한 내용 설정을 하지 못하였고, 자주적이고 구체적인 한국 고유의 교육 목표도 설정하지 못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도 단편적인 지식의 주입에 편중된 나머지 인격의 도야에 소홀하였고, 학습 활동도 표방하는 경험주의와는 멀리 실생활과의 유리가 심하여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1958년부터 교육과정 개정에 대한 기초 조사를 하며 자료 수집에 힘써 오던 중, 5·16 군사 정변을 계기로 하여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여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으로 공포하였다.³¹⁾

생활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비교적 서로 단절된 일군(一群)의 교수 요목이나 지적인 체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가지는 경험의 총체’로 보고 있다. 즉, 교과 중심 교육과정에 있어서 교육과정은 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말하나, 생활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경

31) 1963년 문교부령 제121호로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6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1964년 교육 제도 심의회 규정이 공포되어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자 시행일을 1966년 3월 1일로 1년 연기하였다(문교부령 제127호, 1963. 8. 1.) 1966년에 폐지하였다(문교부령 제169호, 1966. 2. 14.). 그러나 학제 개편 문제가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1966년 7월 15일 문교부령 제173호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으로 부활되어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시행에 대해 연기, 폐지, 부활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문교부령 제121호와 문교부령 제173호가 동일하였다. 1967년 4월 15일에는 문교부령 제181호로 교육과정령을 제정하여 이제까지 각각 별도로 제정, 공포되었던 각급 학교 교육과정령을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은 폐지되고 교육과정령에 통합되어 별책 3으로 되었다.

험 자체를 교육과정이라고 본다.³²⁾ 이러한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은 제 2 차 교육과정의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 특히 총론의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에서 “교육과정은 곧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험 여하에 따라 그들이 어떤 인간으로 성장하게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다(교육부, 1999: 202).”라고 교육과정을 정의하고 그 성격을 밝히고 있다.

또,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의 내용, 교육과정의 조직, 교육과정의 운영 면에서 각각 강조점을 두어 생활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고 있다.³³⁾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에서는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 (1) 자주성의 강조에서는, 교육을 통하여 형성하려는 인간상은 막연하고도 보편적인 민주적 공민이 아니라,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을 기르려고 하였다.
- (2) 생산성의 강조에서는, 종전의 소비 생활에 편중되었던 학습 내용을 재검토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만들고, 먹고, 입고, 사는 데 필요한 적당한 방법을 습득시켜 우리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태도와 기능을 길러 나가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 과학 기술의 습득과 실업 및 직업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학습 경험을 충분히 계획하도록 힘썼다.
- (3) 유용성의 강조에서는, 교육 내용과 방법은 일상 생활과 직결되도록 하고, 학습 지도는 지식(이해)의 습득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기능)의 습득과 인격(태도)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국가 사회의 절실한 요구, 학생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통하여 교육함으로써 쓸모 있는 사회인이 되게 하고, 또 자활할 수 있는 실천인의 육성을 강조하였다.

둘째, 교육과정의 조직에서는 합리성을 강조하였다. 교육과정 구성에 있는 과학적인 원칙을 적용하고, 각급 학교 간의 연결, 각 학년 간의 관련, 각 교과와 계통적 발전 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원칙에 따라 학생의 성장 발달에 적용될 수 있는 통일성 있고, 계통적 발전성을 보장해 주는 역동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교육의 효율성이 배가될 수 있다고 하였다.

셋째,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지역성을 강조하였다. 학교 교육은 지역 사회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 사회의 학교는 국가적 기준에 의거하여 각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도

32) 이홍우 외,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문교부 정책 연구 보고서, 1979, p.24.

33) 공보부, 관보, 호외, 1966. 7. 15, p.1.

록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사회의 모든 자원을 학습 경험에 효과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학습 경험의 결과는 민주 사회에 봉사하는 개성을 지닌 인간으로 지역 사회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에는 일반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는 각 학교에서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 2 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당시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는 인간상의 특징과 구현을 위한 기본 방향을 교육과정 구성의 일반 목표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³⁴⁾

- (1) 민주적 신념이 확고하고 반공 정신이 투철하며, 민주적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독립 자존의 민족적 기풍과 아울러 국제 협조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
- (3) 일상 생활에서 당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지식과 유용한 기능 및 과학적 생활 태도를 기르는 데 직결되는 학습 경험을 포함하여야 한다.
- (4) 가난을 극복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학습 활동을 충분히 포함하여야 한다.
- (5) 건전한 정신과 강건한 신체를 가진 국민을 양성하는 데 직접 기여할 수 있는 학습 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 (6) 국민 생활을 순수하고 명랑하게 하는 심미적인 정서 생활을 위하여 풍부한 개성을 개발하여야 한다.
- (7) 형식적, 추상적 지식에 치우쳤던 반공·도덕 교육을 쇄신하여 일관성 있게 지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적 교육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과정 개정의 요점’에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하여 학교에 반영시키도록 하였다.³⁵⁾

- (1) 기초 학력에 충실을 기한다. 각 교과에 걸쳐 교육과정의 내용은 필요 불가결한 최소 한도의 요소를 엄선하여 기초 학력을 충실히 하도록 한다.
- (2) 교육과정의 계열을 합리화하여, 각 학교 사이에 일관성을 지니도록 한다. 각 교과를 통하

34) 공보부, 관보, 호외, 1966. 7. 15, pp. 2~4.

35) 공보부, 관보, 호외, 1966. 7. 15, p. 4.

여 학년 간의 횡적 연관을 취하고, 학년을 통한 종적 체계를 세워 동질적인 중복을 피하도록 한다. 한편, 교과 내용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학년별 목표를 세우고, 각급 학교 사이의 지도 내용을 일관성 있게 선정하여 발전적 계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다.

- (3)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 경영을 지향하여 관련성 있는 교과의 종합 지도를 강조한다.
- (4)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의 우리나라 실정으로는 완전히 단위제를 실시하기는 곤란하나, 고등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학생의 진로에 맞는 융통성을 주어, 더욱 국가적으로 유용성 있는 교육이 되도록 과목 선택의 융통성을 준다.
- (5) '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관리 교육은 제 1 차 교육과정에서도 실시하였으나, 제 2 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필요한 단원을 설정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실업, 가정 교과에서 체계화하여 교과목을 설정한다.
- (6) 시간 배당 계획의 융통성을 주도록 한다. 계열별 선택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의 실정을 반영시킬 수 있게 한다.
- (7) 교육과정 내용을 서술하는 형식을 통일한다. 각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과별 목표, 학년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하고 서술의 방법도 통일하기에 힘썼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의 개정 요점'에서는 교육과정의 계열화와 학교급별 계열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 학습을 강조하고 필요 불가결한 최소의 내용 요소를 엄선하여 기초 학력을 충실히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학교급 간의 연계성(articulation)과 아울러 교과 간의 통합성(integration)을 강조하여 교육과정의 계열화와 학교급별 계열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 학습이 되도록 하였고, 필요 불가결한 최소의 내용 요소를 엄선하여 기초 학력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으며, 관리 교육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과에서 필요한 단원을 설정하도록 하였다(문교부, 1989: 26~27).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 2 차 교육과정은 제 1 차 교육과정기에는 별도로 공포했던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과 '교과 과정'을 합쳐 일련의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으로 공포함으로써 교육과정령으로서의 체제를 갖추었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명칭도 '교과 과정'에서 '교육과정'으로 변경함으로써 교육과정이 교과 활동뿐 아니라 학교 교육의 전 활동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의 전체 구조에 대한 계획이란 뜻으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는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고, 총론에서는 각급 학교에 공통되는 개정의 취지, 일반 목표, 개정의 요점을 제시한 다음, 학교 급별로 시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교과 활동, 특별 활동별로 운영 계획이나 지도상의 유의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각론에서는 각 교과별로 개정의 요점, 목표, 지도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누어 진술하여 체제면에서 통일된 형식을 갖추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전개 체제를 갖추므로써 제 2 차 교육과정은 적어도 체제면에서는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었다(문교부, 1989: 27).

제 2 차 교육과정의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 지도 계획은 원칙적으로 단위제에 의하도록 하였다. 단 학교의 실정이 단위제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학년제, 또는 단위제와 학년제를 병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위제는 학년제에 대비되는 말로서 고등학교의 경우에 적용되며, 3 년간에 이수해야 할 교과별 단위 수만을 기준으로 제시해 주면 학교는 이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표 II-6>은 고등학교 3 년간에 이수해야 할 총 단위 수를 과목별로 표시한 것이며, 여기서 1 단위는 50분을 단위 시간으로 하여 한 학기(18 주 기준) 동안 18 단위 시간을 이수함을 말한다.

배당 기준표에 제시된 이수 교과목 및 이수 단위 수는 각 과목별로 3 년간 이수하여야 할 총 단위 수를 표시하고 있어 학년별 이수 단위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였다.

<표 II-6> 제2차 교육과정기의 인문계 고등학교 교과 과목 단위 시간 배당 기준표

(1963. 2. 15.)

교과	과목	단위수	교과	과목	단위수	
국어	국어 I	24	음악	음악 I	6	
	국어 II	18	음악 II	42		
미술			미술 I	6		
	문법(4) 한문(6) 고전(4) 작문(4)		미술 II	42		
사회	일반 사회	4	실업	농업	농업 일반 관리 기타 과목	14
	반민치경	4			4	
	사윤계사	4		공업	공업 일반 관리 기타 과목	14
	국세지리	6				4
	계리사 I	6		수산	수산 일반 관리 기타 과목	14
	계리사 II	6				4
수학	공통수학 I	8	상업	상업 일반 관리 기타 과목	14	
공수수학 II	26	4				
과학	물리 I	6	가정	가정 일반 관리 과목	14	
	물리 II	12			4	
	화학 I	6			38	
	화학 II	12	외국어	영어 I 영어 II 독어 불어 중국어	1 과목 또는 2 과목	18
	생물 I	6				30
	생물 II	6				
체육	체육	24				

(출처) :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2. 15.(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총론 -(1954~1997), 서울 : 대한 교과서(주), 1999, pp. 209~210).

〈표 Ⅱ-6〉에 제시된 교과목별 단위 수를 보면, 계열의 구별 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으로 이수하여야 할 공통 과목의 단위 수는 104 단위이다. 그리고 인문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100 단위를, 자연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110 단위를, 직업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은 104 단위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예능 과정을 선택하는 학생을 위한 교과와 단위 수는 특별히 제시하지 않고, 인문 과정에 준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직업 과정에 제시된 실업 교과목의 과정은 실업 고등학교의 실업계 교과 교육과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과정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제 2차 교육과정기에 처음으로 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하나의 공식적인 제도로 도입되어 모든 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직업 선택에 따라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예능 과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³⁶⁾ 즉, 학교는 진학 희망자를 위해서는 인문 과정과 자연 과정 또는 예능 과정을, 그리고 비진학자를 위해서는 직업 과정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과정은 1학년 수료 후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1학년에서는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이수하고, 2학년 이상에서는 장래의 희망에 따라 계열별 선택을 하도록 하였다.

제 1차 교육과정기에는 필수 교과 외에 선택 교과를 두어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으나,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과정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과정 선택에 따라 이미 편성된 과목을 자동으로 선택하게 되는 체제였다. 다만 과정 내에서는 실업 교과와 외국어 교과의 경우에 한하여 주어진 과목들 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과정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 과목 단위 시간 배당 기준은 〈표 Ⅱ-7〉과 같다.

셋째, 특별 활동은 제 1차 교육과정기와 같이 시간 배당 기준표에 명시하지 않고, 총 단위 시간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배당 시간 안에서 충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인문 과정의 경우 204 단위의 10%인 20 단위 이상을 특별 활동 시간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공통 과목과 인문 과정에 주어진 각 교과목의 배당 시수를 조절하여 특별 활동 시간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때 한 과목에서 배당된 시간의 5분의 1 이상을 특별 활동 시간으로 충당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넷째, 제 1차 교육과정기에는 음악, 미술 교과는 선택하여 한 과목만 이수하는 것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제 2차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수도 증대시킴과 동시에 두 과목 모두를 모든 학생들이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 교육을 강화하였다.

다섯째,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을 부여하였다. 제 2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서 지역성을 강조하며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서 처음으로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이 있음을 명

36) 제2차 교육과정 이전에는 국가 교육과정에 과정 개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 학교별로 필요한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배재고등학교(1955)는 3학년에서 이과(理科), 문과(文科), 상과(商科)로 구분하여 운영하였으며, 청량종합고등학교(1961) 인문과의 경우 인문계, 이공계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1: 635, 744).

시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일반적 기준임을 밝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려면 각 학교는 국가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각 지역 사회의 실정에 맞도록 학교 교육 과정을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여 충분한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표 II-7〉 제2차 교육과정기의 과정별 이수 교과 과목 단위 시간 배당 기준

공통 과목		인문 과정		
국 어 I	24 단위	국 어 II	18 단위	
일 반 사 회	4 "	정 치 · 경 제	4 "	
국 민 윤 리	4 "	지 리 II	6 "	
국 사	6 "	수 학 I	12 "	
세 계 사	6 "	물 리 I	6 "	
지 리 I	6 "	화 학 I	6 "	
공 통 수 학	8 "	지 학	4 "	
생 물 I	6 "	농 업 일 반	14 "	
체 육	24 "	공 업 일 반		
음 악 I	6 "	수 산 일 반		(남) 1 과목
미 술 I	6 "	상 업 일 반	14 "	
일 반 관 리	4 "	가 정 일 반(여)		
		외 국 어	30 "	
		(영어 II, 독어, 불어, 중국어 중에서 1 또는 2 과목)		
계	104 단위	계	100 단위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지 리 II	6 단위	한 문	6 단위	
수 학 II	26 "	작 문	4 "	
물 리 II	12 "	정 치 · 경 제	4 "	
화 학 II	12 "	지 리 II	6 "	
생 물 II	6 "	수 학 I	12 "	
지 학	4 "	물 리 I	6 "	
농 업 일 반	14 "	화 학 I	6 "	
공 업 일 반		(남) 1 과목	지 학	4 "
수 산 일 반			농·공·상·수산 각 과목 중(남)	38 "
상 업 일 반		가 정(여)	38 "	
가정 일반(여)	14 "	(또는 가정 일반 14 단위와 농·공·상·수산 과목 중 24 단위)		
외 국 어	30 "	영 어 I	18 "	
(영어 II, 독어, 불어, 중국어 중에서 1 또는 2 과목)				
계	110 단위	계	104 단위	

(출처) : 문교부령 제121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2. 15.(교육부, 초·중·고등학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총론-(1954~1997), 서울: 대한 교과서(주), 1999, pp. 211~213).

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2 차 교육과정기인 1963년 2월 15일 문교부령 제 122 호로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처음 제정되어 실업계 고등학교는 1963년 3월 1일부터 인문계 고등학교와는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었다. 제 2 차 교육과정기의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앞에서 설명한 사유에 의해 196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실업계 고등학교만은 공포된 대로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정부 방침이 산업 기술의 조속한 진흥을 위하여 실업 기술 교육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였기 때문이었다(곽상만, 2000: 265). 실업계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목의 종류에 따라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정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고등학교로 분류되는데, 이 모든 학교의 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표 II-8>과 같다.

<표 II-8> 제2차 교육과정기의 실업 고등학교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표

(1963. 2. 15.)

보 통 교 과 목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계	가정계
필수 교과목	선택 교과목	단위 수	단위 수	단위 수	단위 수	단위 수
국 어 18	수 학	8~16	8~16	8~16	6~16	6~12
일반 사회 및 6	생 물	4~6		6~16	8~16	4~6
국 민 윤 리	화 학	4~6	4~8	3 과목 중	2 과목 중	2~4
국 사 4	물 리	2~6	4~8	1 혹은 2	1 혹은 2	2~4
공 통 수 학 8	지 리	2~6	2~6		2~6	2~6
일 반 관 리 4	정치·경제	2~4	2~4		0~4	2~4
체 육 12	세 계 사			4~6		
	음악 또는 미술	2~6	2~6	2~6	2~6	4~6
	외 국 어	14~24	14~24	18~30	12~24	12~24
이수 단위 52	이수 단위	38~50	36~48	38~50	30~37	38~50
보통 교과목 소계		90~102	88~100	90~102	82~89	90~102
전문 교과목(필수, 선택) 소계		102~120	112~122	102~120	115~133	102~120
총계		204~222 (주당 34~37시간)	204~222 (주당 34~37시간)	204~222	204~222	204~222

(출처) : 문교부령 제122호,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2. 15.(문교부,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pp. 16~263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이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175호(1966. 10. 4)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령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전문 교과목은 변함이 없었다.³⁷⁾³⁸⁾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을 제정하게 된 취지를 살펴보면 그동안 각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문교부령 제35호 제22조에 의한 ‘실업 고등학교 및 기타 전문 과정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에 의해 작성되고, 또 교육법 제156조에 의하여 30% 이상의 실업 과목을 과하여 왔다. 그러나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에는 각 학교별 과목 총 시간 수와 과목 내용이 간단히 설명되어 있을 뿐이고, 교과의 지도 목표나 내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다. 따라서 각 실업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작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됨이 없이 각 학교별로 관례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각 학교에서 실천해 온 경험 등을 종합하여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작성하게 되었다.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의 제정 방침을 살펴보면,³⁷⁾

첫째, 실과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국가와 민족의 현실을 이해하게 하고, 장차 실업에 종사할 유능한 생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업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업량의 50% 이상을 실험 실습을 중심으로 한 실업 교과 학습 활동에 충당하도록 하였다.

둘째, 초·중·고등학교 간의 일관성이다. 교육과정 계열을 합리화하여 초·중·고등학교 사이에 일관성을 지니도록 하였다. 한편, 각 교과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같은 학교의 학년별 및 각급 학교 사이의 지도 내용을 중복이나 비약 없이 확립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발전적 계통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용성의 중시이다. 이론적 지식의 나열을 피하고, 당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실용성 있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게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목은 가급적 폐합 조정하여 지도하기 용이하게 하고, 보통 교과목은 민주적이고 건전한 국민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교과목만을 선정하였다.

넷째, 지역성의 강조이다. 지역 사회의 절실한 필요와 요구, 학생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과제를 중심으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이 편성되도록 하였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교과의 내용과 단위수에 많은 폭을 두고,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창의적 교육 활동을 존중하였다.

다섯째, 단위제 채택과 시간 계획의 융통성이다. 단위제를 채택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실업 고등학교 교육의 획일성을 지양하고 학생의 진로에 맞는 융통성을 주어 더욱 국가적으로 유용성 있

37) 1967년 4월 15일 문교부령 제181호로 교육과정령을 제정하여 각각 별도로 제정, 공포되었던 각급 학교 교육과정령을 통합하였다. 이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은 폐지되고 교육과정령에 포함되어 별책 4로 되었다.

38) 전문 교과목뿐만 아니라 보통 교과목의 경우도 필수 교과목은 교과목 및 이수 단위에 변함이 없었다. 다만 선택 교과목의 경우 상업계와 가정계에서 일부 개정이 있었는데, 상업계의 경우 정치·경제(2~6)를 신설하고, 외국어 이수단위(18~30)를 16~30으로 감축하였다. 가정계의 경우 음악 또는 미술(4~6)을 음악(4~6), 미술(4~6)로 조정하였다.

39) 공보부, 관보, 제4464호, 1966. 10. 4, p. 2.

는 교육이 되도록 교과목 선택의 융통성을 주었다.

한편, 특별 활동, 기타 교내 활동은 학교의 자율적 계획 밑에 융통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 활동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유의점에서 총 이수 단위수의 5% 이상을 배당하되, 총 이수 단위수 안에서 배당하여야 하며, 보통 교과목과 전문 교과목의 어느 한쪽에서만 충당하지 않도록 하였다.

마. 부분 개정

1969년 2월 19일 문교부령 제207호에 의해 교련 교과가 신설되었다. 교련은 제 1 차 교육과정기에 주당 4시간씩 남학생에게 필수로 이수시켰으나, 1963년 제 2 차 교육과정 공포시에는 편제에서 빠졌었다. 그러나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 울진·삼척 무장 간첩 침입 사건, 프예블로호 납치 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 안보와 반공 교육 강화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196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⁴⁰⁾ 이를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는 공통 과목 이수 단위를 조정하여 체육을 24단위에서 18단위로 줄이고, 교련을 12단위 신설하여 총 이수 단위는 104단위에서 110단위로 늘어나게 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보통 교과목 중 필수 교과목에서 체육을 12단위에서 8단위로 줄이고, 교련 12단위를 신설하여 필수 교과목의 이수 단위는 52단위에서 60단위로 8단위가 늘어나게 되었다.

1969년 9월 4일 문교부령 제 251 호로 개정이 있었는데, 1968년 국민 교육 현장의 선포,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및 대입 예비 고사제 실시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 작업을 하기로 하였으나, 우선 가장 긴급을 요하는 것을 부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과 한글 전용 계획 등 정부 시책과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여 197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 개정령에 의하면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은 교과 활동, 생활 지도, 반공 도덕 및 학교 행사를 통하여 구현하도록 하였다. 편제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국어 I에서 한자 교육 부분을 삭제하는 한편, 국어 II에 있는 한문 과목을 6단위에서 8단위로 증대하여 국어 II의 이수단위가 18단위에서 20단위로 2단위 늘어났다. 이는 1970년부터 한글을 전용하는 계획에 따라 한문 교육은 더 강력히 추진하되 국어 시간만은 한글 전용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40) 다만,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전주, 광주, 대구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의 시행일은 따로 문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공보부, 판보, 제5181호, 1969. 2. 19, p. 7).

둘째, 사회 교과 내의 국민 윤리 4 단위를 반공 및 국민 윤리 6 단위(실업계 고등학교는 5단위)로 하고, 그 중 반공을 위한 교육 활동 2 단위, 국민 윤리 4 단위(실업계 고등학교는 3단위)로 재배정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셋째, 실업·가정 교과의 단위 수를 조정하여 실업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남·여 공히 필수인 기술 과목을 신설하고, 일반 관리 과목을 산업 일반 과목으로 변경하여 모든 학생에게 필수로 부과하는 것 외에, 공업에 관한 내용 중 기초적인 것을 선정한 기초 공학 과목을 신설하여 남학생은 과정별 선택에서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제 2 외국어 과목에 에스파나어를 신설하였다.

다섯째, 특별 활동의 시간 배당이 전체 교과 활동의 비율로 제시(10% 이상, 실업계의 경우 5% 이상)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특별 활동 시간 배당을 단위로 제시(18 단위 상당 이상, 실업계의 경우 10단위 상당 이상)하고, 그 내용도 학급 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집단 활동으로 구체적인 영역을 신설하였다.

그 결과 각 과정별 총 이수 단위도 늘어나게 되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의 단위 배당을 비교해 보면 <표 II-9>와 같다.

<표 II-9> 1963년과 1969년의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 단위 배당 비교

과 정 별 \ 연 도	1963년	1969년
인 문 과 정	204 단위	214 단위
자 연 과 정	214 단위	222 단위
직 업 과 정	208 단위	216 단위
예 능 과 정	204 단위	214 단위

(출처) : 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삼진 인쇄(주), 1989, p. 31.

1971년 2월 19일 문교부령 제274호로 사회 교과 내에 있던 반공 및 국민윤리 과목을 삭제하고 국민윤리 교과로 독립시켰다. 교과의 제시 순서도 국어과 앞에 국민윤리를 배치하여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1973년 2월 14일 문교부령 제310호로 개정이 있었는데, 제2외국어 과목에 일본어를 신설하여 제 2외국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리고 국어Ⅱ(한문)이 과목명을 한문으로 변경하였다.

1973년 8월 31일 문교부령 제 325 호로 민족 고유의 문화를 찾고 기르며, 국적 있는 교육의 터전을 넓히기 위하여 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5. 제 3 차 교육과정기(1973~1981)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3 차 교육과정은 1973년, 1974년에 걸쳐 제정, 공포된 문교부령 제 310 호, 제 325 호, 제 350 호, 제 379호인 국민학교, 중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를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부른다.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 350호로 교육과정령의 별책 3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되고, 1976년 2월 23일 문교부령 제 379호로 교육과정령의 별책 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각각 개정, 공포되었다. 이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22 호로 개정, 공포된 고등학교 교육과정령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문교부는 1971년 6월부터 교육과정 전문 학자 및 편수관이 중심이 되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준비로 제 2 차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분석 작업을 하는 한편, 1972년 4월에서 5월 사이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종합 고등학교, 교육 연구 기관 등 230 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여론 조사를 하였다. 이와 같이 문교부는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연구 및 여론 조사를 토대로 1973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친 심의와 교육과정 전문가 및 편수관들로 구성된 전문 위원회를 거치는 등 종합 조정 절차를 거쳐 1974년 10월에 시안을 확정하였다. 이어 한국교육학회, 대한교육연합회 등의 주최로 개최된 2 차례의 공청회, 여론 청취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 수정의 과정을 거쳐 1974년 12월 31일 문교부령 제 350 호로 교육과정령을 공포하게 되었다.

교육과정의 총론은 1969년에 보고된 '장기 종합 교육 계획 심의회 교육과정 연구반'의 1980년대의 교육 계획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대한 건의를 반영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 조사, 여론 조사를 거쳐 1970년 초에는 다음과 같은 개편 방침을 마련하였다(문교부, 1989: 33).

- (1)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을 교육과정에 충실히 반영시킨다.
- (2) 팽창하는 지식의 양에 대응하여 기본 개념을 중점적으로 지도한다.
- (3) 교과와 편제를 재조정하여 「반공·도덕 생활」을 「도덕」으로 하고 교과화 한다.
- (4) 학년별 주당 시간을 증배한다.

이러한 개편 방침에 따라 개정 시안을 작성하여, 교육과정 심의회의 여러 위원회에서 수차례 심의한 것을 여론 조사 후 다시 각급 심의회에서 조정하여 1971년 1월에 시안을 확정하였다.

문교부가 교육과정 제정 또는 개편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로는 교육과정심의회가 있다. 심의회는 교육과정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고, 교육과정 원안을 심의하여 문교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로서, 이 기구 안에는 운영위원회, 학교별위원회 및 교과별위원회의 3 개 분과 위원회를 두고 있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에서의 생활 중심 교육과정을 지양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을 주장한 브루너(Bruner, J. S.)에 의하면, 교육과정은 곧 ‘각 교과와 전문가들이 각 교과가 나타내고 있는 지식의 본질(즉, 구조)을 가장 명백히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직해 놓은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방향은 ‘기본 방침’의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이라는 항목 속에 표현되어 있으며, 그 내용 중 특히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교부, 1989: 33~34).

“기본 개념의 파악: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하여야 한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교과로는 수학, 과학, 사회 등을 들 수 있다.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함께 제3차 교육과정의 주요 이념이 된 것은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이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전통을 존중하고 창조의 정신을 기르자는 주체성이 강조되었으며,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현장에 나타난 교육의 지표인 (1)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개인 윤리면), (2) 협동 정신(사회, 도덕, 윤리면), (3) 국민정신(국민 윤리면)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은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구현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을 기본 방침으로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¹⁾

첫째,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서, (1)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2)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3)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를 강조하였다.

둘째, 인간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1) 가치관 교육의 강화, (2)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3)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을 강조하였다.

셋째, 지식·기술 교육을 쇄신하기 위해서, (1) 기본 능력의 배양, (2) 기본 개념의 파악, (3)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4)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과 일반 목표에 제시된 정신을 고등학교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성 방침을 제시하였다.⁴²⁾ 첫째,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시키되, 중견 국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으로서 특징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한다.

41) 총무처, 관보, 제6941호, 1975. 1. 7. pp. 3~4.

42) 총무처, 관보, 제6941호, 1975. 1. 7. p. 5.

둘째, 고등학교 학생은 가치관이 확립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에 있으므로, 지적인 학습과 정의적인 학습을 조화시켜 지성, 덕성 및 풍부한 정서를 균형 있게 갖춘 인간을 기르는 교육이 되도록 한다.

셋째, 고등학교 학생은 개성이 뚜렷해지는 시기에 있으므로, 각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자아실현을 이룩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학습 활동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게 한다.

넷째, 지식과 기능 교육은 기본 능력을 배양하고 기본 개념을 파악하며, 판단력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것이 되도록 한다.

위와 같은 기본 방침, 일반 목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문교부, 1898: 35; 유봉호, 1992: 353~354).

첫째,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을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반영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리의 교육이 지향할 좌표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1949년에 공포된 교육법의 교육 방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 방침 또는 지표가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 다가올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깊이 통찰하고, 이에 대비하는 교육의 목표를 적절하게 제시하였다. 1960년대 이후,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서구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제 문제들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긴박한 문제였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적 있는 교육과 기대되는 한국인상 정립에의 요청에 부응하여 민족 주체 의식을 지니고,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를 창조할 수 있으며,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국민적 자질을 기본 방침으로 내세웠다. 또한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인간성의 소외, 도시화에 따른 지식·정보량 및 그 수요의 폭증에 대응한 지적 탐구 방법을 강조한 것과 과학적 지식과 유용한 기술을 생산에 적용시키려고 산학 협동을 강조한 것은 그 당시의 다가올 시대 상황에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식의 구조를 이루는 기본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하고, 지적인 탐구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지도 내용을 정선함으로써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교과와 내용 조직에서 지식 구조의 체계화에 의한 학교급별, 학년별 계열성을 더욱 뚜렷이 할 것과, 내용의 선택에서 기본 개념과 학문의 원리 및 기초 이론을 일관된 지식 구조의 체계 하에서 전개하는, 이른바 나선형 교육과정(spiral curriculum)으로 할 것, 그리고 학습의 방법 면에서 기억 위주나 단순한 경험의 방법이 아니라 발견, 탐구의 과정과 기본 개념 이해 과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제 2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육 목표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한국적 현실과 국가 정책적 의지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의 교육 이념이 지향하고 있는 인간상 구

현을 위해 구체적인 수준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우리 풍토에 알맞은 민주적 인간을 육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올바른 국가관, 국민 연대 의식, 국토 및 자원의 보존과 개발,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각 등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 의지가 깊게 반영되어 있다.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구호가 교육 목표에 반영되었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3차 교육과정은 제2차 교육과정에 비해 체제면에서 교육과정의 전개 체제가 더욱 체계화되었다. 총론은 구성의 일반 목표와 학교급별 교육과정으로 나누고, 구성의 일반 목표에는 기본 방침, 일반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학교급별 교육과정에는 구성 방침, 편제와 시간 배당,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각론은 각 교과별로 목표, 내용,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목표는 교과 전반에 해당하는 일반 목표와 각 학년별 목표로 나누어 진술함으로써 그 위계와 체계가 분명하도록 하였다.

편제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고, 교과 활동은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과 과정별 선택 교과목으로 나누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제3차 교육과정기의 인문계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표

(1974. 12. 31.)

교과	과목	단위 수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 단위 수	과정별 선택 교과목 단위 수		
				인문	자연	직업
국민윤리	국민윤리	6	6			
국어	국어 I	20~24	20~24			
	국어 II	8~10		8~10		
국사	국사	6	6			
사회	정치·경제	4~6	택 2 8~12	공통에서 제외된 3과목 12~18		
	사회·문화	4~6				
	세계사	4~6				
	국토지리	4~6				
	인문지리	4~6				
수학	수학 I	14~18	14~18			
	수학 II	8~14		8~14		
과학	물리	8~10	택 2 16~20		공통에서 제외된 2과목 16~20	
	화학	8~10				
	생물	8~10				
	지구과학	8~10				

교 과	과 목	단위 수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 단위 수	과정별 선택 교과목 단위 수		
				인 문	자 연	직 업
체 육	체 육	14~18	14~18			
교 련	교 련	12	12			
음 악	음 악	4~6	4~6			
미 술	미 술	4~6	4~6			
한 문	한 문 I	4~6	4~6			
	한 문 II	4~6		4~6		
외 국 어	영 어 I	10~12	10~12			
	영 어 II	10~12		10~12	10~12	
	독 일 어	10~12] 택 1 10~12] 택 1 10~12	
	프 랑 스 어	10~12				
	중 국 어	10~12				
	에 스페 니 아 어	10~12				
	일 본 어	10~12				
기 술 (남)	8~10] 택 1 8~10				
농 업	8~10					
공 업	8~10					
상 업	8~10					
수 산 업	8~10					
실 업· 가 정에 관한 교과	가 정	가 정 (여)	8~10	18		
		가 사 (여)	8~10			
직업에 관한 교과목		44~64				44~64
자유 선택 교과목		0~6		0~6	0~6	
소 계			140~160	44~64	44~64	44~64
교과목 총 이수 단위 수				192~210	192~210	192~210
특별 활동		12		12	12	12

【주】 ○ 체육, 음악, 미술의 3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는 26 단위가 되어야 한다.

○ 여학생 중, 필요에 따라서는 가사 대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에서 택할 수도 있다.

(출처) : 문교부령 제350호, 교육과정령, 별책 3,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4. 12. 31.(총무처, 관보, 제6941호, 1975. 1. 7, pp. 5~6).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 3 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정 개설권을 확대하였다. 학생의 진로 선택에 따라 2 학년부터 인문, 자연, 직업 과정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며, 직업 과정에 준하여 체육, 예능, 외국어 및 기타 과정을 들 수 있게 하였다.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은 과정의 구별 없이 모든 학생에게 공통으로 이수시키고, 과정별

선택 교과목은 해당 과정 학생에게 이수시키도록 하였다. 1학년에서는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을, 2, 3학년에서는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과 과정별 선택 교과목을 이수시키되, 2학년에서는 과정별 선택 교과목에 배당된 단위 수를 가급적 적게 이수시키도록 하였다.

둘째, 과목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제 2 차 교육과정에서 인문 과정 214 단위, 자연 과정 222 단위, 직업 과정 216 단위 등 과정별로 이수 단위를 고정시켰던 것을 제 3 차 교육과정에서는 과정별 구별 없이 3년간 이수하여야 할 총 단위 수는 특별 활동을 포함하여 204~222 단위로 이수 단위에 폭을 두어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교과목별 이수 단위는 공통 과목, 과정별 선택 교과목에서 고정시켰던 것을, 교과목별 이수 단위에 폭을 뒀으로써 교과 운영면에서도 융통성과 신축성을 부여하였다.

셋째, 과목별로는 외국어와 한문 교육을 강화하였다. 외국어(영어 I, II, 제2 외국어)의 경우 제 2 차 교육과정에서는 3년간 30 단위였던 것을 최저 30 단위에서 최고 36단위로 조정하였다. 한문은 제 2 차 교육과정에서는 인문계 학생에게만 국어 II에서 8단위를 교육해 오던 것을 교과로 독립시켜 한문 I·II 과목을 개설하고, 인문·자연·직업 과정 모두 필수로 한문 I 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인문 과정은 한문 II 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기술교육을 강화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제 2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산업 일반, 기초 공학 및 기술 등 3 개 과목을 기술로 묶어서 필수 과목으로 하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에서 1 개 과목을 선택하게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는 산업 일반, 기술(여)을 가정으로 묶어 가사 과목과 함께 필수 과목으로 하였다. 다만, 여학생의 경우 가사 대신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중에서 선택할 수도 있게 하였다.

다섯째, 자유 선택 교과목을 교육과정상 처음으로 설정하였다. 이수 단위는 0~6 단위로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도록 하였다. 자유 선택 교과목은 2과목 이내로 하고, 1과목의 이수 단위는 최저 2단위가 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특별 활동은 제 2 차 교육과정에서는 18 단위 상당 이상의 시간을 일반 교과 시간 중에서 배정해 실시하던 것을 별도로 독립시켜 3년간 12 단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일부 조정하였다. 체육, 음악, 미술의 3 개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는 제 2 차 교육과정 시기의 36 단위를 26 단위로 감축하였다. 교과목에 붙은 I, II 의 구별에 혼동이 많았던 것을 필수 과목에는 I, 과정별 선택 과목에는 II 를 붙임으로써 교과목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과목에 대한 통합도 이루어졌는데, 국어 교과의 경우 작문·문법을 국어 II 에, 수학 교과의 경우 수학 I·II 및 공통 수학을 수학 I·II 로, 과학 교과의 경우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를 각각 물리, 화학, 생물로, 음악, 미술 교과의 경우 음악 I·II, 미술 I·II 를 각각 음악, 미

술로 통합하였다. 실업 교과의 경우에는 기초 공학, 산업 일반을 기술로 통합하였다.

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76년 2월 23일에 문교부령 제 379 호로 개정되어 1977학년도부터 시행되었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제3차 교육과정기의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1976. 2. 23.)

보통 과목(필수)	단위 수	보통 과목(선택)	단위 수
국민 윤리	6	사회·문화	2~4
국 어	14	세 계 사	2~6
국 사	4	지 리	2~6
정치·경제	2	수 학 II	4~16
수 학 I	8	과 학	4~12
과 학	6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중 필수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 중 1 과목)		음 악	2~4
체 육	6	미 술	2~4
교 련	12	한 문	2~4
		외 국 어	6~24
		(영어, 프랑스 어, 독일어, 중국어, 에스 파니아 어, 일본어 중 1 또는 2 과목)	
		기 술 (남)	4~6
		가 정 (여)	6~10
이 수 단 위	58	이 수 단 위	8~44 공업계 8~32 수산·해운계 8~24
소 계	66~102	공업계 66~90 수산·해운계 66~82	
전 문 과 목	102~156	공업계 114~156 수산·해운계 122~156	
총 계		204~222	

(출처) : 문교부령 제379호, 교육과정령, 별책 4,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6. 2. 23.(총무처, 관보, 제7279호(그2), 1976. 2. 23, p. 5).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의 기본 방침과 이러한 개편 방침에 따라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봉호, 1992: 363~365).

첫째,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의 구현, 둘째, 기본 개념의 중시는 다른 각급 학교의 기본 방침과 같다.

그 외 다음의 7개항은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징적인 개편 기본 방침이다. 즉,

셋째, 계열 학과 및 교과목을 조정한다.

이것은 동일계 실업 고교 안의 유사 학과를 묶어 기초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동시에 각 학과 안에서의 선택 교과목의 폭을 넓혀 더욱 세분된 전문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화된 산업 사회의 현실적 요청에 대응하게 하려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이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명칭만 다른 학과의 난립을 정비함으로써 실업 기술 교육의 체계화를 도모하기 위한 뜻도 있다. 예를 들면, 화학과, 화학 공업과, 화학 기계과를 화학 공업과로, 기계 공작과, 목형 주물과, 주물과, 판금 용접과를 기계과로 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가사·실업계를 신설하고 계열별로 필요한 학과를 설치하였다. 그 예로 농촌 지도과, 농업 기계과, 통신과, 식품 공업과, 조선과, 식품 조리과, 보육과 등이 있다.

넷째, 전문 교과목을 조정한다. 유사 학과를 종합하거나 산업 분화 및 학과 신설에 따라 교과목을 신설하였다. 이것은 기초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교과서 행정 체계화를 기하고자 한 것으로서, 농업계 6 과목, 공업계 18 과목, 상업계 2 과목, 가사·실업계 2 과목이 통합되고, 반면 농업계 32 과목, 공업계 50 과목, 상업계 9 과목, 수산계 21 과목, 가사·실업계 20 과목이 신설되었다.

다섯째, 전문 교육을 강화한다.

여섯째, 실험 실습을 강화한다.

일곱째, 산학 협동 교육을 강화한다.

여덟째, 각 과목의 지도 내용을 산업 발전에 적용하도록 한다.

아홉째, 각 교과목의 편제는 계열별, 학과별로 필수 및 선택을 표시하고 그 체계를 통일하는 것이다.

마. 부분 개정

1977년 2월 28일에 문교부령 제 404 호로 개정이 있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³⁾

첫째,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사회 교과를 <표 II-12>와 같이 개정하여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의 경우 제 2 차 교육과정에서는 5개 과목 중 2과목을 선택하던 것을 정치·경제 과목은 필수로 과하고 나머지 4 과목 중 1과목을 필수 선택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43) 총무처, 관보, 제7586호(그2), 1977. 2. 28. p. 18.

〈표 II-12〉 제3차 교육과정기의 인문계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표(사회)

(1977. 2. 28)

교과	과목	단위 수	필수 및 필수 선택 교과목 단위 수	과정별 선택 교과목 단위 수		
				인문	자연	직업
사 회	정치·경제	4~6	4~6			
	사회·문화	4~6	택 1 4~6	공통에서 제외된 3과목 12~18		
	세계사	4~6				
	국토 지리	4~6				
	인문 지리	4~6				

(출처) : 문교부령 제404호, 교육과정령, 별책 3,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1977. 2. 28.(총무처, 관보, 제7586호(그2), 1977. 2. 28, p. 18)

둘째, 교육법 제107조 4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과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에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하였다.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직업 과정에 준하되, 교과목 총 이수 단위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다.
- (2) 교과목 간 및 교과목과 특별 활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되, 실습을 요하는 교과목은 현장 실무로 대체할 수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 (1) 교과목 총계 이수 단위 수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다.
- (2) 보통 과목(필수)은 이수 단위 수대로 확보하고 보통 과목(선택)은 8~12단위를, 전문 과목은 70~78단위를 확보한다.

셋째, 특별 활동의 내용을 대폭 개선하고, 특히, 특별 활동의 활동 영역 가운데 학생회 활동을 학도 호국단 활동으로 바꾸고 학생회 대신 학도 호국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1979년 3월 1일에는 교육과정 전체의 체제 통일, 자구 수정, 맞춤법 통일 등 체제 정비를 하여 문교부 고시 제 424 호로 고시하였으나, 교육과정의 법적 성격이 문교부령에서 문교부 고시로 바뀐 것 외에는 교육과정의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⁴⁴⁾

44) 교육과정이 문교부령에서 문교부 고시로 바뀌어 고시됨에 따라, 문교부령 제442호(1979. 3. 10.)에 의해 교육과정령은 폐지되었다(총무처, 관보, 제8194호, 1979. 3. 10, p. 22).

6. 제 4 차 교육과정기(1981~1987)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4 차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 422호로 제정, 고시된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22호의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8-7 호로 개정,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5 공화국 출범을 맞이한 1980년대 초의 정치적, 사회적 특수 상황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고려하여 새로운 교육적 전환을 모색할 필요와 함께 이에 대처할 적절한 새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이러한 필요에서 정부는 1980년에 7·30 교육 개혁 조치를 단행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문교부는 각급 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개발에 관한 연구 과제를 1980년 9월 12일에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을 위해 종래의 교육 방송 및 기초 교육 연구 분야에 국한되어 있던 연구, 업무 영역의 정관을 개정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계 연구 영역에까지 확장시키고 1978년부터 교육과정 기초 연구에 착수하고 있었는데, 문교부가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을 위탁할 당시에는 새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세미나 개최 및 관련 기초 연구를 끝내고 많은 보고서를 낸 바 있어,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에 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 따라서 제 4 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육과정과는 다른 연구·개발(R & D)형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문교부, 1989: 39).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까지의 기초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1980. 12. 31.)와 총론 시안(1981. 3. 31.)을 문교부에 보고하였고, 문교부에서는 총론 시안에 대한 심의(1981. 4. 1.~ 4. 30.)와 수정, 보완의 절차를 거쳤다. 또, 곧이어 보고된 각론에 대한 심의(1981. 8. 1.~ 8. 31.)를 거친 후 완성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1981. 11. 20.)와 최종 심의회(교과별, 학교별 소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를 거쳐 1981년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442 호로 확정, 고시하였다.

제 4 차 교육과정은 제 3 차 교육과정이 지닌, 수업 시간과 학습 내용의 과다, 학습자의 수준에 비추어 어려운 교육 내용, 교과목 위주의 분과적인 편제, 기초 교육과 일반 교육의 소홀, 인간 교육의 미흡 등의 많은 문제점(한국중등교육협의회, 1984: 2)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지식의

학문성뿐만 아니라 개인 및 사회적 유용성 면에서 적합하도록 정선하고 그 수준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 7·30 교육 개혁 조치에 따른 교육 방향 전환에 대한 대책과 급변하는 정치·사회적 현실과 이에 파생되는 제 요구의 반영 필요 등에 따라 개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 4차 교육과정의 개정 목적은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 보완(기초 교육·일반 교육 강화, 전인 교육·인간 교육의 강화),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의 추진(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과열 과외의 잠재 요인 제거), 국민 정신 교육의 강화(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 반영) 등이다(문교부, 1989: 40).

제 4차 교육과정의 이념이나 교육과정 사조 또는 이론상의 특징은 어느 한 사조나 이념만을 반영하는 교육과정이 아닌,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교과 중심 교육과정, 경험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과 같은 특정 교육과정 이론들이 생성되어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기에는 각각 그 시대에 처한 사회적 특수성과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던 교육적 관점 등 타당한 근거와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제 4차 교육과정기에 이르러서는 어느 특성의 단일한 입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교육과정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 교육과정을 탐구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4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의 입장이나 접근 위에 변화와 미래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 교육과정의 정신이 반영되었고, 지금까지 소홀히 고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인간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성격도 반영되어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을 고루 갖춘 교육과정이 되게 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1981: 15~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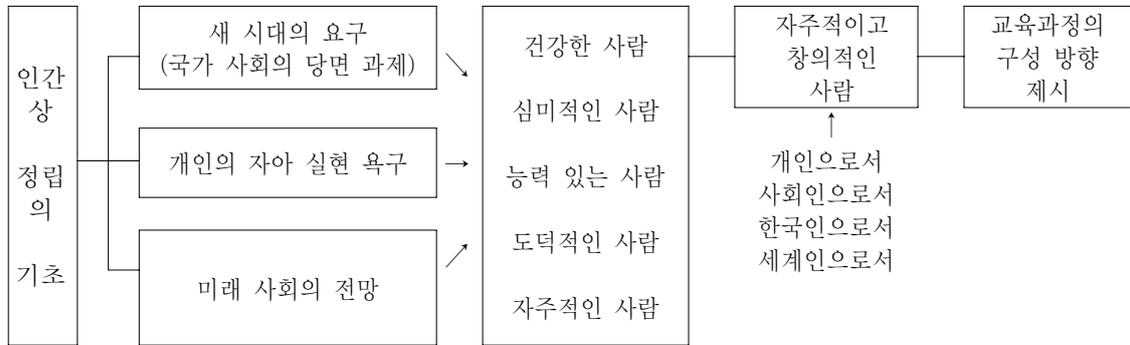
나. 기본 방향 및 목표상의 특징

제 4차 교육과정은 제 1 장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우리나라 미래 사회의 전망에 비추어 본 국민적 과제, 교육에서 기를 인간상, 학교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으로는 (1) 건강한 사람, (2) 심미적인 사람, (3) 능력 있는 사람, (4) 도덕적인 사람, (5) 자주적인 사람을 제시하고, 학교에서는 이러한 인간을 길러 내는 데 부합되는 방향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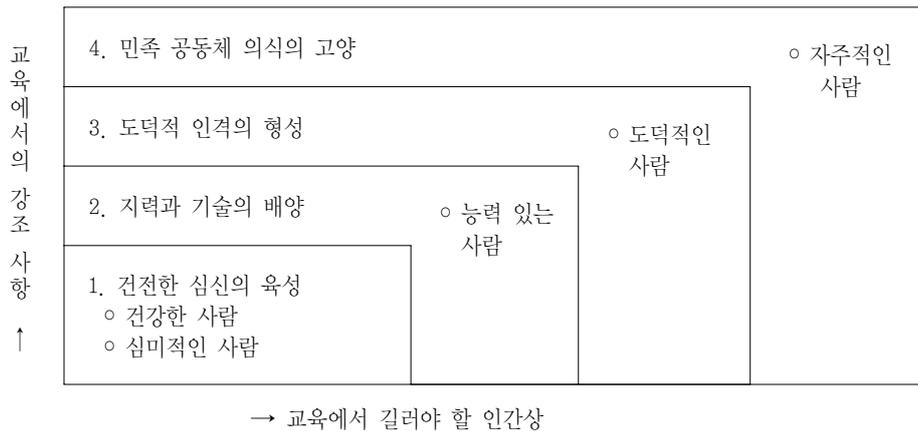
이에 따른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는 국민 정신 교육의 체계화, 전인 교육의 강화, 과학 기술 교육의 심화,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에 두고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을 강조하였다(문교부, 1989: 40).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인간상을 도표로 제시하면 [그림 II-1]과 같으며, 제 4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해야 할 사항과 길러야 할 인간상과의 관계를 제시하면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1] 교육을 통하여 길러야 할 인간상

(출처) : 문교부, 연수 자료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1982, p. 7.



[그림 II-2] 인간상과 교육과정 강조 사항과의 관계

(출처) : 문교부, 연수 자료 고등학교 새 교육과정 개요, 1982, p. 19.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교육법 제 104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105조에서는 “①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 확충시켜 중견 국민으로서의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② 국가 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③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케 하고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술을 기른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목표는 교과 설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학교 교육의 방향에 분명한 시사점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회 변화에 비추어 그 자체의 타당성과 참신성을 상실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문교부, 1982: 32).

첫째, 교육과정 구성 방향에서 기본 정신의 반영이다.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철학은 국민 정신교육의 체계화, 전인 교육의 강화, 과학·기술 교육의 강화이다. 이러한 정신은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으로 자라나게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이를 이루기 위하여 제 4차 교육과정은 건전한 심신의 육성, 지력과 기술의 배양, 도덕적 인격의 형성, 민족 공동체 의식의 고양 등의 4가지 강조 사항을 두었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의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이러한 4가지 강조 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둘째,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설정, 내용 선정은 중학교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고등 교육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셋째, 교육 목표의 설정 또는 내용 선정의 기준에서 어느 요인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적 적합성, 학문적 적합성, 사회적 적합성 간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넷째, 각급 학교별 교육 목표의 일관성 및 계열성에 대한 고려이다. 학교급에 따른 교육 목표의 점차적인 심화, 확대 및 목표 항목의 첨삭은 일관성과 계열성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 목적을 두고 9개항의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총괄 목적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기초 위에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원만한 인격을 형성하며, 자신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목표를 다음과 같이 9개 항목에 걸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문교부, 1982: 33~34).

- (1) 강인한 체력, 풍부한 정서, 굳센 의지를 길러 건전한 심신을 가지게 한다.
- (2) 취미를 살려 여가를 선용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
- (3) 정확한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신장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한다.
- (4) 자연 및 사회 현상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여 당면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한다.
- (5)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결정하고, 평생 교육에 필요한 자질을 가지게 한다.
- (6) 양심과 도덕적 원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자율적 태도를 가지게 한다.

- (7) 인간의 존엄성과 가능성을 이해하며,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8) 민주주의의 우월성과 정의 사회 구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며, 봉사와 협동 정신으로 공동 생활에 참여하고, 사회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 (9) 우리의 민족 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며, 국가 발전에 참여하고, 국가 수호와 평화 통일 의 의지를 가지게 한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 3 차 교육과정기에는 교육과정의 체제가 인문계, 실업계 고등학교별로 각각 별도로 제시되어 있던 것을 제 4 차 교육과정에서는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화시켰다. 제 4 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표 II-13>과 같다.

<표 II-13> 제4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1981. 12. 31)

교 과	과 목	보 통 교 과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 선택	전문 교과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의 필수 및 선택,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 선택
		공통 필수	일반계 고교 선택		일반계 고교 직업 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 선택		
			인문·사회 과 정	자 연 과 정			
국민 윤리	국민 윤리	6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기타 계열에 관한 교과
국 어	국어(I, II)	14~16	14~18	8~10	3~8		
국 사	국 사	6(4)					
사 회	사회(I, II)	4~6(2~6)	4		택 1 2~6		
	지리(I, II)	4~6 (2~6)	4				
	세 계 사	2(2)	2				
수 학	수학(I, II)	8~14	6~8	10~18	4~18		
과 학	물리(I, II)	4~6	*택 2	4	택 1~2 4~12		
	화학(I, II)	4~6		4			
	생물(I, II)	4~6		4			
	지구 과학 (I, II)	4~6		4			
체 육	체 육	6~8	8~10	8~10	4~8		
교 련	교 련	12					
음 악	음 악	4~6	택 1	택 1	택 1	택 1	
미 술	미 술	4~6					4~6
한 문	한문(I, II)		8~14	4~6	4~6		

교과	과목	보통교과				전문교과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의 필수 및 선택,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선택
		공통필수	일반계 고교 선택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 선택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외국어	영어(I, II)	6~8	14~16	14~16	6~16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 : 52~106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교 : 82~122
	독일어		택 1 10~12	택 1 10~12	택 1 6~10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실업· 가정	산업기술		택 1 8~10	택 1 8~10	택 1 4~8	
	가정					
	농업	택 1 8~10	택 1 8~10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자유선택		0~8	0~8	0~8		
이수 단위 소계	88~102 *(72~84)	90~116	90~116	10~38		
이수 단위 합계	192~204					
특별 활동	12~					
총 계	204~216					

- 【주】 ① 각 과목의 단위 수는 3년간에 이수해야 할 단위를 표시한 것이며, 공통 필수 () 안 숫자와 * 표시는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등학교의 이수 단위를 밝힌 것이다.
 ②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③ 과목(I, II)에서 I은 공통 필수 과목이며, II는 과정별 선택 과목이다.
 ④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실업계 및 기타 계열 고등학교 선택 과목은 학교 실정에 따라 10~38 단위를 선택한다.
 ⑤ 과정 및 계열별 선택 과목은 공통 필수에서 이수하지 않은 과목의 선택을 원칙으로 한다.
 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체육, 음악, 미술의 3교과 이수 단위 합계는 26 단위가 되어야 한다.
 (출처) : 문교부 고시 제442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 대한 교과서(주), 1982, pp. 5~6.)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 4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문교부, 1982: 34~35).

첫째, 교육 목표에 있어서 제 3차 교육과정에는 명문화한 목표가 없었으나, 제 4차 교육과정에는 총괄 목표를 제시하고 9개 항의 구체적인 목표를 밝히고 있다.

둘째, 인문계와 실업계 고등학교에 공통 필수인 보통 교과를 전 과정의 40~60%의 비중으로 강화하여 전인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하였다.

셋째, 인문계, 실업계, 기타계로 각각 별도로 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화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별개로 나뉘어 있어서 인간 교육, 전인 교육, 정서 교육이 소홀히 되었으므로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였다(한국중등교육협의회, 1984: 48).

넷째, 미래의 고도 산업 사회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초 과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각 과목을 I과 II로 구분하여 I은 필수로 정하였다.

다섯째, 개방적인 국제 사회에서의 기본 교양을 갖추 수 있도록 사회과의 세 과목(사회, 지리, 세계사)을 필수로 하였으며, 이 세 과목은 인문·사회 과정과 자연 과정 학생들의 적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내용 수준별로 I, II를 두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한 교과목 또는 관련 교과목을 통·폐합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즉, 정치·경제, 사회·문화를 통합 조정하여 사회 I과 II로 재조정하였으며, 국토 지리와 인문 지리를 통합 조정하여 지리 I과 II로 나누었다.

여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 과목에 중에서 공업 계열은 191과목에서 151과목, 농업 계열은 62과목에서 50과목, 상업 계열은 31과목에서 24과목, 수산·해운 계열은 46과목에서 37과목, 가사·실업 계열은 34과목에서 28과목으로 각각 통합 조정하였다.

일곱째, 학생들의 적성과 요구에 부응하도록 교과목의 선택의 폭을 크게 하였다. 제 3차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각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전문 교과를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교육의 수준에서는 기본 능력과 적응력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 교과를 제공해 주어 자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들에게 기능 직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여덟째, 교육 내용의 분량을 조정하여 전체 이수 단위를 축소하였다. 즉, 인문계 204~222 단위, 실업계 216~234 단위에서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가 동일하게 204~216 단위로 축소되었다. 그리고 1 단위는 1시간씩 18주 이수하던 것을 17주 이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아홉째, 제 3 차 교육과정에서 ‘자유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중에서 선택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0~6 단위였으나, 제 4 차 교육과정에서는 자유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를 0~8단위로 늘리고 선택의 범위도 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 등으로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자유 선택 과목을 설정할 때에는 반드시 2 개 이상의 과목을 제공하여 학생에게도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그 외의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특별 활동에 관한 변화이다. 특별 활동은 학급 활동, 학도 호국단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4 개 영역에서 학급 활동과 학도 호국단 활동을 통합하여 학도 호국단 활동으로 하여 클럽 활동, 학교 행사와 함께 3 개 영역으로 편성하고, 학도 호국단 활동과 클럽 활동에 각각 1 시간씩 배당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통합됨에 따라,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줄여 줌으로써 수준이 조절되도록 하였고,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상의 각 과목별 기준 단위 수를 없애고, 제시된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 합계 범위 안에서 과목의 선택과 과목당 단위 수의 결정을 학교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의 계열별 학과 편제는 제 3 차 교육과정기의 구분을 유지하였으나 전문 분야별로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고, 관련 학과에서는 세분화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능력이 배양되도록 하였다. 또한 각 계열별로 목표를 두었으며, 계열별 학과의 목표도 설정하였다.

〈표 II-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 교과목의 필수 과목은 학과별로 고정하여 제시하고, 선택 과목은 학과 구분 없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표 II-14〉 제4차 교육과정기의 실업 및 기타 계열의 전문 과목 편제(상업계)

(1981. 12. 31)

구분	학과	필수 과목	선택 과목
상업계	상업과	상업 개요, 경영 개요,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 반, 상업 계산, 상업 실천, 타자	상업 법규, 상업 계산, 마케팅, 상업 실천, 상품, 부기 회계, 공업 부기, 세무 회계, 무역 업무, 상업 영어, 경제 지리, 문서 사무, 타자, 경영 통계, 프로그래밍, 자료 처리, 전자 계산기 실무, 상업 미술, 상업 서예, 기타 과목
	회계과	상업 개요, 경영 개요,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 반, 상업 계산, 부기 회계, 공업 부기	
	무역과	상업 개요, 경영 개요,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 반, 무역 업무, 상업 영어, 타자	
	정보 처리과	상업 개요, 경영 개요,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 반, 프로그래밍, 자료 처리, 타자	

(출처) : 문교부 고시 제442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1. 12. 31.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이경환 외, 한국 교육과정의 변천, 서울 : 대한 교과서(주), 2002, pp. 112~114).

라. 부분 개정

1985년 12월 17일 문교부 고시 제 85-10 호로 교련과와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교련과는 군사 기능에 치중된 제 4 차 교육과정에 국민 정신 교육 영역을 대폭 보완, 조정하였다. 국민 정신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군사 기능 내용을 통합, 축소 조정하였다. 그리고 여자 고교 지도 내용에 '독도법'을, 남자 고교 지도 내용에는 '체력 단련'을 추가하였다.

특별 활동은 학도 호국단 설치령이 폐지됨에 따라 학도 호국단 활동을 학생회 활동으로, 학도 호국단 규정을 학생회 규정으로 명칭을 수정하고 그에 따른 내용과 운영 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7. 제 5 차 교육과정기(1987~1992)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5 차 교육과정은 1987년, 1988년에 걸쳐 개정, 고시된 문교부 고시 제 87-7 호, 제 87-9 호, 제 88-7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 5 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8-7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92년 10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 1992-19 호로 개정,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제 4 차 교육과정 개정까지는 나름대로의 사회적 제 상황의 변화에 부응한다거나 학문적 경향의 변화에 따른다는 비교적 뚜렷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제 5 차 개정은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의 사용 기간이 5~7 년을 넘을 수 없다는 행정상의 이유로 교육과정의 개정을 서두르게 하였다.

문교부는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으로 (1) 교육 철학, 학문 내용, 교육 방법의 변화, (2) 경제적 발전과 사회의 변화, (3) 현행 교육과정 고시 이후 7년 경과, (4) 국제 경쟁력 강화 필요, (5) 교육의 질적 고도화를 제시하였다.

문교부는 1985년 6월 17일 제 5 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계획을 한국교육개발원에 통보하고, 1986년 2월 19일 유치원, 국민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이어서 1987년 1월 12일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연구,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제 4 차 교육과정과 제 5 차 유치원·초·중학교 교육과정을

담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연구 진용을 정비하고 문교부의 기본 계획 범위 내에서 그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업무는 정책 결정, 기초 연구, 개정 시안 개발, 심의, 확정 고시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먼저 정책 결정은 문교부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계획 수립, 개정 업무 추진 계획 수립, 개정의 방향 정립 등이었다. 기초 연구는 제 4차 교육과정이 개발되어 현장에 적용된 후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적절성 분석, 제 5차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분석, 교육과정의 국제 비교 연구, 교육과정·교과 교육 연구 동향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이와 아울러 개정 시안 개발은 앞에서 언급한 정책 결정과 기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정의 방향 탐색, 총론 시안 개발, 각론 시안 개발의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온 최종 산출물인 교육과정 개정 시안은 한국교육개발원에 의해서 1987년 11월에 문교부에 제출되었다. 문교부는 제출된 답신 보고서를 가지고 심의,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1988년 3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 88-7 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⁴⁵⁾

제 5차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교부는 제 4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꼭 개선해야 할 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였다(문교부, 1989: 46~47).

그러나 제 4차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려 했던 문교부의 당초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전면 개정 형식의 교육과정이 되었다.

교육과정 사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교과 중심, 생활 중심, 학문 중심 등과 같이 어떤 색깔을 띤 것이 아닌 종합적 성격을 띤 것은 제 4차 교육과정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유봉호, 1992: 407).

한국교육개발원은 문교부가 제시한 개정의 방침을 제 5차 교육과정의 개정 전략으로 하여 제 4차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지속성, 혁명적이고 총체적인 개혁보다 현실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점진성, 교육과정의 의도한 대로 학교 교육이 교육력을 발휘하여 종국적으로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교육적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효율성에 강조점을 두었다.

제 5차 교육과정이 '지역화'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제 4차 교육과정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강조한 것은 지금까지의 중앙 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서서히 지방화해 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앞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하나의 기준으로서 열개가 되는 준

45) 문교부 고시 제88-7호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당초에는 1988년 3월 25일자로 고시하였으나, 고시 일자를 1988년 3월 31일로 정정하였다(총무처, 관보 제10896호, 1988. 3. 31, p. 13.).

거만 제시하고 차차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향하여 나아가는 출발점으로서의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효율화는 한 마디로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의미로서 국가 기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의도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 5 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기본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교육부, 1999: 269).

“...지식의 급격한 팽창과 과학의 발달에서 오는 고도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관계의 다양한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며, 자유 민주주의의 굳건한 바탕 위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현명하게 주도하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바탕이 되는 교육과정의 수정, 보완이 다시금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이와 같은 교육 목적과 필요에 부응하여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을 기르는 데 역점을 두어 구성한다.”

이것은 제 5 차 교육과정이 자율화, 개방화, 정보화, 국제화되는 고도 산업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21 세기를 주도할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도덕적인 한국인을 기르고, 다가올 복지 국가 건설과 반드시 이룩해야 할 조국 통일에 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교육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상을 표방하면서 제시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89: 46~49).

첫째, 기초 교육의 강화이다.

학교 교육에서 꼭 정착시켜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정선하여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5 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기초적, 기본적인 것으로 언어 능력, 수리 능력, 사고력, 기초 체력, 도덕성 등을 제시하고, 이와 같은 특성들이 교과 편제, 시간 배당, 목표 및 내용 선정 등에서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강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이다.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내용을 정선, 추가, 보완하였다.

특히, 정보·통신 수단의 급격한 발전과 일상화에 따라 주체성, 창조성, 사고력, 판단력, 정보 처리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기본적 능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재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 산업 과목을 신설하고, 모든 교과목에 걸쳐 주체성과 창조력, 사고력 등을 강조한 것과 사회과에서 경제 교육 내용을 크게 강화한 것을 비롯하여 환경 교육, 진로 교육 등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방향을 구현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교육과정 효율성의 제고이다.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교육과정이 의도한 것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쓸모 있는 교육과정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종래의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법적인 문서로서만 존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실제 교육 실천에서 이 교육과정의 존재를 거의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 또, 교사 양성 기관에서도 고시된 교육과정을 외면해 온 실정이었다. 이것은 법적 문서로서 고시된 교육과정이 매우 개괄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이고, 일부 교과를 제외한 교과목의 교과서가 단일종으로 되어 있으며, 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과정 자료가 미흡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하겠다.

또, 교육과정의 교과 편제 및 내용과 교과서 및 생활 기록부 양식 등과의 불일치, 시간(단위) 배당 기준의 지나친 경직성, 교육 내용 및 방법의 획일성,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의 제한 등 교육과정의 내용 및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주성과 융통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다. 전 학년에 걸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 교육 내용의 지역화 운영, 단위 배당에 있어서 기준 단위제의 최초 도입, 교과서 편찬시의 학습량의 기준 제시 등은 이와 같은 교육과정 효율성 제고의 측면을 중시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특별 활동을 강조한 점(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의 훈련, 다양하고 풍부한 인격 형성을 위해 필요한 특별 활동 본연의 영역 외에 학교 활동에서의 생활 지도 영역을 특별 활동 내용에 삽입시키고 학급 활동 영역의 내용을 강화한 것), 특수 학급 운영 지침을 명시한 점(교육 가능한 정신 박약아, 약시, 난청 등 특수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것),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국민 정신, 환경, 성, 경제, 컴퓨터, 해양 교육 등)의 체계적 반영 등에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유봉호, 1992: 418).

제 5 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고등학교 목표는 상위법인 교육법의 규정(교육법 제 104 조, 제 105 조)을 반영하면서,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에 그쳐 학교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미흡하고 뚜렷이 시사를 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학교급별 체계를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하였다. 고등학교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중요

준거들은 다음과 같다(문교부, 1989: 60~61).

첫째,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 목표와 상충되지 않도록 하되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등학교로서의 교육 목표를 보다 명료화시킨다.

둘째, 우리나라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주적, 창조적, 도덕적이고 건강한 인간상에 기초한 역점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한다.

셋째,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간에 교육 목표의 일관성과 계열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넷째, 고등학교 학생의 심신 발달과 교육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한다.

다섯째, 고등학교의 교과 내용 선정에 대한 지침과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제 4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법에 규정된 고등학교 교육 목적」을 토대로 설정하였음을 밝힘으로써 교육법의 규정을 충실히 지켜야 함을 나타내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교육 목표는 모두 6 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9: 271).

- (1) 성숙한 자아 의식과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강인한 체력과 의지를 가지게 한다.
- (2)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며, 국가 사회의 발전과 인류 행복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 (3) 언어, 수리 등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4) 자연과 사회 현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고, 정보 처리력과 탐구 능력을 길러,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한다.
- (5) 다양한 미적 체험을 통하여 심미감과 창조성을 신장시키고, 취미를 살려 여가를 선용할 수 있게 한다.
- (6)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진로를 탐색, 선택하고, 이에 필요한 학문적, 직업적 기반을 형성하게 한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각 교과별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II-15>와 같다.

편제는 제 4차 교육과정과 동일하게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고,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다.

다만, 특별 활동 영역이 제 4차에서는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3개 영역이었던 것이 제 5차에서는 학급 활동, 클럽 활동, 학생회 활동, 학교 행사의 4개 영역으로 바뀐 점이 특징이

다. 이것은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들의 자치 활동, 자율 활동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에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유봉호, 1992: 432~434).

첫째, 이수 단위의 표시를 급간제에서 기준 단위제로 변경하였다. 즉, 종래의 급간 또는 범위의 형식으로 제시되던 수치 중에서 최소 단위를 기준 단위로 정하고, 학교장의 결정에 따라 그 단위 정도를 2 단위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물론 이 때의 총 이수 단위는 204~216 내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증감 운영은 기준 단위가 2~4 단위인 교과목은 해당되지 않으며, 6 단위 이상인 교과목도 교과목별로 2단위까지만 감축 운영하도록 하였다.

〈표 II-15〉 제5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각 교과별 단위 배당 기준

(1988. 3. 31.)

교과	과목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필수 및 선택,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 과정 선택
		공통 필수	과정별 선택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실업계, 기타계 및 일반계 직업 과정	
국민윤리	국민윤리	6 (6)				농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과학에 관한 교과 체육에 관한 교과 예술에 관한 교과
국어	국어	10 (10)	8	8	4	
	문학 작문 문법	(4)	6 4	4		
국사	국사	6 (4)				
사회	정치·경제	6 (4)				
	한국지리	4 (4)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지리		4 4 4	4	4	
수학	일반수학	8 (8)	10		6	
	수학 I 수학 II			18		
과학	과학 I 과학 II	10 (8)] 택1	8		4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8)		8 8 6] 택1 6		

II.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교과	과목	보통 교과				전문 교과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의 필수 및 선택,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 과정 선택
		공통 필수	과정별 선택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실업계, 기타계 및 일반계 직업 과정	
한문	한문		8	4	4	
외국어	영어 I	8 (8)	12	12	8	
	영어 II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택 1	택 1	6			
일본어	10	10				
실업·가정	기술		택 1	택 1	4	
	가정		8	8		
	농업 공업 상업 수산업 가사 정보산업		택 1	택 1	8	
교양 선택			2	2	2	
이수 단위						실업계·기타계 : 82~122 직업 과정 : 50~100
특별 활동		12 (12)				
이수 단위 총계						204~216

【주】 ① 1 단위는 매주 50 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 학기(17 주 기준)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② 공통 필수수의 () 안 숫자는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기준 단위 수를 표시한 것이다.
 ③ 과학 I은 생물, 지구 과학 영역, 과학 II는 물리, 화학 영역이다.
 (출처) : 문교부 고시 제88-7호, 별책 1,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8. 3. 31.(문교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서울 : 삼진 인쇄(주), 1988, pp. 5-6).

둘째, 사회적, 학문적 발전과 요구에 따라 일부 교과목을 통·폐합 또는 세분화하였다. 국어과에서는 국어 I 과 국어 II로 분류한 것을 공통 필수인 국어와 과정 선택인 문학, 작문, 문법으로 세분하여 인문·사회 과정은 3 과목, 자연 과정은 2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사회과에서는 사회 I·II, 지리 I·II, 세계사로 분류하여 영역 분류상 모호했던 것을 정치·경제, 한국 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세계 지리 등으로 과목명을 분명히 하였다. 과학과의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과목을

부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물리 I·II, 화학 I·II, 생물 I·II, 지구 과학 I·II의 8과목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을 과학 I·II, 물리, 화학, 생물, 지구 과학의 6과목으로 통합하고, 인문·사회 과정은 2과목(과학 I, 과학 II)을, 자연 과정은 4과목(과학 I, 물리, 화학, 생물과 지구 과학 중 한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보·통신 및 컴퓨터 활용 능력, 과학 기술 발달의 필요, 성 역할 개념 변천에 의한 남녀 공통 이수가 가능한 교과목의 설정 필요 등을 고려하여 실업·가정 교과에 정보 산업이라는 과목을 신설하고 선택 과목으로 부과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게 하였다.

셋째, 교과목의 이수 단위를 일부 조정하였다. 사회 I(정치·경제)과 지리 I(한국 지리)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4~6단위인 것을 6단위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2~6단위를 4단위로, 그리고 세계사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의 자연 과정에서 2단위를 4단위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수학은 인문·사회 과정은 14~22단위에서 18단위로, 자연 과정은 18~32단위를 26단위로 각각 조정하였다.

또, 자유 선택을 교양 선택으로 개정하고,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철학, 생활 경제, 종교 중에서 학생의 필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0~8단위에서 2단위 이상을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교양 선택을 최소 2단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한 것은 교양 교육을 통하여 전인적 교육을 도모하겠다는 뜻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선택과목으로 종교를 부과할 때에는 학교장은 앞에서 제시한 과목을 포함, 복수 과목을 설정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다.

넷째, 기타계의 경우 체육 계열 외에 과학 계열, 예술 계열 등의 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중 기타 과목의 경우 타 계열의 전문 교과 중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즉, 각 학과에서 기타 과목으로 택할 수 있는 교과목의 선택 범위를 넓힌 것이다. 다만, 어느 계열에도 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과목명, 단위 수, 목표 및 지도 내용을 정하여 사전에 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도하도록 하였다. 기타 과목의 단위 수는 14단위를 넘을 수 없게 하였다.

여섯째, 특별 활동에서 학급 활동을 강조하였다. 제 4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급 활동이 학생회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었으나, 학급 단위로 학생들의 자율성과 교사의 활동 지도를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학급 활동을 학생회 활동에서 분리시켰다. 또한 특별 활동에 배당된 단위는 학급 활동 및 클럽 활동에 한한 것이므로, 학생회 활동과 학교 행사의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라. 부분 개정

1990년 1월 22일 문교부 고시 제 90-1 호로 개정이 있었는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⁶⁾

첫째,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 과정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여 직업 기술 교육의 실효를 기하고

자 하였다.

- (1) 일반계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및 직업 과정으로 구분하도록 하였으나, 인문, 사회, 자연 과정에서 직업 과정으로의 변경은 3학년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 (2) 직업 과정에서 보통 교과외의 선택 과목을 이수할 경우 증감 운영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적절히 증감 운영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단, 보통 교과외의 이수 단위 소계가 104~154 단위가 되도록 하였다.
- (3) 직업 과정의 전문 교과는 실업계 해당 계열 교육과정에 준하여 50~100단위를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실업계 해당 계열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 (4) 직업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문교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지역 및 학교 실정에 알맞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과목명, 단위 수, 목표 및 지도 내용을 정하여 사전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 (2) 교육과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계열 또는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문교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8. 제 6 차 교육과정기(1992~1997)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6 차 교육과정은 교육부 고시 제 1992-11 호, 제 1992-16 호, 제 1992-19 호로 개정, 고시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 6 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1992년 10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9호 별책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하며, 이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로 개정,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유효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제 6 차 교육과정기에 처음으로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체제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 권한을 확대하였다. 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서 중앙·지방·학교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새로운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확립하였다.

46) 총무처, 관보, 제11433호, 1990. 1. 22, p. 6.

제 6 차 교육과정은 20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개정된 점에서, 기초, 보통 교육의 교육 내용면에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와 교육 개혁을 시도하였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3월부터 교육부는 21 세기를 대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준비 단계에서 우선 교육과정 실험·연구학교 및 협력 학교를 지정하고,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에 필요한 기초 연구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이와 함께, 1990년 6월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하고,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연구 책임자: 동국대 한명희)를 구성하여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총론 개정안 연구를 위탁하였다. 교육과정 개정 연구 위원회에서 수행한 기초 연구는 39 명의 학자·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과 교육부 편수 담당자 43 명, 현장 교원 411 명, 교수 41 명, 기타 전문가 26 명 등 총 521 명의 협의·자문진이 참여해서 1991년 11월까지 계속되었다.

기초 연구 및 총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전국 초·중등 교원 대표 세미나(230 명 참가), 전국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조사(2 회, 112 교), 총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530 명 참가), TV 공개 토론회(3 회), 신문지상 토론 및 보도(126 회), 총론 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조사(시·도 교육청, 교원 양성 대학, 연구 기관, 연구 학교 관련 학회 등 60 개 기관)가 실시되어 전문가와 교육 관계자가 광범위하게 개정 연구에 참여하였고, 특히 언론 보도 기관을 통해 시안 및 개발 과정이 자세히 공개됨으로써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게 되었다.

총론 개정 시안은 다시 교육 전문가, 교육 행정가, 현장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심의회에 회부되어 면밀하게 심의되었다(학교별 소위원회 및 운영 위원회 : 16 개 위원회, 심의 위원 361 명, 2 회 심의 실시). 심의를 마친 시안은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외부 전문가, 현장 교원 등과의 합동 집중 작업, 교육부 편수 담당자의 최종 집중 작업을 거쳐 1991년 12월 28일에 총론이 먼저 확정되었다.

다음으로, 각 교과별 교육과정(각론) 개정 연구는 제 1 차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전통적 기본 교과에 대한 개정 연구가 1991년 5월에 한국 교원 대학교와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되었다. 기본 교과의 각론 개정 연구가 총론 확정 이전에 위탁된 것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귀납형과 연역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로서 교과 편제 연구에 교육과정 전문가와 교육 전문가의 상호 작용과 협동 연구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배려였다. 이러한 5 개의 기본 교과 외에 기타 교과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부산수산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각 교과 교육 전문 연구 기관(12 개 기관)에 개정 연구를 1991년 10월에 위탁하여 1992년 4월 말까지 추진되었다.

교과별 각론 개정 연구에는 교수, 연구원, 현장 교원, 교육부 편수 담당자 등 550 명의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협의진 1,218 명, 자문진 178 명을 합해 1,946 명의 교과 교육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개정 연구 결과를 접수하여, 1992년 5월부터 10월까지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각론 시안에 대한 공청회(23 분과, 2,930 명 참가)를 실시하였고,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개정 시안을 송부하여 검토 의견(179 개고, 8,134 명 검토)을 종합하였으며, 정부 각 부처, 관련 기관, 단체 등 91 개 기관에도 개정 시안을 보내 검토를 의뢰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각 학교 급별, 교과별로 구성된 교육과정 심의회(159 개 위원회, 심의 위원 2,512 명)에 개정안을 회부하여 2~3 회의 전문적인 심의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전문적인 심의를 거친 교육과정 개정안은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교과 교육 전문가 및 현장 교원(769 명)의 합동 집중 작업을 거쳐 수정, 보완한 후, 다시 교육부 편수 담당자와 최종 정리 작업이 있었으며, 수정, 보완된 개정안은 다시 교육과정 심의회(학교급별 소위, 운영위)에 회부되어 최종 심의를 거쳐 보완되었다. 최종 심의를 거쳐 보완된 교육과정 개정안은 시·도 교육청의 중등 학교 교육과정 관계자의 검토회를 가졌다(1992. 9. 17).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1992년 10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고시하였다.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구성 방침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전체적 체제 및 구조, 각 교과목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기본 원리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운영, 교원 양성 및 연수,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개발, 입시제도, 교육 환경 및 시설 정비 등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질 관리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기본 철학과 원리로서 적용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정의 기본 방향 및 구성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 개정의 기초 연구를 통해 대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측면에 걸친 분석 검토가 이루어졌다.

첫째, 교육과정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교육과정의 개념적 측면에서의 분석 검토이며, 둘째,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 목표 측면에서의 분석 검토이고, 셋째, 현행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반성적 측면에서의 분석 검토이다. 넷째는 사회 변동에 따른 학교의 위상 변화 측면에서의 분석 검토이며, 다섯째, 21 세기 사회의 전망과 미래상의 측면에서의 분석 검토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육부는 교육 개혁 심의회와 교육 정책 자문 회의에서 제시한 21 세기를 대비한 교육 개혁 정책의 교육 내용 개선 방안 등을 종합하여 제 6 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설계도를 마련하여 추진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교육부가 교육법에 의거하여 고시한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개념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교육부 장관이 교육법에 의거하여 결정,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의 교육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적, 일반적 기준을 말하며, 이 기준에는 초·중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등에 관한 국가 수준의 기준 및 기본 지침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같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편성·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육 목표와 내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교육 경험의 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계획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운영 방식 등이 핵심으로 구성되며, 이들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교육 구조적 요인에 대한 배려까지도 포함한다. 특히, 교육 내용은 지식과 그것을 조직하는 사고의 양식, 생활 경험, 공동체 경험을 포함하며, 방법은 구체적 교수·학습 과정을 의미하므로 교육과정은 교육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제반 관련 요인들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보았다.

제 6차 교육과정의 이론 모형은 시간적으로는 21 세기, 공간적으로는 한국이라는 교육 현실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문화적, 역사적 조건을 분석하고, 이 시대의 사회 전망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한 기초 위에 한국의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하여 그 어떤 특정한 하나의 이론 모형에 의존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바로 이것이 교육과정 탐구의 현실적, 상황적 패러다임(practical paradigm)을 택하게 하였고, 필연적으로 제반 이론에 절충적·종합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제 6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은 ①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②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③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④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등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교육부, 1995: 99~105).

첫째,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를 위해서는, 교육부가 전담하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체계를 조정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재량의 권한을 확대하였다.

둘째,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적합하게 다양한 이수 과정과 교과목을 개설하고 필수 과목을 축소하는 한편, 선택 과목을 확대하여 교육 내용의 획일성을 해소하였다.

셋째,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학습량과 수준을 조정하고, 교과목 체계의 개선으로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높이고 학습 부담을 줄였다.

넷째,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학생의 적성, 능력, 진로를 고려하고 학습과 생활의 기초 능력을 신장하며, 평가 방법을 개선하였다.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제 6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다. 이 인간상은 다음 몇 가지 원칙 위에서 도출되었다(교육부, 1995: 91). 첫째는 한국 교육 이념과 목적, 그리고 교육 방침을 기초로 하였고, 둘째는 21 세기 한국의 사회상과 교육적 필요에 비추어 요구되는 인간 특성을 고려했으며, 셋째는 제 5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인간

특성과의 연계성 유지를 고려하였다.

제6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교육 목표(이념), 내용(행동), 운영(방법), 제도(체제) 등의 네 가지 기둥을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다(교육부, 1995: 105).

지금까지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기본 방침은 주로 교육 목표와 내용에 국한시켜 설정해 왔다. 즉,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 교육의 쇄신 등과 같은 제3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침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육 목표와 내용 중심의 구성 방침은 실제 학교 교육의 실천 과정과 방법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흐름과 교육의 질 관리를 도외시한 측면이 있어서, 단순한 교육 내용의 주제, 개념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평면적 구성 방침에 그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6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구조와 체제를 결정하는 것과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는 일에 있어서 그 구성의 기본 방침을 목표, 내용면에 제한하지 않고 교육과정의 운영과 교육과정 제도면까지 고려하여 설정한 점이 특징이다.

즉, 교육과정을 구성함에 있어서, 목표, 내용, 운영, 제도의 네 측면의 핵심적인 강조점이 중요한 준거로 작용하게 하고, 그 결과가 학교 교육의 실제에 연결될 수 있도록 배려했던 것이다.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침은 4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5: 106~112).

첫째,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을 육성한다. 이 방침은 4개의 구성 방침 중에서도 가장 중핵적인 으뜸의 방침으로서,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와 특별 활동 모든 영역에 공통 교육 목표로서 작용하고, 이념적으로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보편적, 공통적 방침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과 각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시에 이 첫째 번 기본 방침은 가장 중시되는 가운데 모든 교육 목표와 지도 중점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육 활동(교과 및 특별 활동)을 계획하고 실천, 평가할 때에,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이 육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절한 체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부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교과와 특별 활동의 각 영역, 내용 중에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의 형성에 관련되는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세부적, 구체적 학습 계획을 수립, 실천하여야 하며, 특히 내용면에서의 반영, 실천만이 아니라, 교육 방법면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쳐서 첫째 방침이 강조되어야 하겠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인 능력을 개발한다. 이 방침은 주로 교육 내용 선정과 방법의 구안에 영향을 끼치는 기본 방침으로서,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간 특성 중 교육을 통해 가장 중시해야 할 분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 교육의 모든 활동을 통해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 소재, 상황을 선정, 계획하고, 교

육 방법, 자료 활용, 평가 등에서도 창의성에 중점을 둔 교육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의도되어야 한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은 도덕성과 창의성을 강조하여 모든 학교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와 특별 활동에 특히 중점을 두어 반영하는 가운데 편성·운영되어야 할 기본 목표로 제시하였다.

셋째, 학생의 개성,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이 방침은 교육의 방법, 운영면을 고려한 기본 방침으로서, 지금까지의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직된 교육 체제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며, 교육과정의 구성과 편성에 이 방침이 반영되도록 하여 교육의 다양성, 융통성, 탄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에 의거해서, 공통 필수 과목(10 과목)만을 국가 수준에서 지정하고, 그 밖의 과목 선택 결정권을 시·도와 학교에 위임했고, 과정 설치권, 전문 과목 편성권, 이수 단위 증감권, 전문 과목 신설권, 보통 과목과 전문 과목의 교체 이수권 등의 재량권을 교육 현장에 부여했으며, 과거 교육과정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과목 설정, 제시(보통 교과 46 과목 → 70 과목, 전문 교과 338 과목 → 378 과목)와 교육과정 전체 구조를 계열별 고정 폐쇄형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여 제시한 통합 개방형으로 개선했다.

넷째,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 관리를 강화한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기본 지침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시킨 점이 획기적인 변화이다. 우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의 성격’ 항을 신설하여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의 성격, 기능,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학교에서 구체적인 실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구성, 제정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고, 각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각 학교에서 구체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바르게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편성·운영 지침을 해당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정해서 제공하고 시행하도록 하였다.

교육법에 고등학교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법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에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별도로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일반 교양 교육과 직업 준비를 위한 전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국제화, 정보화, 고도 산업화, 경제 구조의 변혁 등에 따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교육과 직업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등 후기 중등 교육의 충실과 다양화에 중점을 두고 개정하였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 6 차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 ‘교과와 특별 활동’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1) 교육과정의 성격,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3) 편제, (4) 단위 배당 기준, (5)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교과와 특별 활동에는 보통 교과와 특별 활동 및 전문 교과에 대한 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하였다.

1992년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로 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면 <표 II-16, 17>과 같다.

<표 II-16> 제6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보통 교과 단위 배당 기준

(1992. 10. 30)

교 과	공통 필수 과목	과정별 필수 과목	과정별 선택 과목
1. 윤 리	윤리(6)		과정별 필수 과목에서 제외된 교과목 중에서 선택(8)
2. 국 어	국어(10)	화법(4), 독서(4), 작문(6), 문법(4), 문학(8)	
3. 한 문		한문 I(6), 한문 II(4)	
4. 수 학	공통 수학(8)	수학 I(10), 수학 II(10), 실용 수학(8)	
5. 사 회	공통 사회(8) 국사(6)	정치(4), 경제(4), 사회·문화(4), 세계사(6), 세계 지리(6)	
6. 과 학	공통 과학(8)	물리 I(4), 물리 II(8), 화학 I(4), 화학 II(8), 생물 I(4), 생물 II(8), 지구 과학 I(4), 지구 과학 II(8)	
7. 체 육	체육 I(8)	체육 II(6)	
8. 교 련		교련(6)	
9. 음 악	음악 I(4)	음악 II(4)	
10. 미 술	미술 I(4)	미술 II(4)	
11. 실업·가정		기술(8), 가정(8), 농업(6), 공업(6), 상업(6), 수산업(6), 가사(6), 정보 산업(6), 진로·직업(6)	
12. 외국어	공통 영어(8)	영어 I(8), 영어 II(8), 영어 독해(6), 영어 회화(6), 실무 영어(6), 독일어 I(6), 독일어 II(6), 프랑스어 I(6), 프랑스어 II(6), 에스파냐어 I(6), 에스파냐어 II(6), 중국어 I(6), 중국어 II(6), 일본어 I(6), 일본어 II(6), 러시아어 I(6), 러시아어 II(6)	
13. 교양 선택			
이수 단위	70	106	12
특별 활동	학급 활동 (2) 클럽 활동 단체 활동 (4)		

- 【주】 ① 보통 교육을 주로 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및 기타 필요한 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직업 과정으로의 변경은 3학년에서도 가능하다.
- ② ()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을 말한다.
- ③ 체육 II, 음악 II, 미술 II는 <표 26>의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 (출처) :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별책,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10. 30.(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I), 서울 : 대한 교과서(주), 1992, pp. 3~4).

<표 II-16> 계속

교 과	과 목			학 과
2. 공업에 관한 교과	세라믹 이론 세라믹 공업 식품 제조 공정 제직 인쇄 일반 특수 인쇄 자동차 전기 중장비 구조 정비 선박 건조 비행 원리 항공기 장비	세라믹 재료 도자기 섬유 재료 편성·봉제 인쇄 재료 인쇄 사진 자동차 정비 선박 이론 선박 의장 항공기 기체 항공 전자 장치	세라믹 공정 발효 공업 방직·방사 염색·가공 평판 인쇄 자동차 구조 차량 법규 선박 구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관	
3. 상업에 관한 교과	상업 경제 상업 부기 상업 계산 상품 기업 회계 무역 업무 프로그래밍 II 경영 통계 그래픽 디자인 비서 실무	상업 실습 전자 계산 일반 상업 실무 문서 실무 원가 회계 상업 영어 자료 처리 상업 디자인 일반 컴퓨터 그래픽 속기	경영 개요 상업 법규 마케팅 유통 관리 일반 세무 회계 국제 경제 전자 계산 실무 상업 미술 비서 일반 사무 자동화 일반	상업과 회계과 무역과 정보 처리과 상업 디자인과 관광 경영과 비서과 기타 학과
4.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수산 일반 어업 해사 법규 선화 운송 수산 양식 수산 가공 열기관 기계 설계·공작 통신 운용 해양·기상	해운 일반 항해 해사 영어 수산 경영 양식 생물 질병 냉동 기계 선박 보조 기계 통신 공학 통신 실험	수산·해운 실습 선박 운용 선박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시설 냉동 설비·설계 선박 전기·전자 전자 통신 기기 자동화 선박	어업과 양식과 자영 수산과 수산 식품과 동력 기계과 전자 통신과 냉동 기계과 항해과 선박 운항과 기타 학과
5.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자영 사업 일반 유아 교육 원리 노인 생활 지원 의복 구성	가사·실업 실습 유아 생활 교육 복식 디자인 영양과 식품	인간 발달 노인 복지 의복 재료·관리 조리	유아 교육과 의상과 조리과 자수과

II.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급식 관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실내 디자인 기타	지수 호텔 업무 관광 일본어	한국 문양 여행 관리 주거	관광과 실내 디자인과 기타 학과
6. 과학에 관한 교과	물리 실험 지구 과학 실험 컴퓨터 과학 I 고급 화학 과제 연구 I 과제 연구 II 기타	화학 실험 과학사 수학 III 고급 생물 컴퓨터 과학 II 워크숍	생물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고급 지구 과학 과학 철학 원서 강독	
7. 체육에 관한 교과	체육 개론 체조 무용 수영 경기 사격 빙상 요트 스키 카누	스포츠 과학 수영 육상 경기 구기 경기 양궁 사이클 조정 펜싱 기타	육상 구기 체조 경기 투기 역도 골프 볼링 배드민턴	
8. 예술에 관한 교과	시창·청음 성악 합창·합주 음악 일반 미술사 디자인 동작법 무용 창작 현대 무용 기타	음악 이론 기악 실내악 소묘 회화 서예 무용 이론 한국 무용 전통 무용	음악사 작곡 연주 미술 이론 조소 미술 일반 무용사 발레 무용 음악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9. 외국어에 관한 교과	영어 독해 I 영어 회화 II 영어 문법 I 영미 문화 II 독일어 독해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문법 I 독일 문화 II 프랑스어 독해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문법 I 프랑스 문화 II 에스파냐어 독해 I 에스파냐어 회화 II 에스파냐어 문법 I 에스파냐어권 문화 II 중국어 독해 I 중국어 회화 II	영어 독해 II 영어 작문 I 영어 문법 II 영어 청해 독일어 독해 II 독일어 작문 I 독일어 문법 II 독일어 청해 프랑스어 독해 II 프랑스어 작문 I 프랑스어 문법 II 프랑스어 청해 에스파냐어 독해 II 에스파냐어 작문 I 에스파냐어 문법 II 에스파냐어 청해 중국어 독해 II 중국어 작문 I	영어 회화 I 영어 작문 II 영미 문화 I 고급 실무 영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작문 II 독일 문화 I 실무 독일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작문 II 프랑스 문화 I 실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회화 I 에스파냐어 작문 II 에스파냐어권 문화 I 실무 에스파냐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작문 II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에스파냐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중국어 문법 I 중국 문화 II 일본어 독해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문법 I 일본 문화 II 러시아어 독해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문법 I 러시아어 문화 II 기타	중국어 문법 II 중국어 청해 일본어 독해 II 일본어 작문 I 일본어 문법 II 일본어 청해 러시아어 독해 II 러시아어 작문 I 러시아어 문법 II 러시아어 청해	중국 문화 I 실무 중국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작문 II 일본 문화 I 실무 일본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작문 II 러시아 문화 I 실무 러시아어	
이수 단위	82 ~			

【주】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는 【표 2】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2 단위 이상 이수한다.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다.

- ㉠ 농업 계열: 농업 발전, 농업 실습, 전자 계산 일반
- ㉡ 공업 계열: 공업 입문, 제도, 전자 계산 일반
- ㉢ 상업 계열: 상업 경제, 상업 부기, 전자 계산 일반
- ㉣ 수산·해운 계열: 수산 일반(수산), 해운 일반(해운), 수산·해운 실습, 전자 계산 일반
- ㉤ 가사·실업 계열: 가사·실업 실습, 전자 계산 일반
- ㉥ 과학 계열: 물리 실험, 화학 실험, 생물 실험, 지구 과학 실험
- ㉦ 체육 계열: 체육 개론, 육상, 체조, 수영
- ㉧ 예술 계열: 시창·청음, 음악 이론(음악과), 소묘, 미술 이론(미술과), 동작법, 무용 이론(무용과)
- ㉨ 외국어 계열: 각 학과 해당 외국어 각 과목 I 및 청해

③ 전문 교과와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다음에 제시된 단위 이하로 배당한다.

- ㉠ 농업에 관한 교과: 18 단위
- ㉡ 공업에 관한 교과: 8 단위
- ㉢ 상업에 관한 교과: 12 단위
- ㉣ 수산·해운에 관한 교과: 20 단위
- ㉤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 12 단위
- ㉥ 외국어에 관한 교과: 8 단위
- ㉦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교과와 실습 과목과 과학, 체육, 예술에 관한 교과와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가 정한다.

(출처) :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별책,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10. 30.(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I), 서울 : 대한 교과서(주), 1992, pp. 5~9).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 6 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편제는 제 5 차 교육과정에서는 일반계, 실업계(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계, 체육계, 예술계 고등학교별로 구분하여 제시된 폐쇄형 체제였으나, 제 6 차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일반 교양 교육)와 전문 교과(직업 전문 교육)로 구분하여 모든 고등학교가 필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선택, 운영할 수 있는 개방형 체제로 개선하여, 고등학교의 성격과 교육

목적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보통 교과는 계열과 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하는 「공통 필수 과목」(10 과목)만 교육부가 지정하고, 「과정별 필수 과목」은 시·도 교육청에서, 「과정별 선택 과목」은 각 고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교육부가 고등학교의 이수 과목 전체를 결정하던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체제에 지방 분권형 교육과정 요소를 도입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민주화를 도모하고, 지역과 학교의 창의적 자율 재량을 확대하였다.

셋째, 전문 교과(378 과목)는 동일 계열(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의 모든 학생이 이수할 「계열별 필수 교과」만 교육부가 2~4 과목으로 지정하고, 「학과별 필수 교과」는 시·도 교육청이, 「학과별 선택 교과」는 각 학교가 선택하도록 개선하여 전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를 제정하여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7개의 외국어에 대해 독해, 회화, 작문, 문법, 청해, 실무, 문화 영역에 걸쳐 총 84개 과목을 신설함으로써, 국제화에 대비하여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실업계의 경우 농업, 공업, 상업,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전문 교과(270 과목)를 산업 구조의 현실과 요구에 부응하는 직업 준비 기초 기능의 강화 및 중복·유사 과목의 해소 등을 위하여 대폭 통·폐합하고, 미래 사회의 산업 구조와 정보화, 첨단 기술 등의 발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문 교과를 추가하여 224개 과목으로 조정하였다.

다섯째,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총 이수 단위를 204~216 단위에서 204 단위로 조정하였고,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18~20 과목에서 12 과목 내외로 감축했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 지금까지 인문·사회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의 3개 과정만 설치, 운영하던 것을 3개 과정 외에 지역 특성, 학교 실정, 학생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타 필요한 과정을 시·도별로 설치하여 각 학교에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여섯째, 학생의 다양한 적성, 능력, 진로에 적합한 교육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특성별 과목을 대폭 신설하고, 교육 내용의 위계성이 강하여 선수 학습 능력이 과목 이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학, 과학, 외국어, 한문 등의 교과는 여러 수준의 과목을 설정하여 우수자, 부진자, 진학 희망자, 비진학자 등이 제각기 능력과 필요에 따라 알맞은 과목을 선택 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일곱째, 교육 내용의 시대적, 사회적 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어 과학·환경 교육의 강

화,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의 개선, 정보화·고도 산업화 사회에 대비한 컴퓨터 교육 강화, 윤리 교육 및 전통 문화 교육, 예술·정서 교육의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 내용을 개선하였다.

여덟째, 특별 활동은 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단체 활동의 4개 영역으로 편성하였다. 지금까지의 특별 활동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영역 체계가 이원화되어 초등학교는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 등 3개 영역으로 구성되고, 중·고등학교는 ‘학급 활동, 클럽 활동, 전교 학생회 활동, 학교 행사’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된 것을,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초·중등학교의 활동 영역을 ‘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등 3개 영역으로 일원화하고, 고등학교에는 인성 교육을 강화하고자 ‘단체 활동’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특별 활동에 배당된 기준 단위는 학급 활동 및 클럽 활동(10단위)과 단체 활동(4단위)에 한한 것이므로, 학교 활동 시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라. 부분 개정

1993년 6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3-6 호로 교련과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 시대적 변화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따라 군사 교육 중심에서 질서 및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생활 중심으로 개정하였다.

1997년 12월 12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2 호로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교육과정 고시가 있었다.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교육과정은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기술·기능 인력 양성 제도’ 개편 사업에 의하여 1994년부터 일부 공업 계열 고등학교가 2·1 체제로 시범 운영됨에 따라 동 체제에 적용될 학교와 산업체 현장 교육에서 사용될 교육과정을 개발하게 되었다.

공고 2·1 체제는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의 양성을 위해 산학 협동에 의해 공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1, 2학년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론 및 기초 실습 위주로 교육을 받고, 3학년 학생들은 산업체 현장에서 응용 실습 교육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 공고 2·1 체제라고 부른다.

공고 「2·1 체제」 교육과정 구성 방침은 (1) 제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과 일관되게 구성하고, (2) 학생들이 공업계 고등학교 「2·1 체제」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보통 및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서 생산적이고 실천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중점을 두어 구성하고, (4)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산업체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와 산업체로 이원화하여 구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통 교과는 제 6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준용하고, 전문 교과는 산업체 현장의 직무

분석을 통해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교과로 개설하였다.

9. 제 7 차 교육과정기(1997~2007)

가. 개정 과정 및 이념상의 특징

제 7 차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개정, 고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 7 차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시작되었다.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는 정보화·세계화 시대에 대비하여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교육 체제는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을 비전으로 삼았으며,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1) 필수 과목 축소 및 선택 과목 확대, (2)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3) 수준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교육과정 개선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교육개혁위원회 내에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995년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틀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위원회는 1996년 2월 9일 교육 개혁 과제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제시하였다. 그 세부 개정 지침은 다음과 같다.⁴⁷⁾

-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및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 등 신교육과정 편제 도입
- (2)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 (3)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독서 교육 강화, 교과 교육에서의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강화, 평가 방법의 개선 등 교육과정 각론 개발의 주요 지침 제시
- (4) 선택 과목 도입에 따른 수능 제도의 개선, 교과서 제도의 자율화 확대 및 교과서의 질 제고, 다양한 교사 제도의 탄력적 운영 및 교사 연수 강화, 학교 환경 및 시설의 개선, 교육과정 중심의 단위 학교 조직 개편 권장 등 지원 체제 확립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신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1996년 3월 19일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기본 계획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총괄 책임자 : 이돈희)에 교육과정 개선 기초 연구를 위탁하였다. 과제별 기초 연구 위탁 과제와 연구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47)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II)’, 1996. 2. 9. 제3차 대통령 보고서, pp. 38~52.

- (가)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평가 연구(연구 책임자 : 인천교대 김재복, 이하 괄호 안은 연구 책임자임)
- (나)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숙명여대 윤병희)
- (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요구 조사(서울대 김기석)
- (라) 통합 교과와 교육과정·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한국교원대 김종건)
- (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한국교육개발원 곽병선)
- (바) 수준별 교육과정안(한국교육개발원 허정철)
- (사)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한국교육개발원 장석민)
- (아) 특수 목적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한국교육개발원 성일제)

기초 연구를 통해 개정의 기본 방향이 수립되자,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다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고, 이 시안에 대해 전문가 협의회, 공청회, 현장 검토, 심의 과정을 거쳐, 1997년 2월 28일에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선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 교육과정 총론 편제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교과 교육과정(각론) 개발 지침을 마련한 후 서울대학교 등 14개 기관에 교과별 각론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였다. 개발된 개정 시안에 대하여 각종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그리고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현장 검토, 심의 및 수정·보완을 거쳐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는 학교 현장 및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2년 동안 교육과정 전문가, 대학 교수,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연인원 14,332명이 참여하였고, 연 228회의 각종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였으며, 교육과정 심의회 내의 127개 소위원회에 1,794명의 심의 위원이 참여하였다(교육부, 2000: 101).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한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의 학교 교육 모습을 전망하면서 교육 여건과 환경이 잘 조성된 인간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알맞은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에 대한 사과의 전환을 요구하였다(교육부, 1998: 6).

첫째, 교과서 중심, 공급자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한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

문가의 위치를 확보한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는 데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 인식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중점 사항을 살펴보면,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을 개정의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개정의 기본 방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을 두었다(교육부, 2000: 107~109).

첫째, 목표에 있어서는, 학생의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목표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을 충실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둘째, 내용에 있어서는,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 신장에 중점을 두었다.

셋째,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교수·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자 중심의 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넷째, 제도에 있어서는,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결정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나. 기본 방침 및 목표상의 특징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이다.

제7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6개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부, 2000: 109~114).

첫째,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학생들에게 기본적 언어 능력, 사고 능력, 기초 체력, 탐구력과 창의성, 판단력, 기본 생활 습관 형성 등과 같은 기초적, 기본적인 교육의 충실을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반드시 달성

하여야 할 과제로 삼았다.

둘째,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제 1 차부터 제 6 차 교육과정기에는 학교급별 개념에 의한 교육과정 체제로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각각 별도로 공포 또는 고시하였다. 그러나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였다. 12년간의 초·중등 교육 기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년간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국어, 도덕 등 10개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필수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부턴 3학년까지 2년간은 선택 중심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알맞은 과목을 학생 스스로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선택 과목은 보통 교과의 경우 제 6 차 교육과정기의 60 과목에서 79과목(일반 선택 과목 26, 심화 선택 과목 53)으로, 전문 교과의 경우 378과목에서 445 과목으로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선택의 폭을 확대하였다.

셋째,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최소 필수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교과 학습 내용을 정선하고 범위와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교사와 학생의 교수·학습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기당 이수 과목을 제 6 차 교육과정의 12과목에서 10과목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학생의 필요, 능력, 적성,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의 능력과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에 교과 특성에 따라 단계형과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에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수학과 영어 교과에 적용하되, 학년을 단계로 하고 각 단계별로 학기를 단위로 하는 2개의 하위 단계를 설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넷째,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가 수준에서는 엄격한 과정 구분을 폐지하였다. 다만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제 6 차 교육과정의 경우 과목 선택권은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만 있었으나,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즉 선택 과목 136단위 중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하되, 학생이 최대 50%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업 방법면에 있어

는 실험, 실습, 관찰, 조사, 수집, 토론, 견학, 노작 등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모든 학습 과정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하였다.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에 관한 전국 공통의 일반적, 공통적인 사항만을 직접 관리하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위임하였다. 즉, 국가(교육부)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을 고시하고, 시·도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각 학교에 제시하며, 학교는 국가 기준과 시·도 지침을 기초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역할 분담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특성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하였다.

여섯째,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와 시·도 교육청에서 의도된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서 교과별 교육 목표의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제 6 차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법에 제시되어 있게 때문에 교육과정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7년 12월 13일 교육법이 폐지되고 초·중등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가 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하였다.

제 7 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며 다음의 5개 항목의 교육 목표를 제시하였다(교육부, 1997: 4).

- (1)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다.
- (2)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3)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 (4)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는 태도를 가진다.
- (5)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다.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제 7 차 교육과정은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과 제2장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제3장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총론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는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2) 학교급별 교육 목표, (3)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4) 교육

과정의 편성, 운영 지침을 제시하였다.

1997년 12월 30일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은 <표 II-18>과 같다.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중심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구성에 있어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 중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명칭 통일을 위해 윤리를 도덕으로, 실업·가정을 기술·가정으로 교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술·가정은 선택에서 필수로 이수 구분을 변경하였다.

교과 편제의 제시 순서를 국어를 선두로 재조정하여,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한문·교련·교양으로 하였다.

정보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정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술·가정 교과에 필수인 기술·가정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인 정보사회와 컴퓨터를 신설하고, 기술·가정 교과, 재량 활동 그 외의 관련 교과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내용을 강화하였다. 또한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 중 국제에 관한 교과를 신설하여 국제화에 대비하고,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어' 과목에 아랍어를 신설하였다.

<표 II-18> 제7차 교육과정기의 고등학교 단위 배당 기준

(1997. 12. 30)

가. 보통 교과

구 분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선 택 과 목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	
교 과	국 어	국어(8)	국어 생활(4)	화법(4), 독서(8), 작문(8), 문법(4), 문학(8)
	도 덕	도덕(2)	시민 윤리(4)	윤리와 사상(4), 전통 윤리(4)
	사 회	사회(10) (국사 4)	인간 사회와 환경(4)	한국 지리(8), 세계 지리(8), 경제 지리(6) 한국 근·현대사(8), 세계사(8), 법과 사회(6) 정치(8), 경제(6), 사회·문화(8)
과	수 학	수학(8)	실용 수학(4)	수학 I(8), 수학 II(8), 미분과 적분(4) 확률과 통계(4), 이산 수학(4)
	과 학	과학(6)	생활과 과학(4)	물리 I(4), 화학 I(4), 생물 I(4), 지구 과학 I(4) 물리 II(6), 화학 II(6), 생물 II(6), 지구 과학 II(6)
	기술· 가정	기술· 가정(6)	정보 사회와 컴퓨터(4)	농업 과학(6), 공업 기술(6), 기업 경영(6) 해양 과학(6), 가정 과학(6)

체 육	체육(4)	체육과 건강(4)	체육 이론(4), 체육 실기(4 이상)*
음 악	음악(2)	음악과 생활(4)	음악 이론(4), 음악 실기(4 이상)*
미 술	미술(2)	미술과 생활(4)	미술 이론(4), 미술 실기(4 이상)*
외국어	영어(8)		영어 I(8), 영어 II(8), 영어 회화(8) 영어 독해(8), 영어 작문(8)
		독일어 I(6), 프랑스 어 I(6) 스페인 어 I(6), 중국어 I(6) 일본어 I(6), 러시아 어 I(6) 아랍 어 I(6)	독일어 II(6), 프랑스 어 II(6) 스페인 어 II(6), 중국어 II(6) 일본어 II(6), 러시아 어 II(6) 아랍 어 II(6)
한 문 교 련 교 양		한문(6) 교련(6) 철학(4), 논리학(4), 심리학(4), 교육학(4), 생활 경제(4), 종교(4), 생태와 환경(4), 진로와 직업(4), 기타(4)	한문 고전(6)
이 수 단 위	(56)	24 이상	112 이하
재량 활동	(12)		
특별 활동	(4)		8
총 이수 단위			216

- ①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②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재량 활동에 배당된 단위 수 및 특별 활동 4단위는 10학년에 이수하도록 한 것이다.
 ③ * 표시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와 심화 선택 과목은 체육, 예술에 관한 전문 교과와 과목 중에서 선택한다.
 ④ 교양 교과에서 심화 선택 과목이 필요한 경우 전문 교과 과목 중에서 선택하거나 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도 있다.

나. 전문 교과

교 과	과 목				기 준 학과
농업에 관한 교과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업 경영	식물 자원과
	생물 공학 기초	재배	작물 생산 기술	숲과 인간	동물 자원과
	산림 자원 기술	원예	생활 원예	생산 자재	농업 경영과
	원예 기술 I	원예 기술 II	축산	사육 기술 I	농업 토목과
	사육 기술 II	누에와 비단	잠사 기술	농업 기계	식품 가공과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기술 I	농업 기계 기술 II	농업과 물	농업 기계과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토목 기술 I	농업 토목 기술 II	식품 과학	조경과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I	식품 가공 기술 II	환경 보전	농산물 유통과
	환경 관리 I	환경 관리 II	조경	조경 기술 I	환경 보전과
	조경 기술 II	농산물 유통	유통 관리 I	유통 관리 II	기타 학과

	기타				
공업에 관한 교과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전문 제도	기계과
	기계 일반	전기 일반	공업 영어	기계 설계	전자 기계과
	기계 공작법	원동기	유체 기기	공기 조화 설비	금속과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I	공작 기계 II	산업 설비	자원과
	금형 제작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전자 기계 공작	전기과
	전자 기계 제어	금속 재료	금속 제조	소성 가공	전자과
	주조	금속 처리	자원 개발	화약·발파	통신과
	석재 가공	시추·지하수	자원 개발 조성	자원 개발 기계	전자 계산기계과
	전기 응용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력 설비 I	토목과
	전력 설비 II	전기·전자 측정	자동화 설비	전자 기기	건축과
	전자·전산 응용	전자 회로	계측 제어	통신 일반	산업 디자인과
	정보 통신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화학 공업과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멀티미디어	역학	세라믹과
	토목 설계	토목 일반	측량	토목 재료·시공	식품 공업과
	수리·토질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섬유과
	건축 계획 일반	건축 시공 I	건축 시공 II	건축 시공 III	인쇄과
	디자인 일반	색채 관리	조형	제품 디자인	자동차과
	공예	공업 화학	단위 조작	제조 화학	조선과
	화공 계측 제어	뉴 세라믹	소결 세라믹	고온 세라믹	항공과
	응결·경화 세라믹	융융 세라믹	발효 공업	식품 제조 기계	환경 공업과
	식품 공업 I	식품 공업 II	섬유 재료	방직·방사	기타 학과
	제포·봉제	염색·가공	인쇄 일반	인쇄 재료	
	평판 인쇄	특수 인쇄	사진·전자 제판	사진 기술	
	자동차·건설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새시	자동차 전기	
	건설 기계 구조·정비	선박 이론	선박 구조	선박 의장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체	항공기 기관	
	항공기 장비	항공기 전자 장치	환경 공업 일반	대기·소음 방지	
수질 관리	폐기물 처리	기타			
국제에 관한 교과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	국제 경제	국제 문제	비교 문화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 사회	한국어		
과제 연구	예능 실습	기타			
이수 단위	82~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위의 표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2 단위 이상 이수한다.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㉞ 농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㉟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㊱ 상업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㊲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수산 계열), 해사 일반(해운 계열)
- ㊳ 기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㊴ 외국어 계열 : 각 학과 해당 외국어 과목 I 및 청해

- ④ 국제 계열 : 영어 강독, 지역 이해, 한국의 전통 문화
 - ③ 전문 교과와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와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8단위 이하로 배당한다.
 - ④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에 관한 교과와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 (출처) :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997. 12. 30.(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 대한 교과서(주), 1997, pp. 7~11).

과목의 편제 구성은 보통 교과와 경우 제 6 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필수, 과정별 필수, 과정별 선택으로 구분하였으나,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필수), 일반 선택 과목,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교양 증진 및 실생활과 연관된 과목이며, 심화 선택 과목은 학생의 진로, 적성과 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재량 활동의 신설에 따라 각 교과에 배당되는 수업 시수는 전반적으로 감축·조정하였다. 공통 필수 과목의 경우 수학(8), 영어(8)를 제외한 국어(10→8), 도덕(6→2), 사회(8→6), 국사(6→4), 과학(8→6), 체육(8→4), 음악(4→2), 미술(4→2) 등 8개 과목에서 20단위가 줄고, 기술·가정(6) 과목이 신설되어, 공통 필수 이수 단위는 70단위에서 56단위로 줄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간 중에 이수하는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일반 선택 과목은 24단위 이상 이수하되, 학생들의 균형적 이수를 위하여 (1)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2)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3)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 (4)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5) 교양 과목군(한문, 교련, 교양)의 5개 과목군으로 나누고, 모든 학생은 각 과목군에서 1과목(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심화 선택 과목은 112단위 이하 이수하도록 하되, 별도의 이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둘째, 교육과정의 편제는 제 6 차 교육과정기에는 교과와 특별 활동의 2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으나, 재량 활동 영역을 신설하여 3개 활동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 활동을 신설하여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재량권을 더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재량 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고 학교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⁴⁸⁾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48) 범교과 학습이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중 학교와 교사, 학생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범교과 학습의 영역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

재량 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만 편성되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1학년에만 12단위가 배당되었다. 재량 활동 12단위는 교과 재량 활동에 10단위(주당 5시간)를 배정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에 2단위(주당 1시간)를 배정하였다. 교과 재량 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4~6단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4~6단위를 배정하였다. 다만,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재량 활동은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셋째, 특별 활동의 운영에 자율성을 도모하였다.

제 6 차 교육과정의 경우 집단 중심의 4개 영역(학급, 학교, 클럽 및 단체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나,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중심의 5개 영역(자치, 적응, 계발, 봉사 및 행사 활동)으로 조정하였다. 단위 배당의 경우 제 6 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급 활동 및 클럽 활동에 12단위, 단체 활동에 4단위를 각각 배정하고 학교 활동에는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영역별 이수 단위를 국가가 결정하였다. 그러나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연간 이수할 총 단위 수만 제시하고, 영역별 이수 단위 결정권은 학교에 부여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도모하였다. 국가 교육과정에는 5개 영역에 걸쳐 25개 활동을 예시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가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 활동을 편성·운영할 때 각 영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시간 운영은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이수제 등을 예시하고, 시간 분할 또는 통합 운영 방안도 제시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였다.

넷째, 실업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경우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다음과 같은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 (1)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은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 (2)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3) 2학년에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일부를 편성할 수 있다.
- (4)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 (5)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예시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도할 영역의 선정은 학교 실정, 사회적 여건, 학생의 희망을 고려함으로써 학교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 (6)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7)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라. 부분 개정

2004년 11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4-85호로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이는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을 위한 것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 예술고, 국제고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해당 계열의 전문 교육 강화를 위하여 총 이수 단위 증배시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학과의 설치나 집중 이수 과정의 개설을 금지하여, 해당 계열의 영재 양성을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에서는 전공 외국어 이수 비율을 50%(42단위) 이상으로 설정하고 전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어를 포함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하도록 하였다.

2005년 1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5-10호로 공고 2·1체제 교육과정과 국사 교육과정 개정이 있었다. 그동안 일부 산업체에서만 편성·운영하던 공고 2·1체제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흡수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1체제 교과서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사 교육의 정상화 및 외국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역량의 확보를 위하여 근·현대사 교육을 보완하고 필수화하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국사과 교육과정에 근·현대사 내용 요소를 추가하고 이에 따른 학습 부담의 경감을 위하여 전근대사 내용 요소 일부를 삭제하였다.

2006년 8월 29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6-75호로 수학·영어 수준별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이 있었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및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고,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준별 교과서(보충 교재)를 제작·보급함으로써 수준별 수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II-19〉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교육에 대한 긴급 조치 (1945~1946)	법령 제6호	1945. 9. 29.	1945. 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용어 국어 사용 ○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과목은 교수와 실습 금지 ○ 공민과 신설 ○ 우리의 말과 글 중심인 국어 교육 ○ 일본 역사 대신 우리 국사로 대치
교수 요목의 시기 (1946~1954)	고급 중학교 교수 요목	1946. 9. 1.	1946.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 요목: 학생들이 학습해 나갈 코스, 교사가 학생에게 가르칠 교수 내용의 주제 또는 제목 ○ 편제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민, 역사, 지리 통합: 사회 생활 - 체육, 보건 통합: 체육·보건 -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분 ○ 외국어 확대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 영어 - 선택: 중국어, 불어, 노어, 독어
제 1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54~1963)	문교부령 제 35 호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범 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	1954. 4. 20.	1955. 4.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 ○ 편제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특별 활동의 2개 영역 구성 - 교과와 과목 구분 ○ 연간 시간으로 제시하면서 주당 시간 수는 괄호 안에 제시 ○ 사회교과 내에 도덕 과목 신설 ○ 특별 활동 시간 배당: 전인 교육 지향
	문교부령 제 46 호 “고등학교 교과 과정”	1955. 8. 1.	1955. 8.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교의 교과목 및 기타 교육 활동의 편제 ○ 인문계, 실업계 구분 없이 단일 교육과정 제시 ○ 반공 교육, 도의 교육, 실업 교육 강조
	문교부령 제 76 호	1958. 6. 5.	1958. 6.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교부령 제35호의 제22조 개정 ○ 실업 고등학교의 교과 시간 배당 기준표 신설
제 2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63~1974)	문교부령 제 121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63. 2. 15.	1965.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경험) 중심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 활동의 총화’ -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 합리성, 지역성의 강조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제 채택 - 인문계 고등학교에 과정 개설: 인문 과정, 자연 과정, 직업 과정, 예능 과정 - 인문 과정 204 단위, 자연 과정 214 단위 ○ 학교에 교육과정 재구성권 부여

II.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문교부령 제122호	1963. 2. 15	1963. 3. 1.	○ 실업 고등학교 교육과정 별도 제정
	문교부령 제207호	1969. 2. 19	1969. 3. 1.	○ 교련 교과 신설
	문교부령 제 251 호	1969. 9. 4.	1970. 3. 1.	○ 한글 전용 계획에 따라 국어 I 에서 한자 삭제 ○ 국어 II 한문 6 단위 → 8 단위 ○ 국민 교육 현장 이념 구현 ○ 남·여 공통 필수 기술 과목 신설 ○ 에스파니아 어 신설
	문교부령 제274호	1971. 2. 19	1971. 3. 1.	○ 국민 윤리 교과 독립
	문교부령 제 310 호	1973. 2. 14.	1973. 3. 1.	○ 일본어 신설
	문교부령 제 325 호	1973. 8. 31.	1974. 3. 1.	○ 국사 교육 강화
제 3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74~1981)	문교부령 제 350 호 “교육과정령” 별책 3	1974. 12. 31.	1977. 3. 1.	○ 학문 중심 교육과정 - 지식의 구조, 기본 개념과 원리 중시 ○ 국민 교육 현장의 이념 구현 - 국민적 자질의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 자아 실현, 국가 발전, 민주적 가치 강조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 총론, 각론으로 구분 -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3)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별책 4) 별도 편제 - 교과 구분: 필수, 필수선택, 과정보선택 - 자유 선택 과목 신설 - 교과목별 이수 단위에 폭을 두어 교과 운영의 융통성, 신축성 부여 - 국사 교과로 독립 - 외국어, 한문, 기술 교육 강화
	문교부령 제379호 “교육과정령” 별책 4	1976. 2. 23	1977. 3. 1.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 총론에 실업계 고등학교 전체에 적용될 교육 목표, 교과 편제 및 단위 배당 기준 설정
	문교부령 제 404 호	1977. 2. 28.	1977. 3. 1.	○ 사회 교과 개정 - 정치·경제를 필수 과목으로 함. ○ 산업체의 근로 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 학급, 부설 고등학교 예외 조치 규정 ○ 특별 활동의 학생회 활동을 학도호국단 활동으로 함.
	문교부 고시 제 424 호	1979. 3. 1.	1979. 3. 1.	○ 교육과정 문서 결정 체제의 개선 - 교육과정 체제 정비: 체제 통일, 자구 수정, 맞춤법 통일 등 - 문교부령(법규 문서)으로 공포되는 교육과정을 문교부 고시(공고 문서) 형태로 개선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제 4 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1~1988)	문교부 고시 제 442 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 과정”	1981. 12. 31.	1984.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 교육 사조와 이론의 지배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사회적, 학문적 적합성의 조화 - 교과, 경험, 학문 중심 교육 사조의 균형, 조화 - 인간 중심 교육과정의 특성 반영 - 교육과정: ‘학교에서 전개되고 실현될 교육 실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정 학생에게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를 국가 수준에서 규정하는 의도되고 문서화된 계획’ ○ 교육적 인간상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사람, 심미적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도덕적인 사람, 자주적인 사람 ○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합하여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단일화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총 이수 단위 204~216 단위로 동일하게 조정 - 자유 선택 과목 : 선택의 범위 확대(논리학, 철학, 교육학, 심리학, 종교 등)
	문교부 고시 제 85-10 호	1985. 12. 17.	198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련: 국민 정신 교육 강화, 군사 기능 관련 내용의 통합 축소 ○ 특별 활동: 학도 호국단 활동 → 학생회 활동
제 5 차 교육과정의 시기 (1987~1992)	문교부 고시 제 88-7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88. 3. 31.	1990.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익 인간의 이념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조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 ○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 교육의 강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 ○ 체제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 교과 공통 필수 과목은 일반계,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공통 이수 - 교육과정 단위 배당 제시는 기존의 급간제에서 기준 단위 제시로 변경 - 정보 산업 과목 신설 - 기타계 고등학교 : 과학 계열, 예술 계열 교육과정 제정
	문교부 고시 제 90-1 호	1990. 1. 22.	1990.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계 고교 비진학 학생의 직업 교육과정 선택에 대한 융통성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학년에서 직업 과정으로 변경 가능 ○ 문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교육감에게 위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업계, 기타계 고교 과목, 계열, 학과 신설에 대한 승인
제 6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92~1997)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10. 30.	199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세기를 주도할 건강하고 자주적이며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한국인 육성 ○ 교육과정 개정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국가 교육과정 기준 -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학교: 학교 교육과정

II.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변천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제 6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92~1997)	교육부 고시 제 1992-19 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1992. 10. 30.	199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학교의 교육 목적,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 가 수준의 교육과정 - 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 기준 ○ 체제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계, 실업계, 과학계, 체육계, 예술계 고등학교별 분리 제시에서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한 개방형 체제로 전환 - 보통 교과: 공통 필수, 과정별 필수, 과정별 선택으로 개설 - 전문 교과: 계열별 필수, 학과별 필수, 학과별 선택으로 개설 - 공통 필수 과목: 계열과 과정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이수 ○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 신설 ○ 러시아 어, 진로 직업 신설 ○ 특별 활동에 단체 활동 신설
	문교부 고시 제 1993-6 호	1993. 6. 30.	1993. 9.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 교육 중심 교련 교육과정을 질서 및 사고와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생활 중심으로 개정
	교육부 고시 제 1997-12 호 '공업계 고등 학교 2·1 체 제 교육과정'	1997.12. 16.	199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2 학년: 학교에서 이론 및 기초 실습 교육 - 3 학년: 산업체 현장에서 응용 실습 교육 ○ 체제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체 현장의 직무 분석에 근거하여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제 7 차 교육 과정의 시기 (1997~)	교육부 고시 제 1997-15 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1997. 12. 30.	2002.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 표방 ○ 21 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 인 한국인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진 로를 개척하는 사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공동체 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고등학교 교육 목표 신설 ○ 교육과정 개정 중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편성 - 고등학교 2, 3 학년의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도입 -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 재량 활동의 신설 - 교과별 학습량의 최적화와 수준의 조정 -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 평가 체제 확립 -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창의성, 정보 능력 배양 ○ 국제에 관한 전문 교과 신설 ○ 아랍 어 신설 ○ 특별 활동: 집단 중심→활동 목표, 내용 중심으로 영역 설정 ○ 체제 및 편제상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 중, 고 교육과정 단일 교육과정으로 통합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도입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3 개 영역으로 구성 -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교과, 특별 활동 - 재량 활동: 교과 재량, 창의적 재량

구 분	법적 근거	공포(고시)	시 행	특 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2004. 11. 26.	2005.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 - 총 이수 단위 증배는 전문교과에만 허용 -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학과, 과정 개설 금지 - 외고 전공 외국어 비율 50% 이상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5-101호	2006. 1. 5.	2006.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2·1체제 교육과정 폐지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흡수 통합 ○ 국사 근·현대사 교육 보완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2006. 8. 29.	2009. 3.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폐지 - 수준별 수업 권장

Ⅲ.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1. 개정의 배경 및 기본 방향

우리나라 국가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에는 일반적으로 국가·사회적 변화 및 학문의 발달, 학생을 비롯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 등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배경 요인에 대한 현실 진단과 미래 전망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은 1995년 5월 31일 당시 대통령 자문 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 기초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요인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진단한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를 지향하는 교육 체제의 변화와 급속한 사회 변동, 과학·기술과 학문의 급격한 발전, 경제·산업·취업 구조의 변화,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필요의 변화, 교육 여건 및 환경의 변화 등 교육을 둘러싼 내외적인 체제 및 환경, 수요의 대폭적인 변화를 들고 있다.⁴⁹⁾

제7차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개념을 학년별 개념으로 전환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 활동의 신설 및 확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의 강화 등 획기적인 변화 및 개선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교원 및 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 증가와 함께 애초 교육과정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 등 적용상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박순경 외, 2006; 허정철 외, 2005).

첫째, 제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하여 교육 내용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007년 2월에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은 2009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1997년 12월에 고시되어 2000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 제7차 교육과정은 9년 정도의 기간에 적용되는 것이고, 고시 시점으로 볼 때 10년이 지난 것이다. 최근의 국가 교육과정이 약 5년 주기로 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 교육과정은 개정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 이렇

49) 교육부(1998).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1): 총론. p. 77.

게 볼 때,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 요인 중의 하나는 시간의 경과(9~10년)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할 필요 때문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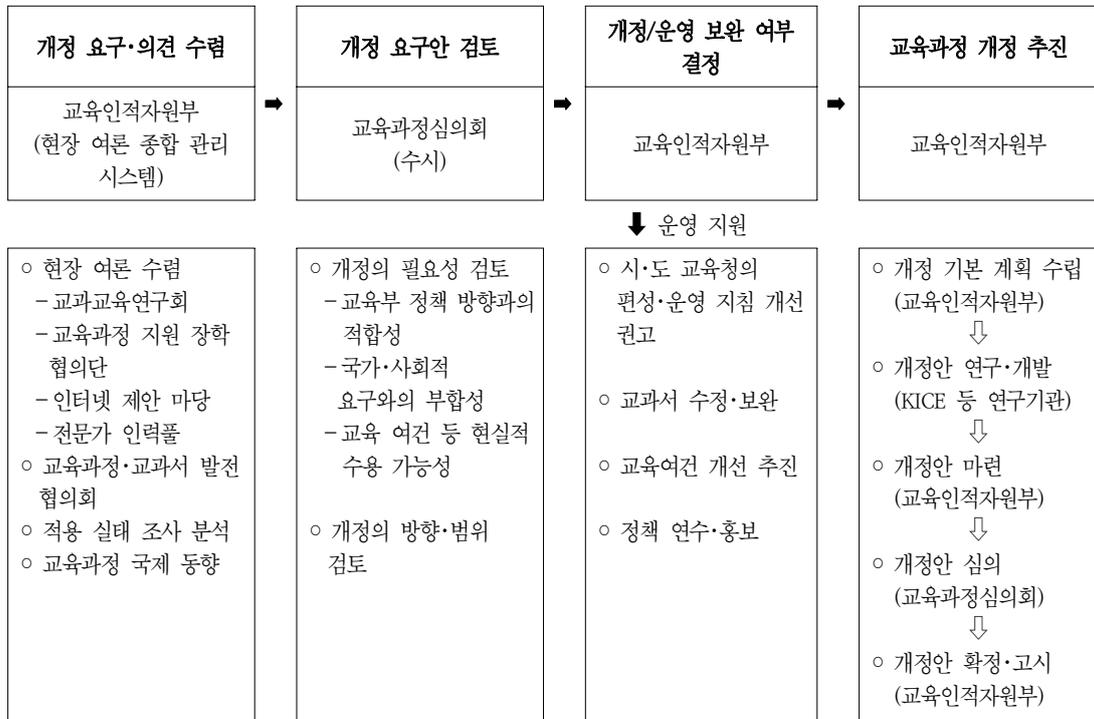
둘째, 과학·역사 교육 강화 등과 같은 국가 및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 교육과정의 시행 과정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다양한 요구가 제기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이후 정부의 각 부처와 위원회 등 관계 기관, 각종 단체와 일반 국민들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반영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개정의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의 하나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경우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은 재이수나 유급 등이 허용되지 않아 현실성이 미흡했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수준별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도 과목군 및 과목에 따라 선택의 편중 현상이 나타났으며,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이원 체제로 인한 불합리성이 지적되었다.

넷째, 주 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에 따라 학교급별 수업 시수를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주 5일 수업제 월 2회 실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져 왔다.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는 주 5일 수업제 실시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 10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배경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수시 개정 체제는 종래의 주기적 및 일시적 개정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일시·전면적 교육과정 개정 방식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사회의 다원화 및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이고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시 개정 체제가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10월에 도입 계획을 발표한 후 2005년 2월부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 수시 개정 체제에 따라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⁵⁰⁾ 당시에 구상되었던 수시 개정의 절차를 모형으로 제시하면 [그림 Ⅲ-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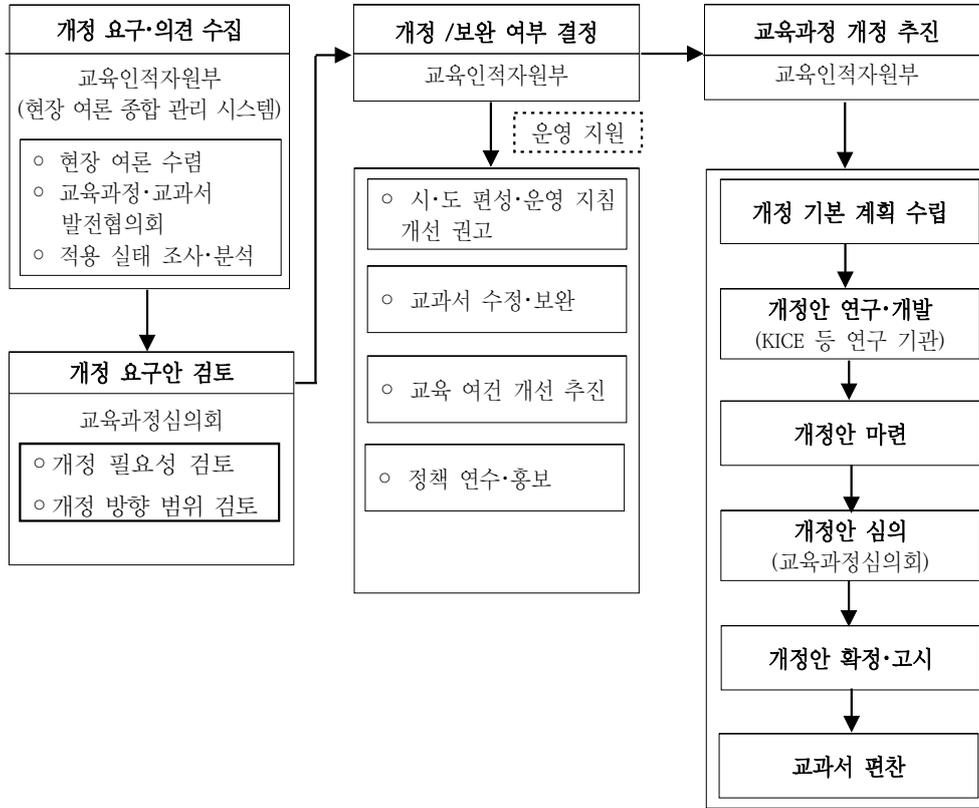
50) 2005년 2월 25일에 발표한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운영 활성화 방안’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수시 개정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의 지속적 개선, 국민 각계각층의 교육과정 개정 요구를 탄력적, 체계적으로 반영, 현장 적합성 높은 교육정책 구현 및 교육 수요자 만족감 제고, 질 높은 교육과정의 산출로 말미암은 교육의 질 제고를 들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이전에도 2004년(2004.11.26.)에는 특목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85호)을, 2005년(2005.12.28.)에는 공고 2·1 체제 교육과정과 국사 교과 교육과정의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5-10호)을, 또한 2006(2006.8.29.)년에는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을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75호)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수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Ⅲ-1] 수시 개정 체제에서의 교육과정 개정 절차

수시 개정 체제의 취지에 따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먼저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되, 그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을 개선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방향과 철학, 체제를 검토한 결과, 이것은 향후 우리 교육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학습자 중심 교육,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등의 관점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등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과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개정 작업의 과정과 결과는 [그림 Ⅲ-2]와 <표 Ⅲ-1>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그림 Ⅲ-2]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과정

<표 Ⅲ-1>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정 경과

추진 내용	시기	담당	비고
○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 수립 - 관계 전문가와의 협의 및 종합 검토 - 실무 작업반 구성·운영 - 기본 계획 수립, 결재 - 개정안 연구 개발 위탁	2003. 3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도입 계획 발표	2003. 10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 개정 요구 수렴 -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 운영 -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구축	2004. 12 ~2006. 12 2005. 9 ~2006. 12	교육인적자원부	○ 정부 기관 및 비정부 기관 교육과정·교과서 개편 요구 ○ 교육과정 개정 요구 및 의견 수렴

Ⅲ.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추진 내용	시기	담당	비고
○ 교육과정 개정 요구안 검토		교육과정심의회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별 교육과정 및 유치원 교육과정의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	2004. 8~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4개 과제
○ 교육과정 수시개정 체제 활성화 방안 발표	2005. 2. 25	교육인적자원부	
○ 실업계 및 기타계 전문교과, 특수학교 교육과정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추진	2005.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립특수교육원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국민공통기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2005.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4개 과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국민공통기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2005. 11~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과 국민공통기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2005. 4~5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국 총 3,760개 학교 교사 참여,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37개 참여,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 참여 정부 부처 및 위원회 등 참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활용 각계각층 의견 수렴
○ 영어·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심의회	2006. 5~7	교육과정심의회	
○ 영어·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2006. 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영어·수학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2006. 7. 14	교육인적자원부	
○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고시	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 고등학교 선택 과목 및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2006. 9~10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전국 총 3,760개 학교 교사 참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교과서 정보 서비스 홈페이지 활용 각계각층 의견 수렴

추진 내용	시기	담당	비고
○ 유치원과 특수학교 및 중·고등학교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개발 연구	2006.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39개 과제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설치·운영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2006. 4~1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3개 과제 ○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개발 연구 참여자 현황 - 연구진(8명), 교과 전문가 등(50명), 연구 협력진(128명,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전문가,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교원 단체, 학부모 단체 등, 교육혁신위원회, 초·중·고등학교 교사) 총 186명 참여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토론회	2006. 12. ~2007. 1.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 개정 시안 작성을 위한 집중 검토 협의회	2007. 1. 24~25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	2007. 1~2	교육과정심의회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확정·고시	2007. 2. 28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개발	2007. 3~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급별·학년별 교과서 연차적 개발 및 교과서 상시 검정 체제
○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	2007. 6~8	교육인적자원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연구 개발(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2007. 4~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15개 과제
○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회	2007. 9. 14	교육인적자원부	
○ 유치원 교육과정 고시	2007. 12. 19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특수학교 교육과정 고시	2008. 2. 26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연구 개발(선택 중심 교육과정)	2008. 4~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추진 내용	시기	담당	비고
○ 개정 교육과정 적용 : - 2009. 3. : 초1,2 - 2010. 3 : 초3,4/중1 - 2011. 3 : 초5,6/중2/고1 - 2012. 3 : 중3/고2 - 2013. 3 : 고3 ※ 수학, 영어 교육과정 적용 (2006. 8월 고시) - 2009. 3 : 초1,2/중1/고1 - 2010. 3 : 초3,4/중2/고2 - 2011. 3 : 초5,6/중3/고3	2009. 3 ~2013. 3		

2.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과정 개정의 의미는 교육과정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 길러야 할 인간의 특성에 대한 전망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교육받은 인간의 특성을 교육적 인간상으로 표현한다면 교육과정 개정은 새로운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설계라고 볼 수 있다. 교육적 인간상의 설정은 우리나라 교육이 처한 상황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미래 전망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던 교육적 가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인 교육이란 인간의 제 측면이 균형 있게 발달한 인간을 기르는 교육을 말하며, 이는 홍익인간의 이념에서 출발하여 지·덕·체를 겸비한 인간을 기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길러야 할 인간의 모습으로는 전인 교육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이념, 전통의 계승과 미래 사회에 대한 대비, 국가 발전과 인류 공영의 가치들도 꾸준히 표방했다. 이와 같은 사항은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수렴되어야 할 측면일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 능력을 갖춘 인간을 새로운 교육적 인간상의 대표적인 특성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게 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표방한 인간상과 동일하다.⁵¹⁾

51)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과 관련된 기초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의 ‘제7차 교육과정 개정안의 교육적 인간상 및 교육 목표 연구’(1997)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특히 21세기 다변화 사회에 적합한 교육적 인간상은 일면적이고 경직된 인간상보다는 다면적이고 유연한 교육적 인간상으로서,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교육적 이상을 표방해야 할 것이다. 교육적 인간상은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교육 이념이나 각급 학교의 교육 목적과 어긋나지 않아야 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에 제시된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익인간의 이념에 포함된 ‘인격 도야, 자주적 생활과 민주 시민의 자질, 인간다운 삶의 영위’라는 개인적 차원의 이념과 ‘민주국가의 발전에의 이바지’라는 국가적 차원의 이념, 그리고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의 이바지’라는 세계적 차원의 이념은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가 되었으며, 교육 발전의 지표로서 인간상을 정립하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은 제 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을 견지하고 있다.⁵²⁾ 21세기 사회는 학교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함께 포괄하는 균형 잡힌 인간을 필요로 한다. 전인적 성장을 기반으로 개성을 추구해 나가는 인간,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인간,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지닌 인간,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인간,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하다. 각 인간상에서 표방하는 보편적 가치와 시대적 가치는 상호 대립적이지 않고, 학교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조화로운 교육적 인간상이다. 따라서 각 인간상에 제시된 요소 중의 어느 한 쪽만의 특징을 지닌 인간은 급변하는 미래의 다원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으로는 부적절하며, 인간상의 각 요소들의 특성을 함께 지닌 조화로운 인간이 필요하다. 미래의 열린 사회에서는 보

52) 제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인간상을 비롯하여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표방해 온 교육적 인간상의 변천은 [부록 2]에 제시되어 있다.

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시대적 가치와 요구를 반영한 개방적이고 다면적인 인간상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상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되, 동시에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스타일도 형성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은 주지주의 교육에 의한 폐해를 극복하고자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강조한다. 이는 인간의 성장 경험을 특정한 발달 영역에 한정하지 않고 인간 발달의 전 영역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에서 전인성의 발달을 추구하는 것은 교육 내용을 지나치게 인지적인 측면으로 제한하고 있는 편협한 교육관에서 벗어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지·덕·체가 조화를 이루는 전인적인 성장은 그 자체로서 충분한 교육적인 가치를 지니지만,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우리의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삶을 추구하는, 즉 개성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성을 추구하는 인간이란 자기다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살리하고자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우선 지·덕·체가 모두 조화롭게 발달한 인간이며, 이는 전인적인 성장을 기본 바탕으로 하되, 자신만의 독특한 삶의 양식을 형성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자신의 삶을 합리적으로 꾸려나가는 개성 있는 인간을 의미한다.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교육 선진국에서는 한결같이 인적자원 개발의 기반이 되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읽고, 쓰고, 셈하는 능력은 공동체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기초 능력으로 여전히 중요하다. 더욱이 21세기 다원화 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초 능력의 개념이 컴퓨터 사용 능력, 사회 및 자연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탐구 능력 등과 같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앞으로 지식이 없는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전 국민이 지식으로 무장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도 살아남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앨빈 토플러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전에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던 아이디어나 개념, 데이터와 정보, 지

식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게 되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면서, 끊임없는 지식 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김중웅 역, 2006). 따라서 21세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비판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능력은 자신의 사고를 외부로부터 주어진 하나의 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창의적 사고력은 기초 능력을 바탕으로 발휘되기에, 학교 교육에서는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과 함께 개방적인 사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 능력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안과 발상을 가능하게 해 주는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기초 능력과 창의력을 겸비한 인간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으며, 사회의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기초·기본 능력을 토대로 창의력을 발휘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사명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인간이 사회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교양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직업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양 교육의 주된 목적은, 사회 속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제반 지식, 기능, 가치 등을 습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편협한 지식, 이데올로기나 편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이해의 지평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편협한 지식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인간, 즉 교양인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그런데 아무리 교양 있는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직업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는 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회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서도 구성원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적합한 직업을 통해서 일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생산적인 환경이 필요하다. 인간은 생존의 수단으로 일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개척하고,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잠재 능력의 계발을 통한 자아실현이라고 볼 때, 교양 교육과 직업 교육은 상호 유사성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고, 일 자체를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일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진로 탐색과 개척 능력을 갖춘 인간이다. 폭넓은 교양과 직업적 능력을 갖춘 인간은 자율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자아실현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이다.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전통은 특정한 민족이나 공동체만이 가진 독특하고 고유한 것으로서 많은 변화에 직면해서도 바뀌지 않고 면면히 이어져 오는 문화유산이다. 민족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현재를 힘차게 살아갈 정신을 갖추게 하려면 우리의 전통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자긍심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또한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가 그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이란,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사고력과 함께 그것을 실천에 옮겨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해 내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새로운 가치의 창조에는 독창성, 융통성, 사고의 유연성이 필요하며, 이는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능력과 변화하는 여건에 슬기롭게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산출하고 생산해 내려면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계승, 발전이 그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우리의 전통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키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나감과 동시에 인류 보편 가치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 평등과 같은 민주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인간이다. 이러한 인간은 우리의 문화를 이해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긍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존재이다.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민주주의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존엄한 인간 삶의 조건들을 부단히 재형성해 가는 과정이다. 즉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삶의 방법적 원리를 개방적으로 탐색하고 실현해 나가는 공동체적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시민은 그들 자신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그들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민주적 공동체는 모든 개인의 자유, 평등,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민주적 공동체의 이상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우리에게 하나의 교육적 이상이다. 민주적 공동체는 모든 사람의 자유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평등함을 강조한다. 이는 모든 구성원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접받으며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며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을 길러 내는 일이 민주적 공동체의 이상이다.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교육적 인간상은 민주 시민으로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간,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인간, 자신의 부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인간이다. 이는 교육받은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이 민주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과 교육 목표

가.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고등학교 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는 달리 의무교육이나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과 같이 보편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한편으로 지식기반사회의 등장으로 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배워야 할 지식이 증가함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대부분의 사회에서 보편교육의 기간이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학생들은 한 사회의 시민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2년간의 학교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고등학교 교육이 보편교육의 성격을 지닌다고 해서 고등학교 교육을 반드시 의무 교육화할 필요는 없다. 세계에서 대표적인 교육복지 국가인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도 의무교육은 9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는 9년의 의무교육 이외에 추가로 더 많은 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

교 교육이 의무교육도 아니고 무상교육도 아니지만, 중학교 졸업생의 대부분(2007년 기준으로 99.6%)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교육은 이미 보편교육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와 대학교의 중간 단계의 교육으로서 공통 교육과 선택 교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중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도 공통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의 진로나 능력, 관심 등과 관련된 선택 교육이 일정 수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공통 교육과 선택 교육을 조합한 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공통 교육과 선택 교육을 조합하여 제공되되, 핀란드처럼 공통 교육을 보다 강조하는 나라도 있고, 스웨덴이나 미국처럼 선택 교육을 보다 강조하는 나라도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10학년에서는 공통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11, 12학년에서는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요컨대, 고등학교 교육은 공통 교육의 실시로 시작하여 학년이 올라가면서 선택 교육으로 분기해 나아가는 교육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고등학교 교육은 평등 교육을 지향하면서 동시에 수월성 교육을 추구한다. 고등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각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고등학교 교육에서 평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하여 각 나라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을 동일한 종류의 학교(comprehensive high school)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계열이나 능력별 반을 찾아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의 평등을 추구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추첨 배정 방식(이른바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였고, 평준화된 학교에서도 수월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요컨대, 고등학교 교육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평등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각 개인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시켜 줄 수 있는 수준별 수업을 필요로 하는 교육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고등학교의 교육 목표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은 초·중등교육법 제 45 조에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 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교육

목표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제시된 교육 목적과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 의식을 가진다.
- 나.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1997년 12월 13일 제정·공포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종래 교육법에 규정되었던 교육 목표를 삭제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교육과정에 제시하게 되었다.⁵³⁾ 종전과 달리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한 것은, 교육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 체제를 구현하기 위해 학교급별 교육 목표는 교육과정 부문에서 관장하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이 변화하는 요구와 필요성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결국 교육과정의 적합성 제고와 직결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 목표 설정과 그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는 21세기 학교 교육의 모습을 적극적인 입장에서 모색하고자 한 것이며, 교육을 통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 진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 목표는 교과(또는 영역)별 목표를 설정하는 일반적인 지침이 되며, 단위 학교에서 편성·운영되는 학교 교육과정의 총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이다. 이와 같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 목표는 먼저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과 초·중등교육법의 각급 학교 ‘교육 목적’을 반영하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추구하는 인간상’에 바탕을 두고 설정된 것이기 때문에 인간상을 설정하는 저변에 놓인 자원들이 교육 목표 설정의 자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제 7 차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개념이 아니라 학년별 또

53) 종전의 교육법에 제시되어 있던 고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제 104 조: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고등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05 조: 고등학교 교육은 제 104 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더욱 발전 확충시키어 중견 국민으로서 필요한 품성과 기능을 기른다.
2. 국가 사회에 대한 이해와 건전한 비판력을 기른다.
3. 민족의 사명을 자각하고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며, 개성에 맞는 장래의 진로를 결정하게 하며, 일반적 교양을 높이고 전문적 기술을 기른다.

는 단계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성 있게 구성하였으나, ① 교육과정이 학교급별로 운영되는 현실, ② 초·중등교육법에 교육 목적이 학교급별로 제시된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하여 교육 목표도 학교 급별로 제시하였다. 또, 모든 교육 활동이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기본 방향에 따라 교육 목표의 진술도 교육자의 입장보다는 학생의 입장에서 성장과 진보의 정도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술함으로써 학생 중심 교육과정 설정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Ⅲ-2>와 같다.

<표 Ⅲ-2>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 목표와의 관계

인간상 \ 학교 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다.
(2)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3)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4)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를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5)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4.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과 구성 방침

가. 개정 중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수시 개정 체제의 취지에 따라 교육과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두었다. 따라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학습자 중심 교육,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 목표 등의 관점과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등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과 내용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개정의 기본 방향을 바탕으로 하는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는 제6차 교육과정을 시점으로 교육과정 의사 결정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왔으나, 한편으로는 국가 교육과정 기준의 일부가 지나치게 상세화되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 자율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운영, 교과 집중이수제 도입,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 확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과 이수 단위의 증감 폭 확대 등을 반영하였다.

둘째,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회·문화적 발달 및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의 증대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 및 발달,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 및 관계 기관,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제기된 요구와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하여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하는 한편, 총론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과 재량 활동의 범교과 학습 내용으로 반영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촉진하고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선택 과목의 신설과 개설을 허용하였으며,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일원화했다. 또 입시 위주의 과목 편중 선택을 방지하고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성 교육 및 성장기에 필요한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택 과목군을 6개로 확대·조정하였다.

넷째, 교과별 교육 내용의 적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중점을 둔 교과 교육 내용의 적정화는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정하여 학교 교육의 제한된 여건하에서 최대의 교육 성과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 선정과 조직

에서의 교과별 적합성을 도모하고,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며, 학교급과 학년 및 각 교과 간의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중복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육 내용의 효율적인 구성과 함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주 5일 수업제의 월 2회 실시에 따라 수업 시수를 일부 조정하였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 5일 수업제의 월 2회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1, 2학년을 제외하고 학년별 총 수업 시수를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주 5일 수업제 운영 지침에 감축 운영해야 할 특정한 영역이나 교과를 지정하지 않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에서는 재량 활동이나 특별 활동을 감축 운영함으로써 체험 학습이나 인성 교육 및 창의성 신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업 시수를 연간 34시간 이내에서 감축하되, 고등학교 1학년은 재량 활동 중 교과와 성격이 유사한 교과 재량 활동에서 감축하고, 2~3학년은 학교 자율로 교과에서 감축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이념 및 철학, 방향 등 기본 관점을 계승하면서 교육과정의 적용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교 교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변화 및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수시 개정에 따라 제7차 교육과정 총론의 골간은 승계하고 교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 개선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은 전반적으로 제7차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21세기로 진입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점에서 요청되는 신교육 체제 구상의 하나로 제안된 것이었다. 21세기는 정보화 사회, 지식 사회로 표현되는 새로운 문명의 시대이며, 이러한 역사의 대전환기에는 새로운 교육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인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과 ①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②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③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④ 지역 및 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개정 중점 사항을 견지하고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⁵⁴⁾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 (목 표)
-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 (내 용)
-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 (운 영)
-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 (제 도)
-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1)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정보화·세계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초·중등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품위 있는 인격 형성이다. 그동안 산업화 사회의 경제 발전을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단순 기능인, 단순 지식인을 양성하는 차원을 넘어 이제는 인간 개인의 다양성을 개발시키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교육 목표 측면에서 학생의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함양시켜 나가려면 무엇보다 기초 기본 능력, 탐구 능력과 창의성 등 기초 학습 능력과 체력을 신장시키고, 실험·관찰·조사·수집·토론·견학·노작 등 학습자 중심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모든 학습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기본예절, 질서, 절제, 준법, 공중도덕 등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와 특별 활동, 재량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실천 중심의 다양한 체험 교육과 토론 학습으로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2) 세계화·정보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력의 신장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며 살아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촉진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 활동이 학생의 발달 정도에 알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54)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자 한 기본 방향과 관점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동일하다.

수 있게 하는 학습이다. 즉 교사의 지도하에 학습자 스스로 학습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학습 과제에 따른 탐구와 해결을 자신의 힘으로 전개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학습에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동시에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력 신장 프로그램, 발표력 신장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할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교과와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상호 보완을 통하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주제 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 학습, 자연 체험 학습 등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요청된다. 아울러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수집, 분석, 활용 능력을 신장시키고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 능력, 우리 문화에 대한 정체성 확립,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다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3)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에 적합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정보화·세계화 시대에는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이 요청된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별 수업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은 바로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이다. 수준별 수업 운영을 통해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에게는 학습 부진의 누적을 예방할 수 있으며,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화 교육이 가능하도록 풍부한 수업 도구와 학습 자료,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또 학생들의 개성, 흥미, 적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고 개별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흥미 및 진로에 따라 알맞은 교과목을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켜 풍부한 학습 자료를 지원해 주어야 한다.

(4) 지역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정보화·세계화 시대에는 국가의 간섭과 관리가 축소되고, 지역 수준의 기관과 민간의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에서도 시·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의 역할이 증대됨으로써 교육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교육 제도 측면에서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단위 학교가 권한을 분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과 재량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위 학교 수준에서는 국가 수준의 기준과 지역 수준의 지침을 바탕으로 지역과 학교 실정에 알맞은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결국, 교육과정의 결정 주체는 단위 학교와 교사이므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나. 구성 방침

개정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① 전인적인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앞에서 다룬 개정 중점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제 7차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을 계승하였다.

-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한다.
-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1)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교육과정 구성의 첫째 방침은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시대의 사회적 변화의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능력과 자기 주도력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정의 모든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편성·운영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방침이다. 따라서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

영 지침 작성과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에서 이 구성 방침은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설정 등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려면 기본 능력을 길러 주고, 창의성과 정보 능력의 배양에 힘써야 한다.

‘기본 능력의 육성’은 각급 학교 교육 목표의 설정, 편제와 시간 배당,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 구성에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작성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즉 이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과 관련되는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세부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실천하여야 한다.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개인의 다양성을 개발하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게 요청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과서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현장의 ‘수업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의 모든 활동은 학생의 자기 주도력 신장을 위한 창의성과 기본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내용, 소재, 상황을 선정·계획하고, 이에 중점을 둔 교육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식·정보의 양이 급증하는 지식·정보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기간에 동일한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0학년까지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는 학교 급별 개념이 아닌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게 되었다.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사회 복지 차원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또는 무상 교육 기간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산업 사회로부터 후기 산업 사회로 넘어가면서 단순 노동·기능직이 고등 정신력과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대체됨에 따라 모든 국민의 기본 교육이 더욱 충실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모든 학생이 10년 동안 공통적인 기본 교육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교양 수준과 기초 학력을 강화하고, 고도화·다변화하는 정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으며, 학교급 간이나 학년 간 교육 내용의

중복이나 비약을 방지하여 연계성을 지닌 교육과정 체제를 갖추고자 하였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고등학교 2, 3학년에서 학생의 능력, 흥미 및 장래 진로를 반영하는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자유롭게 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하게 하는 교육과정 체제이다. 이것은 학교의 선택보다는 학생의 과목 선택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과정이나 계열의 구분이 없이 운영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 이수 시간의 적정화 차원에서 모든 교과와 과목의 기준 시수를 교육 내용 구성의 최소 기준으로 삼고 학습 분량의 과다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학습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육 내용 적정화는 교육 내용의 적합성을 기반으로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조정하여 시·공간의 제한된 학교 교육 여건하에서 최대의 교육적 성과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도입한 수준별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수준별 내용을 전국 공통으로 처방함으로써 각 학교 및 개별 학생 간의 차이에 따른 수준별 내용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하여 학교의 자율성이 제한되었으며,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심화 내용' 제시에 따른 학습량의 증가로 인해 학습 부담이 가중되었다. 더욱이 유급이나 재이수가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의 학교 교육 현실에서 국가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 처방과 학교에서의 운영과 실제 간에 괴리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준별 교육을 위한 처방의 주안점을 '교육과정'에서 '수업'으로 전환하였다.⁵⁵⁾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과 기본 방향은 일치하지만, 시행 과정상에서 대면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학습 내용을 보다 정선하고 수업에서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으로 전환하였다. 요컨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고양하고, 단위 학교의 특성 및 현실에 기반을 둔 수준별 교육을 도모함으로써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55)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흥미에 대한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는 수업을 통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수준별 교육과정 유형에는 비교적 학습 내용의 위계가 분명한 교과를 단계별로 세분화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과 기본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심화 학습 또는 보충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심화·보충형 수준별 교육과정', 그리고 과목 내용의 다양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과목들을 종류와 수준별로 설치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하는 '과목 선택형 수준별 교육과정'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4)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며 경직된 교육 체제와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의 다양성과 융통성, 탄력성을 확대하는 것은 시대적 요청이다. 해방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마치 산업 현장에서 동일한 설계도에 의해,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공정으로, 동일한 규격품을, 동일한 속도로 대량 생산해 내는 ‘소품종 다량 생산 모형’과 같이, 동일한 교육 내용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과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속도로 교육해 온 ‘산업 모델 교육’이었다.

이러한 ‘산업 모델 교육’은, 교육 내용과 방법이 획일적이고 폐쇄적이어서 전체성, 공통성, 통일성, 평등성, 능률성 등은 효과적으로 유지되지만, 개별성, 수월성, 다양성, 적합성은 확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즉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 교육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교육의 양적 기회 균등과 평등성 문제는 해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학습자 개개인의 독특한 개성, 적성, 능력, 흥미, 관심, 진로를 살리고 학습의 성취를 보장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 타고난 소질과 수월성을 최대한으로 신장·발휘해야 하는 측면에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많다.

국가·사회적인 발전과 전망에 부응한 공동체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시키면서도 학습자 개인의 요구와 필요, 행복에도 부응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의 기초와 기본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공통성과 평등성을 기본적으로 확보하면서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산업 모델 교육’에서 벗어나 ‘인간 모델 교육’으로의 전환을 지향한다.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가 아닌 ‘다품종 소량 생산·다품종 변량 생산 체제’와 같이 교육 수혜자의 다양성과 개별성, 인간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5)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재량의 권한을 더욱 확대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방향을 계승하여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단위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국가 수준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하에 시·도 교육청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제시하고, 지역 교육청에서는 시·도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제시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편성하여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교육과정 주체별 명확한 역할분담 체제를 갖추도록 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했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자율성 확대 방향을 계승하는 데에서 나아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으로의 전환, 교과 집중 이수제 도입,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교과 이수 단위의 증감폭 확대 등을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더욱 강화하였다.

(6)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하였다. 학생의 교과별 내용 성취 기준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학생의 학력을 평가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질 관리 중심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추구하는 변화가 문서 수준의 수사적 변화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나 시·도 교육청에서는 의도된 교육과정이 구체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주기적인 학생 학력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평가 체제의 확립은 교육의 질 관리 차원에서 학교의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며, 실현된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교육과정의 질에 대한 평가는 교과서 내용의 질과 수업의 질, 교사의 질, 운영의 질,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교육 환경의 질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개정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될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 각 교과와 특별 활동의 성격·목표·내용·방법·평가에 대한 기준 설정의 기저가 되므로, 교육과정의 총론과 교과 교육과정, 나아가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IV.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마련되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은 '교과 편제의 조정'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수업 시수 조정'에 중점을 두었고, 이러한 사항들은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1. 편제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1. 편제

가.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와 같이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간을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으로 설정하여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일관된 교육과정 체제를 견지하고 있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 (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 (2)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 (3)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되고,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10개의 기본 교과로 편성되며, 10개 기본 교과를 중심으로 학년제 개념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의 일관성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명칭을 통일하였던 것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등학교 사회과를 '사회'와 '역사'의 두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10학년 교육과정 편제에서 ‘사회과’는 ‘사회’와 ‘역사’로 명기되며, 수업 시수는 각각 연간 102시간(6단위)으로 설정되었다. 아울러 제 7차 교육과정에서 구분하였던 ‘국사’와 ‘세계사’는 통합되어 ‘역사’로 변경되었다.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과 선택 과목을 포함하는 교과 재량 활동으로 구성된다.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며, 특별 활동의 본질적인 성격과 목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선정·조직하는 데 필요한 준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1)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가) 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다.

(나)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2)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11 학년부터 12 학년까지 2년간 편성되며 교과와 특별 활동의 2개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되며, 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 과목으로 구성하였다.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10개의 계열에 따른 선택 과목을 구성하였다.

개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는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제

2. 시간(단위) 배당 기준

2. 시간(단위) 배당 기준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 ③ 1시간의 수업은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 ④ 10학년의 ()안에 제시된 숫자는 단위 수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10학년의 시간 배당 기준은 다음의 <표 IV-1>과 같다. 2006년 이후 주 5일 수업제를 월 2회로 실시해 옴에 따라 연간 수업 시수는 34시간 감축되었다.

<표 IV-1> 10학년의 시간 배당 기준

학교		고 등 학 교	
구분	학년	10	
교	국 어	136(8)	
	도 덕	34(2)	
	사 회	사 회	102(6)
		역 사	102(6)
	수 학	136(8)	
	과 학	136(8)	
	기술·가정	102(6)	
	체 육	68(4)	
	음 악	34(2)	
	미 술	34(2)	
	외국어 (영어)	136(8)	
	재량 활동	102(6)	
특별 활동	68(4)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1,190(70)	

※ () 안은 단위 수

10학년의 시간 배당 방식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교과 및 영역별로 배당된 시간은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며, 모든 학생들이 공통 필수로 이수해야 할 최소 시간이므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는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단위 학교에서는 제시된 기준 이상으로 수업 시수를 편성할 수도 있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수업 시간을 연간 총 수업 시수로 제시하여 계절과 교과 및 활동의 특성, 학교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 시간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재량 활동은 연간 102시간으로 설정되었다. 교과 재량 활동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습과 국

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이 가능하며,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는 학교의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수업 시수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넷째, 특별 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정은 학교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시간 배당 권한을 단위 학교에 부여하였다. 학교에서는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 가운데서 중점 영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배당 기준에 제시된 시간 외에 별도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다섯째,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감축하기 위해 ‘교과 집중 이수제’를 적용할 경우, 집중 이수 대상 교과와 10학년 총 수업 시수를 유지하면서 특정 학기에 집중하여 이수할 수도 있다.

다음의 <표 IV-2>에서와 같이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보통 교과 편제는 6개의 과목군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선택 과목의 효율적 편성·운영을 위해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 수는 교양 등 일부 과목만 4단위로 하고, 대부분의 과목을 6단위로 설정하였다.

<표 IV-2>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보통 교과 편제표

구 분		선 택 과 목
교	국 어	화법(6), 독서(6), 작문(6), 문법(6), 문학(6), 매체 언어(6)
	도 덕	현대 생활과 윤리(6), 윤리와 사상(6), 전통 윤리(6)
	사 회	한국 지리(6), 세계 지리(6), 경제 지리(6), 한국 문화사(6), 세계 역사의 이해(6), 동아시아사(6), 법과 사회(6), 정치(6), 경제(6), 사회·문화(6)
	수 학	수학의 활용(6), 수학I(6), 미적분과 통계 기본(6), 수학II(6), 적분과 통계(6), 기하와 벡터(6)
	과 학 기술·가정	물리I(6), 물리II(6), 화학I(6), 화학II(6), 생명 과학I(6), 생명 과학II(6), 지구과학I(6), 지구과학II(6) 농업 생명 과학(6), 공학 기술(6), 가정 과학(6), 창업과 경영(6), 해양 과학(6), 정보(6)
체 육	운동과 건강 생활(4), 스포츠 문화(4), 스포츠 과학(6)	
음 악	음악 실기(4), 음악과 사회(4), 음악의 이해(6)	
미 술	미술과 삶(4), 미술 감상(4), 미술의 창작(6)	
과	외국어	영어I(6), 영어II(6), 실용 영어 회화(6), 심화 영어 회화(6), 영어 독해와 작문(6),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6) 독일어I(6), 독일어II(6), 프랑스어I(6), 프랑스어II(6), 스페인어I(6), 스페인어II(6), 중국어I(6), 중국어II(6), 일본어I(6), 일본어II(6), 러시아어I(6), 러시아어II(6), 아랍어I(6), 아랍어II(6)
	한 문	한문I(6), 한문II(6)

교 양	생활과 철학(4), 생활과 논리(4), 생활과 심리(4), 생활과 교육(4), 생활과 종교(4), 생활경제(4), 안전과 건강(4), 진로와 직업(4), 환경(4), 보건(4)
이수 단위	132
특별 활동	8
총 이수 단위	140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1) 보통 교과

- ① ()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삭제>⁵⁶⁾
- ③ <삭제>
- ④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도 교육감의 승인하에 【표 3】의 전문 교과 과목을 개설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고등학교 11, 12학년에서의 단위 배당 기준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학년별, 교과 및 영역별로 배당된 시간(단위)은 ‘최소’ 기준의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경우, 단위 수는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의 개념이다. 이는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최소 시간이므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는 이 기준에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과와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단위)은 주당 시수로 표기하지 않고 이수 단위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수업 시간 수를 고정하거나 획일화하지 않고 계절과 교과 및 활동의 특성,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교육과정 시간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학교와 학생의 요구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하에 【표 3】(부록 참조)의 전문 교과에 제시된 과목을 개설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이 학교와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6)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부분 개정한 교육과정이었으므로 교육부고시 제1997-15호에서 삭제된 부분은 ‘<삭제>’라고 명기한 것임.

V.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은 기본 지침과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라는 네 개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다.

1. 기본 지침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 기본 지침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10년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1)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의 확보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각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은 이 기간에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할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하는 최소 기준이다.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는 교과의 특성, 학교의 실정과 학생 실태, 계절 등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는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연간 수업 시간 수를 확보해야 한다.

(2) 수준별 수업의 운영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모든 학생들이 공통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업에서 학생의 능력과 적성, 필요, 흥미에서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고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 수준별 수업을 권장하였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부분에서 2006년에 부분 개정된 내용(교육인적자원부 고시 2006-75호)을 간략히 소개하면 <표 V-1>과 같다.

<표 V-1>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의 수준별 수업 관련 지침

해당 부분	수준별 수업 관련 지침의 내용
IV.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 1. 기본 지침 -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 가. 시·도 교육청 - (2) 운영	(배)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 다. 학교 - (1) 편성 - <공통 지침>	(배) 수준별 수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운영한다. ①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 다. 학교 - (2) 운영	(대) 단위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와 같은 부분 개정은 개인차를 존중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유지하되 단계형, 심화·보충형이라는 유형을 폐지하고, 무엇보다 수업 내실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이는 국가 수준 교과 교육과정에서 획일적으로 방안을 제시한 데서 벗어나, 단위 학교와 담당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학교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개인차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수준별 교육과정의 특징과 2006년에 부분 개정된 수준별 수업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 <표 V-2>와 같다.

<표 V-2> 수준별 교육과정과 수준별 수업의 특징 비교

구분	제7차 교육과정	2006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적용 교과	· 수학, 영어(단계형) · 국어, 사회, 과학 (심화·보충형)	· 수학, 영어, 국어, 사회, 과학	· ‘단계형’, ‘심화보충형’ 삭제
주안점	· 교과 교육과정 내용 · 수업	· 수업	· 교육과정에서 수업으로 전환
처방 수준	· 총론 · 교과 교육과정 내용 · 단일 교과서 내 처방 · 수업	· 총론 · 교과서+(워크북) · 수업	· 총론 지침 대강화 · 교과서와 교수·학습 자료 내실화
교과 교육과정 내용 처방	· 기본 과정과 더불어 심화·보충 내용 제시	· 기본 과정만 제시	· 교과 교육과정 문서의 ‘내용’ 부분에 ‘기본 과정’ 정선하여 제시 · 심화·보충 내용 삭제

이와 같은 수준별 수업은 학습 경험의 질을 높이고, 학습 결손의 누적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며, 학습자 중심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준별 수업이 권장된 교과 가운데 특히 수학과와 영어과 교육과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10학년에 적용된다.

(3)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다)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학습 또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재량 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 및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한 영역이다. 학생의 자기 주도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교원·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활동을 다양화하고 특색 있게 운영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궁극적 목표인 인간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과목의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다. 선택 과목은 보통 교과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문 교과에도 열려 있으며, 학교 자체적으로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다. 예컨대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재량 활동은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다.⁵⁷⁾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단위 학교와 교사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주제 탐구 학습과 범교과 학습 등 체험 중심 학습, 학교와 교사, 학생의 창의적인 교육 활동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재량 활동 수업 시수는 102시간으로 감축되었으나,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하위 영역별 수업 시수는 국가 수준에서 설정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4) 특별 활동은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가) 특별 활동의 영역별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삭제>

57)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기타계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선택 과목에서 전문 교과를 선택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기타계 고등학교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였으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를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로 수정하였다.

특별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특별 활동은 기본적으로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집단에 소속한 개인의 개성, 자율성,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선정되도록 하였다. 10학년에는 연간 68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영역별 시간 배정은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재량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영역별 활동에 필요한 시간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최소 시간을 기준으로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도록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 재량으로 영역별 수업 시수를 배정하되, 질 높은 활동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의 시간은 기준 시수 이외에 별도로 확보할 수도 있다.

(대)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단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운영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특별 활동은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의 필요, 학생의 희망·요구 등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10 학년에서 이수해야 할 연간 최소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단위 학교에서 특별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영역별로 적절한 시간을 배정하고, 필요할 경우 시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 활동의 시간은 활동 영역과 주제, 활동 내용이나 운영 방식 등에 따라 통합하거나 분할하는 등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즉, 시간 운영에 있어 1 시간(50 분)을 단위로 획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20 분, 30 분으로 분할하거나, 100 분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허용된다. 또한 학교 실정에 따라 매주 지정된 요일과 시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정일제, 격주로 시간을 연속하여 운영하는 격주제, 4 주 이상의 시간을 모아 하루에 실시하는 전일제, 특정 계절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집중 이수제 등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수업 시수는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지침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11, 12 학년에 편성되며 교과와 특별 활동의 2 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1)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이수 단위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11, 12 학년의 2년 동안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1)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140 단위로, 선택 과목에 132 단위, 특별 활동에 8 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11~12 학년의 2년 동안에 편성, 운영되며,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 210 단위 중 140 단위가 배정되어 있으며, 특별 활동 8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 132단위는 선택 과목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2)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2)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가) <삭제>

(나) <삭제>

- (다)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체육 과목군(체육), ④ 예술 과목군(음악, 미술), ⑤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⑥ 교양 과목군(한문, 교양)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 ①~④ 과목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 외국어 과목군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중 1과목 이상,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제 7차 교육과정과는 달리 일반 선택과 심화 선택의 구분을 폐지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 목적이 고등 보통 교육인 만큼 과목군의 개념은 유지하여 특정 교과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예·체능 과목군(체육, 음악, 미술)을 체육 과목군(체육)과 예술 과목군(음악, 미술)으로 분리하여 6개 과목군으로 설정하고 모든 학생이 각 과목군에서 최소 1 과목 이상(교양 과목군에서는 2 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선택 과목군을 확대한 것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인격을 함양하고, 체육, 음악, 미술 등의 영역에서 형성되는 문화적 창의성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편성할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과목을 복수로 개설, 운영하고, 학생 스스로 진로를 고려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㉞) 선택 과목 중 과목명에 Ⅱ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I을 먼저 이수해야 하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이수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선택 과목 중 과목명에 I 또는 Ⅱ가 있는 과목은 교과 위계상 I이 Ⅱ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I을 먼저 이수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이수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도 있다. 예컨대 이미 해당 수준의 과목을 이수하였거나 학업 성취도가 뛰어나 굳이 I을 이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교과목의 성격상 I이 Ⅱ의 선수 과목이 아닌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위치에 따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I을 이수한 후 Ⅱ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㉟) 선택 과목에 배당된 132 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는 각각 28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은 최소 28 단위 이상으로 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선택 과목에 배당된 132 단위 가운데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각각 28 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지역 및 학교의 특수성,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선택 과목을 계획성 있게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과 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와 학생의 필요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생의 필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학생 선택 비율의 상한선(최대 50%까지)을 폐지하고 최소 28단위 이상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일정 범위 이상 보장되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학교는 지역의 특수성과 교원 수급,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㊱)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수 단위가 4단위인 과목은 증배 운영만 가능하다.

(사) <삭제>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통 교과와 선택 과목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처럼 2단위까지 증감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4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증배 운영의 한도는 최대 4단위로 늘어났지만, 이수 단위를 지나치게 늘임으로써 특정 교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할 것이다. 또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과목의 최소 기준 단위는 4단위이기 때문에 4단위 미만으로는 감축이 불가능하다.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60 단위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보통 교과를 80 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이 교육과정에서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라 함은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를 말한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농생명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에 관한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며, ‘기타계 고등학교’는 전문계 고등학교 이외에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등에 관한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⁵⁸⁾

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와 같이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 60 단위를 포함하여 보통 교과를 80 단위 이상, 전문 교과를 80 단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특별 활동과 재량 활동을 제외한 총 교과 이수 단위 192 단위 가운데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최소 이수 단위인 160 단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학교가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나)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가운데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해당 교과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컨대, 과학 계열 고등학교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과학’ 대신, 과학에 관한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선택 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과학’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위한 조치이지만, 어디까지나 예외적 사항이므로

58)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 80 조에는 전문계 고등학교, 예·체능계 고등학교와 동법 시행령 제 90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목적 고등학교로 구분하고 있다.

1. 전문계 고등학교 : 농업, 공업, 상업, 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 등의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2. 예·체능계 고등학교 : 예술, 체육 등의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3. 특수 목적 고등학교 : 공업, 농업, 수산, 해양, 과학, 외국어, 예술, 체육, 국제 계열의 고등학교 중에서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ㄷ) 교원 및 시설 여건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1 학년에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일부를 편성할 수 있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는 10 학년까지 이수해야 하나, 특색 있는 전문 교육을 위해 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교원 및 시설 여건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0 학년에서 일부 전문 교과를 편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일부 11학년에서도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ㄹ)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 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 기준 단위의 증감 한도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 4 단위까지 허용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폭넓게 부여하였다.

(ㄴ)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교체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ㄷ)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ㄹ) <삭제>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의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될 경우 상호 교체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예컨대 공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의 ‘미술의 창작’ 대신에 공업에 관한 전문 교과인 ‘조형’을, 체육계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인 ‘스포츠 과학’ 대신 체육에 관한 전문 교과인 ‘스포츠 개론’으로 교체 편성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교과목의 교체를 허용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과 자율성을 위한 조치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ㄹ)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할 경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제시된 해당 필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공업 계열과 가사·실업 계열을 운영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공업 계열에 속하는 학과의 경우, 공업 계열의 필수 과목인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를, 가사·실업 계열에 속하는 학과의 경우 해당 계열의 필수 과목인 인간 발달과 컴퓨터 일반을 개설하여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

(재)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전문계와 기타계 고등학교의 경우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대하였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80조에 규정된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편법 운영을 막고 학교의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이수 단위 증배 운영에 따른 예산과 시설, 교원 수급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고려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4)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4) 11, 12학년의 특별 활동에 배당된 8단위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각 영역별 이수 단위를 학교에서 재량으로 편성한다.

11, 12학년의 특별 활동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보다 강조하여 8단위의 편성에 대한 편성·운영의 권한을 전적으로 단위 학교에 부여하였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년 및 학기별, 영역별로 이수 단위를 배당함에 있어서 당해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위 학교의 재량권을 남용하여 편법 운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행사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배당하고 여타의 활동 시간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는 피해야 할 것이다.

2.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개정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개정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해야 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해 주어야 하며,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 제시하고,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장학 활동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와 학교 현장의 중간 위치에 있는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적절한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가 의도하는 초·중등 교육의 기본 방향과 목표·내용·방법·평가 등의 제반 기준을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곧 의도된 교육과 전개된 교육, 실현된 교육의 공통 영역을 최대한으로 넓히고자 하는 국가 수준의 의지가 담겨 있는 조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지역)교육청, 학교’의 상호 유기성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교육공동체의 요구와 필요 등에 대한 철저한 연구, 검토 및 실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국가가 의도하는 교육이 단위학 교마다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가. 편성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성패는 시·도 교육청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전국 공통의 일반적, 표준적, 대강적, 요강적, 추상적인 기준을 제시한 표준 교육과정으로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 필요, 요구는 물론, 교육 기반이나 여건 등의 제 요인을 세세히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 조정은 해당 지역 각 시·도 교육청의 역할일 수밖에 없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인문 환경, 사회 환경, 자연 환경 등을 조사, 분석하여 교육 중점 과제를 추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게 되며, 지역 여건에 적절한 방향 제시 및 지원, 지도의 방법 등으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길잡이가 되어 준다. 다만, 시·도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이나 규제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경직화, 형식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적절한 지원과 지

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보다 실용적이고 교육적이며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의 특수성이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업무 추진의 절차와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적절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1) 편성·운영 지침 작성 내용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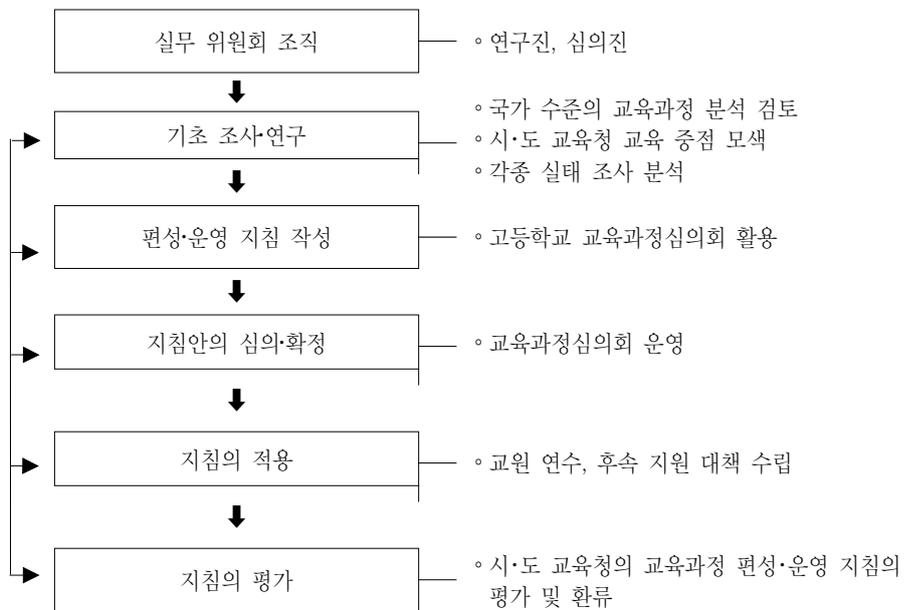
(1) 편 성

(가) 시·도 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③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④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고등학교의 계열, 학과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정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⑨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이수 단위에 관한 사항
- ⑩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 ⑪ 전문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
- ⑫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 수의 증배 운영에 관한 사항
- 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⑭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⑮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⑯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
- ⑰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에 관한 사항
- ⑱ 독서 목록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
- ⑲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⑳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 ㉑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㉒ 기타 필요한 사항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의거하여 위 사항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지침의 체제는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지침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시책이나 사업 중심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 중점이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모두 반영되어야 하며,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시·도 교육청 수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림 V-1]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그림 V-1] 편성·운영 지침의 개발·적용·평가·환류 절차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역할 및 기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교육 기본법 제 5조 제 1항** :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 **초·중등 교육법 제 23조 제 2항** : “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6호**(교육감의 관장 사무) : ㉞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고시 제2007-79호 : 제1장의 IV.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시·도 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2)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운영

- (나)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교육과정위원회, 예를 들면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명칭은 시·도 교육청에 따라 자유롭게 명명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작성을 위한 조사 연구, 심의, 자문 등을 위해 하부 조직으로 교과별, 학년별 및(삭제 요망) 학교 급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또 하부 교육과정 조직을 상호 연결, 교류하여 시·도 교육청이 의도하는 교육의 일관성과 계열성을 유지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교육 중점 등에 관한 연구가 학교급별로 중복, 실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위원회의 최상위 조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은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특색 있게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 관련 조직인 교육과정 지원 장학 협의단 또는 별도로 구성되는 연구 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균형 있는 연구,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편성·운영 지침 작성

- (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 (예) 시·도 교육청은 학교, 연구 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 및 개선에 반영한다.

(가) 기초·조사 연구 및 교육 중점 설정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먼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대한 세밀한 분석·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 자연, 산업, 역사, 문화, 의식 등은 물론,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필요, 학생의 학력 실태, 교원의 전문성 정도, 시설·환경 및 재정 등 기초적인 조사를 충실히 하고, 이를 분석하여 교육에 반영할 시사점을 추출한 후 이들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교육 중점이나 강조점을 설정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단기·중기·장기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지침에 반영함으로써 학교급별로 교육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 실태 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항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의 교육 현황 조사
 - 학교 현황(학교 수, 학교 규모, 학급 규모, 지역별 학교 등)
 - 교원 현황(남녀 교원, 전담 교사, 연령별, 자격별 등)
 - 학생 현황(남녀 학생 수, 학급별 학생 수, 지역별 학생 수 등)
- 지역의 특수성 조사
 - 자연 환경(위치, 지형, 기후, 면적, 도시 개발 계획 등)
 - 인문 환경(교통, 통신, 문화, 보건, 생활 모습, 전통 문화 등)
 - 사회 환경(인구, 취락, 인구 이동, 행정, 재정, 산업 발달 등)
- 지역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조사
 - 학생, 교원, 학부모의 의견 및 요구
 - 지역 사회의 요구 및 필요
 - 학부모의 교육관 및 기대 수준
- 시·도 교육청의 강조 사항

- 교육 중점 과제의 선정·운영 실태
- 교육 방향 설정(단기·중기·장기 계획 등)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
 - 교육 중점 실태(학교장의 교육적인 신념 및 교훈 등)
 - 편제와 시간 배당 실태
 - 교과 교육과정 운영 실태
 - 재량 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태
 - 특별 활동 교육과정 운영 실태
 -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실태
- 교육 시설·설비 및 자료 활용 현황
 - 교과서 이외의 학습 자료 활용
 - 실험·실습의 시설 및 설비
 - 교육 기자재 보유·활용 현황
- 교원 연수 및 연구 활동
 - 교사 연구 모임 실태(종류, 활동 실태 조사 등)
 - 교원 연수 현황(학교별 연수, 지역별 연수 등)
- 지역 사회의 시설·환경
 - 지역 사회의 교육 환경 현황
 - 지역 사회의 시설 활용 현황
- 교육과정 평가
 - 학생의 학업 성취도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 학교와 교육 기관과의 협조 체계

(나) 편성·운영 지침 시안 작성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시안은 교육과정 고시에 열거된 내용들을 총망라하여 지침의 목차를 먼저 정한 다음, 기초 조사 결과 설정된 교육 중점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시안 작성시에는 교육과정위원회의 교과별 위원회, 고등학교 소위원회 내 일반계, 전문계, 기타계의 계열별 소위원회 등 전문적인 영역별 하위 조직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현장 적합성을 높이도록 한다.

다음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목차를 예시로 제시한 것이다. 시·도 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내용을 가감하여 활용한다.

〈표 V-3〉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예시)

-
- I.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저
 - 1. 지침의 성격
 - 2. 지침의 기본 방향
 - 3. ○○시(도) 고등학교 교육의 중점 사항

 - II.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 1.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 2. 편성·운영의 일반 사항
 - 3.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 가. 교과
 - 나. 재량 활동
 - 다. 특별 활동
 - 4. 선택 중심교육과정
 - 가. 교과
 - (1) 일반계
 - (2) 전문계·기타계
 - 나. 특별 활동
 -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 6. 교육 평가

 - III.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지원
 - 1. 독서 교육 및 학교 도서관 활용
 - 2. 교육 자료의 개발·활용 및 보급
 - 3.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
 - 4.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 5.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 6. 현장 체험 학습
 - 7. 학교 교육 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
 - 8. 기타 교육감 승인에 관한 사항
-

IV. 교과 및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운영 중점

1. 교과
2. 재량 활동
3. 특별 활동

V.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부록〉

〈표 V-4〉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예시)

I.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기저

1. 지침의 성격
2. 지침의 기본 방향
3. ○○시(도) 교육의 여건 및 기본 방향

II. 교육 과정의 편성과 운영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2. 편성·운영의 일반 사항
3. 교과
 -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
 - (1) 일반계 고등학교
 - (2) 전문계·기타계 고등학교
 - 다. 교과목의 평가
4. 재량 활동
5. 특별 활동
6.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III.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의 기타 사항

1. 독서 교육 및 학교도서관 활용
2. 교육 자료의 개발·활용 및 보급
3.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
4.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5.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6. 현장 체험 학습
7.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
8. 기타

IV.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교육 중점

1. 교과
 -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교과
 - 나. 선택 중심 교육과정 교과
 - 1) 보통교과
 - 2) 전문교과
2. 재량 활동
3. 특별 활동

V.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부록〉

(다) 편성·운영 지침 시안 검토·개선 및 확정

시·도 교육청은 작성된 시안의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여 개선점을 추출하고, 이를 지침에 반영하여 현실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가능하면 몇 개의 연구학교를 운영, 새로 작성된 지침에 따라 작성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지를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지침의 확정에 앞서 공청회나, 세미나, 설문 조사, 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쟁의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한다.

이와 같은 검토·개선 과정을 거쳐 지침을 확정·고시하는 시기는 실제 적용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적용에 필요한 교원 수급, 연수, 필요한 교육 자료 개발, 교육 시설 개선 등의 후속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 학교도 이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 개발 및 보급

(예)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시·도 교육청은 각 학교가 새 지침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예시 자료, 교육과정 편성 예시 자료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매학년도 개시 이전에 새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따른 교원 수급 계획을 면밀히 세워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실시한다.

나. 운영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적용에 필요한 제반 후속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교원 수요에 대한 예측과 이에 따른 수급 방안의 수립,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제공되어야 할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교과 연구 모임에 대한 지원 대책 수립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수준별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은 지침이 실제로 적용된 이후에도 각 학교에 대해 지속적인 장학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장학의 기본적인 목적은, 의도된 교육과정 지침이 현장에서 충실하게 실천되도록 지도, 조언함과 동시에, 계획된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지침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적용에 수반되는 장학은 학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실천할 때 나타나는 애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지침을 수정, 보완하여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학교에 제시되는 지침은 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 조직, 주제 선정, 집단 편성에서 교육과정을 어떻게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시·도 교육청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이 획일화되고 경직되게 운영된다면 이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운영을 강조하거나 획일화된 시책 중심의 지침이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의 운영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실태 파악

(2) 운영

- (가) 시·도 교육청은 관내 지역 교육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실행 프로그램이면서 상세한 교육 운영 계획인 동시에 그 학교만의 교육 설계도이다. 그 속에는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교육 중점,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학교만의 교육 내용, 방법, 운영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세세히 담겨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살리면서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이 전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및 지도, 조언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 연수 계획 수립, 시행

(나)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확정된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 실제로 참여했던 연구진이 지침의 성격, 개발 과정 및 쟁점, 지침의 기본 이념, 지침 적용상의 주의 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교육 연구원, 교원 연수원 등에 소속되어 수업 개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조언과 지원을 담당할 교육 전문직에 대한 교육과정 연수도 실시해야 하며, 나아가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 행정 공무원, 학부모, 지역 인사 등에 대한 연수도 병행하여 교육 활동을 위한 행·재정적인 지원 및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

(3)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 수립

(다)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라) <삭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의 능력, 적성, 필요, 관심의 차이를 반영하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와 능력 수준에 알맞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 운영 체제이므로, 시·도 교육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원 양성, 부전공 연수 등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한다.

예컨대, 외국어 교과에 대한 학생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외국어 선택 동향을 파악하여 신규 교사 채용을 위한 교원 양성, 재직 교사의 부전공 연수 등 유연한 계획을 미리 추진하여 교사의 수급 때문에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 학교에 각 과목별 교사를 모두 배치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시·도 교육청은 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협조 등과 같은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에 대한 지원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4) 행·재정적 지원 체제 확립

- (㉠)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시·도 교육청에서 작성된 지침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의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 개발, 보급에 관한 역할은 지역 교육청에 분담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도 교육청에서의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나 인력 충원 없이는 어려운 일이다.

특히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수준별 이동수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학급 확대 운영과 강사비 지원, 매뉴얼 개발·보급, 교수·학습 자료 개발 지원, 수준별 평가 문항 개발, 교과 전용 교실 및 설비 지원, 수준별 보조 교재 개발 보급 및 활용 연수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그에 따른 단위 학교에서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수준별 수업 현장 지원반을 구성·운영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규모 학교는 교원 배치의 어려움으로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순회(겸임) 교사,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인근 소규모 학교간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5) 연구·시범 학교 및 연구 교사 지원

(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은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교수·학습 방법 개선 및 이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자료 개발을 위해 연구·시범학교와 연구 교사제를 운영해야 한다. 연구·시범학교는 교육 계획,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학교 운영, 교육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학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모색 등을 통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알맞은 창의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시·도교육청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우수한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시·도 교육청은 연구학교 및 연구 담당 교원이 연구 공개 보고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연구 결과의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연구 결과의 심화 발전에 힘쓰도록 지원한다.

(6)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의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능력 있는 학생에게 능력에 따라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정상적인 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나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각 학교가 별도의 과정을 설치하여 대상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7) 귀국자 자녀에 대한 지원

(차) 귀국자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귀국 학생 교육은 장기간의 해외 체류로 인하여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거나 국내 학교 교육에의

적응이 곤란한 귀국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일정 기간 집중적인 한국어 지도와 학습 결손 또는 부진 과목의 보충 지도 및 생활 지도를 실시하여 귀국 후 당면하는 학습 장애와 심리적 갈등의 요인을 해소하고, 국내 생활 및 학습 적응을 용이하게 해 줌으로써 국내 학교로 순조롭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또 귀국 학생 교육을 통하여, 귀국 학생들이 해외에서 터득한 언어적, 문화적 특성을 신장시키며, 외국에서 얻은 국제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신장시키도록 도와줌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도 교육청은 특정 학교에 특별 학급을 지정 설치하여 귀국 학생이 입학, 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거나 학교 간 연합을 통해 귀국 학생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은 해외에서의 학습 경험을 살린 학습 교재를 개발하여 활용하거나 학생의 능력에 알맞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최대한의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8) 신설 과목의 설치·운영

(가) 중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간을 기르는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나 산업의 발달, 학문적 추세, 시대적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학교장 판단하에 새로운 과목을 신설,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승인 절차를 상세히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는 신청 시기, 신청 양식, 심사 요령 및 결과 통보 시기 등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특히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가급적 단순화하여 제시한다.

학교가 교과목 신설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과정 체제에 준하는 교육과정 편성안, 신설의 필요성, 운영 방안, 지도 교사 확보 계획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신설 과목을 개발할 경우에는 보통 교과목의 교양과목은 4단위, 그 외의 과목은 6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2~4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하고, 적절한 분량으로 편성하도록 지도한다.

(9)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지원

(태)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

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전·편입학, 또는 귀국 학생 등의 경우 각 학교 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차이로 인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 제시된 교과목이지만 단위 학교의 교원 수급 사정 등으로 인해 개설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학생들의 수강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거나, 일정 지역의 학교들을 연합하여 소수 선택 과목을 개설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수업 시수가 부족하여 당해 학교 교사로 충족하기에 부적절한 교과목의 경우에는 순회교사, 겸임교사, 계약제교원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계약제교원의 종류로는 기간제 교원,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이 있다.

또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확립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에서의 학습이나 원격교육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도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사회 교육 시설을 지정해 주어야 하며, 시설 지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과 이수 과정을 학교 성적으로 인정해 주고, 원격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10) 교육의 질 관리

(㉞)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평가는 교육과정에 담겨 있는 목표 도달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목표와 내용,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는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와 이를 지도하기에 적절한 학습 활동을 결합하여 학습자 중심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 교과목의 경우는 수준별 수업을 반영하였다.

평가는 모든 학생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서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평가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식 중심, 결과 중심의 양적 평가만으로는 부적당하다. 탐구 기능과 사고력의 평가, 가치·태도의 평가 등 질적 자료도 수집하여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 수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장학 지원

시·도 교육청은 관내 고등학교를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 지원과 조언, 자문 등 장학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된 수준별 수업이나 학생 중심 교육과정 정착을 위해 시·도 교육청은 국가 교육과정 기준과 당해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사회에 적절한 교육 목표, 내용, 방법, 집단 구성, 소재·제재, 시설,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바람직하게 실천되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 교육과정의 지역화는 단순히 자원 활용의 지역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육 목표와 내용, 방법 또는 운영 방식, 평가 및 교육과정 지원 관리 체제의 지역화를 모두 포괄한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 교육청의 결정은 지역 교육청을 통해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고, 학교의 결정 범위를 벗어난 사항들은 지역 교육청을 통해 조정·지원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경우 이러한 역할은 지역 교육청이 아닌, 시·도 교육청의 관할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지역 교육청의 역할을 시·도 교육청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⁵⁹⁾

(1)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 제시

시·도 교육청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각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필요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관내의 학교에 제시한다.

(가) 장학 자료 편성 내용

나. 지역 교육청

(1) 편 성

(가) 지역 교육청은 시·도의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초·중학교에 제시한다.

①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한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59) 초·중학교와는 달리 고등학교는 지역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위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 교육청이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단 본 해설서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에 '지역 교육청'이나 '초·중학교'로 명시된 부분은 그대로 두었음을 밝힌다.

- ②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④ 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협조에 관한 사항
- ⑤ 학교 간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⑥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⑦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필요한 사항

단위 학교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창의적 교육 활동의 실천 사례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창의성이나 사고력 신장이 매우 중요하다면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은 어떠한지,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이란 무엇인지, 수준별 수업의 적용에 따라 특별 보충 수업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수많은 수업 개선 자료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학교에 실제로 투입될 수 있는 장학 자료, 예컨대 교육과정 운영 모형이나 각종 교육 실천 프로그램, 워크북이나 워크시트, 수준별 수업 운영 모형 및 개선 자료, 수업 개선 아이디어 모음집 등을 작성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관내 학교에 제시해야 한다.

(나) 교육과정 위원회 구성 운영

- (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다) 학교 간에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교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위 학교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위원회를 두어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이 교육과정위원회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들로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학교 간의 공동 협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구별 장학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을 활성화하여, 공동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교수·학습 자료 개발, 수업 개선 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게 지원한다.

(2)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지원

시·도 교육청은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지원해야 할 뿐 아니라,

정기적인 장학 활동의 시행, 지역별 교원 연수의 실시, 각종 자료의 개발·보급, 수업 연구 및 연구회 활동 지원 등 교육의 질 관리를 통한 수업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

(가) 장학 활동 계획 수립, 시행

(2) 운영

(가) 지역 교육청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별 장학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장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수업 개선에 있으므로, 지구별 장학 협의회를 통하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 기본 생활 습관 형성 지도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위한 창의적 교육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수준별 수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교육청의 지원 대책도 수립한다.

(나) 지역별 교원 연수 실시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에 관한 지역별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 교육청은 관내 교사를 대상으로 자율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교사 각자가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연수의 주된 협의 과제로 함으로써 교사 스스로 자기 반성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현장의 요구 사항이 장학의 방향 설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각종 자료 개발, 보급

(다)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공동 개발과 활용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지역별 장학협의회, 교과교육연구회 등을 통한 교원의 연구 활동 지원이 모색되어야 하고, 학교에서 실천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 및 활용 사

례를 공개하고 일반화하는 기회를 자주 갖도록 지원한다.

(㉔)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 마련

(㉔)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개별 학교보다는 지구별로 특수 재능아, 심신 장애 특수 교육 대상자, 학습 부진아, 귀국자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배려하는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단위 학교가 수준별 수업의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거나, 특수아, 학습 부진아, 귀국자 자녀,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을 위한 특수한 과정을 설치, 운영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이를 지구별 단위에서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및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 학생들의 언어 및 문화 장벽 해소와 사회적 귀속감을 증대하기 위하여 각각의 능력에 맞도록 개별화 지도 방안을 강구하고, 학생의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지원한다.

(㉕) 학교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 구축

(㉕)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시·도 교육청은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모든 학교가 필요한 시설을 개별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은 인근 학교 간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으로 개발,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

(배) 연구학교 운영과 교과별 연구회 활동 지원

(배)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 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수업 연구 교사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시범 학교를 운영하고, 교과별 수업 연구 교사와 교과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교원들이 교과별, 학년별, 주제별, 학교별로 자발적이고 집단적인 연구를 하도록 풍토를 조성하고, 교원의 교과 관련 관심 분야,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문제,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수준별 수업 운영, 수업 방법, 평가 방법 등을 계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사) 교육의 질 관리

(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질 관리와 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장학 활동을 통해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며, 실제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여 수업의 개선과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

(1) 학교 교육과정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근거는 다음의 초·중등교육법에서의 규정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그리고 시·도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중점,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내용과 방법, 평가 및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핵심 요소로 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요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융통성 있는 운영 방식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의 ‘학습자 중심 교육’의 실천 및 ‘지역 및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방향을 승계하여,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

학교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①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근거로 하여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알맞게 학교별로 마련한 ‘당해 학교에서 구체적 실행을 위한 교육과정’이다.
- ②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가 수용하고 있는 학생에게 책임지고 실현하여야 할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교육 프로그램이고, 특색 있는 교육 설계도이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 계획이다.
- ③ 학교 교육과정은 해당 학교의 교육 목표와 경영 철학, 전통, 특성 등이 치밀하게 반영되어 있고, 그 학교의 창의적이고 독특한 교육 내용, 방법과 특색 있는 운영 방안이 나타나 있어, 각 학교가 다양한 교육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편성되어 있다.

단위 학교에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함은 다음과 같은 교육적인 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교육 수요자 위주 교육을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은 교육 실천가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 편성·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학생의 실태, 학교의 실정, 지역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 보완, 가공하여 실천하기에 적합한 실행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종전과 같이 지역의 특성, 학교 실정, 학생 실태 등을 무시하고 교과서에 학습자를 철저히 맞추어 가는 교과서 중심 체제와는 달리 학습자를 더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습자 중심, 교육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교의 경영 책임자인 교장과 수업 실천자인 교사가 교육 내용과 방법의 주인이 되고, 전문성을 확보함을 의미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주체는 교육이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학교와 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이 교과서를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와 자료로 활용하는 수업의 주체가 되려면 학교 교육과정이 교육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교원의

연구와 노력으로 편성한 산출물이 바로 학교 교육과정인 것이다.

셋째, 지역 및 학교의 특성, 자율성, 창의성을 충분히 살려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과서가 학교 교육을 지배하게 되면 전국 모든 학교의 교육은 획일화되고 만다. 학습자의 개성, 능력, 소질, 흥미,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부모의 요구와 교사의 창의성 및 자율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된다면 학생 중심의 교육이 더욱 내실 있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체제

학교 교육과정을 어떤 체제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해 학교에 자율·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국가 기준이나 시·도 교육청 지침 외에 또 다른 규제를 가하게 되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획일화를 초래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이 특색이 없이 경직화,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은 학교장과 교원의 교육적인 판단에 따라 재량권을 발휘하여 특색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형태는 다양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에는 학교장의 교육 철학과 학교 교육 목표, 당해연도 교육의 중점이 드러나야 하며, 교육과정의 편제와 시간 배당,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학년·교과·영역별 교육 중점과 연간 지도, 평가, 운영 방식이나 실천 방안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제시되어야 당해 학교의 실정에 알맞은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의 명칭도 다양할 수 있다. ‘OO 학교 교육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OO 교육’, ‘다양성을 추구하는 OO 교육’, ‘미래에 대비한 OO 교육’, ‘OO 교육은 이렇게’ 등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구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는 당해 학교의 학교장이 시·도 교육청 지침에 따라 판단할 성질의 것이다. 다만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할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과 기본 방침이 제시되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교 교육과정 구성에서는 상부 기관 제출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당해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같은 유용성 및 활용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될 사항을 중심으로 다양한 편성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학교에서 결정해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구성 체제를 예시하면 다음 <표 V-5>, <표 V-6>와 같다.

〈표 V-5〉 학교 교육과정 구성 체제 (예시 1)

<p>I. 학교 교육과정의 기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 교육의 방향 2. 학교 경영의 기본 계획 3. 기초 조사 및 실태 분석 4.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 <p>II. 학교 교육 목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교육 목표 2. 교육 목표 구현 중점 3. 구현 중점별 세부 추진 계획 4. 특색 사업 <p>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 방침 2. 학교 교육과정 편성표(입학 연도별) 3. 연간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 확보 계획 4. 주 5일 수업제 운영 계획 <p>IV.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실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 2. 재량 활동 3. 특별 활동 	<p>V.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계획</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직원 연수 계획 2. 자율 장학 추진 계획 3. 독서 지도 계획 4. 생활 지도 계획 5.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6.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 계획 7. 전문과 운영 계획(전문계고) 8. 각종 위원회 운영 계획 9. 예산 운영 계획 10. 기타 <p>VI.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생 평가 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p>부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연혁 2. 학사 일정 3. 교직원 일람 4. 교사별 교과 담당 시간 5. 업무 분장표 6. 교사 배치도 7. 각종 규정 8. 기타
---	---

〈표 V-6〉 학교 교육과정 구성 체제(예시2)

<p>I. 학교 교육과정의 기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성격 나. 추구하는 인간상 다. 학교 교육과정의 구성 방향 라. (시·도) 교육의 방향 마. 학교 경영의 기본 계획 바. 본교 교육의 방향 2. 학교 실태 분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학교 현황 나. 전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결과 분석 및 시사점 다. 금학년도 기초 자료 분석 라. 본교의 특성 및 시사점 	<p>IV. 교과·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과 교육과정 2. 재량 활동 교육과정 3. 특별 활동 교육과정 <p>V.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2. 학교 경영 평가 <p>VI. 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경영 조직 2. 각종 위원회(협의) 조직 운영 3. 수행 평가 실시 계획 4. 학습 및 기초 학력 부진 학생 지도 대책 5. 방과 후 학교 운영 계획
---	--

마. 학교 발전 계획 II. 학교 교육 목표 설정 1. 본교 교육 목표 2. 교육 목표 구현 계획 3. 특색 교육 4. 과제별 추진 계획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방침 1.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조직 2. 편제 및 시간 배당 3.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방침 4.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침	6. 축제 계획 7. 특별실 운영 계획 8. 재정 지원 계획 〈부 록〉 1. ○○○○학년도 학사 일정 2. 교무 활동 부서별 운영 계획 3. 중장기 발전 계획 4. 각종 설문지
--	--

(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절차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절차는 ① 준비 단계, ② 편성 단계, ③ 운영 단계, ④ 평가 단계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일반적인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준비 단계	1.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조직 - 조직, 임무, 역할의 구체화 2. 학교 교육과정 편성 계획 수립
	⇩
	3.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지침, 법령 등의 내용 분석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 중점과 편성·운영 지침 분석 - 관계 법령, 교육 시책, 지표, 과제의 분석
	⇩
	4. 각종 실태 조사·분석과 시사점 추출 - 교직원 현황, 학교 여건, 학생과 학부모 실태, 지역 사회의 특성 조사, 분석 -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 사항 조사, 분석 -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운영 실태 분석
⇩	
	5.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설정 - 학교장의 학교 경영 방침 및 학교 교육 목표 설정 - 교과·영역·학년별 교육 중점 제시

↓	
② 편성 단계	6. 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 - 학교 특색을 살리는 창의적인 교육 계획 수립 - 편제와 시간 배당, 수업 일수, 수업 시수 결정 -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연간 운영 계획 수립 - 특별 활동의 학교 별도 확보 시간 결정 - 목표, 내용, 수준, 지도 순서, 시간, 방법의 조정 - 교육 평가 계획 수립 - 생활 지도, 특수아·귀국자·다문화 가정의 자녀 지도 - 교육 자료 활용 계획의 수립 - 기타 학교 운영 전반에 필요한 계획 수립
	↓
	7. 학교 교육과정 시안의 심의 및 확정 - 시안의 심의, 검토 분석 - 추출된 문제점 반영, 시안의 수정·보완 - 학교 교육과정의 확정
↓	
③ 운영 단계	8.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 지속적인 연수 시행, 교내 자율 장학의 활성화 - 운영 과정의 문제점에 탄력적으로 대처 - 교내외 장학 협의를 통한 교육과정의 수정·보완 - 융통성 있는 운영(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 조직, 집단 편성 등)
↓	
④ 평가 단계	9. 학교 교육과정 평가와 개선 -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운영 평가 - 평가 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평가 - 개선점 추출, 다음해의 편성·운영에 반영

[그림 V-2]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일반적인 절차

(2)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확보

①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수업 일수와 수업 시간 수는 학년별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 등 학교의 모든 교육 활동에 걸쳐 정확하게 산출되어야 하며, 특별 활동의 경우 하위 영역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도 있다.

개정 교육과정은 주 5일 수업제의 부분적 시행기에 개정된 것으로서, 수업일과 시간의 운영에 서는 2006학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주 5일 수업제 월 2회 시행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수업 일수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학기)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을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제45조 (수업일수) 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수업 일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 학교(유치부를 제외한다.) : 매학년 220일 이상.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 학교의 운영 또는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 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연간 최소 수업 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주 5일 수업제의 부분적 시행에 따라 종전의 주 6일 수업제에서 규정된 연간 220일에서 10%를 감축한 198일까지 설정할 수 있다. 다만, 학교는 해당 지역의 시·도 교육청에서 권장하는 수업 일수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하고 있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의 개념인 ‘단위’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제시된 시간(단위)은 모든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때에 이 기준에 미달되어서는 안 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10학년은 연간 수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11, 12학년은 학기별로 수업 시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학기의 운영에도 유의해야 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는 2학기 시작일을 학교별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2004년 2월 17일 개정). 이는 일률적으로 9월 1일을 2학기 시작일로 할 경우 학교별 행사 및 휴업일 운영에 따라 학기별 수업 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기준에 따른 과목별 수업 시간 확보를 전제로 주 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수업 일수 감축 및 2학기 시작 일자를 결정해야 한다.

(3) 탄력적인 시간 확보와 조정

- ②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 한다.
- ③ 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확보, 계절에 따른 교육과정 시간 운영, 학생의 발달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 활동 시간 조정, 교육과정 주간 운영 계획, 학생의 능력과 교과 특성에 따른 집단 편성과 활동 주제 등을 탄력적으로 계획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서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연간 최소 이수 시간 수만을 제시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재량권을 주어 학교 실정에 알맞게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는 수준별 수업 운영, 귀국자 자녀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영재아 및 심신 장애 특수아 교육, 교육 자료 활용, 독서 교육, 환경 교육, 국제 이해 교육, 경제 교육, 안전 교육 등 각종 교육 계획이 연간, 학기 간, 월별, 주별 및 일별운영과 관련지어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수업의 단위 시간은 50분을 원칙으로 하나, 계절, 학교 실정,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특성, 교과 통합 운영 등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고정적인 일과표 운영이나 시간 배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융통성 있고 창의성 있게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고정적인 학습 시간 배당에서 벗어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 운영(block scheduling) 하는 등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시간 배당이 가능하다. 학교 교육과정의 시간 확보 및 조정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연간 수업 일수 및 2학기 시작일의 책정
 - 월별로 일요일, 경축일(국경일, 기념일), 기타 공휴일 수를 계산하여 1년간의 수업 일수를 정확하게 산출한다.
 -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 및 학년 말 방학 일수를 고려하여 연간 수업 일수가 시·도 교육청의 권장 일수(예: 205일) 이상이 되도록 수업 일수를 책정한다.
 - 요일별 수업 가능 일수를 산출한다.
 - 학기별 수업 일수의 균형을 맞추어 2학기 시작일을 결정한다.
- ② 연간 행사 계획표 및 행사 시간 배당표 작성

- 특별 활동의 영역별 활동 시간을 배정한다.
- 특별 활동의 학교 행사 계획을 수립하고 시간을 배정한다.
- 학교 행사의 시간 배당 때는 사전, 사후 지도 계획도 세운다.
- ③ 과목별 수업 시수를 학년별 또는 학기별로 배정한다.
 - 요일별 기본 배당 시수를 과목별로 배정한다.
 - 월별, 주별 수업 일수를 확정하고, 과목별,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의 수업 시수 배정표를 작성한다.
 -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기준 수업 시간에 미달해서는 안 된다.
 -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와 심화·보충에 필요한 시간은 별도로 확보할 수 있다.
- ④ 월별 교육 활동 세부 시간 배당 계획 작성
 - 연간 행사 계획과 수업 시수 배당표를 기초로 월별, 일별 교육 활동 세부 시간 배당 계획을 세운다.
- ⑤ 연간, 학기 간 학급별 교육과정 시간 운영 계획 및 일과표 작성
 - 앞에서 작성한 자료들을 기초로 연간, 학기 간, 월별, 주별, 일별 시간 배당의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
 - 월별, 주별 시수가 확정되면 감축, 증가하는 과목의 시간 수를 결정하고 시간을 배당한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시 탄력적인 시간 확보와 조정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학기 구분, 연간 수업 일수, 각 교과 및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의 기본적인 시간 배당은 교육과정 지침을 따르되 주당 수업 시간 수는 고정하지 않는다.
- ② 단위 수업 시간을 기후, 계절, 학교 사정, 행사, 교과 특성, 학습 내용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일과표는 획일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교과의 특성과 학교 행사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작성한다.
- ④ 월별 교육 활동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하여 월별 또는 주별로 학습 안내표 또는 일과표 작성의 근거로 사용한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는 주당 시수가 배정되어 있지 않으나, 모든 교과가 고루 안배될 수 있도록 일과표를 작성한다.
- ⑤ 연간 수업 일수를 확보하고, 최소 수업 시간 수 외에 별도로 배정한 수업 시간 수를 합산하여 각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이수에 소요되는 학년별 또는 학기별 총 수업 시간 수를 산출한다.
- ⑥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 운영에 소요되는 적정 수업 시간 수를 산출하여 해당 교과의 수업 시수에 합산한다.

- ⑦ 학교의 행사는 특정 요일에 계속해서 배당하지 않는다.
- ⑧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와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별도로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하는 경우, 수업 시간 수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4) 교과 집중 이수제 운영

④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교과 집중 이수제는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수를 학교장 재량으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경우 과목별로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주별로 분산 이수하면 일부 교과와 경우 주당 1시간씩 배당되게 된다. 이 경우 교사는 많은 학생을 담당하게 되어 지도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실기 수업을 하는 교과와 경우 준비와 정리 시간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 학생들은 이수하는 과목 수가 많아지고 과목당 수업 시간 수가 적어져 학습 효과가 떨어질 뿐 아니라 시험 과목수의 증가로 학습 부담이 커진다. 이에 따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실정과 교과 성격에 따라 연간 수업 시수를 특정 학기에 집중 배정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으로 대규모 학교에서는 반 단위로 학기별 집중 이수하는 방안, 소규모 학교에서는 겸임 교사를 활용한 학교 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 V-7〉 고등학교 1학년 학기별 집중이수 사례

구분	교과 집중 이수 전		교과 집중 이수 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모든 반	모든 반	1반 ~ 8반	9반 ~ 16반	1반 ~ 8반	9반 ~ 16반
음악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미술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표 V-8〉 겸임교사를 활용한 소규모 학교 간 집중이수 사례

구분	교과 집중 이수 전		교과 집중 이수 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A, B학교	A, B학교	A학교	B학교	A학교	B학교
음악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미술	1시간	1시간		2시간	2시간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2개 학년을 총량으로 과목별 단위수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집중 이수자가 더욱 용이하다. 한 과목을 여러 학기에 나누어 분산 이수하는 경우 학습 부담이 증가되므로 가급적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에 집중하여 이수하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와 같은 교과 집중 이수제는 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5)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구성·운영

(나)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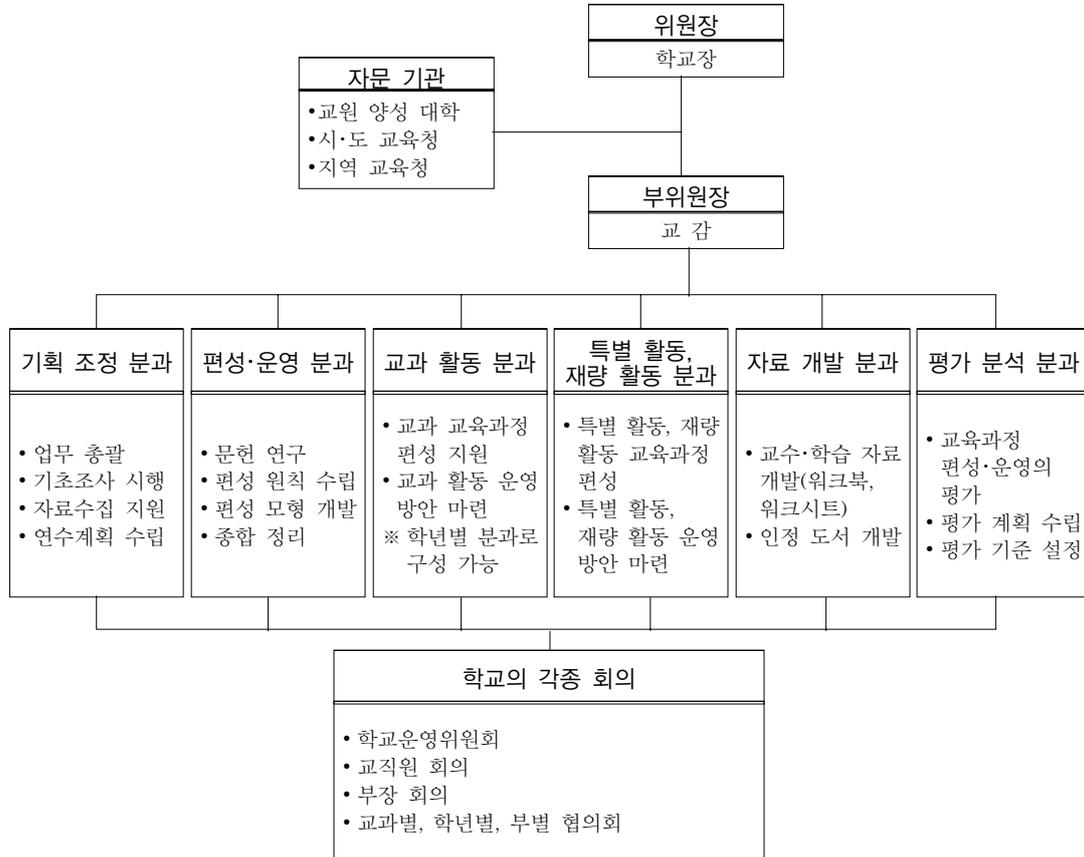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으로서 학교 나름의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자문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또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교직원 회의, 동 학년 회의, 교과 협의회 등 기존의 각종 학교 조직이나 협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절차와 과정에 따라 모든 교직원이 능동적,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합리적인 운영을 꾀해 볼 수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더 치밀하고 조직적인 계획과 연구를 위해서 '교육과정위원회'에 기획 조정 분과, 편성·운영 분과, 교재 개발 분과 등을 두고 업무를 분담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교원 양성 대학, 지역 유관 단체, 교육 전문 기관의 교수나 자문 위원과 함께 협력하는 연계 추진도 필요하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교원,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진·심의진·협의진을 구성하고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구별 교육과정위원회 및 장학위원회, 교과 연구회를 통하여 인근 학교와 공동으로 기구를 조직, 운영할 수도 있으며,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겸임(순회) 교사 임용·운영과 개별화 교육 등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고 실천 가능한 교육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소규모 병설 중·고등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간의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의 통합 조직·운영으로 상치 과목의 해소는 물론, 시설 공유를 통하여 더 질 높은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분과별 역할 분담을 근간으로 하여 학교 교육과정위원회를 조직하는 방식을 예시한 것이다.



[그림 V-3]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조직(예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일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이고도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학교교육과정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당해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수립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향 작성 및 확정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활동
-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연수
- 교과·재량 활동·특별 활동 영역별 운영 계획안의 문제점 검토 및 확정
- 효율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모색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

참고로, 학교 운영 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단위 학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초·중등 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지만, 양자는 다음 <표 V-9>에서와 같이 구별된다. 먼저 설립 근거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며,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다. 둘째로 위원회의 역할에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즉 운영 방안,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 정규 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에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 역할을 하며,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고, 한마디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이다.

<표 V-9>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비교

학교운영위원회	학교교육과정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규정 ◦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정규 학습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시 ◦ 학교장이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문 역할 담당 ◦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 ◦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한 조직

(6) 학교 교육과정 편성 시 고려 사항

- (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각종 기초 조사와 실태 분석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할 시사점을 추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편성과 운영을 위한 기본 원칙이나 방향을 결정한다. 당해 학교장의 교육적인 신념과 판단에 따라 학교장의 경영 방침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은 물론, 모든 교직원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학교 교육 목표와 그해에 특색 있게 강조해야 할 노력 중점이나 교육 중점을 교과별, 학년별로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 편성 작업시에 판단하거나 선택, 결정할 사항 중 비교적 공통적,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교육 목표의 결정
 - 교육 가치성, 실천 가능성, 평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 교과 목표, 학년 목표, 영역별 활동 목표 등의 하위 목표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상위 목표를 설정한다.
- ② 교과별 학년 목표의 결정
 - 국가 수준 기준에는 교과별 학년 목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학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학습자 실태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학년 목표를 결정한다.
 - 학년 목표의 수준, 목표 수, 설정 영역 등은 그 학교의 학생에 적합하게 결정해야 한다.
 - 국가 수준 교육과정 및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의 단원별 목표를 근거로 구체화, 상세화한다.
- ③ 교과별, 학년별 교육 내용의 결정
 - 국가 수준에 제시된 교과별, 영역별, 학년별 교육 내용을 상세화하고 보완한다.
 - 교육 내용을 상세화, 간략화, 중점화, 특성화, 보완화, 통합화하는 작업을 한다.
- ④ 교육 내용별 소재의 결정
 - 교육 내용별로 지역과 학교에 적절한 수업 소재를 선택·결정한다.
 - 소재 선정시에는 학습자와 친근한 것, 간단한 것, 최근의 것, 보편적인 것, 구체적인 것부터 우선한다.
- ⑤ 교육 방법의 결정

-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 해설, 설명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팀 티칭, 협력 학습 등 다양한 교육 방법 등을 도입한다.
 - 학생의 직접 체험 활동, 소그룹별 공동 과제 해결 활동, 개별 학습 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선택한다.
 -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와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의 운영 방법을 결정한다.
- ⑥ 학습 시간의 결정
- 교육 내용의 수준과 분량, 특성, 학습 형태와 학습 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습 시간을 배당한다.
 - 고정적인 학습 시간 배당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배당한다.
 -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차에 따른 소집단별 학습 시간을 고려한다.
- ⑦ 학습 시기의 결정
-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순서를 고려하되 학습하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를 결정한다.
 - 특히, 계절, 기후, 세시 풍속, 국가 및 지역의 행사, 환경, 자연계의 생태, 각종 역사적, 사회적 사건 등과 관련 있는 교육 내용은 최적한 시기에 학습 과제가 다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한다.
- ⑧ 학습 형태 학습 조직의 결정
- 학습 과제의 특성에 적합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선택한다.
 - 학생 중심의 다양한 학습이 조화 있게 이루어지도록 배합, 조직한다.
 -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형태와 학습 조직을 결정한다.
- ⑨ 학습 매체의 결정
- 학습 매체는 교사용, 학생용을 모두 포함하여 선택·결정한다.
 - 교수·학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고려하고, 견학, 방문, 실습과 자원 인사 초빙도 학습 매체 선정시 계획해야 한다.
 - 교과용 도서 외에 다양한 학습 매체를 활용하도록 한다.
- ⑩ 평가 계획의 결정
-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 평가 시기 등을 결정한다.
 - 선택형, 서술형 등 학생의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선정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이상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결정과 함께 특히, 교과와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을 구체화할 경우에는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목표는 없는지, 재구성·조정·통합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학생 실태에 비추어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지도 순서·시간을 조정하거나 계절·행사와 연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장 좋은 지도 방법이나 적절한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등 교육과정의 적절성과 적합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

(7) 수준별 수업

(바) 수준별 수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운영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①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수준별 수업 적용 교과의 연간 수업 시수는 기본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심화 학습과 보충 학습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한다. 심화·보충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일부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시간을 확보해서 학생의 학습 결손 정도와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로 심화·보충 학습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학교, 학년, 교과의 특성에 따라 동일 교과에서도 단위 또는 학습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보충 학습은 기본 내용의 중요 학습 요소를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 능력 수준을 고려해서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능력과 흥미에 따라 수준별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학급 내 혹은 학급 간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구안하여야 한다.

- ① 수준별 학급은 학교 실정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편성한다.
- ② 학습자의 능력, 흥미, 인지 수준에 맞추어 다양한 동기 유발 방법과 학습 활동을 구안한다.
- ③ 개인차에 따라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이나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년별로 기본 교과서나 보조 교재를 다양한 수준으로 개발한다.
- ④ 수준별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때는 성취 수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언어 기능, 어휘, 언어 형식 등을 학생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사용하고, 이에 맞추어 교

수 방법을 다양화한다.

- ⑤ 개인별, 소집단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유도하며 학생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 ⑥ 심화 학습에서는 확장된 교재를 이용하여 개별 학습, 자기 주도 학습, 협동 학습을 권장 하고, 보충 학습에서는 학습 결손 요인을 파악하여 기본 과정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 방법을 구안한다.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특성에 따른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 편성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수준별 분단 편성
 - 학급 내에서 능력, 흥미, 학습 속도를 고려한 수준별 분단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 ② 수준별 학급 편성
 - 기본 과정은 현재 학급에서, 심화·보충 시간에는 수준별 학급으로 이동하여 수업하는 방법
 - 교과별 수준별 학급에서 기본 내용부터 심화·보충 학습까지 계속 수업하는 방법
- ③ 다양한 집단 혼용
 - 학급 내에서 협력 학습 집단과 수준별 집단을 동시에 운영
 - 중·상위 학생은 협력 학습 집단을 구성하여 자기 주도적인 심화 학습을 하도록 하며, 수준별 동질 집단인 하위 집단은 교사의 지도를 통하여 보충 학습을 운영하는 방안

학급 내 수준별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의 수준과 학습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소집단을 조직할 수 있지만,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는 수준별 집단 편성 방식에 따라서 수준별 수업의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

(8) 새로운 과목의 신설

(배)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특성화된 교육을 추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의 경우는 국가가 교과용 도서 개발이나 교과 운영을 담당할 교

사 양성 등을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고시되면 국가에서는 교과용 도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등을 개발 보급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의거하여 담당 교사 확보 계획, 교재 개발 계획 및 교과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을 수립하여 해당 교육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 중 교양 과목군과 전문 교과에 계열별로 ‘기타’ 과목을 설정하여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기타’ 과목을 삭제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보통 교과 중에서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교양 과목의 성격으로만 신설될 수 있었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의 성격에 따라 해당 과목군의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1) 일반계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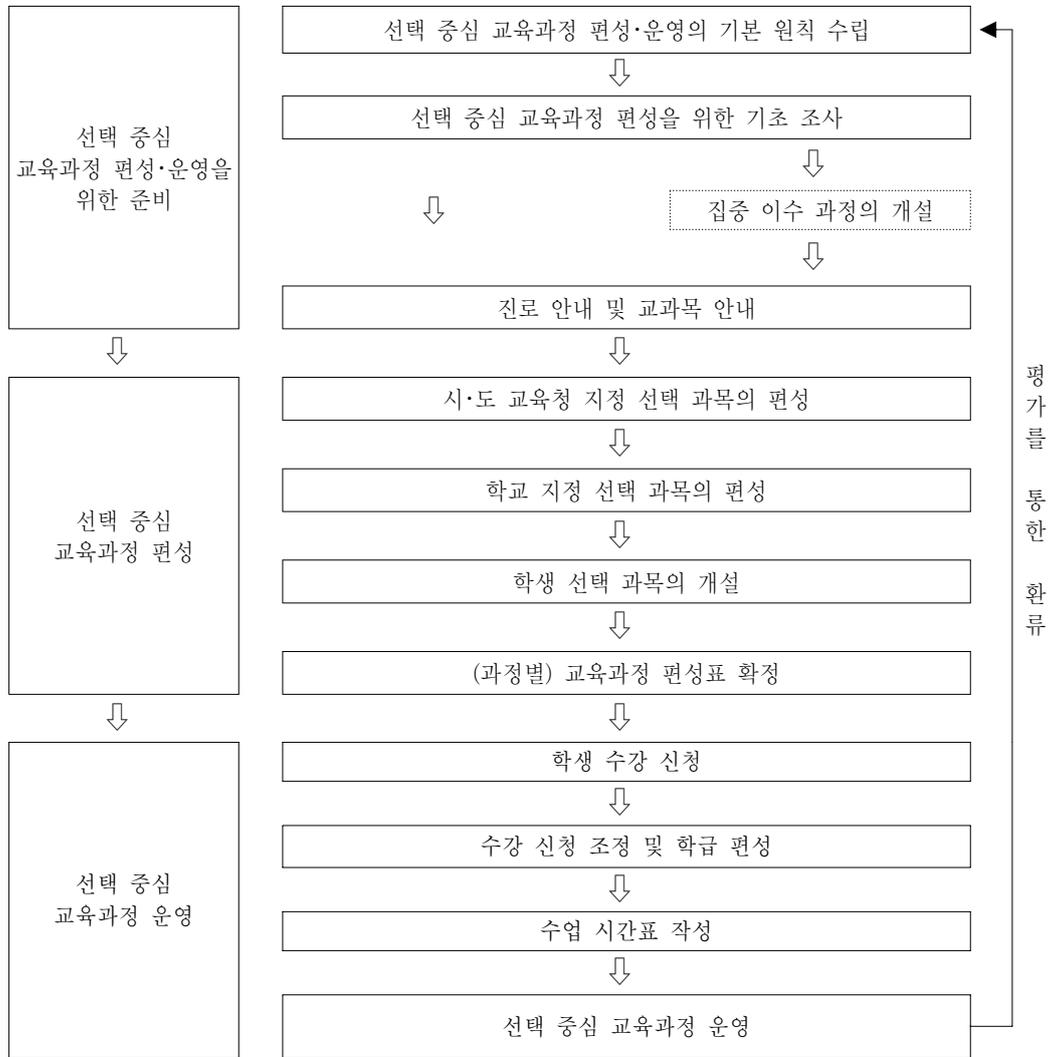
〈학교급별 지침〉

(다) 고등학교

- ① 일반계 고등학교는 10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한다.
- ②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③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크게 10학년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다.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은 10학년에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는 차별화된 절차를 거쳐 학교 교육과정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V-4] 일반계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절차 (예시)

단위 학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기본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시·도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분석하고, 이를 단위 학교의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그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편성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 원칙에 포함될 사항은 선택 과목 개설 방법(교육청 지정·학교 지정·학생 선택), 과목 개설

의 기준, 이수 방법, 학기 당 이수 과목 수, 운영 방법 등이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기초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요구 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주로 설문 조사를 활용하게 된다.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일반적인 설문 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편성을 위한 기초 조사
 - 희망 진로, 계열, 직업(분야)
 - 희망 집중 이수 과정의 유형
 - 과목 선택의 기준
 - 선택 주체별 지정 또는 선택의 범위
 - 과목의 개·폐강 기준
- ② 시·도 교육청 지정 선택 과목 선정을 위한 조사
 - 각 과목군별 선호도 조사
- ③ 학교 지정 선택 과목 선정을 위한 조사
 - 각 과목군별 선호도 조사
- ④ 학생 선택 과목에 대한 설문
 - 학생 선택 과목 1차 조사(학생 선택 과목의 선호도 조사)
 - 학생 선택 과목 2차 조사(1차 조사를 바탕으로 한 과목 수강 신청)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이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안내와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학교는 다양한 진로 안내 자료의 발간뿐만 아니라, 교과 교사, 담임 교사, 상담 교사 등의 전문적인 상담 또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진로를 바르게 설정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이 진로뿐만 아니라 흥미와 적성 및 능력에 따른 학습과 교과목에 대한 탐색을 통하여 학습의 방향과 올바른 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교과목에 대한 안내 자료를 발간하여 안내해야 할 것이다. 이 자료에는 각 교과목의 성격, 내용, 과목 이수 방법, 진로와의 관련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학교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선택 과목의 개설 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일반계 고등학교에서의 과정 운영

④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2004. 11. 26, 교육 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개정 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국가 수준에서 과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실현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학생의 선택 폭이 확대되고 다양한 유형의 학생 개인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의 과목 선택이 의미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해 필요한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집중 이수 과정은 학생의 요구, 교사의 조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생의 진로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과를 집중 이수할 수 있도록 인문 과정, 사회 과정, 자연 과정, 외국어 과정, 예체능 과정, 직업 과정 등 학교별로 다양한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2학년에서 진로 탐색 과정을 거친 후 3학년에서 세부 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고 교사 수급, 시설 등 학교의 입장만을 고려해서 과정을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학생의 진로를 돕기 위해 어떠한 과목들을 계열성 있게 이수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충분한 상담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가 과정을 개설한 경우에도 선택 과목 이수 과정에서 개인의 진로 수정이 용이하도록 과정 간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학교인 과학 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 고등학교, 체육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는 다양한 과정을 둘 수 없고, 해당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①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3.2, 2007.5.16)

1. 기계·전기·전자·건설등 공업계열의 고등학교
2. 농업자영자 양성을 위한 농업계열의 고등학교
3. 수산자영자 양성을 위한 수산계열의 고등학교
4. 선원 양성을 위한 해양계열의 고등학교
5.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6. 어학영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
7.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
8.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9.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전문인의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재량 활동의 편성

- ⑤ 창의적 재량 활동을 포함한 고등학교의 재량 활동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재량 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 및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한 영역이다. 무엇보다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단위 학교나 지역 사회의 실정, 교원·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바람직한 학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제 7 차 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에 2단위, 국민공통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에 4~6단위, 선택교과에 4~6단위 등 총 12단위를 배정하였으나,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총 6단위로 감축 배정하였고 영역별 이수 단위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을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재량 활동의 총 이수 단위가 대폭 감축됨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교 교육목표 및 재량 활동의 취지를 고려하여 영역별 단위 배당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적성과 진로 및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과 교과 재량 활동으로 편성하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을 전문 교과

중심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학생의 과목 선택 폭 확대

⑥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히, 시·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는 선택 과목을 편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먼저 교과목의 특성에 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 즉, 당해 학교의 경우 특정 과목이 개설 가능할지의 여부, 개설한다면 어느 학기에 개설할 것인지, 이수 단위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집중 이수는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또 선택 과목 편성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학교가 시설 여건, 교사 수급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에서 개설할 수 있는 교과목만 운영한다면 이는 완전한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학교에서 개설 가능한 과목을 파악할 때에는 현재의 교사, 시설 여건으로 개설 가능한 과목뿐만 아니라 외부의 지원을 받아 개설 가능한 과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교사 여건 예컨대, 당해 학교 소속 교사들의 부전공·복수 전공 자격과 보통 교실, 다목적 교실, 교과 교실 등의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학생 선택 현황에 따라 교과별 교원 정원을 조정하고, 계약제 교원의 활용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시·도 교육청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선택 과목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5)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

⑦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하도록 한다.

한 학기에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의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 과목당 수업 시간 수가 너무 적어져 학습 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험 과목 수의 증가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커진다. 또 수업 시간이 주당 1~2 시간인 과목의 교사들은 많은 학생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수행 평가가 어렵고 학교 생활 기록부를 작성할 때에도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발생

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학기 당 이수 과목을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편성하도록 하여 학습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학기 또는 학년 집중 이수 및 선택 과목의 이수 단위 증배 운영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종교 과목의 개설 방법

- ⑧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⑨ <삭제>

교양 선택 과목 중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도록 한다. 특히, 평준화 지역의 학교는 학생의 의사에 관계 없이 학교를 배정하는 점에서 건학 이념 또는 설립 취지가 분명한 사립 학교의 경우에도 특정 종교 교육이 전교생에게 일률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비평준화 지역이라 할 지라도 학생 개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종교 이외의 과목을 복수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7) 학교 밖 이수 과목의 인정

- 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개정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학생의 선택권 존중이다. 그러나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생의 선택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정 과목 이수를 학생이 원함에도 교원 수급, 학교 시설 여건 불비 등으로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개설한 인근 학교에서의 이수가 가능하도록 학교 간 지원 체제를 확립하고, 타 학교에서의 과목 이수도 이수 단위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또 시·도 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대학교 위탁 교육이나 원격 교육, 주말 및 방학 중 통합 교육(주말 학교, 계절 학교 등)에 참여하여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학교장은 일정 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과목 이수를 인정해 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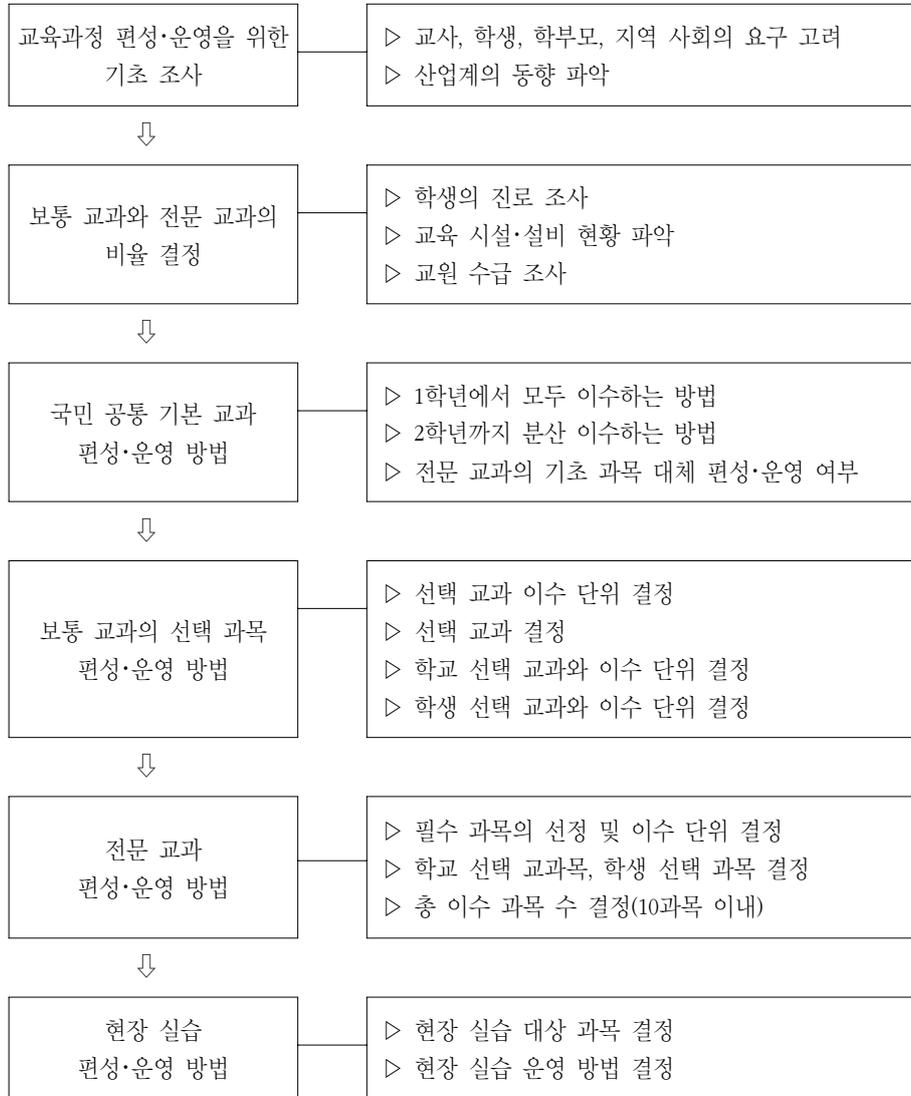
(8)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⑪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선택 과목은 학교장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 시·도 교육청과 학교 수준에서 각각 28 단위 이상, 학생 수준에서 최소 28 단위 이상으로 선택 비율이 제시되어 있으나, 전문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학생 수준에서의 이수 비율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전문 교과 이수 단위를 결정하고 학교장이 학과별 필수 과목을 정할 수 있다. 학과별 필수 과목을 지정할 경우 학과 설립 목적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지정하되, 너무 많은 과목을 지정하면 학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폐단이 예상되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과목을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의 발달과 직업의 세분화에 따라 다양한 직업 준비 교육이 요구되고 있으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과별 필수 과목은 가장 기초가 되는 여러 직종에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야 할 것이며, 학생, 교원, 교육 행정가, 기업인, 졸업생 등 여러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선택 과목은 학교장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 중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관련된 편성·운영 절차를 예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V-5] 전문계고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 절차(예시)

(9) 현장 실습

⑫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 실습 의무화를 명시하고 있다.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고 경험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교내 활동(창업 동아리, 교내 실습, 학교 기업 등), 현장 체험 학습,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관련 법령 및 시·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현장 실습 미이수자에 대한 사항, 현장 실습이 불가능한 학생에 대한 사항,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순회 지도에 관한 사항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0)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 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의 전공 외국어와 전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어를 포함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4-85호).

2004년에 부분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는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을 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공 외국어를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으로 편성하고, 전공 외국어 이외의 기타 외국어 2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외국어에 관한 전문 교과의 과목별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8단위 이하로 배당하도록 하고 있다.

(11) 새로운 계열의 신설

- ⑭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학교의 경우 개방형 통합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의 발달, 학문적 추세,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을 준함이 원칙이나, 유사 계열의 교육 과정 준용이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새로운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학교가 새로운 계열을 설치하고자 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교육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1) 교원의 전문성 발휘와 교원 연수

(2) 운 영

(가)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 운영한다.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이 주어짐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모든 교원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원은 학교 교육과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최선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학교의 교육과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해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원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의 준비, 편성 작업, 심의·검토, 수정·보완, 확정 등의 모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학교는 교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직 속에서 일정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하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학교 교육과정 운영은 각 교과와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운영 전반을 포함하는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을 당해 학교의 교육 목표와 실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동 학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와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뿐만 아니라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살려 분야별 업무를 담당하고 자체 연수의 강사가 되기도 하며, 수업 공개 등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힘써야 한다.

(2) 통합적, 체계적 인성 교육

(나)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인성 교육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에서도 교과 학습 못지않게 인성 교육 역시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는 교육과정 내에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여기서 ‘통합적’이라는 말은 인성 교육이 어느 한 영역 또는 교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체계적’이란 말은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가운데 일관성 있게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3) 수준별 수업 운영시 고려 사항

(대) 단위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습 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2006. 8. 29, 교육 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국가 기준의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 흥미, 적성, 진로에 따른 개인차를 존중하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학습 결손을 예방하여 기초·기본 교육을 충실히 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제고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 대하여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기초·기본 교육 충실 및 교육의 수월성 추구라는 수준별 수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 개개인의 학습 능력과 적성에 맞춘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고, 학생의 학습 능력과 필요에 대응하는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학년도마다 수준별 수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개인의 학습 결손을 메우기 위해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학생 개인의 학습 결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배려하려는 특별 보충 수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 결손의 정도 및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여 적절한 운영 방법과 이에 합당한 교수·학습 자료를 결정한 후, 학생의 수준, 학부모의 요구 및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와 수업 시수 등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수학과와 영어과의 경우는 교과서와 함께 수학 익힘책, 영어 활동책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의 활용에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4) 일관성 있는 지도와 융통성 있는 운영

(해)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① 각 교과와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 ②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 ④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⑤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 ⑥ 교과와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⑧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 ⑨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과정은 학습 목표, 내용, 방법, 평가면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융통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다음과 같이 시간, 장소, 조직, 집단 편성, 자원 인사의 활용면에서 발휘될 수 있다.

- ① 탄력적인 시간 운영 : 고정, 연속, 분산, 집중
- ② 장소 활용의 융통성 : 교실, 야외 교실, 체육관, 지역 사회
- ③ 교사 조직의 융통성 : 담임교사, 교과 전담
- ④ 다양한 활동 주제의 선정 : 학생, 학부모, 자원 인사의 아이디어
- ⑤ 집단 편성의 융통성 : 학급, 학급군, 학년, 학년군, 전교
- ⑥ 자원 인사 활용의 융통성 : 자원 봉사자, 지역 사회 인사, 명예 교사

교과의 교육 내용은 학년별로 다루어야 할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필수 학습 요소’들을 중심으로 정선되어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에서는 교과의 특성에 알맞게 선정, 배열되어 있는 핵심적인 개념과 아이디어, 지식, 원리, 기능, 가치 규범, 주제, 제재, 소재를 보다 더 상세화한 수준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습을 통해서 성취해야 할 능력이나 특징의 폭과 깊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교과 목표와 내용을 밀접하게 관련시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계획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렇게 재구성된 계획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습 경험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특히 학습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교사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21세기의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의 결과만을 인식하는 것보다는 탐구하는 과정, 탐구하는 방법, 문제 해결 과정 등에 대한 학습을 통하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자율적인 학습’, ‘창의성을 길러 줄 수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한다.

협동심, 공동체 의식 배양과 같은 정의적 측면의 교육은 도덕, 국어, 사회과 등의 특정 교과에서 의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표면적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서 오히려 확실하게 육성될 수 있다. 따라서 전 교과, 전 영역에 걸쳐 공동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해야 한다.

공동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학습 활동을 전개할 때에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연구와 치밀한 계획이 요구되며, 교사 상호 간의 긴밀한 정보 교환과 협조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정보를 교환하고 협동적으로 지도하는 가운데, 특정 교과의 학습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과정에 설정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 내용과 학생 실태에 따라 다양한 학습 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가 대도시와 개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에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교실 내에서 만의 강의식 수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발표·토의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하며 실험·관찰, 조사, 수집, 노작, 토론, 견학 등 직접적 체험 활동 중심의 학습과 함께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과용 도서는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나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학생이 성취하여야 할 교육 목표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도록 하고, 그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과 내용의 순서, 비중 및 방법을 어떻게 조정하여야 효과적인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또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생활 중심, 체험 중심의 교수·학습을 강조하며,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 지역 사회의 다른 학교와 긴밀히 협조하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할 수도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근에 있는 각급 학교와의 협조를 통하여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 교원의 원활한 교류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과학, 기술·가정 등의 실험·실습이나 체육·예술 교과의 실기 지도에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리 점검해 보고 학생들이 안전 수칙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에서 이수하는 교과는 남녀 구분이 없이 모두 공통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다.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지도한다.

교육과정은 충실히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은 시간, 장소, 조직, 주제 등에서 각 학교가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5) 특별 활동의 탄력적 운영

(㉸) 특별 활동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중점 영역을 설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가꾸어 나가도록 한다.

- ①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성, 취미, 흥미, 특기 등이 충분히 신장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②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자질이 형성될 수 있는 자율적인 집단 활동이 되도록 한다.
- ③ 지역 및 학교 실정과 활동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집중 연속적인 이수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 ④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의 기회를 마련한다.

특별 활동의 각 영역을 균형 있게 운영한다는 것은 영역별 수업 시수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특별 활동을 운영할 때,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에서 어느 한 두 영역에만 치우쳐서는 곤란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학교는 영역별로 다양한 활동들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되, 학교의 특성을 살려 특정 활동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세워 나가도록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 ①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습 시간 운영상 필요에 따라서 지역 사회 협력기관과 유적지에 미리 견학 가능 여부를 통보해 주도록 공문을 발송하고, 견학처를 범교과 학습 위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학급에 제시하고 지역 사회 자원 인사를 초빙하여 범교과 학습 지도 위원으로 위촉장을 발급하여 특강을 실시할 수 있다. 또 범교과에 관련된 지역 문화 시설, 복지 시설 등을 현장 방문하여 견학을 하고, 학습의 기회와 지식의 폭을 넓히어 지역 사회와 연계 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② 특별 활동의 목적은 바람직한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기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자기 표현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어야 하며, 여러 가지 자연 체험 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특별 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자신의 문제를 상담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탐색의 기회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 ③ 특별 활동의 시간 운영은 고정 운영, 연속 운영, 분산 운영, 집중 운영의 다양한 방안이 있으나, 이는 특별 활동의 각 영역, 활동 주제의 특성, 계절이나 기후, 학급·학년의 과제 학생의 흥미와 요구, 학교의 실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방안만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자치 활동과 적응 활동의 경우 분산 운영이 효과적이기도 하나, 계발 활동에서는 연속 운영이 효과적일 수도 있고, 봉사 활동이나 행사 활동의 경우 집중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6) 다양한 학습 자료 활용

- (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한다.
- (사) 교과용 도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교수·학습 자료는 교과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까지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시·도 교육청이 개발한 도서 자료뿐 아니라 중앙교수학습센터와 각 시·도의 교수학습지원센터에 탑재되는 자료, 교육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교과별 보조 학습 자료 등을 사용함으로써 '교과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과서, 참고 자료, 기타 교육 자료와 각종 교구, 교육 기자재 등을 적절하게 선택,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때, 교육과정과의 적합성, 교육 목표, 학습 목표와의 일치도, 지도상의 유효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때로는 자체 제작한 교재, 교구, 자료 등도 훌륭한 학습 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개인별 연간 교수·학습 계획에 치밀하게 반영하여 적절하게 활용하고, 교육 자료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7) 범교과 학습 활동의 통합적인 운영

(아)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범교과 학습 활동은 국가·사회적인 요구나 필요에 의하여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을 비롯하여 위의 지침 (아) 항에 제시된 국가 사회적 요구 사항은 재량 활동뿐 아니라 관련 교과와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범교과 학습 활동의 주제는 학교 실정에 따라 학년별로 설정할 수도 있고, 시기에 따라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으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요 교육 시책, 자기 발전 계획상의 사업, 국가 시책·중점 사업 등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통합 운영되어야 한다. 환경, 교통, 절약, 안전, 질서·준법, 경로 효친, 예절 등과 같이 국가적, 지역적, 시대적, 사회적으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반영되기를 요구하는 범교과적인 학습 내용은 회

의 자료나 장학 계획, 협의회, 공문 지시 등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서 학년별로 학교 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편성되어야 하고, 심도 있는 수업을 통하여 계획적, 조직적, 반복적으로 학습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범교과 학습 주제에 따른 교육활동은 재량 활동 교육과정 해설 부분 참고).

(8) 계기 교육의 실시

(㉞)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사회 현안에 대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계기 교육의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각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만들거나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도 있으나 상위 기관의 지침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9) 독서 계획의 수립

(㉞)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좋은 글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독서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모든 교육 활동에 독서 교육 계획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서 계획은 독서 목록에 문학 분야를 비롯한 인문, 사회, 과학에 걸친 여러 영역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교양을 풍부하게 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며, 교과 학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0) 특수 학급 설치 운영 및 특별 프로그램의 개설

(㉞)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하거나, 특수 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

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정신 지체, 지체 부자유, 정서 장애 등 심신 장애 학생들은 해당 특수 학교의 교육과정 및 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수 학생의 교육은 개별화되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의 개인에게 알맞은 학습 자료를 사용하여 실행되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특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11)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의 개설

(㉞)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학교에서는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특설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 방과 후 학교 개설 계획은 장기적이고 연속적으로 설정되어 학생이 특기와 적성을 학습하고 연마하는 데 충분하도록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방과 후 교육 활동이 교육과정의 한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으로, 국가·사회 및 개인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 하겠다.

(12)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노력

(㉟) 학교는 동 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이해,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공유,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수 자료의 공동 제작 등을 위하여 동 학년 협의회, 교과별 협의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 교수·학습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활발한 연구와 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13)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해)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학교 교육과정 평가의 목적은 교육과정이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 계획·편성·운영·지원 등에서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하여 교육과정 구성 요소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학교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 자율성을 갖고 교육 활동을 하게 되었으므로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자체 평가하기 위한 평가 도구를 학교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고, 학교 교육과정이 국가의 기준과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잘 맞는지 검토하며,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4.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가. 국가 수준에서 시행하는 평가 활동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1)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단위) 배당, 편성·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이 지침은 개정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평가의 종류와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시한 것이다. 국가 교육과정은 그 본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고 있는지, 또한 당초 의도했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실시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의 기초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두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국가 수준에서 수행해야 하는 평가로 학업 성취도 평가와 학교 및 교육청 평가, 평가 연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의 질 관리의 하나로, 교육과정에 따른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한다. 이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절대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새 교과 교육과정의 내용을 성취 기준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학력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업 성취도 평가는 시·도 또는 지역 교육청별로 일정 수의 학교를 표집하여 몇 개의 학년과 몇 개의 교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 대상 학년, 교과, 주기 등은 계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적절하게 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국가 수준의 학력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의 학력을 학부모에게 알려 주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둘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와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수준에서 주기적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평가의 관점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또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학교 지원을 도모하도록 한다.

셋째, 또한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계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 평가 연구의 목적은 개정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실태와 지원 체계에 대한 적절성 및 실효성을 체계적이고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활용함과 함께 학교의 원활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수준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과정 평가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단위) 배당, 편성·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교육과정 평가의 주목적은 교육과정의 파행적인 운영을 예방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과 그것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학교 평가의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 평가는 단위 학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서 일정한 주기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학교에 행정적, 재정적 유인가(incentive)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가 수준의 평가 지원 활동

나.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 (1)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여 에듀넷 등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학교가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국가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국가 교육과정이 질 높게 시행되도록 그 질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평가 활동을 시행한다. 그뿐만 아니라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해 주기도 하여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한다.

개정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시·도 교육청에 보급하고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이를 수정·보완하여 각 단위 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국가 수준에서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단위 학교가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평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는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동안 국가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교과별로 많은 문제를 개발하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개발된 다양한 교과별 문항들을 문제 은행식으로 보관하고 있어 단위 학교에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라 기존의 교과별 문제 은행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 저장함으로써 현장 학교가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개정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수준에서 교과별로 다양한 종류의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가 활동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평가 도구의 개발, 보급이 필수적이다. 물론 현재도 다양한 도구들이 제공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이 변화되었을 경우 개정 교육과정에 맞는 새로운 평가 도구들을 다양하게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다.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시행할 수 있는 평가 활동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질 관리를 위한 시·도 교육청의 평가 활동 근거를 신설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평가 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시·도 교육청에서 수행할 수 있는 평가 활동 종류로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교육과정의 질은 궁극적으로는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질로 판정된다. 그리하여 국가에서는 단위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이 질 높게 운영되도록 국가 수준의 질 관리 노력을 한다. 그러나 단위 학교들은 행정적으로는 해당 시·도 교육청과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도록 그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질 관리 방안으로 시·도 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의 학업 성취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거나 단위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전반에 대한 평가 등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활동 관련 지침

국가 교육과정이 실천되는 현장은 학교이다. 따라서 각각의 단위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질이 전체적으로 국가 교육과정의 질을 결정한다. 단위 학교에서 질 높은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질 높은 평가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평가 활동을 할 때 유의할 사항을 교육과정 총론의 두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부문

해)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우선 단위 학교에서는 매년 전년도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결과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질 높은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각 학교가 교육과정을 국가 교육과정의 기준에 적합하게 편성하였는지, 지역과 학교의 특징, 학부모나 학생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이를 잘 운영하여 어느 정도의 교육적 효과가 있었는지를 매년 자체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새 학년도의 보다 더 질 높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평가가 교육과정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인 것이다.

(2)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부문

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1)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2)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3) 교과의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5)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6)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유의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8)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過程)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으로 교과,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교육 목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

용하여야 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평가의 참여자를 교사, 학부모와 학생 등으로 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평가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에서는 매년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자체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으며, 실제로 작성된 학교 교육과정의 활용성,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육 평가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요망된다. 평가는 등급을 매기고 서열을 정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지금까지의 인식에서,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에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학습의 결과로 도달하게 되는 도달점의 확인이라고 하는 평가에서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되어야 하며, 교과서 내용의 암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의 이해 습득 정도에 대한 평가의 의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교과와 특별 활동의 평가 방향에 따라 시·도의 실정에 알맞게 각 교과 및 특별 활동의 구체적인 평가 지침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사가 기획, 출제하고, 처리하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전문성을 지닐 수 있는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학교는 민간 업체가 제작한 평가지의 활용을 지양하고,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에서 서술형 평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제까지 학교 교육에서 선다형의 지필 검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가의 역기능 현상을 줄이고, 평가의 적극적 기능을 살리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험·실습의 평가는 사전에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작성하여 학생에게 공개함으로써 학습 활동의 목표점을 명확히 밝혀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는 태도, 표현, 기능 평가를 위한 실기 평가 기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식이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출물을 만들거나, 행동으로 나타내거나, 답안을 작성·구성하도록 요구하는 평가 방식’, 즉 수행 평가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형 또는 주관식 검사, 논술형 검사, 구술 시험, 찬·반 토론법, 실기 시험, 실험·실습법, 면접법, 관찰법, 자기 평가 보고서, 연구 보고서, 포트폴리오(portfolio) 등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여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력 등을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함께 교사의 교수 활동 및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결과를 포함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보완해 나감으로써 교육의 질을 충실히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5.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가.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한다.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학교는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따라야 한다. 시·도 교육청은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범주를 상세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인적자원부 직할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직할 학교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관할에 속하지 않지만, 각 학교는 이 지침에 따라 해당 학교 소재지 관할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고등학교의 경우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실업계 고등학교에 준하되 136 단위 이상을 이수하고, 학교 교육과정은 기본 학습 능력 및 기술의 신장에 관련된 교과목의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의 편성·운영 자율권과 시·도 교육청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승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계승하여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시·도 교육청에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는 승인에 따른 절차 및 서식, 일정, 유의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총 이수 단위 수,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의 이수 단위 수, 필수 과목의 운영, 실험·실습 시간의 확보, 특별 활동 및 재량 활동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야간에 수업을 편성·운영하는 학교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수한 학교로 분류되지 않지만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의 내용을 모두 지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시간 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단위 수업 시간을 50분에서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도 교육청은 야간에 수업을 하는 학교의 경우 특별 활동 및 야외 학습 등의 실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준하되, 17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침사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따라야 한다. 그렇지만 방송 통신 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 및 교육방식, 학교 출석 수업 일수에 대해 일정 정도 조정하여 제시하였다. 즉 ①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준하되 170 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② 교육 방식에서 침사 지도를 허용하였으며, ③ 학교 출석 수업 일수를 연간 20일 이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것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운영상에서 제6차 교육과정에 비해 ① 총 이수 단위 수의 경우 일반계 고등학교에 준하던 것을 '170단위 이상 이수'로 감축하였으며, ② 수업 방법에서 침사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을 허용하였으며, ③ 학교 출석 수업 일수를 '연간 26일 이상'에서 '연간 20일 이상'으로 감축한 것이다. 이것은 방송 통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이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되어야 하지만, 운영에서는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 부담을 줄이고, 방송 통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 (1)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68시간 미만으로는 감축 운영할 수 없다.
- (2)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외의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특성화 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 및 특정 목적하에 학교 운영의 특례 등이 부여되고 있는 특성화 학교 및 자율 학교 등으로 지정된 고등학교의 경우, 그 학교의 설립 이념 및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적 운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이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하도록 하지만 그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어느 정도 부여하였다. 초·중등 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특성화 고등학교로 지정하여, 그 학교의 목적 및 특성에 맞는 교육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의한 자율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를 받아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 유형의 고등학교가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융통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특정 교과 시간 수를 전혀 편성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68시간 미만으로 감축 운영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국민공통 기본 교과 외의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성화 고등학교 및 자율 학교 등은 각기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는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경우 시·도 교육청이 제시한 지침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시·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개선 연구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과정 연구학교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는 다르게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침의 취지는 현행 교육과정 틀을 초월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현행 교육과정 틀을 초월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것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 현행의 교육과정의 틀을 초월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는 매학년 220일 이상의 수업 일수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은 220일의 수업 일수에 적합한 시간(단위) 배당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행령 동조 동항에 “다만, 주 5일 수업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 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 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육과정 연구학교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부록 1]

총론의 주요 개정 사항 비교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교육과정의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고시의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법 제15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고시의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추구하는 인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교육과정 철학 유지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변화를 주도하는 기본 능력 육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교육과정 관련 내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고시 (06.8.29) 반영
교육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급별 교육 중점 및 교육목표를 교육과정에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차 교육과정 철학 유지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1, 2 : 830, 850 - 초등 3, 4 : 986 - 초등 5, 6 : 1,088 - 중 1~3 : 1,156 - 고 1 : 1,224(72) - 고 2, 3 : 144(13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1, 2 : 830, 850 - 초등 3, 4 : 952 - 초등 5, 6 : 1,054 - 중 1~3 : 1,122 - 고 1 : 1,190(70) - 고 2, 3 : 140(1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수업 시수 감축 ※ 초등 1, 2 : 현행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 사회 교과 (고 1 국사 : 주당 2시간) - 고 1 과학 : 주당 3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 고 사회, 역사 과목 분리 (고 1 역사 : 주당 3시간) - 고 1 과학 : 주당 4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과학 교육 강화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보통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선택, 심화 선택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보통 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과목으로 단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요구 반영

[부록 I] 총론의 주요 개정 사항 비교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선택 과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양 교과에서 전문 교과 개설, 과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선택 과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교과에서 전문 교과 개설, 과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단위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 계열 필수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외국어 I 및 청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 계열 필수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 외국어(심화 영어), 청해, 회화 I, 문화 I, 독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 강화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 교과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중학교 : 교과 재량 3시간, 창의적 재량 1시간 고 1 : 교과 심화 보충 4, 6 단위, 선택 과목 4~6 단위, 창의적 재량 활동 2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량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 창의적 재량 활동 중학교 : 재량 활동 3시간 고 1 : 재량 활동 6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량 활동 운영의 학교 자율권 부여 ※ 주 5일 수업제에 따른 시수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계고 선택과목군 : 5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사회 과목군 과학·기술 과목군 예·체능 과목군 외국어 과목군 교양 과목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계고 선택 과목군 :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문·사회 과목군 과학·기술 과목군 체육 과목군 예술 과목군 외국어 과목군 교양 과목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과목의 불균형 이 수 문제 해소 인성, 교양 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계고 학생 선택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28 단위 이상, 최대 50% 2 단위 증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계고 학생 선택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 28 단위 이상만 규정 2~4 단위 증감 운영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선택권 강화 단위 학교 자율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업계와 기타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교과 82 단위, 전문 교과 82 단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통 교과 80단위, 전문 교과 80단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단위 수 감축
시·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아, 귀국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 반영

구 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 고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이수 기회 보장 -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위한 다양한 기회 마련 및 지역 사회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이수 기회 보장 - 고등학교 선택 과목 -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전·편입학, 귀국 등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중심 교육과정 구현
지역교육청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아 및 귀국자 자녀 교육 기회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 교육 기회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요구 반영
학교 편성·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등학교 학기, 학년 집중 이수 허용 조항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 학교 자율성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과 학습 - 민주 시민 교육 등 16개 영역 예시 - 재량 활동에서 중점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교과 학습 - 기존 16개 영역에 청렴·반부패 교육 등 19개 영역 추가 -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도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법교과 학습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기 교육 관련 조항 신설 -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목적 - 별도 계기 교육 지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기 교육 관련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학교 혹은 방학 중 프로그램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과 후 학교 관련내용 근거 마련
교육과정 평가·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관련 국가 수준 및 단위 학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 관련 국가 수준,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 평가 - 시·도 교육청의 학업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및 질 관리 강화
특수한 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고 이수단위 - 172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고 이수단위 - 170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2회 주 5일 수업제 반영, 수업시수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관련 - 국민공통 기본 교과 총 이수 시간 범위 내 증감운영 가능 - 선택과목 자율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 관련 근거 마련 특성화 학교, 자율학교의 자율적 운영 보장

[부록 II]

교육적 인간상의 변천

구 분	교육적 인간상	비 고
제1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도의 교육적 인간상 미제시 - 교육법 제2조 「교육의 목적」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법 제2조 -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제2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의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명확한 사명감을 자각하고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 - 국가와 겨레의 이상과 현실을 명철히 이행하는 인간 - 국민 각자에게 부과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역동적인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주성, 생산성, 유용성의 강조
제3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국민적 자질의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민족 주체 의식의 고양 ② 전통을 바탕으로 한 민족 문화의 창조 ③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나. 인간 교육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가치관 교육의 강화 ② 비인간화 경향의 극복 ③ 근면성과 협동성의 양양 다. 지식·기술 교육의 쇄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본 능력의 배양 ② 기본 개념의 파악 ③ 판단력과 창의력의 함양 ④ 산학 협동 교육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아실현, 국가발전, 민주적 가치의 강조
제4차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 복지, 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 육성 ① 올바른 정신과 튼튼한 몸을 단련하는 건강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전한 심신의 육성 ◦ 지력과 기술의 배양 ◦ 도덕적인 인격의

구 분	교육적 인간상	비 고
	② 취향이 고상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인 사람 ③ 개인의 발전과 국가의 융성과의 조화 ④ 인간을 존중하며 규범에 따라 행동하는 도덕적 사람 ⑤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형성 ◦ 민족 공동체 의식의 교양
제5차 교육과정	①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몸을 지닌 건강한 사람 ② 자신과 공동체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실천하는 자주적인 사람 ③ 지식과 기술을 익혀 문제를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창조적인 사람 ④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도덕적인 사람	
제6차 교육과정	① 건강한 사람 ② 자주적인 사람 ③ 창의적인 사람 ④ 도덕적인 사람	◦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 시민 육성
제7차 교육과정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한국인 육성
2007년 개정 교육과정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②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④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⑤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적 인간상을 전적으로 승계, 유지함

[부록 Ⅲ]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8 - 148호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9월 11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1】과 같습니다.
2. 초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2】와 같습니다.
3. 중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3】과 같습니다.
4.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별책 4】와 같습니다.
5. 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5】와 같습니다.
6. 도덕과 교육과정은 【별책 6】과 같습니다.
7. 사회과 교육과정은 【별책 7】과 같습니다.
8. 수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8】과 같습니다.
9. 과학과 교육과정은 【별책 9】와 같습니다.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은 【별책 10】과 같습니다.
11. 체육과 교육과정은 【별책 11】과 같습니다.
12. 음악과 교육과정은 【별책 12】와 같습니다.
13. 미술과 교육과정은 【별책 13】과 같습니다.
14. 외국어과 교육과정은 【별책 14】와 같습니다.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은 【별책 15】와 같습니다.
16.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6】과 같습니다.

17.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은 【별책 17】과 같습니다.
18.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별책 18】과 같습니다.
19.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19】와 같습니다.
20. 공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0】과 같습니다.
21. 상업 정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1】과 같습니다.
22. 수산·해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2】와 같습니다.
23. 가사·실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3】과 같습니다.
24. 과학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4】와 같습니다.
25. 체육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5】와 같습니다.
26.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6】과 같습니다.
27.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7】과 같습니다.
28.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은 【별책 28】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라. 2012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마. 2013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2.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의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2006. 8. 29)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 나.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 다. 2011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3. 초·중고등학교에서 보건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가. 2009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5,6학년에서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각각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 나. 2010년 3월 1일부터 중학교에서 재량 활동 선택과목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 다. 2010년 3월 1일부터 고등학교에서는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선택과목(교양과목군)에 보건과목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 라. 2009년 3월 1일부터 2010년 2월 28일까지는 중학교 1~3학년 중 1개 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재량 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연간 17시간 이상의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 라. 학교 교육 체계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제1장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
-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 II. 학교 급별 교육 목표
 - III.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 IV.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
-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나. 기초 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다.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마. 민주 시민 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2.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성 방침은 다음과 같다.

- 가.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길러 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도입한다.
- 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심도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라. 학생의 능력,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한다.
- 마.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 바. 교육과정 평가 체제를 확립하여 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한다.

Ⅱ. 학교 급별 교육 목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 급별 교육 목표를 둔다.

1. 초등학교 교육 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 가.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다.
- 나. 일상생활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 다양한 일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폭넓은 학습 경험을 가진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고 애호하는 태도를 가진다.
- 마.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씨를 가진다.

2. 중학교 교육 목표

중학교 교육은 초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고,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가진다.
- 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경험을 가진다.
-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극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경험을 가진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지니고, 이에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마.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적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적인 생활 방식을 익힌다.

3. 고등학교 교육 목표

고등학교의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 가.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 의식을 가진다.
- 나.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 라.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가진다.
- 마. 국가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Ⅲ. 편제와 시간(단위) 배당 기준

1. 편 제

가. 교육과정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표 1】

(1)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 들은 1학년으로 한다.

(2)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한다.

(3)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편성한다,

(1)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가) 보통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와 한문, 교양 선택 과목으로 한다. 【표 2】

(나) 전문 교과는 농생명 산업, 공업, 상업 정보, 수산·해운, 가사·실업,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에 관한 교과로 한다. 【표 3】

(2) 특별 활동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으로 한다.

2. 시간(단위) 배당 기준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표 1】

학교 학년 구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등학교	
	1	2	3	4	5	6	7	8	9	10	
교 과	국 어	국 어 210 238	238	204	204	204	170	136	136	136(8)	
	도 덕		34	34	34	34	68	68	34	34(2)	
	사 회	수 학 120 136	102	102	102	102	사 회				
							102	·	68	102(6)	
	수 학	바른 생활 60 68	136	136	136	136	136	136	역 사		102(6)
									·	102	68
	과 학	즐거로운 생활 90 102	102	102	102	102	102	136	136	136(8)	
	실 과		·	·	68	68	기술·가정				
	체 육	즐거로운 생활 180 204	102	102	102	102	102	102	102	68	68(4)
											68
	미 술	우리들은 1학년 80 ·	68	68	68	68	68	34	34	68	34(2)
	외국어 (영어)		34	34	68	68	102	102	136	136(8)	
재량 활동	60	68	68	68	68	68	102	102	102	102(6)	
특별 활동	30	34	34	68	68	68	68	68	68	68(4)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830	850	952	952	1,054	1,054	1,122	1,122	1,122	1,190(70)	

- ① 이 표의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에 제시된 시간 수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단,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 시간 수는 주 5일 수업에 따라 감축된 시간 수이므로 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간 수 중 연간 3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운영한다.
- ②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월 한 달 동안의 수업 시간 수를 제시한 것이다.
- ③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 ④ 10학년의 ()안에 제시된 숫자는 단위 수이다.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1) 보통 교과

【표 2】

구 분		선 택 과 목
교 과	국 어 도 덕 사 회	화법(6), 독서(6), 작문(6), 문법(6), 문학(6), 매체 언어(6) 현대 생활과 윤리(6), 윤리와 사상(6), 전통 윤리(6) 한국 지리(6), 세계 지리(6), 경제 지리(6), 한국 문화사(6), 세계 역사의 이해(6), 동아시아사(6), 법과 사회(6), 정치(6), 경제(6), 사회·문화(6)
	수 학	수학의 활용(6), 수학 I(6), 미적분과 통계 기본(6), 수학 II(6), 적분과 통계(6), 기하와 벡터(6)
	과 학	물리 I(6), 물리 II(6), 화학 I(6), 화학 II(6), 생명 과학 I(6), 생명 과학 II(6), 지구 과학 I(6), 지구 과학 II(6)
	기술·가정	농업 생명 과학(6), 공학 기술(6), 가정 과학(6), 창업과 경영(6), 해양 과학(6), 정보(6)
	체 육	운동과 건강 생활(4), 스포츠 문화(4), 스포츠 과학(6)
	음 악	음악 실기(4), 음악과 사회(4), 음악의 이해(6)
	미 술	미술과 삶(4), 미술 감상(4), 미술 창작(6)
	외국어	영어 I(6), 영어 II(6), 실용 영어 회화(6), 심화 영어 회화(6), 영어 독해와 작문(6), 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6) 독일어 I(6), 독일어 II(6), 프랑스어 I(6), 프랑스어 II(6), 스페인어 I(6), 스페인어 II(6), 중국어 I(6), 중국어 II(6), 일본어 I(6), 일본어 II(6), 러시아어 I(6), 러시아어 II(6), 아랍어 I(6), 아랍어 II(6)
	한 문 교 양	한문 I(6), 한문 II(6) 생활과 철학(4), 생활과 논리(4), 생활과 심리(4), 생활과 교육(4), 생활과 종교(4), 생활 경제(4), 안전과 건강(4), 진로와 직업(4), 환경(4), 보건(4)
	이수 단위	132
특별 활동	8	
총 이수 단위	140	

- ① () 안의 숫자는 단위 수이며, 1단위는 매주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17주) 동안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학교는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의 승인 하에 【표 3】의 전분 교과 과목을 개설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신설할 수 있다.

(2) 전문 교과

【표 3】

교과	과 목				기준 학과	
농생명 산업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농업 경영	식물 자원과	
	생물 공학 기초	재배	작물 생산 기술	숲과 인간	동물 자원과	
	산림 자원 기술	원예	생활 원예	생산 자재	농업 토목과	
	원예 기술 I	원예 기술 II	동물 자원	사육 기술 I	식품 가공과	
	사육 기술 II	누에와 비단	조경	조경 기술 I	농업 기계과	
	조경 기술 II	농업과 물	농촌과 농지 개발	농업 토목 기술 I	조경과	
	농업 토목 기술 II	농업 기계	농업 기계 공작	농업 기계 기술 I	농산물유통정보과	
	농업 기계 기술 II	식품 과학	식품 위생	식품 가공 기술 I	환경·관광 농업과	
	식품 가공 기술 II	농산물 유통	농산물 유통 관리 I	농산물 유통 관리 II	생물 공학과	
	환경 보전	환경 관리 I	환경 관리 II	농업과 관광		
	공업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전문 제도	기계과
		기계 일반	전기 일반	공업 영어	기계 설계	전자 기계과
		기계 공작법	원동기	유체 기기	공기 조화 설비	금속 재료과
기계 기초 공작		공작 기계 I	공작 기계 II	산업 설비	전기과	
금속 제작		전자 기계 이론	전자 기계 회로	전자 기계 공작	전자과	
전자 기계 제어		로봇 기초	로봇 제작	재료 일반	통신과	
금속 제조		재료 가공	주조	금속 처리	컴퓨터 응용과	
전기 응용		전기 회로	전기 기기	전력 설비 I	토목과	
전력 설비 II		전기·전자 측정	자동화 설비	전자 기기	건축과	
전자·전산 응용		전자 회로	계측 제어	통신 일반	디자인과	
정보 통신		통신 시스템	컴퓨터 구조	시스템 프로그래밍	화학 공업과	
프로그래밍		디지털 논리 회로	측량	역학	환경 공업과	
토목 설계		토목 일반	토목 재료·시공	수리·토질	세라믹과	
지적 전산		지적 실무	건축 구조	건축 계획 일반	식품 공업과	
건축 목공		건축 시공 I	건축 시공 II	디자인 일반	섬유과	
색채 관리		조형	제품 디자인	공예	인쇄과	
시간 디자인		컴퓨터 그래픽	공업 화학	단위 조작·공정 제어	자동차과	
제조 화학		분석 화학	가능성 세라믹	세라믹 원리·공정	조선과	
구조 세라믹		세라믹 디자인	발효 공업	식품 제조 기계	항공과	
식품 분석		식품 공업 기술	섬유 재료	방직·방사	컴퓨터 게임과	
제포·봉제		염색·가공	인쇄 일반	인쇄·사진 재료	만화·애니메이션과	
평판 인쇄		특수 인쇄	사진·전자 제판	사진	영상 제작과	
자동차·건설 기계		자동차 기관	자동차 색시	자동차 전기·전자 제어		
건설 기계 구조·정비		자동차 차체 수리	선박 이론	선박구조		
선박 건조		항공기 일반	항공기 기계	항공기 기관		
항공기 장비		항공기 전자 장치	환경 공업 일반	수질 관리		
대기·소음 방지	폐기물 처리	컴퓨터 게임 기획	컴퓨터 게임 프로그램			
컴퓨터 게임 그래픽	만화·애니메이션 기초	애니메이션 제작	만화 창작			
영화·방송 제작	촬영·조명	방송 시스템				
상업 정보	상업 경제	컴퓨터 일반	회계 원리	기업과 경영	경영 정보과	
	경영과 법	마케팅과 광고	경영 정보 시스템	기업 자원 관리	회계 정보과	
	커뮤니케이션 실무	원가 회계	기업 회계	전산 회계	무역 정보과	
	세무 회계	금융과 생활	국제화와 기업 경영	무역 영어	유통 경영과	
	전자 무역과 국제 상무	유통 정보 관리	물류 관리	자료 처리	정보 처리과	
	프로그래밍 실무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 관리 실무	멀티미디어 일반	멀티미디어과	
	멀티미디어 기획	멀티미디어 실무	웹 프로그래밍	전자 상거래 일반	전자 상거래과	
	인터넷 쇼핑몰 관리	전자 상거래 실무	인터넷 마케팅	창업 일반	응용디자인과	
				관광경영과		

교과	과 목				기준 학과
수산·해운	수산 일반 수산 생물 양식 생물 질병 해양 오염 열기관 잠수 기술 해사 영어 전자 통신 운용 해양 정보 관리	해사 일반 수산 경영 일반 수산 가공 냉동 일반 선박 보조 기계 항해 선화 운송 생선회 실무	해양 일반 해양 생산 기술 수산물 유통 냉동 기계 선박 전기·전자 선박 운용 전자 통신 공학 해양 레저·관광	수산·해운 정보처리 수산 양식 해양 환경 냉동 공조 실무 기계 설계·공작 해사 법규 전자 통신 기기 항만 물류 일반	해양 생산과 수산 양식과 자영 수산과 수산 식품과 해양 환경과 냉동 공조과 동력 기계과 항해과 전자 통신과 해양 레저과 항만 물류과 해양 정보과
가사·실업	인간 발달 동양 조리 패션 디자인 주거 영·유아 교육 원리 관광 일반 관광 영어 보건 간호 헤어 미용	식품과 영양 서양 조리 한국 의복 구성 실내 디자인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 관광 경영 실무 관광 일본어 관광 중국어 기초 간호 임상 실무 피부 관리	급식 관리 제과 제빵 서양 의복 구성 가구 디자인 영·유아 놀이 교육 관광 서비스 실무 관광 중국어 기초 복지 서비스 메이크업	한국 조리 의복 재료·관리 자수와 편물 디스플레이 영·유아 생활 지도 관광 외식·조리 간호의 기초 노인 생활 지원 공중 보건	조리과 의상과 실내 디자인과 유아교육과 관광과 간호과 복지 서비스과 미용과
과학	물리 실험 과학사 고급 수학 고급 지구 과학 현대 과학과 기술	화학 실험 전자 과학 고급 물리 과제 연구 I 원서 강독	생명 과학 실험 정보 과학 I 고급 화학 과제 연구 II 워크숍	지구 과학 실험 정보 과학 II 고급 생명 과학 환경 과학 과학 철학	
체육	스포츠 개론 체조 운동 투기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체력 전문 스포츠 경기 실습 스포츠 경영·행정	스포츠 경기 과학 수상 운동 빙상·설상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초급 스포츠 교육 전공 실기	체육과 진로 탐구 개인·대인 운동 표현·창작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중급 코칭론 전공 실습	육상 운동 단체 운동 체력 운동 전문 스포츠 경기 고급 건강 관리	스포츠경기과 체육지도과
예술	음악 이론 합창 교양 실기 미술 이론 기초 조소 미술 감상과 비평 무용의 이해 무용 전공 실기 문학의 이해 시 창작 연극의 이해 연극 감상과 비평 영화 제작 실습 사진의 이해 사진 편집	음악사·감상 합주 미술사 기초 디자인·공예 기초 한국 무용 무용 음악 문장론 소설 창작 무대 기술 영화의 이해 영화 감상과 비평 기초 촬영 디지털 사진 촬영	시창·청음 연주 소묘 미술 전공 실기 고전 문학의 감상과 비평 희곡 창작 연기 영화 기술 중급 촬영 디지털 사진 표현 기법	음악 전공 실기 컴퓨터와 음악 기초 회화 영상 매체와 미술 기초 현대 무용 무용 감상과 비평 현대 문학의 감상과 비평 매체와 문학 연극 제작 실습 영화 창작과 표현 암실 실기 사진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술과 무용과 문예창작과 연극영화과 사진과

교과	과 목				기준 학과
외국어	심화 영어	영어 청해	영어 회화 I	영어 회화 II	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영어 독해	영어 작문	영어권 문화 I	영어권 문화 II	
	영어 문법				
	기초 독일어	독일어 청해	독일어 회화 I	독일어 회화 II	
	독일어 독해	독일어 작문	독일어권 문화 I	독일어권 문화 II	
	독일어 문법				
	기초 프랑스어	프랑스어 청해	프랑스어 회화 I	프랑스어 회화 II	
	프랑스어 독해	프랑스어 작문	프랑스어권 문화 I	프랑스어권 문화 II	
	프랑스어 문법				
	기초 스페인어	스페인어 청해	스페인어 회화 I	스페인어 회화 II	
	스페인어 독해	스페인어 작문	스페인어권 문화 I	스페인어권 문화 II	
	스페인어 문법				
	기초 중국어	중국어 청해	중국어 회화 I	중국어 회화 II	
중국어 독해	중국어 작문	중국 문화 I	중국 문화 II		
중국어 문법					
기초 일본어	일본어 청해	일본어 회화 I	일본어 회화 II		
일본어 독해	일본어 작문	일본 문화 I	일본 문화 II		
일본어 문법					
기초 러시아어	러시아어 청해	러시아어 회화 I	러시아어 회화 II		
러시아어 독해	러시아어 작문	러시아 문화 I	러시아 문화 II		
러시아어 문법					
기초 아랍어	아랍어 청해	아랍어 회화 I	아랍어 회화 II		
아랍어 독해	아랍어 작문	아랍 문화 I	아랍 문화 II		
아랍어 문법					
국제	영어 강독	독일어 강독	프랑스어 강독	스페인어 강독	
중국어 강독	일본어 강독	러시아어 강독	아랍어 강독		
국제 정치 I(6)	국제 정치 II(6)	국제 경제 I(6)	국제 경제 II(6)		
세계 문제	비교 문화 I(6)	비교 문화 II(6)	정보 과학		
국제법	지역 이해	인류의 미래 사회	한국의 전통 문화		
한국의 현대 사회	한국어	과제 연구 I(6)	과제 연구 II(6)		
예능 실습					

- ①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표 3】에서 필요한 전문 과목을 80 단위 이상 이수한다.
- ②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 ㉠ 농생명 산업 계열 : 농업 이해, 농업 기초 기술, 농업 정보 관리
 - ㉡ 공업 계열 : 공업 입문, 기초 제도, 정보 기술 기초
 - ㉢ 상업 정보 계열 : 상업 경제, 회계 원리, 컴퓨터 일반
 - ㉣ 수산·해운 계열 :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수산 계열), 해사 일반 (해운 계열)
 - ㉤ 가사·실업 계열 : 인간 발달, 컴퓨터 일반
 - ㉥ 체육 계열 : 스포츠 개론, 스포츠 경기 과학, 체육과 진로 탐구
 - ㉦ 외국어 계열 : 각 학과 해당 기초 외국어(영어과는 심화 영어), 청해, 회화 I, 문화 I, 독해
 - ㉧ 국제 계열 : 영어 강독, 지역 이해, 한국의 전통 문화
- ③ 전문 교과와 각 과목에 대한 이수 단위는 시·도 교육감이 정하되, 외국어와 국제에 관한 교과와 각 과목별 이수 단위는 8단위 이하로 배당한다.
- ④ 국제 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에 관한 교과의 과목에서 선택하여 이수한다.

Ⅳ.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 기본 지침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1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10년 동안에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각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이다.
- (2)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적성, 진로를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다양화 한다. 특히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에서는 수준별 수업을 권장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3)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 (가)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한다.
 - (나) 중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은 한문, 정보, 환경, 생활 외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보건, 기타의 선택 과목 학습 시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한다.
 - (다)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학습 또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 (4) 특별 활동은 다음과 같이 편성, 운영한다.
 - (가) 특별 활동의 영역별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배정하되,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나) <삭제>
 - (다)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시간(단위) 배당 기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 운영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나.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

11, 12학년의 2년 동안에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1)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총 이수 단위는 140단위로, 선택 과목에 132단위, 특별 활동에 8단위로 나누어 편성한다.
- (2)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선택 과목은 학생들의 균형적인 이수를 위하여 ① 인문·사회 과목군(국어, 도덕, 사회), ② 과학·기술 과목군(수학, 과학, 기술·가정), ③ 체육 과목군(체육), ④ 예술 과목군(음악, 미술), ⑤ 외국어 과목군(외국어), ⑥ 교양 과목군(한문, 교양)으로 나눈다. 모든 학생은 ①~④ 과목군에서는 각각 1과목 이상, 외국어 과목군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외국어 중 1과목 이상, 교양 과목군에서는 2과목 이상을 이수한다.
 - (라) 선택 과목 중 과목명에 II가 있는 과목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I을 먼저 이수해야 하나,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과목의 성격에 따라 이수를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
 - (마) 선택 과목에 배당된 132 단위 중에서 시·도 교육청, 단위 학교는 각각 28 단위 이상 지정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은 최소 28 단위 이상으로 하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 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수 단위가 4 단위인 과목은 증배 운영만 가능하다.
 - (사) <삭제>
- (3)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의 교과 편성·운영
 - (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60 단위는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하여 보통 교과를 80 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나) 선택 과목 중에서 전문 교과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경우, 이를 해당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이수로 간주할 수 있다.
 - (다) 교원 및 시설 여건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11학년에서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일부를 편성할 수 있다.
 - (라)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은 기준 단위를 2~4 단위까지 증감 운영할 수 있다.
 - (마) 내용이 유사하거나 관련되는 보통 교과의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는 교체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바) 전문 교과는 필요한 경우 다른 계열의 전문 과목을 선택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 (사) <삭제>
 - (아) 2개 이상의 계열을 운영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해당 학과가 속한 계열의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 (재) 학교는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총 교과 이수 단위를 10% 범위 내에서 증배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전문 교과에 한하여 증배 운영할 수 있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 (4) 11, 12학년의 특별 활동에 배당된 8 단위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각 영역별 이수 단위를 학교에서 재량으로 편성한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

(1) 편 성

(가) 시·도 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③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④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⑥ 교육과정에 표시되지 않은 교과목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⑦ 고등학교의 계열, 학과의 신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
- ⑧ 일반계 고등학교의 과정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⑨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이수 단위에 관한 사항
- ⑩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실험·실습에 관한 사항
- ⑪ 실업계 고등학교의 현장 실습에 관한 사항
- ⑫ 고등학교 총 이수 단위 수의 증배 운영에 관한 사항
- ⑬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⑭ 교과용 도서의 인정,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
- ⑮ 조기 입학, 조기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 ⑯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에 관한 사항
- ⑰ 학교 교육과정의 작성 절차 및 체제에 관한 사항
- ⑱ 독서 목록 작성·활용에 관한 사항
- ⑲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⑳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㉑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㉒ 기타 필요한 사항

- (나)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와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이 위원회에는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산업체 인사 등이 참여할 수 있다.
- (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주민의 요구와 필요 등을 반영하여 시·도의 교육 중점을 설정하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한다.
- (라) 시·도 교육청은 학교, 연구 기관, 대학, 산업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편성·운영 지침의 작성 및 개선에 반영한다.
- (마) 시·도 교육청은 각급 학교가 새 학년도 시작에 앞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교원의 전보를 적기에 시행한다.

(2) 운 영

- (가) 시·도 교육청은 관내의 지역 교육청에서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 실태와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의 운영과 개선 및 질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지원, 지도, 조언을 한다.
- (나)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다) 중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라) <삭제>
- (마)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바) 각 학교가 수준별 수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사) 소규모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원의 배치, 학생의 교육받을 기회의 확충에 필요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수업 개선을 위한 연구 교사를 두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자)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과 학습 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 (차) 귀국자 자녀의 교육 경험의 특성과 배경을 고려하고, 이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

도록 지원한다.

- (가) 중등학교에서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위한 지침을 학교에 제시해 주고, 학교로 하여금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도록 지원한다.
- (나) 전·편입학, 귀국 등에 따라 국민 공통 기본 교과를 이수하지 못한 학생이나, 각 고등학교가 개설하지 못하는 과목을 선택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해당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공공성 있는 사회 교육 시설을 통해 이수한 과정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 (다)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나. 지역 교육청

(1) 편 성

- (가) 지역 교육청은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기초로 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관내의 초·중학교에 제시한다.
 - ① 지역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중점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 ②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③ 학교 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④ 학교 간 교원의 순회 및 수급 협조에 관한 사항
 - ⑤ 학교 간 교육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 ⑥ 복식 학급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⑦ 학교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에 관한 사항
 - ⑧ 기타 필요한 사항
- (나)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 교육 행정가, 교육과정(교과) 전문가, 학부모, 지역 인사 등이 참여한 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다) 학교 간에 공동으로 협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운 영

- (가) 지역 교육청은 각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학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법에 관한 지역별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 (㉔) 각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 (㉕) 특수아, 귀국자 및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 (㉖) 학교 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학생의 배정, 교원의 원활한 교류, 학교 간 시설과 설비의 공동 활용, 자료의 공동 개발 활용에 관하여 학교 간 및 인접 교육청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한다.
- (㉗)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을 위한 연구·시범 학교를 운영, 지원하고, 수업 연구 교사 및 교과별 연구회 활동을 지원한다.
- (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실천 과정을 확인, 평가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다. 학 교

(1) 편 성

〈공통 지침〉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학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①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 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②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 한다.
 - ③ 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에 배당된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 하여 이수하도록 할 수 있다.
- (나) 교육과정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원, 교육과정(교과 교육)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 위원회는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담당한다.
- (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학급,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
- (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조직, 학생의 실태, 학부모의 요구,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시설·설비 등 교육 여건과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㉕) 수준별 수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운영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①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

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 ② 수준별 수업 운영을 위한 학습 집단은 학교의 여건이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할 수 있다.

(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 이외의 과목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학급별 지침〉

(가) 초등학교

- ① 초등학교의 교과 중에서 주당 평균 3시간 이상의 수업 시간 수가 배당된 교과는 주당 평균 1시간 이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감축된 교과의 학습 활동과 관련되는 체험 활동 등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 ②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③ 복식 학급을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육 내용의 학년별 순서를 조정하거나 공통 주제를 중심으로 교재를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초등학교 재량 활동에서는 주제 탐구,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통합적인 법교과 학습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교사,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⑤ 초등학교에서는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정확한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한다.

(나) 중 학교

- ①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② 중학교 재량 활동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 ㉠ 학교는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를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기초로 융통성 있게 배정한다.
 - ㉡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학교는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한다.

(다) 고등학교

- ① 일반계 고등학교는 10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과를 편성한다.
- ②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③ <삭제>(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④ 일반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한 엄격한 과정을 따로 두지 아니하며, 개별 학생은 자신이 선택하여 이수한 과목들을 모아 자신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제5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학교는 학생의 진로 선택을 돕고, 계열성 있는 선택 과목의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 ⑤ 창의적 재량 활동을 포함한 고등학교의 재량 활동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히, 시·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 ⑦ 학기당 이수 과목 수는 시·도 교육감이 정한 범위 이내로 편성하되, 가능한 10과목 이내로 하도록 한다.
- ⑧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⑨ <삭제>
- ⑩ 학교장은 자신의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도 인정하도록 한다. 특정 과목의 경우, 공공성 있는 지역 사회의 학습장에서의 학습이 해당 학교에서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⑪ 실업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학과별 필수 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정할 수 있으며, 선택 과목은 학교장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한다.
- ⑫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현장 실습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이 정한 지침에 따른다.
- ⑬ 외국어 계열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의 전공 외국어와 전공 외국어 이외의 2개 외국어를 포함하여 전문 교과를 편성해야 한다(2004. 11. 26,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85호).
- ⑭ 이 교육과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열의 교육과정은 유사 계열의 교육과정에 준한다. 부득이 새로운 계열의 설치 및 그에 따른 교육과정을 편성할 경우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새로

운 과목을 설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운 영

- (가)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편성, 운영한다.
- (나)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인성 교육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다) 단위 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운영할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① 교과용 도서 이외의 수준별 교수·학습자료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수준별 수업을 적용할 경우,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특별 보충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특별 보충 수업의 편성·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라)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① 각 교과목의 기초적, 기본적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계획하고, 이를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지도한다.
 - ② 각 교과목별 학습 목표를 모든 학생이 성취하도록 지도하고, 능력에 알맞은 성취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학습의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며, 이를 위한 계획적인 배려와 지도를 하여 학습 결손이 누적되거나 학습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교과 수업은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특히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지도록 하는 데 힘쓴다.
 - ④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중시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한다.
 - ⑤ 각 교과 활동에서는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표·토의 활동과 실험, 관찰, 조사, 실측,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직접 체험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의한다.
 - ⑥ 교과와 특별 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학습의 순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예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지역의 특수성, 계절 및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요구, 교사의 필요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별 목표에 대한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⑦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⑧ 실험·실습이나 실기 지도에 있어서는 실습 시설 및 기계·기구 사용시 안전에 특히 유의하도록 한다.
- ⑨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하여 남녀의 역할에 관한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지도한다.
- (바) 특별 활동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 학교별로 특색 있는 중점 영역을 설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가꾸어 나가도록 한다.
 - ①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고, 학생의 개성, 취미, 흥미, 특기 등이 충분히 신장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② 공동체 의식과 민주 시민의 자질이 형성될 수 있는 자율적인 집단 활동이 되도록 한다.
 - ③ 지역 및 학교 실정과 활동 내용의 특성에 따라 집중 연속적인 이수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 ④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의 기회를 마련한다.
- (삐)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과용 도서 이외에 교육 방송, 시청각 기교재, 각종 학습 자료 등을 활용한다.
- (사) 교과용 도서 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등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 (아)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 (자)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기 교육 지침에 따른다.
- (차)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카) 심신 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 학급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정도와 능력을 고려하여 이 교육과정을 조정, 운영하거나, 특수학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타)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바탕으로 방과 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따) 학교는 동 학년 모임, 교과별 모임, 현장 연구, 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하)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적합성, 타당성, 효과성을 자체 평가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추출하고, 다음 학년도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그 결과를 반영한다.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 가. 이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하여 국가 수준에서는 주기적으로 학생 학력 평가, 학교와 교육 기관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한다.
 - (1)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교과별, 학년별 학생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는 교육과정의 적절성 확보와 그 개선에 활용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교육청의 교육과정 지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와 관련 교육청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3)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지원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첫 해부터 다양한 절차를 거쳐 해당 학교, 학년, 학생에게 적절한지를 조사하여 평가하되,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교육과정의 편제, 시간(단위) 배당, 편성·운영 지침의 적절성과 그 적용 효과에 중점을 둔다.
- 나. 국가 수준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한 평가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학교 현장에 제공해 주어야 한다.
 - (1) 교과별로 ‘절대 평가 기준’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가 교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부합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 (2) 국가 수준의 평가 문항 은행을 구축하여 에듀넷 등 통신망을 통해 학교가 평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3) 교과별 평가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방법, 절차, 도구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한다.
- 다. 시·도 교육청에서는 관내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질 관리 및 지역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체제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업 성취도 평가,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라.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가 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1)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
 - (2)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3) 교과의 평가는 선다형 일변도의 지필 검사를 지양하고, 서술형 주관식 평가와 표현 및 태도의

관찰 평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실험·실습의 평가는 교과목의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 (5)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시되는 교과목의 평가는 타당한 평정 기준과 척도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 (6) 학교와 교사는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유의한다.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7) 초등학교의 교과 활동 평가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특징, 진보의 정도 등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서술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8)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4.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 가.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편성한다.
- 나. 교육인적자원부 직할 학교의 교육과정은 해당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학교장이 편성한다.
- 다. 공민학교, 고등 공민학교, 고등 기술 학교(3년제 과정),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 및 산업체 부설 학교, 기타 특수한 학교는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특성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 라. 야간 수업을 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은 이 교육과정을 따르되, 다만 단위 수업 시간을 40분으로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마. 방송 통신 고등학교는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따르되, 시·도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은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준하되, 170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한다.
 - (2) 교육은 방송 통신에 의한 수업, 출석 수업 및 침식 지도의 방법에 의한 수업으로 한다.
 - (3) 학교 출석 수업 일수는 연간 20일 이상으로 한다.
- 바. 특성화 학교, 자율 학교 등 법령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부여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따른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다.

- (1) 국민 공통 기본 교과에 배당된 총 이수 시간의 범위 내에서 교과별 수업 시간수를 증감하여 학교 재량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단,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연간 68시간 미만으로는 감축 운영할 수 없다.
 - (2) 고등학교의 경우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외의 선택 과목은 단위 학교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특성화 학교의 경우 보통 교과 및 전문 교과의 총 이수 단위 수를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
- 사.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교육과정의 기준과는 다르게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부록 IV]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위탁 연구 과제 및 발간 도서

- 허경철 외,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박순경 외, 교육과정 개정 관련 국가·사회적 요구조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김정호 외, 교과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 구축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이인제 외, 국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차우규 외, 도덕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류재택 외, 사회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최승현 외, 수학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이양락 외, 과학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이춘식 외,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유정애 외, 체육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성경희 외, 음악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박소영 외, 미술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이의갑 외, 영어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김영옥 외, 제6차 유치원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전남대학교, 2004.
- 박순경 외,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수학·영어교과 수준별 별도 학급 편성·운영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조난심 외, 인성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4.
- 박순경 외, 주 5일 수업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박순경 외, 재량 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광우 외, 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허경철 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오은순 외, 초등학교 통합 교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인제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조난심 외,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김정호 외,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신성균 외,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범홍 외,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김경훈 외,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유정애 외,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성경희 외,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양윤정 외,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의갑 외,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박선화 외, 수준별 수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김주훈 외, 교육과정 개편에 대비한 환경교육 강화 방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병환 외, 대안학교 교육과정 평가 및 질 관리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2005.
- 이석진 외, 특수학교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국립특수교육원, 2005.
- 이근남 외, 기타계 전문교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 이용순 외, 실업계 전문교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 박순경 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2006.
- 이광우 외, 재량·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김진숙 외, 유치원 총론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곽영순 외,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김경훈 외, 중·고 컴퓨터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2006.
- 김선태 외,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전기·건설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김수원 외, 고등학교 상업계열 전문교과(경영·정보)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김영춘 외,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선택과목(서양어권)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강창동 외, 중·고등학교 환경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문영진 외, 중·고등학교 한문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김종우 외, 고등학교 농업계열 전문교과(응용산업)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김진구 외,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김현수 외, 고등학교 수산·해운계열 전문교과(응용산업)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원, 2006.
- 김현진 외, 특수학교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김용욱 외,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김은숙 외, 특수학교 직업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노선옥 외, 특수학교 치료교육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민용성 외, 유치원 영역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박성우 외, 특수학교 시각장애 이료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옥준필 외, 고등학교 농업계열 전문교과(기초산업)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박종성 외,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항공·인쇄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변숙영 외, 고등학교 가사·실업계열 전문교과(보건·복지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유정애 외, 고등학교 체육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박소영 외,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손민정 외, 고등학교 외국어계열 전문교과(동양어권)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 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재기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조난심 외,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박진동 외,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박선화 외,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곽영순 외,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수정 외,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유정애 외, 체육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성경희 외, 음악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양윤정 외, 미술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임찬빈 외,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오은순 외, 초등학교 통합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송현정 외, 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윤현진 외, 도덕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오정준 외, 사회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진재관 외, 역사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최승현 외, 수학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미경 외, 과학과 선택과목(물리·지학)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2006.
- 홍미영 외, 과학과 선택과목(화학·생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 개정 연구위원회, 2006.
- 이수정 외, 기술·가정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유정애 외, 체육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양종모 외, 음악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양윤정 외, 미술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의갑 외, 영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김영춘 외,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용백 외,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정영근 외, 고등학교 교양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옥준필 외, 고등학교 농생명산업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이병욱 외,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기계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이용순 외, 고등학교 공업계열 전문교과(공통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이남철 외, 고등학교 상업계열 전문교과(회계·물류)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최동선 외, 고등학교 수산·해운계열 전문교과(기초산업)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장명희 외, 고등학교 가사·실업계열 전문교과(가정 영역)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이창훈 외, 고등학교 과학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2006.
- 유정애 외, 고등학교 체육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2006.
- 박소영 외, 고등학교 예술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2006.
- 이근님 외, 고등학교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영어과, 독일어과, 프랑스어과, 스페인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손민정 외, 고등학교 외국어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중국어과, 일본어과, 러시아어과, 아랍어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2006.
- 이명준 외, 고등학교 국제계열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과정개정 연구위원회, 2006.
- 정희섭 외, 특수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정(시안) 연구 개발, 국립특수교육원, 2006.
- 이용순 외, 고등기술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 초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3, 중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4, 고등학교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8, 수학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9, 과학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0,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1, 체육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2, 음악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4, 외국어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5,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우리들은 1학년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6, 중학교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7, 한문, 교양 선택 과목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8, 특별 활동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19, 농생명 산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0, 공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1, 상업 정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2, 수산·해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3, 가사·실업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4, 과학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5, 체육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6, 예술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7,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 28, 국제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 2007. 2. 28.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업무편람(교육과정 자료 223), 2004.
-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도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자료(교육과정 자료 224), 2004.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VIII) - 교육과정 연구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249), 2004.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IX) - 주 5일수업제 연구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250),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사례집(수학편) (교육과정 자료 258),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사례집(영어편) (교육과정 자료 259),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 (초등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260),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I (중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261),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II(고등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262), 2004.
- 교육인적자원부, 영어과 성취수준 판별도구(고등학교 1학년용) (교육과정 자료 263), 2004.
- 교육인적자원부, 2005년도 교육과정연구학교 운영자료 (교육과정 자료 264), 2005.
- 교육인적자원부, 학생선택권 확대를 위한 특색있는 선택 중심교육과정 편성운영 사례 (교육과정 자료 265), 2005.
- 교육인적자원부, 선택 중심교육과정 후속지원 연구사례집 (교육과정 자료 274), 2005.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X) - 교육과정 연구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322), 2005.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XI) - 주 5일 수업제 연구학교편 (교육과정 자료 323), 2005.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영어과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사례집(교육과정 자료 329), 2006.
- 교육인적자원부, 2005 수학과 수준별 이동수업 우수사례집(교육과정 자료 330),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영어과 수준별 교수·학습자료(교육과정 자료 331),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 (초등학교편)(교육과정 자료 332),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I (중학교편)(교육과정 자료 333),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공모 우수 사례집-III(고등학교편)(교육과정 자료 334), 2006.
-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도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자료(교육과정 자료 335),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교육과정 자료 354),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 해설서(교육과정 자료 355),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수준별 수업 이렇게 해봅시다(교육과정 자료 356),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례집(교육과정 자료 377) 2006.
- 교육인적자원부, 시도교육과정 핵심요원 연수 (교육과정 자료 378) 2006.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XII) (교육과정 자료 388) 2006.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사례집(XIII) (교육과정 자료 389) 2006.
- 교육과학기술부, 2007개정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총론, 재량 활동) 2007.
- 교육과학기술부, 2007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2007.

재량 활동

김진규 (교육과학기술부)
이광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용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경전 (서울특별시교육청)
황익중 (경기도외국어교육원)
이규은 (동서울대학)
곽상훈 (경기분당중앙고등학교)
노기홍 (서울중화고등학교)

-
- I. 재량 활동 개정의 배경
 - II. 재량 활동의 의의와 내용
 - III.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 IV.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안 예시
 - V. 재량 활동의 평가

I. 재량 활동 개정의 배경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은 2007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친 제·개정을 통해 시대적·사회적 변화와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고, 교육과정의 적합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맥락에서 1992년에 고시된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종래의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결정 구조에 지방 분권적 개념을 도입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학교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 사항으로 제시했던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등은 지역 및 단위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표방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일환으로 초등학교 3~6학년에 ‘학교 재량 시간’을 신설하여 연간 34시간 이상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장에게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러한 흐름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교육과정의 편제를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3개 영역으로 구성함으로써 재량 활동이 국가 교육과정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도 재량 활동을 신설하여 시행함으로써 지역과 학교 특성에 적합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이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의 창의적인 경영 철학이나 교사의 전문성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재량 활동은 교육과정 편성권을 점차 지역으로 이양해 가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시대적 동향을 반영하면서 발전되어 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적 요구 반영이라는 과제가 점차 강조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응하여 지역의 요구와 특성에 적합한 고등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 및 단위 학교에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권한이 보다 실효성 있게 행사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위 학교가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

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재량권에 의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등학교에서의 재량 활동은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주며, 자신의 적성과 특기, 흥미에 적합한 창의적 교육 활동 및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재량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활동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새로운 사회 환경 변화에 학교 교육도 대응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관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재량 활동의 시수는 종전의 12 단위(204시간)에서 6 단위(102시간)가 감축되어 6 단위(102시간)로 조정되었다. 단위 학교에서 지역 및 학교의 특성과 학생의 요구를 수용하여 학교 나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적 운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정책적 방향은 지속적으로 견지되고 있지만, 2006년 3월부터 주 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하게 됨에 따라 수업 시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 활동은 학생들에게 보다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및 가정, 지역 사회가 교육의 공동 주체가 되어 전인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고등학교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고등학교 재량 활동 시수가 6 단위(주당 3시간)로 배정되었지만 제한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교육적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 개정 고등학교 재량 활동에서는 교과 재량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배당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할 것인가는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였다. 즉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6 단위의 재량 활동 시간 중에서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에 대한 시간 배정은 국가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재량 활동 시수가 종전의 12 단위(국민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4~6 단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4~6 단위, 창의적 재량 활동 2 단위)에서 6단위로 감축되고,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분된 시간 배당 체제가 통합적 체제로 변화되어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영역별 시간 배당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 점이다. 이것은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라는 개정의 기본 방향을 반영한 변화(교육인적자원부, 2007: 2)로 해석할 수 있다.

II. 재량 활동의 의의와 내용

1. 재량 활동의 의의

재량 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에 이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재량 활동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정책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교육과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총 이수 시간 수만을 제시함으로써,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재량 활동의 의의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 활동은 교과 및 특별 활동을 보충·심화함과 동시에, 교과이나 특별 활동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범교과 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과 재량 활동에서는 2, 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개설된 선택 과목을 고등학교 1학년 재량 활동 시간을 통해 학습할 수 있으며, 1학년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할 수도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은 재량 활동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범교과 학습(cross-curricular themes)은 제7차 교육과정에서 16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제시된 것에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35개로 확대·재편되었다.

둘째, 지역 사회 및 단위 학교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한 교육과정 영역이다. 지역과 학교, 교사, 학생의 특성과 여건, 필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학교장과 교사가 교육 공동체의 신념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운영함으로써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한다.

셋째, 교육 내용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개개인의 적성, 능력의 수준, 장래 진로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므로 그러한 개인차를 고려하여 기본 교과에 관련된 통합 학습이나 심화 학습, 보충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 진로 등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교과를 선택하거나 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요구와 흥미를 수용한다. 고등학생들은 창의적인 능력을 함양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열어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학생 개인의 요구와 관심, 흥미를 교육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다섯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을 발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재량 활동은 학습자와 지역 사회의 요구,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영역이다. 교사는 심화·보충학습이나 범교과 학습 내용을 주제로 선정하여 창의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재량 활동은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주고 학교 및 지역 사회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학교 나름의 특색 있는 활동 내용을 선정하여 지도함으로써 단위 학교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2. 재량 활동의 내용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의 2개 하위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 학습내용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을 통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102시간(6 단위)이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변화된 고등학교 재량 활동 영역을 제시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고등학교 재량 활동 영역

영역	
교과 재량 활동	① 선택 과목 학습 영역
	②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영역
창의적 재량 활동	③ 범교과 학습 영역

<표 II-1>에 제시된 3가지 하위 영역별로 다를 수 있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선택 과목 학습으로는 2, 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개설된 선택 과목을 편성·운영한다.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으로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의 10개 기본 교과에 필요한 심화·보충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범교과 학습을 위해 민주 시민 교육을 포함하여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35가지 교과 학습 주제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범교과 학습의 주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이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으로는 주제 탐구 활동이나 소집단 공동 연구 활동,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학습, 자연 체험 활동과 같이 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은 학생의 관심과 지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1.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지침

1. 기본 지침

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 (1)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배당된 각 학년별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수업 시간 수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연간 기준 수업 시간 수이다.
- (3)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 (4) 고등학교 1학년의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학습 또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으로 운영한다. 다만,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는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2. 지역 및 학교에서의 편성·운영

가. 시·도 교육청

(1) 편 성

- (가) 시·도 교육청은 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각급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내의 지역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제시한다.
 - 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시간 확보와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중점에 관한 사항
 - ③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
 - ④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운 영

- (나) 교원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 대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에 대한 연수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다) 중학교 선택 과목,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 (매)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운영을 위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 시설, 설비, 자료 등의 정비 확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한다.
- (파)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목표-내용-방법-평가'의 일관성 있는 실천 과정을 확인하고, 실증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교육의 질 관리에 활용한다.

다. 학교

(1) 편 성

<공통 지침>

- (가) 학교는 이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지역 교육청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장항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① 교과와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최소한의 시간이므로, 이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편성한다.
 - ②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시간 수를 계절,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월별, 주별로 적절히 배정하여 편성한다.
 - ③ 주간 및 1일의 시간 배정은 요일 및 교과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며, 교과의 특성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는 시간을 통합하여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나) 수준별 수업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편성·운영한다(2006. 8. 29,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
 - ① 수준별 수업을 적용하는 교과는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경우,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 등 별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학교 급별 지침>

(다) 고등학교

- ⑤ 창의적 재량 활동을 포함한 고등학교의 재량 활동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 등을 고려하여 11, 12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⑥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편성한다. 특히, 시·도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의 편제에 있는 특정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하여야 한다.

(2) 운 영

- (라) 학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한다.
 - ⑦ 교과와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한다.

- (예)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효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관련되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쓴다.
- (자) 학교에서는 독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국어과를 비롯한 각 교과 교육과 재량 활동 및 특별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 (8)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2.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가.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방향

재량 활동은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의 요구가 반영되고 교과 활동 내용과 특별 활동 내용을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연계되는 체제 속에서 학습자 개개인의 잠재 가능성과 개성을 살리고 자아실현을 돕는 방향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한다(교육부, 1999b: 120-12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단위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운영의 다양성이 가장 크게 기대되는 영역이 재량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에서 제시하던 재량 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당 기준이 폐지되고 그 취지에 부합하게 작성된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영역별 배당 시간을 학교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재량권이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재량 활동은 각 학교별 편성·운영 방향에 따라 더욱 다양화되고 차별화될 것이므로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운영되며,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고,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교과 재량 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과 11, 12학년에서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선택 과목은 가급적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은 기본 교과에 대한 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교과 재량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길러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한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으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35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학습 주제는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더 나아가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운영할 것이 요청된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자율적 편성·운영과 관련하여 단위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 학교, 학생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보다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함으로써 폭넓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실제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시기와 집단 편성 방법을 정할 때에도 학생의 요구와 학교 실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교육과정 구성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인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교육부, 1999a: 78)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그동안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온 현장의 자율성을 발휘하여 다양한 교육 내용과 방법으로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핵심은 학생의 능력·적성·진로에 대한 적극적 고려, 다양한 교육 내용 및 방법 선정, 학교 현장의 자율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재량 활동의 장점과 기본 정신을 더욱 계승하고 확대하는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단위 학교에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하고자 할 때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재량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이다.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 장소, 인적·물적 자원의 운용뿐 아니라, 학교 전체 교육 활동과의 조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성, 그리고 교육과정 하위 영역들 간의 상호 관계 등을 적절하게 선정·조합하여야 한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시에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9b: 120-122).

첫째, 재량 활동은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교가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또 학교의 여건과 지역 사회의 실정을 최대한 수용하고 그 지역의 특수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때 단위 학교 재량 활동의 분권화와 지역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종래의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 형태를 벗어나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교과서 중심의 교육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가 만드는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사고력 신장, 발표력 신장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제 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 학습, 실험, 관찰, 조사, 수집, 조작, 토론, 견학, 답사, 자유 탐구 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강사 초청 및 교육 방송, 시청각 기·교재, 교육 정보망,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 등 다양한 학습 매체와 방법을 활용한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재량 활동은 초·중·고등학교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학습한 범교과 학습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은 무엇이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학습 경험을 어떻게 심화·확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하여 연계성 있는 재량 활동을 편성하여야 한다. 선택 과목 학습의 경우 이미 중학교에서 선택하였던 과목을 조사하고 과목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함으로써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넷째, 학교 전체 교육 활동과의 조화와 통합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세 가지 영역이 실제에서는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이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승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들을 통합적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 한 교과에서 다루기 어렵고 범교과 교육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폭넓은 지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재량 활동은 내용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지식 정보화 시대의 폭발적인 지식 정보와 사회적 요구를 기존의 교과에 모두 담을 수 없으므로, 재량 활동에서 범교과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학습 주제는 민주 시민 교육 등 총 35개 항목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여섯째, 학생의 흥미와 관심, 적성에 따라 학습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교육

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일곱째, 학교의 여건과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운영의 융통성과 다양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집단 구성에 있어서 학년, 학급, 학생 개인 등으로 다양화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별적인 학습 활동과 더불어 소집단 공동 학습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가지게 할 수 있다. 또 재량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정일제, 집중제 등과 같은 다양한 시간 운영 방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은 지역, 학생, 학부모의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고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되,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 재량 활동은 학생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요소 및 관련 변인

단위 학교에서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는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때 고려되어야 할 기본 요소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요소

편성·운영의 기본 요소	세부 내용
시간 운영	◦ 기간(월간, 학기 간, 연간), 시간, 시간 분량, 연속성
장소 활용	◦ 교실 활용, 학교 시설 활용, 지역 사회 시설 활용
교사 조직	◦ 단위 학교 교사(지도 교사 배정, 교과목 배정) ◦ 외부 강사 활용
주제 설정	◦ 지역 사회·학교 특성 및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적인 내용 ◦ 교사의 의지에 따른 교육적인 내용 ◦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
방법 선정	◦ 지도 교사 주도 ◦ 자기 주도 학습 또는 모둠별 탐구 학습 ◦ 현장 체험 학습
집단 편성	◦ 학급(개인별, 소집단별, 학급 전체), 학년 단위(동일, 혼합) ◦ 능력·희망별 활동, 주제별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요소	세부 내용
교재 선정	◦ 자체 구성(학교, 지도 교사), 인정 도서, 학년 공통 및 학급별 프로그램 마련
교과, 특별 활동과의 연계	◦ 교과와의 상호 보완 ◦ 특별 활동과의 상호 보완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시간, 장소, 교사, 주제, 집단, 교재, 교육과정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시간 운영은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계절, 시간의 분량(단위, 블록 타임제 등),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연간 수업 시간 수를 학교 실정, 학생 실태, 교육 여건 등에 알맞게 적절히 배정하여야 한다.

장소 활용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이 다르고 시간 운영 형태가 상이하므로 수업 내용과 방법, 수업 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실, 교실 이외의 특별실, 지역 사회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재량 활동 운영을 위한 지도 교사는 담당 교사 또는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한 교사, 교과목의 특성과 주제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능력을 지닌 교사 등을 학교의 여건에 따라 배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활동 주제에 따라서는 단위 학교 자체의 인적 자원이 아닌 지역 사회의 외부 강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활동 주제는 교육과정의 지침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학교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하되 학교의 교육 목표,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수업 방법은 활동 주제 및 내용에 따라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교사 주도 학습, 자기 주도 학습, 모둠별 탐구 학습, 현장 체험 학습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수업 집단은 학급 단위, 학년 단위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학급 단위는 학급 내 개인별 능력과 흥미를 고려한 소집단별 구성을 의미한다. 학년 단위는 동일 주제로 고등학교 1학년 전체가 활동하는 교육 형태와 주제별 학급을 혼합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이다.

재량 활동 교재는 활동 집단과 활동의 주제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안하여 활용할 수 있다. 학교 혹은 지도 교사 별 자체 구성, 인정 도서 등의 형태로 선정될 것이므로 단위 학교에서는 교재 선정 역시 재량 활동의 중요한 기본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재량 활동은 학생, 교사,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시간 운영의 형태, 장소 활용의 방법, 교사 조직의 방식, 주제 설정, 방법 선정, 집단 및 교재 선정, 교과와 특별 활동의 연계성을 고려한다면, 그 편성·운영 방식이 학교별로 다양할 수 있다. 단위 학교의 재량 활동은 학교의 계열 특성에 따라 다르고, 하위 영역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각기 다르게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재량 활동은 원칙적으로 교육과정의 지침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형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론적으로는 모든 학교의 재량 활동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표 Ⅲ-1>에서 제시한 것처럼 재량 활동 편성·운영시에 기본 요소 간의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므로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편성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한점, 또는 보다 바람직한 편성 형태의 제시 등으로 편성의 기본적인 모형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하위 영역인 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의 시간은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하는 것으로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로 보장된 만큼 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운영의 편리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특정 하위 영역이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재량 활동 하위 영역 및 시수 운영 관련 지침에 의하면, 재량 활동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영역이다. 학교, 지역 사회의 실정과 학생·학부모·교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특성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교육과정 편성은 중앙 정부 주도의 획일성을 피하고, 지역 사회, 학교, 교사, 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선택의 폭이 넓은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이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교과나 프로그램의 선택, 재량 활동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간 배정과 운영, 활동 집단의 크기, 활동 방법의 선택 등이 다양한 만큼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이면서도 지역 사회나 학교의 실정에 적합하게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집단 편성, 학습 시기, 학습 장소, 사용 교재, 그리고 지도 교사의 다양성 등을 기본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을 융통성 있게 선택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때, 재량 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재량 활동 관련 변인을 제시하면 <표 Ⅲ-2>과 같다. 재량 활동 관련 변인은 <표 Ⅲ-1>에서 예시된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요소를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단위 학교에서 고려해야 하는 하위 변인을 의미한다. 재량 활동 편성·운

영에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가 고려해야 하는 세부 요소로 하위 변인이 고려될 때 재량 활동의 합리적 편성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표 Ⅲ-2〉 재량 활동 관련 변인

변인		하위 변인
상황 변인	여건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실정과 여건
	요구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요구
내용 변인	재량 활동	선택 과목 학습, 심화·보충 학습, 창의적 재량(범교과 학습,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 변인	시간 배당	균등 배당, 비균등 배당
	학습 방법	토의, 주제 탐구, 현장 학습, 체험 학습, 신문 학습, 노작 학습 등
	집단 편성	개인, 소집단, 학급, 학년
	시간 운영	정일, 전일, 격주, 주말, 월 집중, 계절 집중, 방학
	장소 설정	교내, 교외
	사용 교재	학교 자체 제작, 교육과학기술부·교육청 주관 개발 자료, 기존의 교육 프로그램, 기타(교육 방송 프로그램, 각종 기관 발행 자료 등)
	지도 교사	담당 교사(교과 교사, 담임 교사 등), 외부 강사(학부모, 지역 인사 등 명예 교사, 특기 적성 자격증 소지자 등)
	학생 선택권	완전 선택(비 필수), 부분 선택, 비 선택(필수) 등

재량 활동 관련 변인으로는 상황 변인, 내용 변인, 방법 변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상황 변인은 재량 활동이 편성·운영되는 상황에 관련된 요소로서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여건과 교원, 학생, 학부모 등의 요구를 의미한다. 즉 재량 활동 편성은 지역 사회와 학교의 여건, 교원, 학생, 학부모 특성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에 지역 사회, 학교, 교원, 학생, 학부모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내용 변인은 재량 활동의 내용으로서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구체적으로 하위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주제이다.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할 때 선택 과목 학습,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의 심화·보충 학습에 배정해야 하는 단위 수와 교과 운영 형태,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 편성되는 시간과 주제 및 운영 형태가 변인으로 작용한다. 내용 변인은 상황 변인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교육과정의 분권화, 자율화, 지역화를 실현할 수 있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결정하는 변인이 될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는 내

용 변인을 고려할 때 상위 지침인 시·도 교육청의 지침과 단위 학교의 교과, 특별 활동을 분석하여야 할 것이며,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과 고등학교의 특수성만을 고려한 나머지 편리성을 우선으로 하여 어느 하위 영역을 소홀히 하거나 실제적인 운영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방법 변인은 편성된 내용 변인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물론 방법 변인인 시간 배당, 학습 방법, 집단 편성, 시간 운영, 장소 선정, 사용 교재, 지도 교사, 학생 선택권 등은 상황 변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운영 시간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변인은 시간 배당, 시간 운영이다. 시간 배당의 하위 변인은 균등 배당과 비균등 배당 형태이다. 균등 배당은 각 영역의 시간을 균등하게 배정하는 것이며 비균등 배당은 영역별 배당 시간이 다른 운영 형태이다. 균등 배당은 학생들이 각 영역을 고르게 접할 수 있으며 시간 운영에 편리성이 있다. 이에 비해 비균등 배당은 교육 주체들의 요구와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의해 시간 배분에 있어 우선 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균등 배당에 비해 특색 있는 운영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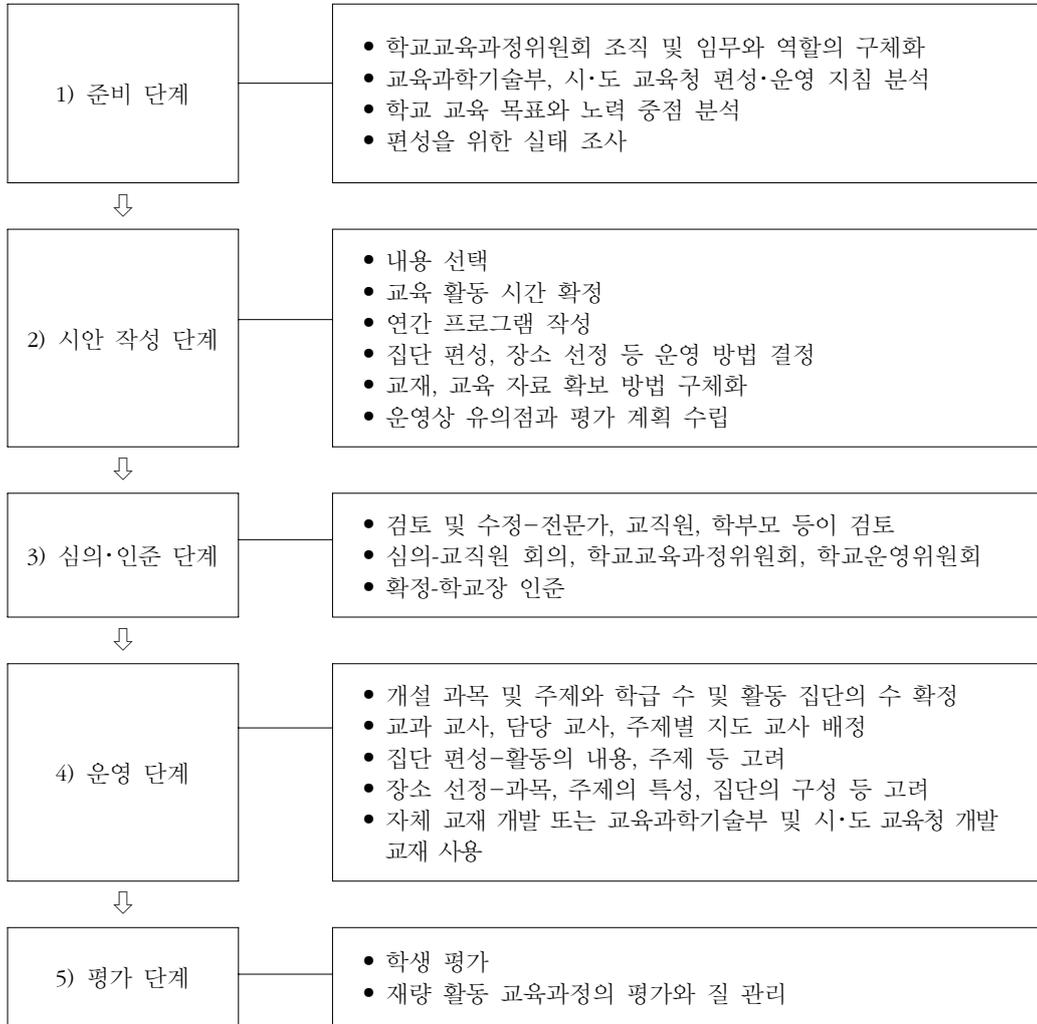
학습 방법 및 집단 편성은 주어진 시간 배당과 시간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모든 변인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지만 학습 방법, 집단 편성, 장소 선정, 사용 교재, 지도 교사 선정은 긴밀한 연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학습 방법은 재량 활동의 취지를 살려 학생 중심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방법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학습 집단 역시 학생 중심으로 학생들의 능력, 수준, 흥미 및 적성을 고려하여 개인별, 소집단별, 학급별, 학년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장소 선정은 교내와 교외로 구분하여 학습 주제와 학습 방법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교내의 경우 교실과 특별실로 세분화하여 선정하고, 특히 특별실 수업의 경우 학생들에게 주의 사항 및 사용 안내에 대한 사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외의 경우 지도 교사의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 사회의 협조와 학교장의 허가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며, 학생들에게 무의미한 학습 시간이 되지 않도록 교사의 사전 학습 안내와 답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밖에 재량 활동의 주제 및 내용에 따라 사용할 교재를 개발하거나 선정하는 문제, 해당 주제 및 내용을 다루게 될 지도 교사를 선정하는 방안, 학생의 선택권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다.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기본 절차

고등학교 현장에서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양할 것이다. 단위 학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편성 절차를 예시하면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재량 활동의 일반적 편성 절차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은 준비, 시안 작성, 심의·인준, 운영, 평가 등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110-114).

1)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5), p.110의 <그림1>을 재구성한 것임.

1) 준비 단계

재량 활동 편성의 준비 단계에서는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조직, 상위 지침 분석, 단위 학교의 교육 목표와 노력 중점 분석, 학교 실태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준비 단계는 단위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기초 단계로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학교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인원 조직

창의적이고 내실 있는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교원, 학부모, 지역 사회 인사 등이 포함되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내부에는 재량 활동 분과를 위한 실무진이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역과 학교의 특성, 교육의 실태,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의 교육과정 운영 및 의사 결정에 자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실무진이 구성되면 임무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때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재량 활동 분과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 운영 방안 및 형태,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 계획, 재량 활동의 평가 방법과 이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객관성 유지 방안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다.

나) 상위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의 분석

상위 지침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 기준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시·도 교육청의 교육 지표, 교육 중점 과제, 학교의 교육 목표 등을 분석하여 재량 활동의 교육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편성을 위한 실태 조사

재량 활동 편성을 위한 학교교육과정위원회 조직, 상위 교육과정과 교육 목표의 분석이 완료되었다면, 지역 사회와 단위 학교의 여건 분석을 위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체적인 실태 조사 항목으로는 지역 사회와 학교의 물리적·인적 여건, 전년도 교육과정, 문헌 연구 등이 실시되어야 하며,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 사회의 요구를 분석하고 지역 사회의 인적 자원(외부 강사 등)과 물적 자원(장소, 시설 등)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또, 학교의 물리적·인적 여건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며, 교사의 수급 현황, 교실 상황, 교사의 전문적 지도 가능 분야, 학습 자료의 구비 실태 등과 특히 학교의 특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년도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재량 활동과 성격이 비슷한 학교의 특색 사업, 방과 후 교육 활동, 연구 학교 자료, 연구 기관의 보고서 등을 분석하면 교육과정 각 영역과 연계된 단위 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이 가능할 것이다.

2) 시안 작성 단계

시안 작성 단계는 재량 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당, 영역별 내용 및 개설 과목, 운영 시간과 운영 방법, 연간 지도 계획, 교수·학습 방법, 교재 및 교육 자료, 평가 방법 등에 대한 시안 작성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가) 교과 재량 활동 시안 작성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초 조사 및 실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영역별 하위 영역 시간을 배정하고 개설 가능 과목을 조사하며, 학생의 선택 범위를 결정하여 교과 재량 활동의 운영 계획 시안이 작성되는 단계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3〉 교과 재량 활동 시안의 내용 요소

내 용	운 영
영역별 하위 영역 시간 배정	기초 조사 및 실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재량 활동 시수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과 선택 과목 학습에 어떻게 배당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위 영역별 개설 가능 과목 조사	각종 요구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원하는 학습 내용, 교사 수급 상황, 확보한 교사(강사)의 지도 가능 분야, 교실(시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 가능한 '선택 과목'과 '심화·보충 교과'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 선택 범위 결정	개설 가능한 과목 중에서 학교에서 필수로 지정할 과목이나 학생의 흥미, 관심 및 수준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할 과목을 분류하여 시안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설 과목의 확정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조사하여 선택 과목 및 심화·보충 교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시간 운영 방법의 결정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한다.

나) 창의적 재량 활동 시안 작성

준비 단계에서 이루어진 기초 조사 및 실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별 시간을 배정하고 개설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 및 평가 계획에 대한 시안을 작성하는 단계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4〉 창의적 재량 활동 시안의 내용 요소

내 용	운 영
영역별 하위 영역 시간 배정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배분한다.
하위 영역별 개설 가능한 주제 조사	교사 수급 상황, 확보한 교사(강사)의 지도 가능 분야, 교실(시설)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설 가능한 '범교과 학습' 주제와 '자기 주도적 학습' 형태를 조사한다.
학생 선택 범위 결정	학생에게 필수로 지정할 주제와 선택권을 부여할 주제들을 분류한다.
개설 주제의 확정	학생의 희망을 1~2회 정도 조사하여 선택 주제를 확정한다.
시간 운영 방법의 결정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에서 가장 적절한 형태를 선택한다.

3) 심의·인준 단계

심의 및 인준 단계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수립된 재량 활동의 시안을 검토·심의하여 확정하는 단계이다.

〈표 Ⅲ-5〉 재량 활동 시안의 심의·인준 단계

내 용	운 영
검토 및 수정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실무진이 작성한 재량 활동 시안을 교육과정 전문가, 교직원, 학부모가 검토한 후 필요시 그 의견을 반영한다.
심의 및 확정	교직원회의와 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거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최종적으로 학교장의 인준을 받아 확정한다.

4) 운영 단계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 운영 계획이 확정되면 운영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운영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설 과목(주제)과 학급 수, 지도 교사, 학생 활동 집단 편성, 활동 장소 및 교재 등을 확정하여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6〉 재량 활동의 운영

내 용	운 영
개설 과목(주제)과 학급 수(활동 집단의 수)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설 과목(주제)과 학급 수(활동 집단의 수)를 확정할 때는 가급적 선택 과목과 관련하여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수강 신청을 받아 개설 과목(주제)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 수강 신청 결과가 선택 과목 운영에 부적절한 경우, 결과를 공시하고 1~2회 정도 수강 신청을 다시 받아 선택 과목(주제)을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도 교사 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과목(주제) 지도를 위해 담당할 지도 교사를 선정한다. 이때, 교과 교사, 담당 교사, 주제별로 분담한 교사 외에 교과외의 특성, 지도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지역 사회의 외부 강사, 자원 봉사자를 배정할 수 있다. ○ 선정된 지도 교사는 지도 계획(교육 목표, 교육 내용, 평가 계획 등)을 수립한다.
집단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된 과목(주제)을 운영하기에 가장 적절한 활동 집단은 어떻게 편성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하여 집단을 편성한다. 이때 기존 집단을 그대로 이용할 수도 있고 재편성할 수도 있다. ○ 활동의 성격, 학생의 학습 준비도를 고려하여 수준별 편성이 필요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한다. ○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 등을 반영한 협동 학습으로 반을 편성할 수 있다.
장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특성에 따라 장소를 교내로 할 것인지 교외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교외일 경우에는 적절한 장소를 사전에 섭외한다. ○ 지역 사회 외부 프로그램 이용이 적절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교섭한다.
교재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 재량 활동에는 적절한 교재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의 경우에는 학교 실정 및 여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및 교육청, 교육 연구원, 학교 자체 제작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교재를 채택하여 활용한다.

5) 평가 단계

평가 단계에서는 크게 학생 평가와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평가 및 질 관리가 이루어진다. 특히, 학생 평가 방법의 적절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평가와 질 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

가) 학생 평가

재량 활동의 본질적 취지에 맞게 가급적 진도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경험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재량 활동에 관한 편성·운영 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반영한다.

라. 영역별 편성·운영의 방안

2007년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 및 시간 배당에 대한 편성·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단위) 수는 학교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편성한다.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 재량 활동은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의 두 영역이 있고, 창의적 재량 활동도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두 영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수준의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구조는 세분하면 네 영역으로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 활동의 영역별 이수 시간을 어떻게 배당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관점과 그에 따른 지침을 정해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각 영역별 시간(단위) 수는 시·도 교육청의 여건과 필요에 따라 시·도 교육청별 지침에 반영하여 조직할 수 있으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구조는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재량 활동의 영역별 시간은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1) 교과 재량 활동

교과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에 있어 선택 과목 및 심화·보충 학습 과목의 선정 방법, 시간 운영 방법, 교과와의 연계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과 재량 활동이 고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것인 만큼 심화·보충 학습 교과 및 선택 과목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설정하되 특정 교과에 편중되지 않고 복수로 개설되어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간 운영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각 영역을 학교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편성하여야 하며 비슷한 성격의 교과와 연계하여 과목과 학생 수준 등을 고려한 학습 집단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가) 심화·보충 학습 교과 및 선택 과목 설정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시간은 과목 수와 관계없이 배정할 수 있으나 해당 교과 단위 수 증배 형태로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학교의 실정에 따라 일정 단원 학습 후 또는 정기 고사 후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과 재량 활동 이수 시간을 정할 때는 학교마다 교육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 운영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교과 설정은 특정 교과에 편중되지 않고 정규 수업 후 필요한 심화 또는 보충 학습 내용을 선정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과 선택 과목의 선정은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동시에 학생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려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에 따라 몇 개 교과를 학교에서 개설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선택하게 하는 유형 등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선택 과목의 설정은 2과목 이상을 동시에 개설하여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사전에 선택 희망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전문계 및 기타계 고등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은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으므로 계열과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권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이다.

나) 시간 운영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의 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의 이수 시간은 시·도 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다양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간 운영은 정일제로 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 분할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으며, 한 시기에 집중 편성하여 운영할 수도 있다.

다) 교과와의 연계

교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교과를 재량 활동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교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성격의 교과를 선택하여 교과와의 연계성을 강조하는 재량 활동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시·도 교육청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교과를 신설하거나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시간으로 활용한다.

라) 활동 집단 편성

선택 과목 학습에서는 가급적 2개 이상의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선택으로 활동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서는 학기 초에 실시하는 진단 평가와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집단을 편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선택 과목의 수나 심화·보충을 실시하는 기본 교과의 수가 학급의 크기나 편성·운영 형태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교과 재량 활동을 위한 활동 집단 편성은 학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또 학생들의 요구와 희망에 따라 선택하여 학년 내에서도 몇 개의 집단 편성이 가능하다.

2) 창의적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의 운영 목표는 지역 사회의 특성과 학교의 여건,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문화 풍토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함으로써 21세기의 세계화·다양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데 있다(한국교육개발원, 1997). 따라서 창의적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할 때 하위 영역, 영역별 주제 설정, 시간 운영 방법, 활동 집단 편성, 교과 및 특별 활동과의 연계 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위 영역 편성에 있어 창의적 재량 활동은 그 하위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편성·운영할 수도 있다. 영역별 주제 및 활동 집단 편성에서 범교과 학습은 학교의 여건 및 지역 사회의 특수성, 교육의 실태,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영역으로, 학교의 교육 노력 중점이나 특성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기 주도적 학습은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 적성 등에 따라 학생이 스스로 학습 활동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 등을 설정하고, 활동은 개인별 또는 소집단별로 공동 연구를 실시하게 하거나, 집단별로 다른 주제를 선택하여 탐구하게 할 수도 있다. 또 동일 주제를 여러 집단에서 탐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교원의 자율성 증진 및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통해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이 편성·운영되도록 하고, 학교의 특색이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형성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 두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교과 및 특별 활동과 연계하는 방안도 창의적 재량 활동 편성·운영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가) 하위 영역 선택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 선택은 범교과 학습 프로그램과 자기 주도적 학습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 범교과 학습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 중 한 가지에 집중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나) 주제 설정

연간 교육과정 계획 내에서 여러 개의 주제를 다루는 경우도 있고, 한두 개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

다) 시간 운영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는 시간 배정을 매우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계절 집중제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일제는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고, 격주제는 격주로 연속 2시간 실시하거나 시간표를 2주 주기로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전일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하루 종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절 집중제는 동계나 하계 또는 학년 초나 학년 말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라) 활동 집단 편성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학급 단위, 학급 내 소집단 단위, 학년별 단위 등으로 다양한 활동 집단을 편성할 수 있다. 학급 단위는 학급별로 동일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고, 학급 내 소집단 단위는 학급 내에서 여러 주제를 가지고 활동하게 하는 것이다. 또 학년별 단위는 특별 활동의 계발 활동과 같이 전체 학생이 대상이 되어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로 주제를 선택한 학생들로 학습 집단을 재편성하는 경우가 가능할 것이다.

마) 교과, 특별 활동과의 연계

교과 교육과정에서 다루었으나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범교과적 주제를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편성하는 경우 등 교과와 특별 활동을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즉, 범교과 학습 주제는 관련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의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시도할 수도 있다.

3) 특별 활동과의 연계적 운영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증대할 필요가 있다. 두 영역을 상호 구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 두 영역 간에 서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가) 지도 시기의 통합

재량 활동을 특별 활동과 연계하여 시간을 운영하는 방법은 학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고 교사의 지도 가능성을 검토하여 운영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지도 시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지도 시기의 통합은 교육의 효과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통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나) 지도 내용의 통합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35가지 주제를 범교과적 학습 주제로 제시하였다. 특별 활동과의 효율적인 지도 내용 통합이 필요하게 되며, 세밀하게 구안된 지도 내용의 통합은 바로 두 활동의 연계 효과를 높여 줄 것이다. 예를 들어 특별 활동에서의 봉사 활

동 및 행사 활동의 일환으로 재해 대비 교육, 농촌 이해 교육, 예술 교육 등과 같이 현장 실습 교육이 필요한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위 학교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교육하고자 하는 영역을 몇 가지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게 시간을 배분하고, 그 외의 주제들은 특별 활동 중의 행사 활동 등 하위 영역에 통합하여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특별 활동 시간과 범교과 영역의 모든 주제에 대한 지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IV.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방안 예시

1. 교과 재량 활동 편성·운영 유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교과 재량 활동은 중등학교의 선택 과목 학습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에서는 전문 교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다. 연간 총 102시간으로 배정된 재량 활동 시간 중 선택 과목 학습에 배당되는 시간은 이론적으로 17시간, 34시간, 51시간, 68시간, 85시간 또는 102시간의 유형이 가능하나, 102시간을 모두 선택 과목 시간으로 운영하게 되면 재량 활동의 다른 하위 영역인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시간이나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전혀 확보할 수 없어 매우 극단적인 재량 활동의 운영 유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세 영역을 고루 학습할 수 있는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모형이 필요하다. 교과 재량 활동 시간 배정 유형에 대한 예시는 <표 IV-1>²⁾, 학생의 선택 방식을 중심으로 교과 재량 활동의 편성 모형을 예시해 보면 <표 IV-2>³⁾과 같다.

<표 IV-1> 교과 재량 활동 시간 배정 유형(예시)

구분 하위 영역	유형	시간 배정(시간)						비고	
		선택 과목 집중		심화·보충 집중		선택 과목 중심	심화·보충 중심		선택+심화·보충 균등
선택 과목 학습		85	68	0	0	51	17	34	· 교과외 단위 수 고려 · 예시 이외에 다양한 시간 배정의 유형 가능
심화·보충 학습		0	0	85	68	17	51	34	
창의적 재량 활동		17	34	17	34	34	34	34	

2)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5), p.119의 <표4>를 고등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단, 배당 시간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음.

3)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5), p.120의 <표5>를 고등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재량 활동의 영역별 시간 배정 방법에 따라 선택 과목 집중, 심화·보충 집중, 선택 과목 중심, 심화·보충 중심, 선택 심화·보충 균등 등 5개의 유형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시·도 교육청의 지침 및 학교 여건 등에 따라 더 많은 운영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선택 과목 집중형은 교과 재량 활동 영역 중 심화·보충 학습에는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선택 과목 학습에만 시간을 모두 배정하여 선택 과목 학습과 창의적 재량 활동을 편성하는 유형이다. 이에 비해 심화·보충 집중형은 교과 재량 활동 영역 중 선택 과목 학습에는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심화·보충 학습 영역과 창의적 재량 활동을 편성하는 유형이다. 이 두 유형은 교과 재량 활동의 어느 한 영역만을 집중하여 실시하는 장점이 있다. 선택 과목 중심형과 심화·보충 중심형은 교과 재량 활동 영역 중 각각 선택 과목 학습과 심화·보충 학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유형이다. 이 두 유형 중 선택 과목 중심형은 선택 과목 학습과 심화·보충 학습 중 선택 과목의 비중을 크게 한 유형이고, 심화·보충 중심형은 심화·보충 학습에 비중을 크게 하여 편성한 유형이다. 이때, 선택 과목 중심형은 편성 과목의 기준 단위 이수에 미달되지 않도록 2, 3학년 과정과 연계하여 편성해야 한다. 선택+심화·보충 균등형은 교과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인 선택 과목 학습과 심화·보충 학습에 균등하게 시간을 배정하는 유형이다. 학교에 따라 <IV-1>에 제시된 시간 배당 이외에도 학생의 요구나 흥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 배당을 달리하여 다양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

<표 IV-2> 선택 방식에 따른 교과 재량 활동 편성 모형(예시)

선택 방식	과목 개설 내용		비고
	선택 과목 학습	심화·보충 학습	
완전 선택형	모든 교과군의 선택 과목 및 기타 과목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학교 지정 과목 없이 모든 과목 중 선택
부분 선택형			학교 지정 과목+모든 과목 중 선택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학교 지정 과목 없이 일부 과목 중 선택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학교 지정 과목+일부 과목 중 선택
학교 지정형			학교가 편성 과목을 모두 지정함

학생의 선택 방식에 따라 교과 재량 활동은 <표 IV-2>와 같이 완전 선택형, 부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학교 지정형의 5개 편성 모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완전 선택형은 학교 지정 과목 없이 모든 선택 과목과 모든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을 위한 교과 중 선택이 가능한 유형이다. 부분 선택형은 모든 선택 과목과 심화·보충 교

과 10개 중 학교에서 교육적 필요에 의해 교과(과목)를 지정하고 나머지 교과(과목)는 학생들이 선택하는 유형이다. 이에 비해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은 학교에서 지정한 과목은 없으나 제한된 범위의 일부 과목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유형이다.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은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과 달리 학교 지정 과목이 있고 일부 과목 중 학생들이 희망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학교 지정형은 모든 선택 과목을 학교가 지정하여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선택 과목 학습의 편성·운영 유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재량 활동 편성·운영 지침에 의하면, 재량 활동 시간으로 배정된 102시간 중에서 교과 재량 활동에 정확히 몇 시간을 배정하라고 제시하지 않는 대신,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기초로 융통성 있게 시간 배정을 하되, 선택 과목을 개설할 경우 2개 이상의 과목을 동시에 개설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유의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선택 과목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선택 과목 학습 유형을 세분해 보면 <표 IV-2>와 같이 ‘완전 선택형’, ‘부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마지막으로 학생의 선택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 지정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완전 선택형

‘완전 선택형’은 선택 과목으로 가능한 과목을 모두 개설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으로 학교 지정 과목이 없는 가장 학습자 중심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사 수급이나 교실 확보 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가능한 유형이다.

2) 부분 선택형

‘부분 선택형’은 선택 과목으로 가능한 과목을 모두 개설하고, 학교의 교육적 필요에 의해 선택 과목 중 한 과목을 학교에서 지정한 다음,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1과목을 이수하고, 선택 가능한 과목의 수가 많은 상태에서 1과목을 자유 선택할 수 있어서 학생의 선택 범위가 비교적 넓은 편이다. 그러나 교사 수급이나 교실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선택 과목 학습에서 복수의 과목을 편성할 경우 각 과목의 단위 수와 2학년과 3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의 연계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3)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은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비롯한 단위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선택 과목으로 가능한 과목 중에서 일부만 개설하고, 개설된 범위 내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개설한 3개 이상의 선택 과목 중 2과목을 자유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제한된 선택 과목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유형이다.

4)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은 교사 수급 등의 단위 학교의 현실적인 사정에 의하여 선택 과목을 일부만 개설하고, 개설된 범위 내에서 한 과목은 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고 남은 과목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개설한 선택 과목 중 학교 지정 1과목을 이수하고, 1과목을 자유 선택할 수 있다.

5) 학교 지정형

학교 규모 혹은 교사 수급 등 단위 학교의 현실적인 사정에 의하여 선택 과목을 모두 학교에서 지정하여 제시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은 고려하지 않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에서 개설한 지정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나.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의 심화·보충 학습의 편성·운영 유형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재량 활동 편성·운영시 교과 재량 활동 중 선택 과목 학습에 중점을 두고,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확보하다 보면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 심화·보충 학습하기 위한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학교인 경우 교사 수급 형편상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가 어렵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의 심화·보충 학습 시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기를 원하는 경우와 같이 단위 학교의 사정 및 교육적 필요에 의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의 심화·보충 학습 시간을 다양하게 편성·운영하게 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할 것이다.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의 심화·보충 학습을 위한 시간 편성·운영 예시 모형을 선택 과목 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에 따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학생의 선택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완전 선택형

‘완전 선택형’은 심화·보충 학습 시간을 위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모두를 개설하고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으로 학생들은 심화·보충 학습 대상 교과를 10개 교과 모두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학습자 중심의 이상적인 유형이나 현실적으로는 학생의 선택이 특정 교과로 편중되는 현상을 피하기 어렵고 교사 수급 및 교실 여건 등 학교와 지역 사회의 특색을 고려하기가 어려운 유형이다.

2) 부분 선택형

‘부분 선택형’은 심화·보충 학습 시간을 위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교과 중 1개 교과를 지정하고 학교에서 지정한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유형이다. 학생은 심화·보충 대상 교과 중 1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다.

3)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은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 및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필요로 인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중 일부를 개설하고, 그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가 개설한 심화·보충 학습 대상 교과 중에서 희망에 의해 선택할 수 있다.

4)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은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 및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필요로 인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중 일부만 개설하고, 그 중 1개 교과는 학교가 지정하고 나머지 범위 내에서 학생이 선택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심화·보충 대상 교과 중 1개 교과를 선택할 수 있다.

5) 학교 지정형

‘학교 지정형’은 교사 수급 등의 현실적인 문제 및 단위 학교의 교육적 필요로 인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 10개 중 일부만 개설하여 이를 심화·보충 교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고려되지 않는 유형이다. 학생은 학교가 지정한 심화·보충 학습 대상 교과만을 이수하게 된다.

2. 창의적 재량 활동 편성·운영 유형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적으로 학습 주제가 다양하고, 연간 배정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학교의 독특한 필요와 학생의 요구 등에 의거하여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되도록 지침에 정해져 있다. 단위 학교의 실정, 학생의 요구, 교육 여건 등에 따라 시간을 배정하고 운영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다양하게 발휘할 수 있는 만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모형은 다양할 것이다. 편의상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별 시간 배정을 중심으로 편성·운영 방식을 제시하면 <표 IV-3>과 같이 하위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분리하여 둘의 비중을 같게 운영하는 ‘균분 배정형’, 범교과 학습에 시간을 좀 더 많이 배정하는 ‘범교과 학습 중심형’,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보다 많이 배정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형’, 둘을 분리하지 않고 주제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통합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표 IV-3>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 배정 유형⁴⁾(예시)

시간 배정 (34시간을 운영하는 경우)						비고
시간배정 하위 영역	균분 배정형	범교과 학습 중심형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형		
범교과 학습	17	24	20	10	14	34 ·예시 이외에 다양한 시간 배정 유형 가능
자기 주도적 학습	17	10	14	24	20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의 실제 운영은 교과 시간이나 특별 활동 시간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운영하는 정일제, 하루 온종일 실시하는 전일제, 2주에 한 번 실시하는 격주제, 학년 초나 학년 말 등 특정 시기에 특정 내용을 집중 실시하는 집중제 등 다양한 유형을 편성·운영할 수 있고, 집단 구성 방법도 학급 내 소집단 구성, 학급 간 통합 등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에 집중 실시하는 정일제의 경우 매주 금요일에 특별 활동 시간과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을 배정하여 편성하면 <표 IV-4>와 같다.

4)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5), p.127의 <표17>을 고등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단, 배당 시간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편성될 수 있음.

〈표 IV-4〉 창의적 재량 활동 시간 편성·운영- 특별 활동 연계형(예시)

배당 시간	요일별 운영					주제 배정	편성 형식	시간 운영	교재	지도 교사
	월	화	수	목	금(토 또는 격주)					
34	수업 6시간	수업 7시간	수업 6시간	수업 7시간	수업 4시간 창의적 재량 활동1시간 특별 활동 2시간	범교과 중심	학년 통합	정일제	자체 제작	담당 교사

가. 범교과 학습중심 편성·운영 유형

범교과적 학습 주제는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써야 한다. 재량 활동의 취지에 따라 범교과 학습 주제 선택은 학교보다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도 고려해야 한다. 범교과 학습에 배정된 시간을 학생에게 부여하는 주제 선택권에 따라 나누면 ‘완전 선택형’, ‘부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학교 지정형’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표 IV-5〉와 같다.

〈표 IV-5〉 학생의 주제 선택권에 의한 범교과 학습 유형(예시)

개설 주제	학생의 선택	비고
민주 시민 교육 등 35개 주제 및 기타	완전 선택형	학교 지정 주제 없이 모든 주제 중 선택
	부분 선택형	학교 지정 주제+모든 주제 중 선택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	학교 지정 주제 없이 일부 주제 중 선택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학교 지정 주제+일부 주제 중 선택
	학교 지정형	학교가 모든 범교과 학습 주제를 지정함

학생에게 보다 많은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창의적 재량 활동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완전 선택형’이나 ‘부분 선택형’ 혹은 ‘제한된 범위 내 완전 선택형’으로 편성·운영하기가 곤란한 경우는 범교과 학습 주제 중 교사 수급, 학생 요구,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수의 학습 주제를 개설하고, 이들 중 일부를 학교에서 지정하여 학습하도록 정한 뒤 나머지는 학생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는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을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주

제 개설로 심도 있고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단위 학교에서 ‘독서 교육 강화’ 같은 독특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하여 주제를 학교에서 모두 정하는 ‘학교 지정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1)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은 <표 IV-6>과 같이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특정 주제는 학교 지정으로 두고 나머지 주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일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으로,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IV-6> 범교과 학습 시간 편성·운영 -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예시: 16~19, 20시간 유형)

배당 시간	유형	개설 형태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학교 지정	선택(택 2 또는 택 3)			
20	A	성 교육(10)	인성 교육(5), 안전 교육(5), 여가 활용 교육(5), 환경 교육(5)	학급 군별	정일제	담당 교사
20	B	환경 교육(5)	소비자 교육(5), 국제 이해 교육(5), 에너지 교육(5), 보건 교육(5), 미디어교육(5)			
16~19	C	보건 교육(8)	통일 교육(5), 양성 평등 교육(3), 진로 교육(3), 성교육(5),			

* 학급군별 : 몇 개 학급을 묶어서 무리를 지어 운영하는 경우

A 유형, B 유형, C 유형 모두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성교육, 환경 교육, 보건 교육을 지정하여 운영하여 학교의 교육적 필요를 달성할 수 있고, 학교의 특색을 반영하기 위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A 유형은 학교 지정 주제인 성교육에 배당된 시간과 학생 선택 주제에 배당된 시간 수가 동일하여 학교 지정 주제와 선택 주제의 시간 배당이 동일한 유형이다.

B 유형은 학교 지정으로 환경 교육에 5시간이 배정되었으나 학생 선택에 의해 15시간, 3개의 주제가 선택되어 학생 선택의 비중이 더 높은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제한된 범위 내 부분 선택형에서도 학생의 선택권을 좀 더 보장해 주려는 유형이다.

이에 비해 C 유형은 주제별 배정 시간을 달리하여 학생들이 2~3개의 주제를 선택하도록 한 유형이다. 학교 지정으로 보건 교육에 8시간을 배정하고 학생 선택에 의해 8, 10, 11시간의 주제를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창의적 재량 활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에 배당되는 시간과 상호 융통성을 발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 학교 지정형

학교 지정형은 학년별로 특정 주제를 학교에서 지정·운영함으로써 학생의 선택권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으나 학교의 교육적 필요를 달성할 수 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표 IV-7>은 학기별 주제 개설·운영의 사례이다.

<표 IV-7> 범교과 학습 시간 편성·운영 - 학교 지정형(예시 : 24시간 유형)

배당 시간	주제 개설 형태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유형	1학기 학교 지정 주제	2학기 학교 지정 주제			
24	A	논술 교육(12)	성 교육(12)	학급 단위	정일제	담당 교사
	B	인성 교육(12)	다문화 교육(6), 문화 예술 교육(6)			
	C	미디어 교육(6),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6)	진로 교육(12)			

A 유형은 1학기과 2학기 균등하게 12시간을 배정하여 두 가지 주제를 운영하는 형태로 시간 운영과 교수·학습 방법의 용이성이 최대한 보장되고 학생들의 심도 있는 범교과 학습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다양한 주제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B 유형은 1학기에는 한 개의 주제로 12시간을 운영하고, 2학기에는 2개의 주제를 양분하여 6시간씩 운영하는 유형이다. C 유형은 B 유형과 반대로 1학기에 2개의 주제를 6시간씩 운영하고, 2학기에 1개 주제를 12시간 운영하는 형태이다. B, C 유형 모두 학기별 두 개의 주제로 운영될 경우 유사한 주제로 다학문적 학습을 돕도록 범교과 학습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두 유형 모두 학생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표 IV-7>이 단위 학급에서 이루어진 유형이라면 <표 IV-8>은 학급군별로 주제를 개설·운영하는 사례이며, 학급별로 주제를 순환시켜 운영할 수 있다.

<표 IV-8> 범교과 학습 시간 편성·운영 - 학교 지정형(예시: 학급 수가 많을 경우, 18시간 유형)

배당 시간	주제 개설 형태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구분	1~3반	4~6반	7~9반	10~12반			
18	A	논술 교육(6)	진로 교육(6)	보건 교육(6)	문화 예술 교육(6)	학급 군별	정일제	담당 교사
	B	근로정신 함양 교육(6)	민주 시민 교육(6)	안전 교육(6)	에너지 교육(6)			

C	장애인 이해 교육(6)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6)	환경 교육(6)	통일 교육(6)			
	분기별로 나누어 학급군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						

나.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 편성·운영 유형

자기 주도적 학습은 어느 특정한 학습 방법이나 형태라기보다는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 방법을 의미한다. 범교과 학습과 달리 자기 주도적 학습은 특정 주제를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역, 학교, 학생의 요구에 맞게 적절한 주제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지식 기반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이면 어느 것이나 자기 주도적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학문의 기본 개념에 기초하여 주제를 정하거나 학습자의 삶과 연계하여 생활 주변에서 주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탐구해 가는 ‘주제 탐구 활동’, 2인 이상으로 팀을 구성하여 탐구 주제를 선정하고 역할 분담 및 협력 활동을 통하여 학습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소집단 공동 연구’, 학습자 스스로 탐색하고 싶은 주제를 설정하여 여러 가지 탐구 방법을 이용하여 학습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개인 자유 연구’, 학습자가 탐구 활동 주제를 스스로 설정하여 장기간 수행하는 ‘프로젝트 학습’, 그 밖에 다양한 체험 학습 등을 자기 주도적 학습의 주요 운영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려면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지식 정보 사회 및 평생 학습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 갖춰야 할 필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정보의 수집, 정리, 활용 능력이 요구되며,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은 이러한 기능의 습득을 목표로 운영되어야 한다.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는 ‘학습 방법 중심 편성형’, 특정 교과와의 관련보다는 여러 교과와 긴밀하고 다양하게 연계된 주제 또는 특정 주제를 다룰 경우에는 ‘주제 중심 편성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급별 단위를 기준으로 편성·운영하는 방식인 ‘학급별 편성형’, 학년 내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학년별 통합형’을 제시할 수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다루는 주제와 함께 학생 편성 방식을 혼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실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테면 ‘교과 중심 편성형’은 학년별 통합 유형으로, ‘주제별 편성형’은 학급별 편성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1) 학습 방법 중심 편성형

학습 방법 중심 편성형은 범교과 학습 운영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을 학교의 교

육적 필요 및 여건을 감안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학급 집단을 기준으로 ‘학습 방법’에 초점을 두어 편성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학년 및 학급군별로 4가지 주제에 대해 분기별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시간을 12시간으로 편성·운영하는 ‘학습 방법 중심 편성형’의 사례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자기 주도적 학습 편성·운영 - 학습 방법 중심 편성형(예시)

배당 시간	주제 개설 형태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1~3반	4~6반	7~9반	10~12반			
12	소집단 공동 연구(3)	현장 체험 학습(3)	주제 탐구 학습(3)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3)	학급 군별	정일제	담당 교사
	분기별로 나누어 학급군을 순환하는 방식으로 운영						

2) 주제 중심 편성형

주제 중심 편성형은 동일한 주제를 선정하여 편성·운영하거나 주제별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후 학년 통합 방식으로 학생을 조직하여 지도 교사를 배정하여 편성·운영하는 방식이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34시간으로 편성하는 ‘주제 중심 편성형’의 사례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자기 주도적 학습 시간 편성·운영 - 주제 중심 편성형(예시)

배당 시간	주제 개설 형태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34	탐구 주제별 요구 조사 후 탐구반 개설 → 탐구반별 담당 교사 배치	통합	정일제	담당 교사

다.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통합 편성·운영 유형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은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이지만 이는 별도의 분리된 학습 영역이라기보다는 전자는 주제에, 후자는 방법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들 영역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함수근, 1998).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통합적 운영 방안은 <표 IV-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완전 통합형, 부분 통합형, 병렬형 또는 연관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표 IV-11〉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통합형 운영

배당 방법	개설 형태	편성 형식
통합형	완전 통합형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양자에 동일한 비중을 두어 운영
	부분 통합형	범교과 학습 주제를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으로 접근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에 중점을 두고 그 내용은 범교과적인 주제에서 찾음
	병렬형 혹은 연관형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병렬적으로 또는 관련지어 개설하여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함

완전 통합형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어느 하나의 유형에 비중을 두지 않는 방법이다. 이에 비해 부분 통합형은 두 하위 영역 중 어느 한 영역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병렬형 혹은 연관형은 범교과 학습 주제와 자기 주도적 학습을 관련지어 개설하는 방법으로 가장 미약한 통합의 유형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범교과 학습에서 몇 개의 주제를 개설하거나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몇 개의 주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한두 개의 주제를 선택하는 유형이다.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면, 학생들이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습하면서 그 주제와 관련된 개인 연구나 소집단 공동 연구, 또는 현장 학습을 하기 때문에 두 영역 간의 학습 전이 효과가 크다는 장점이 있다. 〈표 IV-12〉와 〈표 IV-13〉은 범교과 학습 영역에서 주제를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영역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의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표 IV-12〉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통합 유형(예시 1)

배당 시간	주제 개설 형태				학생 선택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1학기(17)		2학기(17)					
	소집단 공동 연구	주제 탐구 학습	현장 체험 학습	개인 자유 연구				
34	- 소비자 문제 탐구 조사반(17) - 한국 문화 답사 연구반(17)	- 진로 및 직업의 세계 조사반(17) - 다문화 연구반(17)	- 해양 현장 체험반(17) - 안전 현장 체험반(17)	- 경제 문제 탐구 반(17) - 환경 문제 조사 반(17)	학기별 택 1	학급 별	정일제	담당 교사

〈표 IV-12〉의 유형은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학습 방법을 선택하도록 제시하고, 선택된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 내에서 범교과 학습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이며, 학생들은 학기별로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이 유형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두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운영의 편리성과 학습의 효과를 높이며,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또 17시간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이나 결과물을 산출하게 되어 성취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형에서 교사는 17시간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설계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끌 수 있도록 하는 교사의 전문적 자질과 조력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표 IV-13〉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통합 유형(예시 2)

배당 시간	주제 개설 형태				학생 선택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1학기(17)		2학기(17)					
	목요일반	토요일반	목요일반	토요일반				
34	- 소비자 문제 탐구 조사반(17) - 한국 문화 답사 연구반(17)	- 진로 및 직업의 세계 조사반(17) - 국제 이해 연구반 (17)	- 해양 현장 체험반(17) - 안전 현장 체험반(17)	- 경제 문제 탐구반(17) - 에너지 문제 조사반(17)	학기별 택 1	학급 군별	정일제	담당 교사

〈표 IV-13〉의 유형은 자기 주도적 학습의 연구 방법과 범교과 학습의 주제가 통합된 명칭으로 주제가 개설되어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 유형은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목요일반, 토요일반으로 시간을 정하여 개설·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IV-13〉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적으로 보장되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간표 편성의 문제점과 현장 체험과 탐구 및 조사반이 개설될 경우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 유형은 특별 활동과 연계하여 특별 활동을 정일제로 운영한다면 그 연계성으로 교육과정 상호간의 통합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의 통합형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의 통합형은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특정 주제는 학교 지정으로 두고, 나머지 주제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학년 통합으로 일부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는 방식이다. 학급별 특정 주제를 학교에서 지정·운영함으로써 학생 선택권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단

점이 있으나, 학급별 주제를 순환시켜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의 교육적 필요와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권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의 통합형의 사례는 <표 IV-14>와 같다.

<표 IV-14>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의 통합 유형(예시 3)

배당 시간	주제 개설 형태		학생 선택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18)	자기 주도적 학습 중심 통합형	성교육(18)	학교 지정	학급별	정일제	담당 교사
(16)		인성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환경 연구 향토 연구 윤리 교육	자유 선택 (주제 중심 편성형)			

2) 범교과 학습 중심의 통합형

범교과 학습 중심의 통합형은 범교과 학습으로 인성 교육, 경제 교육, 보건 교육, 국제 이해 교육 등을 개설하고 학년별, 학년군별로 편성·운영하는 방식이다. 1~2개의 범교과는 필수로 나머지는 개인, 학급, 학년, 학년군별로 선택 운영할 수 있으며, 교사 수급, 학생 요구,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 수의 학습 주제를 개설할 수 있다. 범교과 학습 중심의 통합형 사례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범교과 학습 중심의 통합 유형(예시 4)

배당시간	주제 개설 형태		학생 선택	편성 형식	시간 운영	지도 교사
34	범교과 학습	인성 교육(17)	3가지 중 택 1	학년별	정일제	담당 교사
		경제 교육(17)				
		보건 교육(17)				
		국제 이해 교육(17)				
	자기 주도적 학습	환경 탐구반(17)	2가지 중 택 1			
		지역 문화 연구반(17)				

3. 재량 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 편성 예시

재량 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 편성 유형을 제시하면 <표 IV-16>⁵⁾과 같다(단, 고등학교 재량 활동 시수 102시간(6 단위)을 기준으로 한다). 교과 재량 활동의 편성은 선택 과목 학습만을 실시하는 선택 과목 집중형(A~D형), 선택 과목 학습은 실시하지 않고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만 실시하는 심화·보충 집중형(E~H형), 교과와 선택 과목과 심화·보충 학습에 차등 비중을 두는 경우 중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하는 선택 과목 집중형(I~L형)과 심화·보충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심화·보충 중심형(M~P형), 교과와 선택 과목과 심화·보충 학습에 균등한 비중을 두는 선택+심화·보충 균등형(Q~T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 학습을 집중, 차등, 균등하게 배당하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표 IV-16> 재량 활동 영역별 시간 배당 편성 유형(예시)**

영역	교과 재량 형태 창의적 재량 형태 유형	선택 과목 집중				심화·보충 집중				선택 과목 중심				심화·보충 중심				선택+심화·보충 균등			
		범교과	자기 주도	균등	혼합	범교과	자기 주도	균등	혼합	범교과	자기 주도	균등	혼합	범교과	자기 주도	균등	혼합	범교과	자기 주도	균등	혼합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교과 재량 활동	선택 과목 학습 (모든 교과군의 선택 과목 및 기타 과목)	68	68	68	68	0	0	0	0	51	51	51	51	17	17	17	17	34	34	34	34
	심화·보충 학습(국민 공통 기본 교과)	0	0	0	0	68	68	68	68	17	17	17	17	51	51	51	51	34	34	34	34
창의적 재량 활동	범교과 학습	*34/ 통합	0	17	20	*34/ 통합	0	17	14												
	자기 주도적 학습	0	*34/ 통합	17	14	0	*34/ 통합	17	20												
계(시간)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102

*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하위 영역에 집중하거나 두 영역의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

** 재량 활동의 시간 배당 유형은 표에 제시한 유형 이외에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할 수 있다.

5)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5), p.119의 <표 4>를 고등학교 실정에 맞게 재구성한 것임.

가. 선택 과목 집중형(A~D형)

선택 과목 집중형인 A, B, C, D 유형들은 선택 과목의 단위 수를 고려하여 6 단위로 통일된 선택 과목의 단위 수를 2 단위 감축하여 4 단위, 68시간을 운영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편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은 시간표 작성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면에서 행정상의 편리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선택 과목 시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재량 활동의 다른 하위 영역인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심화·보충 시간을 전혀 확보할 수 없어 선택 과목 학습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

A 유형은 선택 과목 학습에 68시간(4 단위)을 배정하고, 범교과 학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유형이다. B 유형은 선택 과목 학습에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편성하는 유형이다. 이때, A 유형과 B 유형에서 창의적 재량 활동의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편성·운영 방법도 가능하다. 이에 비해 C 유형과 D 유형은 선택 과목 학습에 68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A, B 유형과 동일하지만, C 유형은 창의적 재량 활동의 두 하위 영역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유형이고 D 유형은 범교과 학습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 어느 한 영역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형태이다.

나. 심화·보충 집중형(E~H형)

심화·보충 집중형인 E, F, G, H 유형은 선택 과목 학습에 시간을 배당하지 않고 국민 공통 교과와 심화·보충 학습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편성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들은 1학년에 편성된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시간을 재량 활동을 통해 연계하여 심화·보충 학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 유형(E, F, G, H)도 선택 과목 집중형(A, B, C, D)과 마찬가지로 심화·보충 시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재량 활동의 다른 하위 영역인 선택 과목 시간을 전혀 확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E 유형은 심화·보충 학습에 68시간(4 단위)을 배정하고 범교과 학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유형이다. F 유형은 심화·보충 학습에 시간을 집중적으로 편성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집중적으로 시간을 편성하는 유형이다. 또 E 유형과 F 유형에서는 창의적 재량 활동의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에 비해 G 유형과 H 유형에서 심화·보충 학습에 68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정하는 것은 E, F 유형과 동일하지만 G 유형은 창의적 재량 활동의 두 하위 영역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유형이고, H 유형은 범교과 학습 또는 자기 주도적 학습 어느 한 영역의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20:14 또는 14:20 이외에

18:16 혹은 22:12 등의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다. 선택 과목 중심형(I~L형)

선택 과목 중심형인 I, J, K, L 유형은 교과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학습에 51시간(3 단위)을 배정하고 심화·보충 학습에 17시간을 배정하는 유형이다. 이는 4단위인 선택 과목 학습을 3단위 실시하는 만큼 2학년과 3학년 과정에서 기준 단위를 이수해야 하므로 교원 수급, 교수·학습 방법의 문제, 시간 편성의 문제, 평가의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 과목 학습과 심화·보충 학습이 고르게 편성되었다는 점에서 재량 활동의 지역화, 분권화를 통한 다양성 추구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선택 과목 집중형 중에서 창의적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 배정 방식에 따라 I 유형은 범교과 학습 집중형이며, J 유형은 창의적 재량 활동 중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I 유형과 J 유형은 창의적 재량 활동에서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K 유형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 시간을 균등 배분하는 유형이며, L 유형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학교 여건과 교육적 필요, 요구 조사 결과에 따라 비균등하게 배분하는 유형이다.

라. 심화·보충 중심형(M~P형)

심화·보충 중심형인 M, N, O, P 유형은 교과 재량 활동의 선택 과목 학습에 17시간(1 단위)을 배정하고 심화·보충 학습에 51시간을 배정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 역시 4단위인 선택 과목 학습을 한 학기 동안 실시하는 만큼 2학년과 3학년 과정에서 기준 단위를 이수해야 하므로 교원 수급, 교수·학습 방법, 시간 편성, 평가 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유형이다. 이 점에서 단위 학교에서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이다. 그러나 선택 과목 학습과 심화·보충 학습이 모두 편성되어 있고 학교의 필요에 의해 심화·보충 학습 중심으로 편성한다면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 선택 + 심화·보충 균등형(Q~T형)

선택 과목과 심화·보충 학습 균등 배분형인 Q, R, S, T 유형은 선택 과목 학습에 34시간(2단위)을 배정하고 심화·보충 학습에 34시간(2단위)을 배정하는 방법이다. 균등 배분 방식으로 시간표 편성에 유리하며 교과 교사의 부담과 학생들의 수업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선택 과목 집중형과 마찬가지로 재량 활동에서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년과 3학년 과정에

서 이수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 학습과 심화·보충 학습 배정을 준거로 창의적 재량 활동과 조합이 가능하다. 다만, 소규모 학교인 경우 교사 수급 형편상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거나 학생과 학부모가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의 심화·보충 학습 시간에 보다 많은 시간을 배정하길 원하는 경우와 같이, 단위 학교의 사정 및 교육적 필요에 의해 국민 공통 기본 교과목의 심화·보충 학습 시간을 편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V. 재량 활동의 평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 재량 활동의 평가에 대해서도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활용한다.”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각 단위 학교에서는 재량 활동의 각 영역이 갖는 취지와 목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 교육청의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학교 환경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1. 재량 활동 학생 평가

재량 활동 평가에 관한 지침은 아래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

(8) 재량 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특성과 학생의 특성을 감안하여 평가의 주안점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한다. 다만,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그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한다.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지침 중 평가에 관한 부분은 재량 활동의 하위 영역별 평가와 영역별 적절한 평가 방식을 학교에서 작성,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교과 재량 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선택 과목의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는 서술형 평가 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 방식으로서 교과 활동과 다른 정의적, 심동적 평가를 통한 전인적 평가, 활동의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 학생의 서열화가 아닌 개인차 발견을 위한 평가, 교사 주도에서 벗어난 학생 스스로, 학생 상호간, 학부모에 의한 평가 방법 등이 단위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평가에서 탈피하여 평가 결과를 재량 활동 후속 운영 계획에 반영하며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해 활용함으로써 재량 활동의 의의에 부합한 바람직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재량 활동 학생 평가의 기본 방향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재량 활동이고,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였기 때문에 각 단위 학교에서는 학교 실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습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재량 활동을 편성·운영해야 한다. 재량 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계획, 조직, 실천 등의 여러 과정에 걸쳐 교육 활동을 개선하고 종합·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와 같은 재량 활동 의의에 부합하는 평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 활동의 평가는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량 활동은 단위 학교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 모든 학교에 적용되는 정형화된 평가틀을 제공하기는 어렵다. 단위 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재량 활동의 평가 방식도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각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다양한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재량 활동의 평가는 교과 활동과 관련된 학습 능력뿐만 아니라 활동에 대한 참여도, 태도 등이 평가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특히 창의적 재량 활동의 평가 결과는 이러한 정의적 영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문장으로 진술하도록 한다.

셋째,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더욱 중시해야 한다. ‘활동 계획에 대한 평가’, ‘활동 과정이나 방법에 대한 평가’, ‘집단의 변화·발전에 대한 평가’, ‘학생 개인의 발달에 대한 평가’ 등 활동 과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학생 평가와 함께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재량 활동 평가 결과는 환류되어 차후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개선점을 추출하는 데 활용되어야 한다.

교과 재량 활동의 평가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선택 과목의 평가 기준에 준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은 평가의 주안점과 평가 기준을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교육부, 1999b: 140-141).

- 1) 창의적 재량 활동은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교과 활동을 통해서 평가하기 어려운 정의적, 심동적 측면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 2)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 과정에서의 참여 의욕, 상호 관계, 진보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3) 평소 활동의 누가 기록, 발표, 자기 표현 등의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평가를 실시한다.
- 4) 학생들의 능력 의사를 가려 내어 서열화하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개인차를 발견하여 각자

- 의 개성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평가를 실시한다.
- 5) 교사 주도적인 평가보다 학생 스스로의 평가, 학생 상호간의 평가, 학부모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평가를 실시한다.
 - 6) 학교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재량 활동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재량 활동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7) 학생에 대한 평가와 함께 학교 재량 활동 편성·운영의 평가를 포함하여 후속 계획 수립과 운영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한다.

나. 재량 활동 학생 평가의 방법

재량 활동의 평가 방법은 각 학교에서 작성된 재량 활동의 목표와 평가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 방법 및 요령을 예시하면 <표 V-1>과 같다(교육부, 1999c: 203).

<표 V-1> 재량 활동의 평가 방법(예시)

구 분	평가 방법	평 가 요 령
활동 상황의 관찰	일화 기록	◦ 학생의 활동 상황을 자유롭게 기록(지도록, 카드, 노트 등)
	체크리스트	◦ 활동에의 참가 태도, 실천 상황을 미리 준비된 목록에 의거 점검
	평정 척도	◦ 활동 상황, 발언 내용 등을 일정한 척도에 비추어 기록
질문지를 활용한 조사	의식, 태도 조사	◦ 활동에의 생각, 흥미, 관심, 태도 등을 설문식으로 조사
	자기 평가	◦ 집단 활동의 참가 태도, 행동의 정착도를 각자 반성 평가
	상호 평가	◦ 집단 활동에의 참가 태도와 활동 내용 등 평가
학생의 기록, 작품	활동의 기록	◦ 활동의 계획이나 활동의 실제 기록(미리 준비한 자기 계획)
	개인 기록, 보고서 등	◦ 개인의 자유 연구, 소집단 공동 연구, 주제 탐구 활동, 자연 체험 활동 등의 활동 보고서, 기록 결과물, 작품, 사진 등의 자료 분석
	작문, 일지	◦ 활동의 계획·실시에 대한 의견, 참가·활동 후의 감상
교사의 협의, 의견 교환	동학년 협의	◦ 활동에 관한 정보 교환, 반성 평가

다. 재량 활동 학생 평가의 기록과 활용

재량 활동을 평가하고 기록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훈령인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

침'을 기준으로 한다. 지침에 따르면, '창의적 재량 활동 상황'란에 입력하는 내용은 활동 영역 또는 주제와 이수 시간을 입력하되, 활동 주제가 세분화되어, 특별히 많을 경우에는 창의적 재량 활동의 2가지 영역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나누어 해당 영역에 대한 연간 이수 시간과 특기 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특기 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문장으로 간단하게 입력하되,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의 2가지 활동 영역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각 활동 영역에 대한 특기 사항을 문장으로 간략하게 입력할 수 있다⁶⁾. 이때, 대영역을 기록한 경우 소영역을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창의적 재량 활동은 활동명, 연간 이수 시간, 평가 결과, 특기 사항을 문장으로 입력하며, 평가 기준표에 따라 서술식으로 학생의 장점과 특기, 흥미 정도를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도록 문장으로 서술한다.

2.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평가

가. 재량 활동 교육과정 평가의 기본 방향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와는 별도로,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평가하여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함수근·김찬재, 2006).

첫째,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에서는 시간 배당의 적절성, 시간 조직의 효율성, 시기의 융통성 등을 고려한다.

둘째, 재량 활동 교육과정 운영의 측면에서는 활동 목표의 타당성, 내용 선정 및 조직의 타당성,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성, 교수·학습 자료의 효과성을 고려한다.

셋째, 재량 활동의 평가 측면에서는 재량 활동의 각 세부 영역별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평가 방법 구안, 평가 도구의 타당도, 평가 기록 및 통지 방법, 평가 결과 활용의 적절성을 고려한다.

나.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평가 방법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재량

6)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2007. 2. 28.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 제12조(재량 활동) ① 재량 활동의 편성·운영 및 영역·내용·평가 등은 학교장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⑤ 창의적 재량 활동은 '창의적 재량 활동 상황'란에 활동 영역 또는 주제, 연간 이수 시간을 입력하고 평가는 활동 영역 또는 주제에 대한 특기 사항을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문장으로 입력한다.

활동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교사의 자기 평가가 유용한 정보원이 될 수 있으며, 교사의 자기 평가를 통하여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의 자기 평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날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기 평가 관점을 사전 조사, 주제 선정, 편성, 운영, 평가 등 몇 개의 하위 영역으로 나누어 예시하면 <표 V-5>와 같다(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8: 53). 또, 설문지나 평정 척도표를 통한 평가는 학교에서 합목적적으로 구안하거나 개발된 평가 내용 및 평가 관점을 중심으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그 결과에 기초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평가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고, 평가는 이 교육과정에 포함된 평가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교사들은 평가의 관점, 방법 등을 이해하고, 평가가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표의 예시는 <표 V-6>과 같다(함수곤, 1998, 함수곤·김찬재, 2006).

〈표 V-2〉 재량 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의 자기 평가표(예시)

평가 일시	년 월 일			평가자	교사 :			
	재량 활동	기별	학기		프로그램명			
영역	관 점				평 가			반성
					상	중	하	
사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찾아 낼 수 있는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는가? 							
주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각 개인의 필요한 과제를 찾을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되었는가? • 학생 개인 능력에 따른 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주제 선정이 되게 하였는가? 							
교육과정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량 활동의 목표와 활동 내용에 적합한 프로그램 학습 활동 내용으로 편성되었는가? •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 내용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시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활동 계획이 학생 주도적으로 짜여졌는가? • 학습 활동 시간 배당이 학습 활동 운영에 적절하였는가? 							
학습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자료로 이용한 자료가 도움이 되었는가?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방법이 학생의 자기 평가, 학생의 상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가? • 평가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프로그램 학습 활동에 따른 평가 관점을 수립하고 평가에 임하였는가? 							

〈표 V-3〉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표 (예시)

구분	평가관점	평점					평균	개선 할점
		1	2	3	4	5		
계 획	1) 전 교직원의 조직, 임무, 역할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2) 교육과정 기준과 지침의 내용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추출하여 반영하였는가?							
	3) 각종 실태 조사 분석이 반영되었는가?							
	4) 재량 활동 목표 구현을 위한 교육 중점이 전교원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설정되었는가?							
	5) 재량 활동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계획되었는가?							
	6) 재량 활동의 주제, 지도 시기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는가?							
	7) 교사의 지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과정 연수가 잘 추진되었는가?							
편 성	1) 재량 활동 교육과정 기본 방향이 합리적인가?							
	2) 재량 활동의 성격·목표·방법·평가가 학교 특성을 살려 일관성 있게 운영되도록 편성되었는가?							
	3) 교과 및 특별 활동의 심화·발전을 꾀하고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창의적인 교육 활동인가?							
	4) 목표가 타당하게 설정되고,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편성인가?							
	5) 지역 사회와 학교 실정 및 학생의 개성과 소질에 부합하는 내용인가?							
	6) 시설, 설비, 장소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편성되었는가?							
	7) 재량 활동 내용이 학생 중심의 활동 프로그램이고, 학생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가?							
운 영	1) 재량 활동 시간 배당 기준을 준수하고 본질에 맞는 수업을 하였는가?							
	2) 학습 활동에서 학생의 직접적인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졌는가?							
	3) 학생들에게 공동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소집단 활동을 통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많이 가지게 했는가?							
	4) 재량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 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활용하였는가?							
	5) 학생 능력에 알맞은 학습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였는가?							
	6)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수·학습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자료 정비가 잘 되었는가?							
	7) 지역 사회와 가정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졌는가?							
평 가	1) 재량 활동의 평가가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와 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있는가?							
	2) 평가의 준거가 될 평정 척도 또는 평가 관점을 적용하여 활용하였는가?							
	3) 평가는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활용하여 목표 도달도를 측정하고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가?							
	4) 재량 활동 내용이 일반화될 수 있으며 그러한 가치가 있겠는가?							
	5) 재량 활동 내용이 학교 전통으로 계속될 수 있겠는가?							
소 계								

참고 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요.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5).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2007. 2. 28.),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 교육인적자원부(2003), 제7차 교육과정 적용 우수 사례집 - '중학교 재량 활동과 특별 활동 준비에서 평가까지'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2000), 고등학교 재량 활동 지도 자료, 대구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 교육부(1999a),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b),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Ⅴ),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a),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Ⅴ),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c),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Ⅰ),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한국교육개발원(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97 교육부 위탁 연구 과제 답신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원대학교(1998), 초·중등학교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연구 교육부 위탁 연구 과제 답신 보고.
- 한국교육과정평가원(1998), 초등학교 재량 활동 운영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재량 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재량·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순경 외(1997),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경환 외(2001),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료Ⅳ-재량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함수곤 외(2000),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재량 활동 실천 사례 개발,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함수곤 외(1998),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모형 연구, 청원: 한국교원대학교.
- 함수곤, 김찬재(2006), 교육과정 장학의 이론과 실제, 서울: 중앙교육진흥연구소.

- 부여고등학교(1999-2000), 재량 활동 운영 교육과정 편성·운영.
- 성남외국어고등학교(2007-2008),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 학교 운영 보고서,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기타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 주성고등학교(2007-2008),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 학교 운영 보고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규모 일반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 태안고등학교(2007-2008),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 학교 운영 보고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모형 개발.
- 서울양재고등학교(2005-2006), 서울특별시 지정 교육과정 시범 학교 운영 보고서, 재량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특별 활동

김진규 (교육과학기술부)
이광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진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민용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근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경전 (서울특별시교육청)
황익중 (경기도외국어교육원)
이규은 (동서울대학)
곽상훈 (경기분당중앙고등학교)
노기홍 (서울중화고등학교)

-
- I. 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중점
 - II. 특별 활동의 성격
 - III. 특별 활동의 목표
 - IV. 특별 활동의 내용
 - V. 특별 활동의 교수·학습 방법 및 지원
 - VI. 특별 활동의 평가
 - VII. 특별 활동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
- 참고 문헌
〈부록〉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변천

I. 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과 중점

1. 개정의 배경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2월 28일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본적으로 현행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 및 체제를 유지하면서 2000년부터 적용해 온 ‘제7차 교육과정’을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 보완하는 ‘수시 개정’¹⁾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1).

첫째, 제7차 교육과정 개정(1997. 12. 30.)이후 사회·문화적 변화를 반영한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이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2009년도에 초등학교부터 연차적으로 적용²⁾된다. 제7차 교육과정이 2000년부터 시행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할 경우 그간 9년 동안 동일한 교육 내용 및 내용 체계를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시대·사회적 변화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현행 특별 활동 교육과정 적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성이다.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주요 특징은 ‘영역의 확대’, ‘특별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제6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 학급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활동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던 특별 활동의 영역을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확대·개편하였다. 단위 학교에서는 이러한 5개 영역 운영에 있어서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 과정에서 교원 수급, 시설 등 제반 여건이 미흡하여 5개 영역 편성·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현실적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형식적인 운영과 평가 등으로 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1)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2003년 10월부터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 고시 이전에도 2004년(2004. 11. 26.)에는 특목고 교육과정 정상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4-85호)을, 2005년(2005. 12. 28.)에는 공고 2·1체제 교육과정과 국사교과 교육과정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5-10호)을, 또 2006(2006. 8. 29.)년에는 수학·영어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6-75호)을 하는 등 3차례에 걸친 수시 개정이 이루어졌다.

2) 이 교육과정은 학교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2009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 2010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 2011년 3월 1일: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 2012년 3월 1일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 2013년 3월 1일: 고등학교 3학년.

등 적용상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특별 활동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셋째, 주5일 수업제 월2회 실시에 따른 수업 시수를 일부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단위 학교에서는 2006년 3월부터 월 2회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현행 수업 일수 및 수업 시수를 조정하게 되었다. 주5일 수업제 월2회 운영에 따라 현행 교육과정 편제에서 어떤 교과나 영역의 시수를 축소 편성·운영할 것인지는 ‘단위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³⁾을 권장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과정 개정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연구(2004년~2005년)’⁴⁾,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2005년~2006년)’⁵⁾, ‘교육과정 개정 시안 제1차 공청회(2005년 11월~12월)’⁶⁾, ‘교육과정 개정 시안 현장 적합성 검토(2006년 4월~10월)’⁷⁾, ‘수학, 영어 수준별 교육과정 개정 고시(2006년 8월 29일)’⁸⁾, ‘교육과정 개정 시안 제2차 토론회·공청회(2006년 2월~2007년 1월)’⁹⁾,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 협의회(2007년 1월 31일)’¹⁰⁾, ‘교육과정 심의회(2004년 9월~2007년 2월)’¹¹⁾ 등을 거쳐 2007년 2월 28일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정·고시하였다.

3) 2006년도에 주5일 수업제를 월 2회 실시함에 대비하여 2005년 말 교육인적자원부는 연간 수업일과 수업시수를 다음과 같이 감축·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하였다(www.moe.go.kr).

- 월2회의 토요일 휴업일은 시·도교육감이 지역 사회의 교육적·사회적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정한다.
- 수업 일수는 연간 수업 일수의 10%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감축·운영하고, 수업 시수는 단위 학교가 연 34시간(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한다. 단, 초등학교 1·2학년의 수업 시수는 감축하지 않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운영하며, 고등학교 2·3학년은 2년간 4단위(주당 평균 1시간) 범위 내에서 감축한다.

4)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는 2004년 12과제, 2005년 2과제를 추진하였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년 동안 현행 교육과정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 연구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5) 교육과정 개정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정 시안개발 연구는 2005년 14과제, 2006년 52과제가 수행되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 및 영역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연구·개발하였다.

6) 2005년에 연구·개발된 초·중등학교 총론, 국민공통기본교과 등 14개 교과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7) 현장 적합성 검토에는 전국 총 3,760개 학교의 교사와 전국단위 교과교육연구회 37개, 교육과정·교과서발전협의회 등이 참여하였으며,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교과서정보서비스 홈페이지(cutis.moe.go.kr) 및 KICE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2006년 8월 29일에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5호로 수학과 및 외국어과(영어)의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 되었다.

9)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국민공통기본교과, 선택/전문교과 등 교과(영역)별로 공청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에서 실시되었다.

10) 교육과정 개정 사항에 대한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하였다. 학부모 단체, 교육 단체, 교육 관련 시민 단체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함으로써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성과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11) 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의 시안 및 심의본에 대한 교육과정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별 위원회, 소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심의하였다.

2. 개정의 중점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은 유지하면서 시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현재 문제가 되는 측면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과 새로운 시대·사회적 요구와 수요에 적합하게 개정하게 되었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개정은 교육과정 개정에서 수시 개정 체제 도입에 따른 부분 개정이라는 것이다. 즉, 이번 개정은 현행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체제와 구조는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개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변화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주요 부분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현행의 틀은 유지하되,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적용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현장 적합성 차원에서 분석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특별 활동 교육과정을 학교급별로 통합하여 일관되게 구성하였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구성에 있어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보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특별 활동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및 지원, 평가를 학교급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특별 활동 목표의 경우, 특별 활동 전체의 포괄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 아래 세부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특별 활동 내용의 경우, 내용 체계와 영역별 내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역별 내용에서는 5개 영역별 목표와 5개 영역에 따른 활동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수·학습 방법 및 지원은 ‘7차의 교수·학습 방법’ 항에 ‘지원’을 추가하여 변경한 것으로서, ‘계획과 운영 및 지원’, ‘영역별 지도 방법’에 관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특별 활동의 전반적인 계획, 운영, 지원 관련 지침이, 후자는 각 영역별로 대략 5개 정도의 영역별 지도 방법이 제시되었다. 평가에서는 7차 특별활동 교육과정 지침 중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지침 및 중복되는 지침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평가의 전반적인 방향에 관한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각 학교에서 학교급별 특성과 목표 달성에 적합한 활동 내용을 선정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 재량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둘째, 특별 활동 편성·운영에 대한 지역 및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지역 및 학교 급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단위 학교의 자

을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현장 밀착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을 지향하고자 하였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지역 및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 확대라는 교육과정 지역화 및 분권화를 지향하면서,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장점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특별 활동은 그 특성상 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사 조직, 활동 집단 편성 등에 있어서 지역 및 학교가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화, 분권화, 특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활동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분권화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는 획일적이고 경직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 활동 편성·운영의 융통성을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5개 영역의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성을 지향하였다.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영역은 영역 자체만 보아도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방향과 목표, 활동 내용과 방법 등을 강하게 암시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 적용 이후 5개 영역의 편성·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예컨대, ‘5개 영역 간 내용의 중복 혹은 상관으로 영역 구분이 불분명함’, ‘5개 영역의 과다’, ‘5개 영역의 균형적 이수 부담’, ‘5개 영역별 하위 활동의 실효성 미흡’, ‘5개 영역 편성에 따른 교육적 효과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및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5개 영역 편성·운영에 융통성을 보장하였다. 특별 활동 운영에 있어서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5개 영역 및 영역별 활동 내용을 선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였다. 특별 활동 5개 영역 이수에 있어서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5개 영역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특별 활동 평가 방식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특별 활동 평가에서는 제7차 특별 활동 평가의 지침 중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지침 및 중복되는 지침은 수정하거나 삭제하여 평가의 전반적인 방향에 관한 지침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특별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동의 상황을 고려한 평가’와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였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5개 영역의 편성·운영과 연계하여 5개 영역 구분 없이 특기 사항 중심의 종합적인 평가’를 제안하였다. 제7차 특별 활동 평가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단위 학교에서의 특별 활동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특별 활동 평가 방식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5개 영역별 구분 평가의 부담, 영역별 평가의 중복성, 객관적 평가 실시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평가에 대한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연결되며, 결국 특별 활동의 운영의 어려움과

직결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 특별 활동 평가는 “학생이 참여한 활동 영역과 활동 상황을 고려하여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하되, 담임교사가 종합한다.” 라는 지침을 신설하여 단위 학교 특별 활동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단위 학교는 이러한 개선안과 연계하여 학교생활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특별 활동과 연계하여 수용·반영하고자 하였다. 사회·문화적 발달 및 변화 등에 따라 생성되는 교육 내용의 증대와 사회의 지속적 발전 및 발달, 변화에 대한 교육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파악하여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개정 교육과정 개정의 진행 과정에서 정부의 각 부처 및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의 국가 사회적 요구들은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 사회적 요구는 각종 기관 및 단체 등이 취급하고 있는 사항들을 학교 교육내용으로 반영하여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국가 사회적 요구는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의 형태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수렴하고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 영역은 제7차 교육과정의 16개 영역에서 35개 영역으로 확대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범교과 학습으로 수용하여 교과, 재량 활동과 통합적으로 지도하도록 하였다. 민주 시민 등을 포함한 35개¹²⁾의 학습 영역은 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 등 학교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의 연계 지도에도 힘쓰도록 하였다. 예컨대, ‘특별 활동의 적응 활동의 진로 활동과 재량 활동의 진로교육’, ‘특별 활동의 계발 활동의 정보 통신 활동과 재량 활동의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특별 활동의 상담 활동과 재량 활동의 인성 교육’, 특별 활동의 봉사 활동과 재량 활동의 환경 교육’ 등은 연계하여 지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위 학교는 특별 활동 편성·운영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편성·운영하는 융통성이 요구된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 반영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표 1-1>과 같다.

12)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는 다음과 같다. 민주 시민 교육, 인성 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 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국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청렴·반부패 교육, 물 보호 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양성 평등 교육, 장애인 이해 교육, 인권 교육, 안전·재해 대비 교육, 저 출산·고령 사회 대비 교육, 여가 활용 교육, 호국·보훈 교육, 호도·경로·전통 윤리 교육, 아동·청소년 보호 교육, 다문화 교육, 문화 예술 교육, 농업·농촌 이해 교육, 지적 재산권 교육, 미디어 교육,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논술 교육 등이다.

〈표 I -1〉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 반영된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반영 내용
◦ 민주 시민 교육	◦ 민주 시민 활동,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 환경 교육	◦ 환경·시설 보전 활동
◦ 보건교육	◦ 보건 체육 활동, 보건 체육 행사 활동
◦ 통일 교육	◦ 교류 활동
◦ 국제 이해 교육	◦ 학술 문화 활동, 교류 활동
◦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 정보 통신 활동
◦ 물 보호 교육	◦ 환경·시설 보전 활동
◦ 장애인 이해 교육	◦ 위문 활동, 자선 구호 활동, 교류 활동
◦ 안전·재해 대비 교육	◦ 안전 구호 활동
◦ 여가 활용 교육	◦ 여가 문화 활동
◦ 다문화 교육	◦ 학술 문예 활동, 교류 활동
◦ 미디어 교육	◦ 학술 문예 활동, 여가 문화 활동, 정보 통신 활동
◦ 의사소통·토론 중심 교육	◦ 협의 활동, 민주 시민 활동,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II. 특별 활동의 성격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교육과정 문서로 결정·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에서는 특별 활동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특별 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 특별 활동은 근본적으로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집단에 소속한 개인의 개성·자율성·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육적 노력을 포함한다.

특별 활동은 다양한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고,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게 한다. 또한 다양한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건전한 취미 함양 및 여가선용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돕는다.

특별 활동의 교육과정은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영역으로 구성된다. 각 영역별 구체적인 활동 내용은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 학습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특별 활동에서는 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과 자율적인 생활 태도의 형성에 중점을 둔다. 중학교에서는 왕성한 활동력과 다양한 욕구를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에서는 자아의 발견과 확립, 삶의 힘과 지혜,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 등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별 활동에서는 학생의 자주적인 실천 활동을 중시하여, 교사와 학생이 공동 협의하거나 학생 자신의 힘으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게 한다. 아울러, 지역과 학교의 독특한 문화 풍토를 고려하여 특색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에 제시된 특별 활동의 성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와 내용으로 진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별 활동이란 어떠한 활동인지(정의),
 특별 활동을 통하여 성취시키고자 하는 목표 무엇인지(목표),
 특별 활동이 어떠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영역),
 특별 활동의 학교급별 편성·운영의 중점(중점),
 특별 활동을 어떻게 실천하고 운영해야 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방법).

첫째, 특별 활동은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교과 활동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교과 활동이 개념이나 원리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인지적인 접근을 주로 한다면, 특별 활동은 실천적, 체험적 접근을 통해 교과 활동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본다는 측면에서 교과 활동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교과 학습 내용이 특별 활동의 실제 문제, 실제 상황에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 활동을 통해 교과에 대한 필요성이나 흥미를 느끼게 하여 교과에 대한 바람직한 시사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교과 활동을 통하여 달성할 수 없는 내용을 특별 활동을 통하여 이루는 경우도 있다. 특별 활동은 학생들이 자율적인 활동과 구체적인 체험 활동을 통해 자신감이나 성취감을 높이고,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범을 익히고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특별 활동은 집단을 단위로 하는 활동이며, 개별적인 활동보다는 집단을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꾀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별 활동은 기본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집단 구성원 간의 협동적인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러나 특별 활동에 있어서의 집단 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는, 집단 내 개인 간의 관계를 도모하고 타인과 더불어 사는 삶의 체득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완성을 추구하는 활동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서의 집단은 개인의 완성을 목표로 하는 방법적인 토대로 이해할 수 있으며, 개인의 완성은 집단의 활동을 통하여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특별 활동의 목표는 교육의 일반 목표인 인격의 완성을 집단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집단에 속한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다.

셋째, 특별 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에 바탕을 둔다. 특별 활동은 기본적으로 교사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기보다는 학생 스스로의 방향 설정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 가는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교과 활동에서는 학생이 비교적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는 반면, 특별 활동에서는 활동의 계획, 조직, 운영, 평가 등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가능한 한 조력자의 입장에서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특별 활동에서는 특히 학생의 자주적인 실천 활동을 중시하여 교사와 학생이 공동 협의하거나 학생 자신의 힘으로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게 해야 한다.

넷째, 특별 활동은 그 운영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진다. 특별 활동은 주제 및 장소 선정, 시간 운

영, 집단 편성, 부서 지도, 부서 이동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교과 활동은 이미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상의 목표, 내용, 수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특별 활동은 학생과 교사가 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여 장소, 시간, 방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집단 편성에 있어서도 학년별, 학기별, 분기별로 필요와 여건에 따라 학급 단위, 학년 단위, 지역 단위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점이 교과 활동과는 다르다. 활동의 성격에 따라서는 여러 교사들이 협동하여 하나의 팀으로서 특정한 활동 부서를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년별, 학기별, 분기별로 자신에게 보다 적절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다양한 활동 부서로 이동할 수도 있다. 특별 활동 운영에 있어서 지역과 학교의 독특한 교육 문화 풍토를 고려하여 특색 있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섯째, 특별 활동은 학교 급 및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고등학교의 특별 활동에서는 자아의 발견과 확립, 삶의 힘과 지혜, 남과 더불어 사는 방법 등을 체득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단위 학교에서는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한다.”는 특별 활동 목표를 추구하면서, 고등학교 특별 활동의 중점 사항의 구현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계할 필요가 있다.

Ⅲ. 특별 활동의 목표

일반적으로 특별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인 교육의 측면에서 학생의 자율 능력,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적응력, 원만한 인간관계, 특기의 신장과 계발, 의지력 및 공동체 의식 등이라고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의 특별 활동의 목표는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의 목표를 그대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특별 활동의 목표를 사회의 변화와 교육 내·외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인 교육 이념에 바탕을 두고 민주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 학생의 자치·자율 능력,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 협동심과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능력, 잠재력과 특기의 신장·계발, 봉사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 심신 단련을 통한 인내심과 의지력 배양, 학교와 지역 사회,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집단 의식, 책임감, 협동 정신을 함양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설정하였다(교육부, 1999a: 202).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특별 활동 목표의 진술에서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용어 등을 삭제하여 표현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예컨대, 하위 목표인 계발 활동의 목표와 관련하여 제 7차 특별 활동의 목표인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 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로 수정 하였다.

국가 수준에서 제정·고시한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초·중·고등학교의 구분 없이 하나로 묶어 다음과 같은 한 개의 총괄 목표와 다섯 개의 하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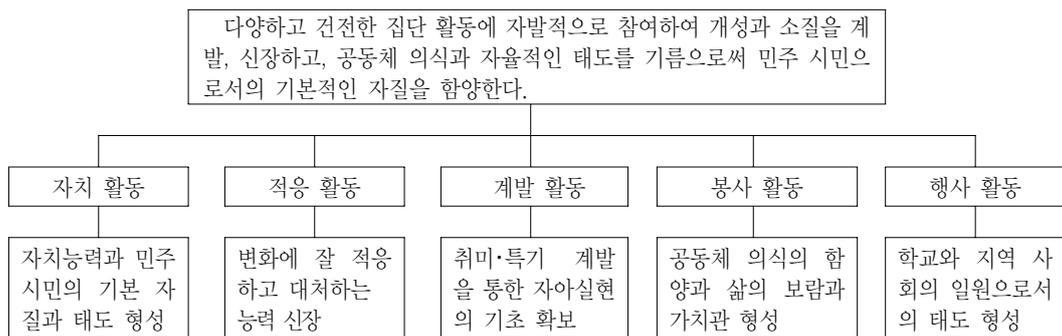
<총괄 목표>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 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함양한다.

<하위 목표>

- 가. 학교 및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협력하여 수행하고, 자치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지닌다.
- 나.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한다.
- 다.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신장함으로써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진다.
- 라. 봉사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한다.
- 마. 각종 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진다.

위에 제시된 5개의 하위 목표는 특별 활동 5개 영역별 목표라고 볼 수 있다. 5개의 하위 목표는 5개 영역의 내용과 상호 연계가 되어 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특별 활동 목표의 체계

위 그림에서와 같이 총괄 목표¹³⁾는 특별 활동 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여야 할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 함양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총괄목표는 5개 하위 영역의 실천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최종 목표이다.

이에 따르는 하위 목표는 5개 영역의 실천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특별 활동 5개 하위 영역 설정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각각은 특별 활동 5개 영역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목표를 근거로 하여 특별 활동의 학년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특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특별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총괄 목표는 방법·과정+목적·결과의 복합적 진술형으로 되어 있다. 방법·과정은 건전한 집단 활동에의 자발적 참여이다. 목적·결과는 개성, 소질의 계발 신장+공동체 의식과 자율적 태도의 형성(미시적 목표), 민주 시민 자질 함양(거시적 목표)의 구조로 되어 있다(교육부, 2001: 31).

IV. 특별 활동의 내용

1. 내용 체계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 내용 선정의 기본 원칙¹⁴⁾을 계승하면서, 학습자의 요구 및 시대·사회적 상황, 특별 활동 편성·운영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현행 특별 활동 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였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교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초·중·고등학교의 내용을 묶어서 하나로 제시하였다. 특별 활동의 내용 체계는 다음 <표 IV-1>과 같다.

<표 IV-1> 특별 활동의 내용 체계

영역	내 용
자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활동 ◦ 역할 분담 활동 ◦ 민주 시민 활동
적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 친교 활동 ◦ 상담 활동 ◦ 진로 활동 ◦ 정체성 활동
계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문예 활동 ◦ 보건 체육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여가 문화 활동 ◦ 정보 통신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14) 제7차 특별 활동 내용 선정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의 자주적, 실천적 활동을 강조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선정하였다. 둘째, 학생의 인간, 사회, 자연과의 접촉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선정하였다. 셋째,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 및 국민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선정하였다. 넷째, 학생의 특기·소질 계발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선정하였다(교육부, 1999a: 204-205).

영역	내 용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손 돕기 활동 ◦ 위문 활동 ◦ 캠페인 활동 ◦ 자선 구호 활동 ◦ 환경·시설 보전 활동
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 행사 활동 ◦ 학예 행사 활동 ◦ 보건 체육 행사 활동 ◦ 수련 활동 ◦ 안전 구호 활동 ◦ 교류 활동

위 표에서와 같이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5개 영역인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러한 5개 영역은 특별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각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 체계가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하나로 제시된 점을 감안할 때 단위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특성과 발달 단계,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특별 활동 목표 달성에 적합한 활동 내용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위 표의 특별 활동에 제시된 영역별 내용은 예시이므로 단위 학교는 특별 활동의 목표 달성, 학교의 실정 혹은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 내용을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영역별 목표 및 내용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영역별 내용에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제시하여 단위 학교에서의 특별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각 영역별 활동 내용은 예시적 기준이므로,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 및 학습자의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이나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된 특별 활동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활동 내용을 선정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역 및 단위 학교의 특별 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융통성 및 재량권을 확대하였다.

단위 학교는 위 지침에 따라 지역 특성, 학교 실정,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따라 학교에 주어지고 있는 학교 교육 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재량 권한을 학교 나름대로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을 기본 축으로 하여 활동 집단, 활동 장소, 활동 시기, 활동 지도자 등과 같은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특정 영역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 내용을 학교에서 선정하여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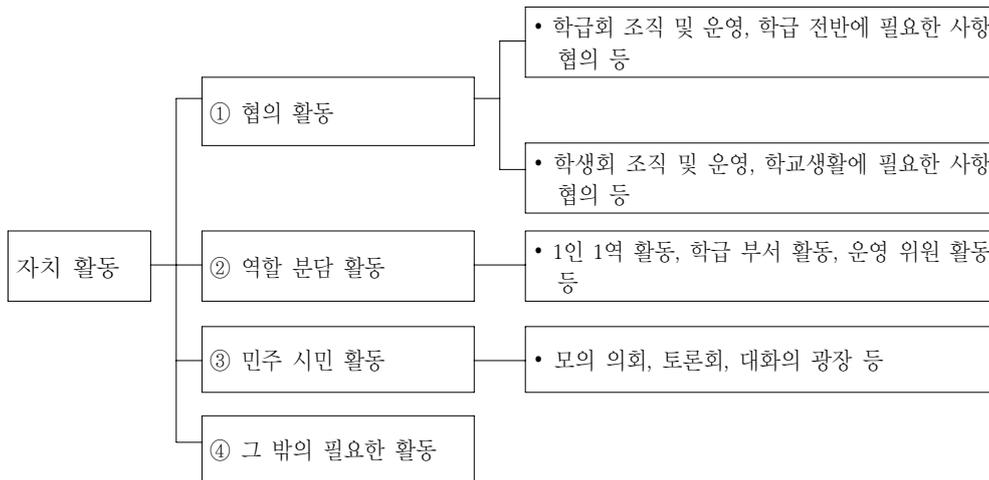
가. 자치 활동

자치 활동이란 학생들이끼리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결정된 바를 집행하기 위해 역할을 나누고, 여러 가지 자율적 활동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기르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자치 활동의 목표는 목표 진술상의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였으나 제7차 특별 활동의 자치 활동 목표의 기본 취지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자치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학급과 학교에서 일어나는 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 및 실천함으로써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른다.
- ② 다양한 협의 및 실천 경험을 통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기본 원리를 익힌다.
- ③ 역할 수행을 통하여 일의 성취 과정에 대한 기쁨을 느끼고, 학교 또는 학급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기른다.

자치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다음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자치 활동의 내용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자치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제7차 특별 활동 자치 활동의 활동별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애향반 활동’과 같이 시대·사회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활동 내용은 삭제하였다. 개정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자치 활동의 활동별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IV-2>와 같다.

자치 활동의 활동별 내용의 구체적인 운영 내용은 고등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단위 학교에서 실천 가능한 내용들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예시된 활동 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표 IV-2> 자치 활동 내용의 신·구 대비 표

영역	내용	활동별 내용 예시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자치 활동	협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회 조직 및 운영, 학급 전반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 학생회 조직 및 운영,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회 조직 및 운영, 학급 전반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 학생회 조직 및 운영, 학교생활에 필요한 사항 협의 등
	역할 분담 활동	1인 1역 활동, 학급 부서 활동, 운영 위원 활동 등	1인 1역 활동, 학급 부서 활동, 운영 위원 활동 등

민주 시민 활동	애향반 활동, 모의 의회, 토론회, 대화의 광장	모의 의회, 토론회, 대화의 광장 등
그 밖의 필요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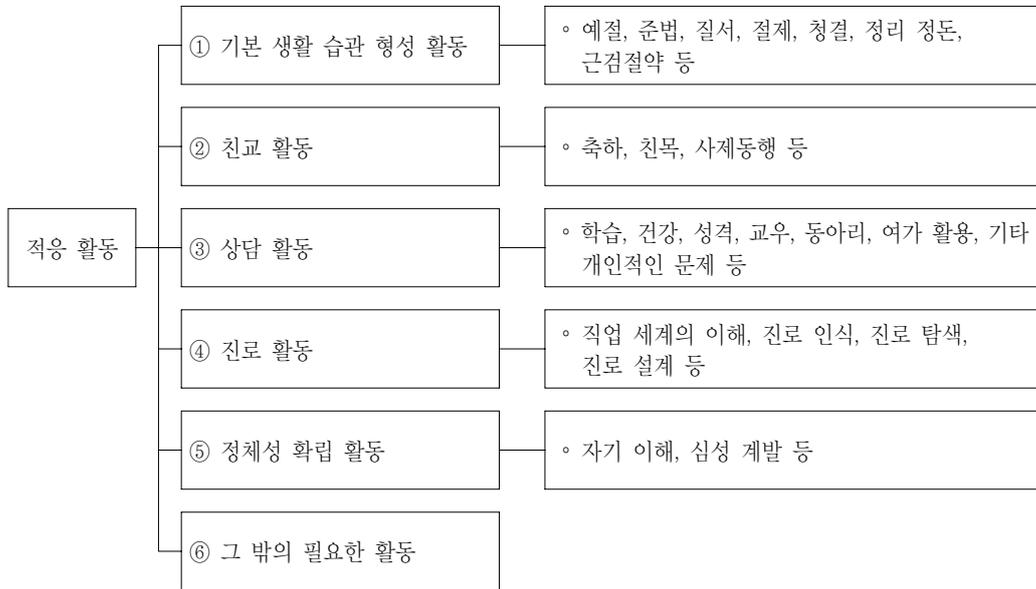
나. 적응 활동

적응 활동은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자기 주도적 활동이다. 적응 활동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학교, 학급 내의 공동체 속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여러 가지 상황에 잘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데 그 교육적 의의가 있다. 적응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집단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는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른다.
- ② 친교 및 협동 활동을 통하여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한다.
- ③ 자신의 문제를 상담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원만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한다.
- ④ 진로와 직업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탐색·설계한다.
- ⑤ 자신의 성격, 능력, 역할 등을 이해하고, 올바른 심성을 가진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적응 활동의 목표는 제7차 특별 활동의 자치 활동의 목표를 계승하면서, '정체성 확립 활동'에 관한 목표(위의 ⑤ 참조)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특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인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 신장' 및 '자아실현의 구현' 등에 있어서 학습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문제는 초·중·고등학교 전반에 걸쳐 그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적응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다음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적응 활동의 내용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적응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제7차 특별 활동의 적응 활동의 활동별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시대·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활동 내용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였으며, 필요한 활동 내용을 추가하였다. 친교 활동의 '위로회'는 현실적으로 단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였으며, 친교 활동의 활동 내용에서 '회'라는 표현이 학습자 중심의 단어로써 적절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회'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축하회'를 '축하'로, '친목회'를 '친목'으로, 상담 활동의 '클럽 선택'을 '동아리'로 수정하였고, 상담 활동의 활동 내용에 '성격'을 추가 설정하였다.

개정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적응 활동의 활동별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IV-3>와 같다.

〈표 Ⅳ-3〉 적응 활동 내용의 신·구 대비 표

영역	내용	활동별 내용 예시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적응 활동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예절, 준법, 질서, 절제, 청결, 정리 정돈, 근검절약 등	예절, 준법, 질서, 절제, 청결, 정리 정돈, 근검절약 등
	친교 활동	축하회, 위로회, 친목회, 사제동행 등	축하, 친목, 사제동행 등
	상담 활동	학습, 건강, 교우, 클럽선택, 여가 활용, 기타 개인적인 문제 등	학습, 건강, 성격, 교우, 동아리, 여가 활용, 기타 개인적인 문제 등
	진로 활동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 인식, 진로 탐색, 진로 설계 등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 인식, 진로 탐색, 진로 설계 등
	정체성 확립 활동	자기 이해, 심성 계발 등	자기 이해, 심성 계발 등
	그 밖의 필요한 활동		

단위 학교는 적응 활동 운영에 있어서 고등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 활동을 효율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등학생은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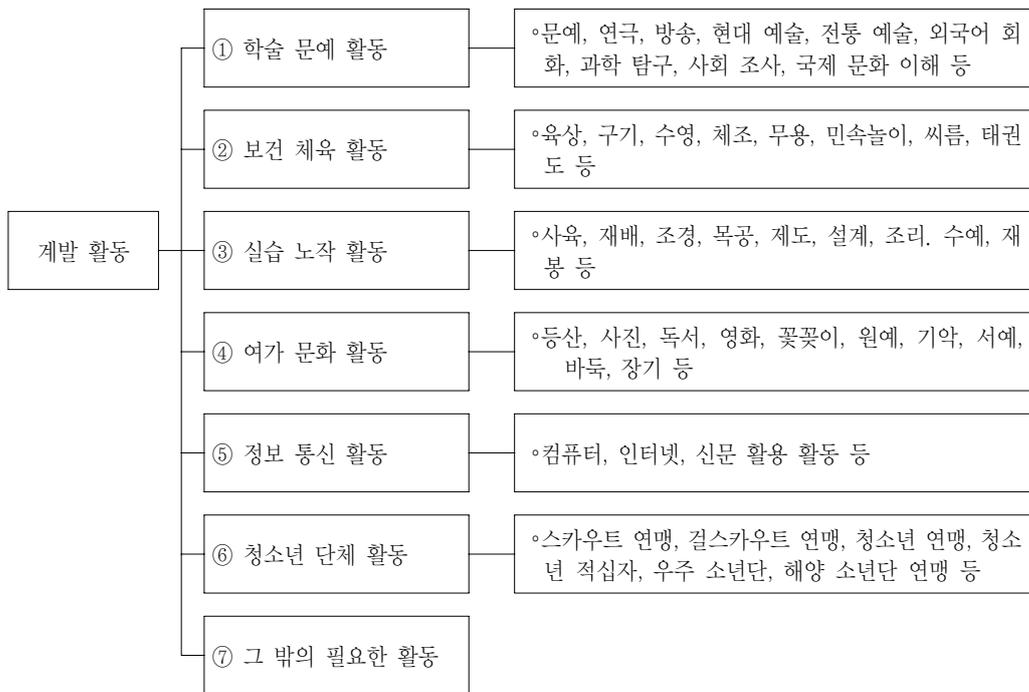
다. 계발 활동

계발 활동은 서로 같은 취미나 특기·적성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고 신장시켜 나가도록 함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는 활동이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계발 활동의 목표는 제7차 특별 활동의 계발 활동의 목표의 기본 취지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표현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계발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흥미, 취미, 적성이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활동 부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즐거움 속에서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 ②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신장하고,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는다.
- ③ 여가를 선용하는 생활 습관을 형성한다.

계발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다음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계발 활동의 내용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계발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제7차 계발 활동의 활동별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시대·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활동 내용은 표현을 수정하였다. 또한 활동별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활동별 내용을 유목화 하였다. 다만, 이러한 유목화는 활동별 내용이 예시임을 고려해 볼 때, 단위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 ‘학술 문예 활동’의 ‘음악’과 ‘미술’은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통합하여 ‘현대 예술’로 수정하였으며,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 ‘정보 통신 활동’의 활동별 내용인 ‘국제 이해 활동’이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제 문화 이해’로 수정되어 학술 문예 활동의 활동별 내용에 포함(위치 이동)되었다. 제7차의 ‘정보 통신 활동’의 ‘신문 활용 학습’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문 활용 활동’으로 표현이 수정되었다. 제7차 청소년 단체 활동의 활동별 내용의 명칭은 비공식적이며,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단위 학교 현장의 지적을 고려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였다.

개정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계발 활동의 활동별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IV-4>¹⁵⁾과 같다.

<표 IV-4> 계발 활동 내용의 신·구 대비 표

영역	내용	활동별 내용 예시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계발 활동	학술 문예 활동	문예, 연극, 방송, 음악, 미술, 전통 예술, 외국어 회화, 과학 탐구, 사회 조사 등	문예, 연극, 방송, 현대 예술, 전통 예술, 외국어 회화, 과학 탐구, 사회 조사, 국제 문화이해 등
	보건 체육 활동	육상, 구기, 수영, 체조, 무용,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등	육상, 구기, 수영, 체조, 무용, 민속놀이, 씨름, 태권도 등
	실습 노작 활동	사육, 재배, 조경, 목공, 제도, 설계, 조리, 수예, 재봉 등	사육, 재배, 조경, 목공, 제도, 설계, 조리, 수예, 재봉 등
	여가 문화 활동	등산, 사진, 독서, 영화, 꽃꽂이, 원예, 기악, 서예, 바둑, 장기 등	등산, 사진, 독서, 영화, 꽃꽂이, 원예, 기악, 서예, 바둑, 장기 등
	정보 통신 활동	컴퓨터 통신, 인터넷, 신문 활용 학습, 국제 이해 활동 등	컴퓨터, 인터넷, 신문 활용 활동 등
	청소년 단체 활동	소년 소녀단, 청소년 연맹, 적십자, 우주정보소년단, 해양 소년단 등	스카우트 연맹, 걸스카우트 연맹, 청소년 연맹, 청소년 적십자, 우주 소년단, 해양 소년단 연맹 등
	그 밖의 필요한 활동		

계발 활동으로 제시된 활동 내용은 초·중·고등학교의 구분 없이 하나로 묶어서 제시한 것이므로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교육의 특성에 알맞게 활동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봉사 활동

봉사 활동이란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다. 자발성, 무보상성, 지속성 등과 같은 특성을 띤 봉사 활동은 아직 미성숙하고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봉사 활동이란 점에서 봉사 활동을 통한 학습의 측면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⁶⁾. 따라서 학생들의 봉사 활동은 그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의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교육적 의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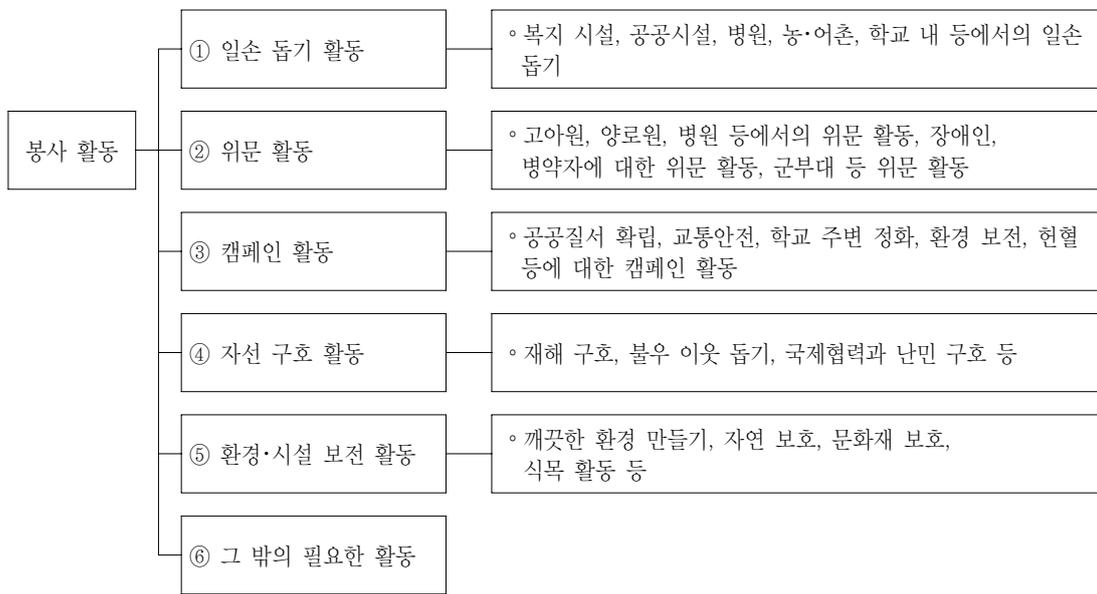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봉사 활동의 목표는 제7차 특별 활동의 봉사 활동의 목표의 기본 취지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봉사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5)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 p. 242의 <표 6>을 그대로 인용함.

16) 교육부(1996),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봉사 활동의 이론과 실제, 장학자료 제113호, 서울:교육부, p. 7 ; 교육부(1999b),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 서울: 교육부, p. 224.

- ① 지역 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분담하고 호혜 정신을 기른다.
- ② 다양한 봉사 활동의 실천으로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가진다.
- ③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

봉사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다음 [그림 IV-4]와 같다.



[그림 IV-4] 봉사 활동의 내용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봉사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제7차 봉사 활동의 활동별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활동별 내용을 표현을 수정하거나 활동별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였다. ‘일손 돕기’, ‘위문 활동’, ‘캠페인 활동’의 활동별 내용의 경우 표현을 현재보다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진술하였으며, 특히 캠페인 활동에서는 ‘헌혈’에 대한 캠페인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환경·시설 보전 활동’에서는 제7차의 활동별 내용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식목 활동’을 추가하였다.

개정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봉사 활동의 활동별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IV-5>¹⁷⁾과 같다.

17)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p. 244의 <표 7>을 그대로 인용함.

〈표 IV-5〉 봉사 활동 내용의 신·구 대비 표

영역	내용	활동별 내용 예시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봉사 활동	일손 돕기 활동	복지 시설 일손 돕기, 공공시설 일손돕기, 병원 일손 돕기, 농·어촌 일손 돕기, 학교 내 일손 돕기 등	복지 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학교 내 등에서의 일손 돕기
	위문 활동	고아원 위문, 양로원 위문, 장애인 위문, 병약자 위문, 부대 위문 등	고아원, 양로원, 병원 등에서의 위문 활동, 장애인, 병약자에 대한 위문 활동, 군부대 등 위문 활동
	캠페인 활동	공공질서 확립 캠페인, 교통안전 캠페인, 학교 주변 정화 캠페인, 환경 보전캠페인 등	공공질서 확립, 교통안전, 학교 주변 정화, 환경 보전, 헌혈 등에 대한 캠페인 활동
	자선 구호 활동	재해 구호, 불우 이웃 돕기, 국제협력과 난민 구호 등	재해 구호, 불우 이웃 돕기, 국제협력과 난민 구호 등
	환경·시설 보전 활동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문화재 보호 등	깨끗한 환경 만들기, 자연 보호, 문화재 보호, 식목 활동 등
	그 밖의 필요한 활동		

학교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봉사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봉사 활동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활동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것이 요구된다. 단위 학교는 봉사 활동을 선정·조직할 경우 고등학생의 수준 및 학년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봉사활동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시된 활동 외의 활동을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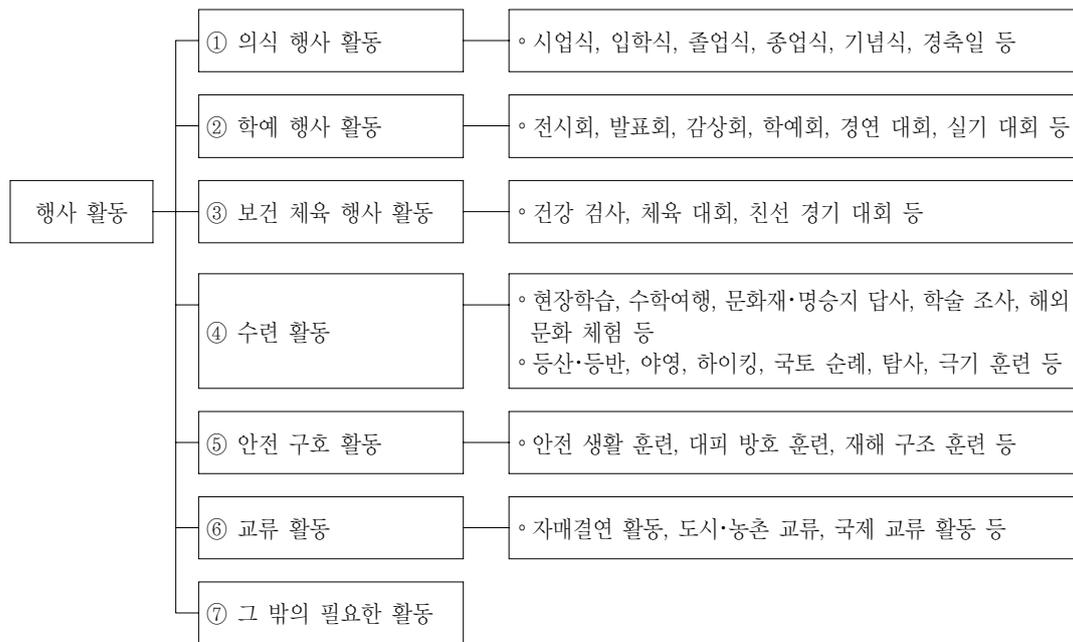
마. 행사 활동

행사 활동은 민주 시민의 자질을 육성하고, 나아가 전인으로서의 인간을 육성하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행사 활동은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교과 활동에서 추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지적·정의적·신체적 발달을 추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행사 활동의 목표는 제7차 특별 활동의 행사 활동의 목표의 기본 취지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일부 표현을 수정하였다. 행사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교내·외에서 실시되는 여러 행사의 의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가진다.
- ② 학예와 체육 등 행사 활동을 통하여 평소의 학습 성과를 창의적으로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협동심과 연대 의식을 높인다.
- ③ 학교 밖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풍부한 감성을 지닌다.
- ④ 각종 수련 활동에 참여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며, 극기의 정신과 진취적 기상을 기른다.
- ⑤ 지역 간, 국제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이해하고 수용한다.

행사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다음 [그림 IV-5]¹⁸⁾와 같다.



[그림 IV-5] 행사 활동의 내용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행사 활동의 활동별 내용은 제7차 특별 활동의 행사 활동의 활동별 내용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운영의 실효성, 시대·사회적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내용의 제시 순서를 변경하고, 부적절한 내용은 삭제하거나, 표현을 수정하였다. 의식 행사 활동의 경우, 단

18)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p. 245의 [그림 6]을 그대로 인용함.

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전개되는 활동의 순서를 고려하여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기념식, 경축일 등의 순으로 제시였으며, 제7차 특별 활동에서의 ‘조회’는 일상적인 학교의 행사인 점을 고려하여 삭제하였다. 보건 체육 행사 활동에서는 제7차의 신체 검사, 건강 진단, 예방 접종 등을 통합하여 포괄적으로 ‘건강 검사’라고 하였다. 이는 ‘건강 검사’라는 활동 내용을 통해 건강에 관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련 활동에서는 보다 학습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소풍’을 ‘현장 학습’으로, ‘해외 여행’을 ‘해외 문화 체험’으로 표현을 수정하였다. ‘안전 구호 활동’에서는 ‘재해 구조 활동’을 ‘재해 구조 훈련’으로 표현을 수정하여 안전 구호 활동에 제시된 활동별 내용의 명칭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개정 교육과정과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행사 활동의 활동별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IV-6>¹⁹⁾과 같다.

<표 IV-6> 행사 활동 내용의 신·구 대비 표

영역	내용	활동별 내용 예시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행사 활동	의식 행사 활동	경축일, 기념일, 조회, 입학식, 졸업식, 시업식, 종업식 등	시업식, 입학식, 졸업식, 종업식, 기념식, 경축일 등
	학예 행사 활동	전시회, 발표회, 감상회, 학예회, 경연 대회, 실기 대회 등	전시회, 발표회, 감상회, 학예회, 경연 대회, 실기 대회 등
	보건 체육 행사 활동	신체검사, 건강 진단, 예방 접종, 체육대회, 친선 경기 대회 등	건강 검사, 체육 대회, 친선 경기 대회 등
	수련 활동	· 소풍, 수학여행, 문화재·명승지 답사, 학술 조사, 해외여행 등 · 등산·등반, 야영, 하이킹, 국토 순례, 탐사 활동, 극기 훈련 등	· 현장학습, 수학여행, 문화재·명승지 답사, 학술 조사, 해외 문화 체험 등 · 등산·등반, 야영, 하이킹, 국토 순례, 탐사, 극기 훈련 등
	안전 구호 활동	안전 생활 훈련, 대피 방호 훈련, 재해 구조 활동 등	안전 생활 훈련, 대피 방호 훈련, 재해 구조 훈련 등
	교류 활동	자매결연 활동, 도시·농촌 교류, 국제교류 활동 등	자매결연 활동, 도시·농촌 교류, 국제 교류 활동 등
	그 밖의 필요한 활동		

19)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p. 246의 <표 8>을 그대로 인용함.

행사 활동의 활동 내용 선정 시에는 그 활동이 고등학교에서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행사 활동의 목표 달성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적인 행사 활동 내용을 선정하여 학생이 인간, 사회, 자연,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행사 활동의 활동 내용별로 교육 실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학교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사 활동은 시간 운영, 집단 편성, 활동 장소, 활동 내용 선정, 지역 사회 자원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는 탄력적인 교육 활동이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학교와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V. 특별 활동의 교수·학습 방법 및 지원

특별 활동은 교과 외 활동으로 단위 학교 및 교사의 재량의 폭이 넓은 융통성 있는 교육 활동이며, 다양하고 건전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성과 소질을 계발·신장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인 태도를 기쁨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설정한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실정, 학교의 여건,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함으로써 창의적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1. 계획과 운영 및 지원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 교수·학습 방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획과 운영 및 지원’, ‘영역별 지도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특별 활동의 계획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배정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년별로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2) 특별 활동 영역 중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은 영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영역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 (3) 특별 활동의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구분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특별 활동 운영 계획은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 (5) 각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시행되는 특별 활동은 관련 법령, 특별 활동의 목표, 학생의 발달 단계 등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 (6)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기준 시간(단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 운영은 통합, 집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 (7) 활동의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과 같은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8) 특별 활동의 각 영역별 활동과 하위 활동은 대체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필요에 따라 학급, 계발 활동 부서, 지역 사회 중심 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 (9)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 활동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 인사와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한다.
- (10)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은 특별 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계발 시설, 설비, 자료,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 보조자 등 자원 인사를 활용하여 학교의 특별 활동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11)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은 특별 활동 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연수 과정의 개설, 연구학교의 운영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의 특별 활동 운영과 개선을 지원한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단위 학교에서의 특별 활동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특별 활동 운영의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표 V-1>과 같이 특별 활동 영역 간 균형 유지 및 중점 이수, 영역 간 통합 이수 등 지침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신설하였다.

<표 V-1> 시간 및 영역 운영 관련 지침의 신·구 대비 표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 활동의 각 영역별 활동 시간을 학교에서 결정하여 배정하되, 영역간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배정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년별로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지침의 수정 및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활동 영역 중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은 영역간의 균형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영역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침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활동의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구분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침 신설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 학교의 재량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시에 학교의 여건에 따라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집중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융통성 있는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수정하고 추가하였다.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은 영역간의 균형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영역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과 ‘특별 활동의 각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구분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을 신설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특별 활동을 편성·운영할 때 각 영역별 운영 시간을 형식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지양하고,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가. 시간 및 영역 운영의 융통성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의 특별 활동 연간 수업 시수는 국민공통기본과정인 10학년은 4단위(68시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인 11학년과 12학년에는 8단위가 배정되었다.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에 제시된 특별 활동의 연간 수업 시간 수는 학년별로 이수하여야 할 연간 최소 기준을 나타낸 것이므로, 단위 학교에서 특별 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배정된 수업 시수를 특별 활동의 성격과 특성에 부합되게 융통성 있게 편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학년과 12학년에 편성된 8단위는 학교의 여건에 따라 학기별, 학년별 집중 이수도 가능하지만,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별 활동 시간 및 영역 운영과 관련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1)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단위) 수는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재량으로 배정하되,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년별로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을 학생의 요구와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게 결정하여 배정하되, 특별 활동 5개 영역이 모두 중요한 활동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편법 운영을 위해 학교의 재량권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생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별, 학년별로 활동 영역 및 내용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요구와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떤 영역에 역점을 두어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 특별 활동 영역 중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은 영역 간의 균형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영역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 활동 영역 중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의 영역 간 균형을 유지하라는 것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서는 각 영역이 모두 고르게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를 경직되게 해석하여 각 영역을 억지로 균등하게 편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영역을 중점적으로 편성할 수 있고'라는 지침을 신설하여 학교의 여건,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따라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학생의 소질과 특기·적성 신장을 위하여 계발 활동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자 할 경우,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에서 계발 활동 영역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기타 활동에는 적은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영역에 특별 활동 시간을 모두 배정하고 기타 활동은 시간을 전혀 배정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이다.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은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봉사 활동과 행사 활동을 특별 활동에 배정된 시간에서 운영할 수도 있지만,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의해 학교의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 일수에서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특별 활동의 영역은 교육과정 편성상의 구분이며, 운영에 있어서는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특별 활동의 각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 활동의 5개 영역은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개 영역 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각 영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기준 시간(단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시간 운영은 통합, 집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특별 활동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 기준 시간 배당보다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별 활동은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교과에 비해 배정된 시간은 많지 않은 편이다. 연간 68시간만으로는 특별 활동을 충실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단위 학교에서는 특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의 시간 배당 기준보다 많은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통합·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은 특별 활동을 어느 특정한 영역이나, 요일, 시간에 고정적, 일률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경직성을 탈피하여 각 학교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특별 활동의 각 영역별 시간을 별도로 더 많이 확보하여 운영하려면, 수업 일수와 관련지어 연간 수업 시간 수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연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7) 활동의 조직 단위, 장소, 시설 등 규모와 여건을 고려하여 정일제,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등과 같은 융통성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 활동 운영은 정일제, 전일제, 집중제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시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2주에 4시간씩 운영하는 격주제, 4주 이상의 시간을 모아 하루에 실시하는 전일제, 해양 활동, 빙상 활동 등 특정한 계절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집중제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특별 활동 운영 방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는 운영

(4) 특별 활동 운영 계획은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특별 활동 운영 계획은 학생들의 흥미와 소질, 지역 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인 활동 주제 선정과 다양한 활동 집단의 편성을 통하여 학생들의 희망과 선택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별 활동의 계획 단계는 물론 운영 과정과 결과 평가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의사를 수렴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특별 활동의 계획 수립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하되, 그 과정이 학생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가능한 한 학생 스스로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계획, 실천하고, 사후 반성과 평가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스스로의 경험을 확대시켜 나가고 협동심과

책임감, 그리고 자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각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시행되는 특별 활동은 관련 법령, 특별 활동의 목표, 학생의 발달 단계 등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 활동의 활동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지도 교사에 의한 고정적, 일률적인 활동 주제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이 계획하여 활동 주제를 선택적으로 선정하거나 학부모나 자원 인사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도 있다, 단, 각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시행되는 특별 활동은 관련 법령, 특별 활동의 목표, 학생의 발달 단계 등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 다양한 집단 편성

(8) 특별 활동의 각 영역별 활동과 하위 활동은 대체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나, 필요에 따라 학급, 계발 활동 부서, 지역 사회 중심 집단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 활동을 위한 집단 구성은 각 영역의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나, 학교의 여건과 활동 내용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할 수 있는 집단 구성 방식을 선택한다.

집단 편성은 이미 편성된 학급을 활동 단위로 편성하거나, 학년을 통합하여 무학년으로 새로운 집단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간의 통합을 통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집단을 편성하거나 몇 개의 학급을 묶어 ‘학급군’으로 편성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편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질과 특기·적성 등을 계발하고자 하는 계발 활동의 경우 주로 소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겠지만, 반드시 소집단으로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학급, 학년, 전교생 단위의 무학년 집단 편성 등 다양하게 집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라.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 활용

(9)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특별 활동 영역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 인사와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한다.

특별 활동의 지도에 있어서는 담임 교사는 물론 학교의 모든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사회의 자원 인사, 경험 있는 학부모, 관련 영역의 전문가를 초빙·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조직과 운영이 필요하다.

특별 활동을 위한 활동 장소로 교실을 포함하여 교내·외의 다양한 시설과 장소가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지역 사회의 여러 장소를 학습의 장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야별로 활용 가능한 자원 인사와 시설, 기관, 자료 등의 실태를 조사·파악해 두어야 한다. 학교에서는 장소 활용을 위한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준비, 시행, 이용 및 유의 사항, 반성 등에 관한 치밀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10)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은 특별 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시설, 설비, 자료, 프로그램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자, 보조자 등 자원 인사를 활용하여 학교의 특별 활동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은 학교에서 특별 활동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사용 가능한 제반 시설, 설비 등을 파악하여 학교가 특별 활동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특별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학생 지도 능력이 있는 자원 인사에 대한 인력풀을 구축·운영하여 학교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마. 운영 자료의 개발·보급과 지원 체제 확립

(11)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은 특별 활동 지도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연수 과정의 개설, 연구 학교의 운영 등을 통하여 각급 학교의 특별 활동 운영과 개선을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 담당자, 특별 활동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학교 지원 계획을 수립·실천한다. 또한 특별 활동 지도를 위한 관련 자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지도 교사들의 자료 개발 업무를 경감시키면서 보다 내실 있는 특별 활동 지도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 활동 지도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특별 활동 영역별 특별 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시·도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연수 과정을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 신장 연수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용 가능한 시설, 우수 강사 인력풀(pool), 교육 자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조사하고, 편람이나 컴퓨터 파일 또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특별 활동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집·제공함으로써 단위 학교의 특별 활동 운영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별 활동과 관련된 연구 시범 학교 운영을 통해 특별 활동의 다양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및 지도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각급 학교의 특별 활동 운영과 개선을 지원한다.

바. 기타 사항

학교의 여건과 지역 실정, 학생의 요구는 다양하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지역 특성과 학교 실정,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 가장 적합한 특별 활동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특별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특별 활동 시간 운영, 지도 교사 확보, 시설 지원, 예산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영역별 하위 활동 내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시 자료로 이해해야 한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하여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한다.

2. 영역별 지도 방법

특별 활동의 영역별 지도 계획은 영역별 교육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의 발달 단계, 지역 사회와 학교의 교육 여건, 특별 활동에 대한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영역별 지도 방법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알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가. 자치 활동

1) 자치 활동의 지도 방법

자치 활동은 학생들이 학급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분담·수행하고, 학생회 활동 등 자치 활동

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치 능력, 토론 능력 및 민주 시민의 자질과 태도를 지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치 활동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1)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하며, 그 활동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지도한다.
- (2) 모든 구성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며 소속감을 가지게 한다.
- (3) 연간 학급 활동 운영 계획은 담임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학교 생활이 즐겁고 의미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4) 학생 전원이 학급 생활에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게 하되, 필요할 경우 역할을 교체하여 다양한 경험을 가지도록 한다.
- (5) 학생회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조직하고, 학급의 역할 분담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 (1) 자치 활동은 학생들이 학급과 학교의 집단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활동이 되도록 해야 하며, 학생들이 스스로 바르게 판단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자치 활동은 운영 단위별로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때 참여 의식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 (3) 학생들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때 학교 생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학급 담임 교사는 학급의 연간 학급 활동 운영 계획을 학생들과 공동으로 협의하여 수립하고, 그 학급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자치 활동이 되도록 지도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 자체가 즐겁고 의미 있도록 한다.
- (4)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급 구성원이 학급 생활에 필요한 한 가지 이상의 일을 분담하여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1인 1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일정한 기간으로 역할을 서로 교체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 다른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5) 학생회는 자치 활동의 대표적인 교육 활동 조직으로, 학생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교의 규정에 따라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한다. 학생회 구성과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은 학생회를 자신들의 자치 조직으로 인식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한 학생회 활동은 학급 자치 활동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

2) 자치 활동의 실제

자치 활동은 학생 주도의 활동이어야 한다. 자치 활동에는 학급의 협의 활동, 학급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분담하는 활동, 민주 시민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자치 활동은 특정한 영역이나 유형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학교, 학급의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다. 이들 활동의 구체적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협의 활동

협의 활동이란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정보들을 취사·선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협의하고 도출하는 과정이며 민주 시민이 가져야 할 주인 의식과 참여 정신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 협의 활동은 학급 중심의 협의 활동과 학생회 중심의 협의 활동으로 구분된다.

(1) 학급 중심 협의 활동

학급 협의 활동은 대체로 정규 수업 시간표에 포함시키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과제에 따라 학급 조·종례 시간,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자치 활동의 핵심인 학급 협의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시간을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 별, 학급별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제기되는 현안 문제들을 의제에 회부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교내 체육 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선수 선발, 응원 연습, 훈련 일정 등의 현안 문제들을 학생들의 자율적인 협의하에 창의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되, 협의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틈없는 회의 준비와 올바른 순서에 따른 회의 진행이 필요하다.

학급 협의 활동이 민주 사회를 살아가는 연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즉, 건전한 민주 사회 시민의 자질 향상, 리더십 훈련 등 회의 문화와 토론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는 습득의 장이 되어야 한다.

회의 준비와 진행 모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⁰⁾

20)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7), 초·중학교 특별·재량 활동 교육과정 해설 연구 개발, p182

〈표 V-2〉 회의 준비와 회의 진행 과정

회의 준비	회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준비 상황 점검 - 교실 정리·정돈 - 의사봉, 회의록, 필기 도구 준비 - 회의 순서 준비 - 회의 시간 확보 - 의제 선정 - 의제 예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진행 순서 - 개회 선언 - 국민 의례 - 의장 인사 - 전 회의록 낭독, 승인 - 회의 사무 보고 - 의안보고 및 채택 - 의안 상정 - 안건 심의 및 처리 - 건의 사항 - 폐회

(2) 학생회 중심 협의 활동

학생회 활동은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를 발표하고, 다른 학생들과의 토의를 통하여 학교의 현안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집단 활동에 협력하는 자세, 공동의 사고에 의한 결정 등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형성해 주는 장이 될 수 있다.

학생회 활동은 활동의 내용, 시기, 방법과 업무 분담 등을 결정하는 협의 활동과, 협의 활동을 통해 결정된 사업에 대한 세부 실천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기는 위원 활동으로 구분된다. 협의 활동과 위원 활동은 별개의 활동이 아니라, 협의 활동의 결과를 위원 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위원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협의 활동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상호 연관되는 활동이다.

이러한 학생회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회의 조직을 학교 실정에 알맞게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따라서 하나의 고정된 틀에 구애됨이 없이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조직 체제를 연구하여 조직·운영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 부서 조직 및 업무를 제시해 보면 〈표 V-3〉²¹⁾과 같다.

21)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p. 260의 〈표 16〉을 그대로 인용함.

〈표 V-3〉 학생회 부서 조직 및 업무(예시)

부서 조직	업 무
회장·부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치 활동 규정에 의하여 전교생의 직접 선거, 또는 대의원회에서 간접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 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고 학생회 업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대의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회는 각 학급 또는 교육 활동 집단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기본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학생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생회의 대외 활동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운영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의 집행 기구로서 학생회장, 부회장 및 활동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기본 운영 계획 수립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사항 · 대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의 긴급 사항
지도 자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활동의 기본적 성격이 자발적, 자치적인 실천 활동이지만 학생회 활동이 건전하고 교육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교사의 적절한 지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지도 위원회는 전체 교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교사를 지정하여 전담하도록 할 수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회칙의 제·개정 에 관한 지도 · 대의원회 및 운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도 · 학생 회비의 예산, 집행,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지도 · 학생회장의 요청에 의한 자문

나) 역할 분담 활동

역할 분담 활동은 학급이나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활동으로서, 모든 구성원이 한 가지 이상씩 역할을 분담하여 실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역할을 교체하여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

역할 분담 활동에는 1인 1역 활동, 학급 부서 활동, 운영 위원 활동 등이 있다.

(1) 1인 1역 활동

학급에 필요한 활동을 조사하여 학급 내의 모든 학생이 한 가지씩 역할을 맡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학생 스스로 학급의 구성원이라는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동시에 학급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역할 분담 활동은 학급의 필요한 일을 세분화하여 학생의 능력에 맞게 역할을 분담한다. 이 경우 특정한 학생에게 역할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게 분담되는 경우가 없이, 개개인의 능력에 적합하게 모든 학생에게 고르게 분담되도록 해야 한다.

역할의 성격에 따라 한 가지 역할을 2~3명이 공동으로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주변 활동처럼 주 단위, 월 단위로 역할 담당자를 교대하는 방법도 있다.

(2) 학급 부서 활동

학급 내 역할 분담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역시 학급 부서 활동일 것이다.

부서의 종류와 역할은 지역적인 여건, 학교 규모 및 시설, 학년 수준, 학급 학생 수 등에 따라 학교 혹은 담임 교사가 적절히 선정·운영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보다 적극적인 학급 부서 활동의 유도를 위해서는 학급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학급 담임 교사는 학급 부서 활동을 위해 학년 초에 학급 구성원과의 협의를 통해 그 실시 여부와 실시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고, 가능한 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다

(3) 운영 위원 활동

학생회에는 대체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전체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원회와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운영 위원회가 있다. 운영 위원 활동이란, 학생회의 운영 위원으로서 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활동은 학생회에서 조직한 부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학생회의 부서 조직은 학교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표적인 부서와 그 활동 내용을 예시하면 <표 V-4>²²⁾과 같다.

22)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p. 263의 <표 17>을 그대로 인용함.

〈표 V-4〉 부서별 활동(예시)

부서	활 동
총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 전체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 각 부서의 활동을 총괄하며, 관할 부서가 불명확한 업무를 추진한다. ◦ 각 부서의 활동과 이견을 조정하고, 부서 간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한다. ◦ 각 부서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선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자율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생활의 기풍이 조성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한다. ◦ 선·후배 간, 동급생 간 우의를 드높여 명랑한 교풍을 조성한다. ◦ 교칙 준수, 질서 생활 등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민주 시민 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선도한다.
학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학력 증진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한다. ◦ 교내·외 축제 및 학예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한다. ◦ 학예 관련 계발 활동반을 지원한다.
봉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봉사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봉사 활동 관련 계발 활동반을 지원한다.
미화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환경 구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 청결한 학교 환경 구성과 관련된 업무를 계획하고 실천한다. ◦ 게시물, 전시물 등의 게시 교육과, 화분·화단 관리 등 학생들의 정서 순화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한다.
체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 각종 체육 관련 행사를 주관하거나 보조하여 추진한다. ◦ 각종 안전 사고에 관련된 예방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 체육 관련 계발 활동반을 지원한다.

다) 민주 시민 활동

민주 시민 활동은 학생들이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민주적 자질을 함양하는 데 교육적 의의를 두는 활동으로서, 민주 시민 활동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진행이 미숙하다고 하여 교사가 주도하거나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고, 학생 스스로 결정하고 학생들이 민주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치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예시 활동으로, 민주적 회의 진행 방법과 민주적 의사 결정 방법을 훈련할 수 있는 모의 의회 개최, 여러 가지 다른 의견과 상이한 가치관을 서로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훈련할 수 있는 토론 회나 대화의 광장과 같은 활동 등이 있다.

토론회나 모의 의회는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 나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지도한다. 토론 주제의 선정이나 진행에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 있는 사항을 존중하고, 결정 사항은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대화의 광장은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혹은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인사를 초빙하여 비교적 자유로운 형태로 강연, 질의 응답, 토론 등을 섞어서 진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이 때 초빙 인사의 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초빙 인사와 주제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형태의 대화 방법을 찾아 운영해야 한다.

나. 적응 활동

1) 적응 활동의 지도 방법

적응 활동의 목표는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신장하여,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다. 적응 활동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적응 활동의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교과 활동과의 유기적인 관련 속에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2)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은 특히 학교와 가정과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지도한다.
- (3)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각종 기초 자료를 정비하여 활용하고, 개인적인 문제는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 (4) 상담 활동은 담임 교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상담 교사나 전문적 소양을 가진 학부모 또는 지역 인사의 협조를 받는다.

적응 활동은 집단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자기 발견과 성장에 중점을 두어야 하므로 교과 활동과 생활 지도뿐만 아니라, 특별 활동의 다른 영역과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또한 학교와 가정이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1)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은 특정한 시간이나 교과, 교사만이 지도하는 것이 아니다. 교과 활동 속에서 기본 생활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모든 교사는 수업 태도, 수업 준비, 학생들의 행동 방식 등을 지도하여 학생들이 교과 활동 속에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 (2) 학교에서 지도한 기본 생활 습관이 가정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통해 지도해야 한다.
- (3) 학생 개개인에 대한 각종 자료는 교사들이 학생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들의 학교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 자료이다. 학교 업무 부서별, 교사별로 다양하게 수집·활용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효과적으로 학생 지도에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개인적인 문제는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하여 효과를 높이고, 지속적·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4) 상담 활동은 학생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담임 교사가 수행할 때 교사와 학생 간의 공감대와 신뢰감이 형성되어 학생 상담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생 상담은 학급 담임 교사가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상담의 내용, 학생 문제의 심각성, 시급성 등에 따라 상담 교사나 전문적 소양을 가진 학부모 또는 지역 인사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 학교 상담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 상담 기관에 의뢰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적응 활동의 실제

가)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은 학생이 학교 생활을 통해 실천해야 할 기본적인 생활 습관과 민주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예절, 준법 정신, 질서 지키기, 절제 생활, 청결 생활, 정리·정돈, 근검·절약 등 기본적인 여러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활동의 성격상 교사 주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학생들의 협의 활동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학급의 내규를 만들고, 역할 분담 활동, 민주 시민 활동 등과 연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 때, 우선적으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의 필요성이나 이유 등은 충분히 이해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나) 친교 활동

학급 단위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그 내용이나 형식의 다양성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친교 활동으로서,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학급 나름대로의 방식과 내용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활동 영역이다. 대표적인 활동 유형을 예로 들면 축하, 친목, 레크리에이션 및 학급 학예 행사

등을 들 수 있다.

다) 상담 활동

상담은 자기 정체감 확립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현명한 행동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건전한 세계관, 인생관을 확립하고, 진학과 취업 등의 장래 계획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 지도에 힘써야 한다.

상담 활동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전문적인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담 과정에 따라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생의 사생활이 침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엇보다 편안하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 조성 및 레포 형성이 필요하며, 상담자는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도우미의 입장에서 열린 마음과 따뜻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상담 활동은 상담 주체에 따라 전문 상담가에 의한 상담, 학교내 상담 교사에 의한 상담, 동료 학생에 의한 상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담 인원 수에 따라 개인별 상담, 집단 상담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담은 목표와 피상담자의 요구에 맞는 알맞은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상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라) 진로 활동

진로 지도란 학생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여,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학교 교육의 핵심적인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 탐색의 단계이고,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진로 준비 단계라 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이 자신의 적성 및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학 또는 직업에 필요한 정보를 넓게 수집·분석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 및 진로를 선정하여 이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교에서의 진로 교육은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 활동에서는 교과 내용과 연계하여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회의 시간, 조화·종례 시간, 교과 수업 전후, 방과 후, 방학 기간 등 언제 어디서든지 교사와 학생간, 또는 학생 상호간의 폭넓은 정보 교환 및 격의 없는 토의 및 상담이 이루어져 의미 있는 진로 활동이 되도록 한다.

마) 정체성 확립 활동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자아 정체성이 형성되어 가는 데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신체적 요인, 부모를 비롯한 주변 인물, 또래 집단들이 중요한 변인이 된다.

학교에서는 청소년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구성원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게 함으로써 자아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과정에는 자기 이해, 심성 계발 활동을 예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명상, 자서전 쓰기, 자연과의 대화, 심성 수련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본 해설서와 교사용 지도서를 참조하여 보다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여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 계발 활동

1) 계발 활동의 지도 방법

계발 활동의 목표는 학생들이 계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질서를 배우고, 협동심을 기르며,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계발·신장함으로써 자아 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있다. 계발 활동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계발 활동의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의 흥미, 취미, 요구, 적성, 학교 실정 및 지역 특성 등에 알맞은 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모든 학생에게 자세히 안내한다.
- (2) 교사는 활동 부서의 조직에 있어서 학생의 희망을 존중하고, 상담 활동을 통해 부서 선택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 (3) 교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학생 중심의 흥미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 저학년은 취미 활동 중심으로 운영한다.
- (4) 학생의 개성과 소질을 최대한 신장하기 위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상설반과 연계하여 지속적·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5)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시설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외부 전문가, 강사 등의 초빙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계발 활동은 특별 활동 중에서 학생의 특기·적성 또는 소질을 계발하고 신장시킴으로써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자아 실현의 기초를 닦게 하려는 의도로 설정된 영역으로서 소집단뿐만

아니라 학급, 학년, 학교 단위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 (1) 계발 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생의 흥미, 취미, 요구, 적성, 학교 실정 및 지역 특성 등에 알맞은 다양한 활동 부서를 조직하고 모든 학생에게 자세히 안내해야 한다.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관심에 따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효과가 달리 나타날 것이다. 학교에서는 해당 학교에 가장 적합한 활동 내용을 선정하고 이를 모든 학생들에게 자세히 안내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과 적성에 맞는 부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2) 계발 활동 부서 조직 과정에서는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고 희망을 존중해야 한다. 계발 활동의 목표는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는 데 있다.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의 활동을 강제로 이수하게 하면 그 교육적 효과는 반감될 것이므로 부서 조직 과정에서부터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신의 활동 부서를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의 활동 내용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안내한다.
- (3) 계발 활동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면 학생의 자주적 능력 계발은 어려워진다. 지도 교사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계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데 주안점을 두며, 실제 활동은 학생 중심의 흥미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4) 학생의 개성이나 소질을 계발하기 위한 계발 활동 시간은 방과 후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하거나 상설반으로 운영하여 부서 활동 프로그램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설반 운영을 통해 학생 스스로 리더십 및 협동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학생들로 구성된 부서원 간의 지속적인 유대감을 형성하여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발할 기회를 제공한다.
- (5)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기 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 지역 사회의 시설과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역 사회의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학부모 및 지역 인사를 명예 교사로 초빙 활용하고, 지역 사회 시설이나 자연 환경을 적극 찾아 운영한다. 지역 사회 시설이나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재료비나 시설 사용료 등은 수익자가 부담할 수 있다.

2) 계발 활동의 실제

가) 계발 활동 운영의 기본 방침

계발 활동을 위한 기본 계획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내·외의 제반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되,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운영 방침을 고려해야 한다.

- 계발 활동에 할애할 수 있는 주당 시수
- 학교가 역점을 두고 운영할 활동 영역 -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또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방향 반영
- 한 학생이 가입할 수 있는 부서 수
- 인적 자원 활용 및 외부 기관 위탁 운영 여부
-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문제
- 부서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이 나올 경우의 대응책
- 안전 문제에 대한 대비책 등

나) 계발 활동의 운영 중점

계발 활동이 교과 활동이나 특별 활동의 다른 영역에 비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이 있으나, 급속히 변화해 가는 현대 사회에 필요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계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계발 활동 운영의 중점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발 활동 편성·운영은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계발 활동반의 편성은 학년별, 학교별로만 편성할 것이 아니라, 인근 학교와 합동으로 편성할 수도 있다. 인근의 중학교, 일반계·전문계 고등학교와 공동으로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여 학교가 가지는 제한점을 극복하고, 각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여야 한다. 활동 면에서도 매주 1시간씩 정시제로만 운영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격주제, 전일제, 집중제, 또는 이들의 혼합형을 선택하여 계발 활동이 추구하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융통성 있게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발활동의 운영은 학생의 자율성을 최대한 신장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학생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며 반성·평가하는 등 일련의 교육 활동을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율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이 점은 계발 활동의 결과를 모아 전시회, 발표회 등을 개최하고자 할 때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계발활동의 운영은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양한 개성, 흥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집단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여유 있는 정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계발활동의 운영은 교과 활동의 보완적인 활동으로 교과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재량 활동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이들 각각의 활동이 조화를 이루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다) 계발 활동반 편성의 절차

계발 활동은 학생의 흥미, 취미, 요구, 적성, 학교의 실정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알맞게 편성하고, 교사의 지도력을 감안하여 운영하여야 하므로 계발 활동반의 편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기초 조사

기초 조사 단계에서는 전 학년도의 계발 활동 운영을 평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전 학년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계발 활동 계획과 운영 과정, 담당 지도 교사의 자체 평가,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평가 결과 우수한 계발 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활동 성과가 미진한 활동은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계발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교 교육 과정 평가에 반영하여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 근거 자료로 삼는다.

학생 희망 조사와 교사 희망 및 지도 가능 조사는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하는 것이 학교 운영에 효과적이다. 학생의 희망과 교사의 지도 능력 등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특별 활동 담당 부서에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특별 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계발 활동과 관련된 각종 조사를 하는 방법은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한다.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조사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고, 설문지를 통한 조사는 가장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이다.

(2) 예상 계발 활동반 선정

학교에서 실시 가능한 계발 활동반은 학생 기초 조사와 교사 희망 조사를 바탕으로 편성하되,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계발 활동반과 학생·학부모·교사·지역 사회의 신규 개설 희망 받은 물론, 학교의 전통, 설립 이념, 학교장의 학교 경영관, 학교의 시설 여건, 지역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특정 분야로 계발 활동이 편중되지 않도록 학술 문예, 보건 체육, 여가 문화, 정보 통신, 청소년 단체 활동 등 다양하게 편성·운영한다.

(3) 계발 활동반 안내

계발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이 활동하고자 하는 반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계발 활동 과정에서 반을 변경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활동반 안내를 충실히 한다. 안내에 포함될 내용에는 각 계발 활동반의 특성, 기초 소양 정도, 정신적·신체적인 제한점, 적정 인원, 실시 장소, 준비물, 소요 경비,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개인별 희망 조사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 취미, 적성에 적합한 활동으로 희망하는 활동을 조사한다. 희망 조사는 사전에 안내한 계발 활동반 자료를 참고로 교사, 학부모, 동문 선·후배 등과 충분히 협의한 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학생이 희망하는 부서로 활동반을 배정하되, 학생의 희망을 전부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의 여건에 따라 활동 영역별로 신청하게 한 뒤 이를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

학교에서 개설 가능한 활동과 학생이 희망하는 활동의 종류, 반의 수, 인원을 고려하여 최대한 희망이 존중될 수 있는 방법으로 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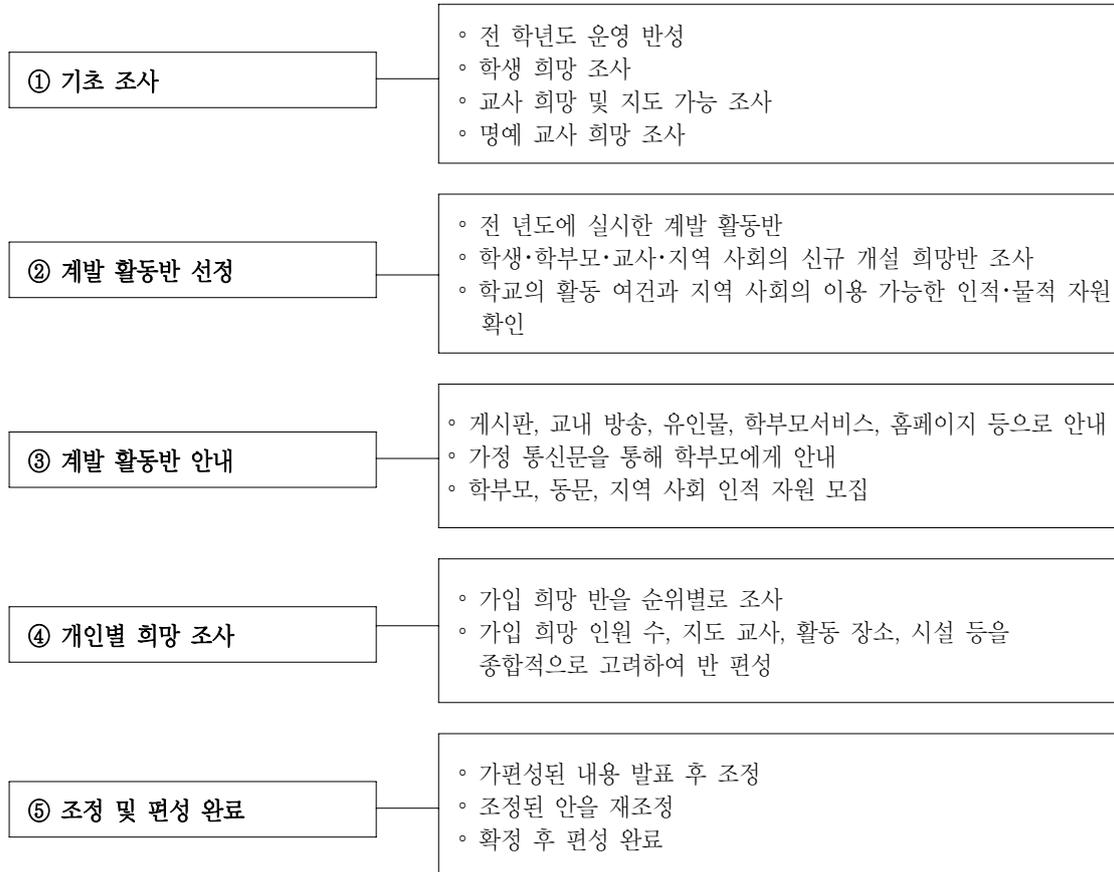
(5) 조정 및 편성 완료

학생들의 계발 활동반 배정안을 발표하여 학생들이 활동 반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반영하여 활동반을 재조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참여도, 만족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희망 학생 수와 지도 가능 학생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활동반별 우선 순위를 정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발표하여 활동반 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정의 과정을 2~3회 거친 후에 활동 내용과 인원이 확정되면 해당 반별로 참여 학생을 확정하고 계발 활동 집단을 이끌어 갈 반 편성을 완료한다.

지금까지의 계발 활동 편성 절차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V-5〉 계발 활동반 편성의 절차²³⁾



라. 봉사 활동

1) 봉사 활동의 지도 방법

봉사 활동의 목표는 봉사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삶의 보람과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 있다. 봉사 활동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봉사 활동의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23)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 p. 272의 [그림 8]을 그대로 인용함.

- (1) 봉사 활동의 내용은 학교나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선정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 (2) 효율적이며 진정한 봉사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을 실시하며,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한다.
- (3) 봉사 활동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인식시키고 미래 생활과도 연계되도록 지도한다.
- (4) 활동의 전 과정이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활동의 계획과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차후의 활동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 (5) 지역 사회 유관 기관 및 봉사 단체와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1) 봉사 활동의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학교나 지역 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 재량으로 선정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이 행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의 내용이나 장소를 선정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급별, 학년별 봉사 활동을 행할 수 있다. 학생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은 학생들이 방과 후, 주말, 방학 중에 봉사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2) 봉사 활동은 형식적인 활동이 아니라 봉사 활동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 기관에 필요한 활동을 파악하고, 활동 계획을 세워 학생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전 교육은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봉사 대상 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걸음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3) 봉사 활동은 의무감에 의한 강제적인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이고, 보수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베푸는 활동이며, 타인이나 사회를 위한 활동이다. 학생들이 이와 같은 봉사 활동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일상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4) 봉사 활동의 전 과정이 교육적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봉사 활동의 계획과 실제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차후 봉사 활동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 (5) 봉사 활동의 계획과 과정에 대한 평가는 봉사 활동의 영역, 장소, 시간 및 사전 교육 실시 등에 대한 평가이고,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통해 어떠한 교육적 의미를 찾았는지, 봉사 대상 기관에 도움이 되었는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학생이나 학부모, 교직원이 공유하여 차후 봉사 활동을 내실화하는 데 반영한다.

- (6) 효율적인 봉사 활동 운영을 위해 지역 사회 유관 기관 및 봉사 단체와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 또는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필요한 봉사 활동 장소와 내용을 파악하고, 활동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문하고 지도를 받아 상호 연계하여 봉사 활동을 실시한다.

2) 봉사 활동의 실제

가) 봉사 활동의 운영 단계

봉사 활동은 봉사 대상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 봉사 활동 대상 기관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협의하여, 필요로 하고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봉사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교육 및 역할 분담을 통해 봉사 활동을 실천하며, 봉사 활동 실시 후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을 함으로써 차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봉사 활동의 운영 단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V-6〉 봉사 활동의 운영 단계²⁴⁾

단계	진행 과정	주요 내용
준비 단계	봉사 활동 목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 활동 대상 조사 ◦ 봉사 활동 내용 선정 ◦ 봉사 대상 기관 협조 요청
	봉사 활동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설정 ◦ 활동 계획 및 평가 계획 수립
	사전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봉사 활동 전 지도 교사 연수 ◦ 봉사 활동 전 학생 교육 실시
실행 단계	현장 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상황 설명 ◦ 활동상의 유의점
	봉사 활동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 분담 ◦ 실천 활동
	봉사 활동 지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지도 감독 ◦ 유사시의 대책 마련
평가 및 반성 단계	봉사 활동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내용 기록 ◦ 소감문 작성
	반성 및 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내용 결과에 대한 반성 및 소감문 발표 ◦ 상호 평가 및 토론
	인정과 격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결과에 대한 인정과 격려

24)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p. 274의 〈표 20〉을 그대로 인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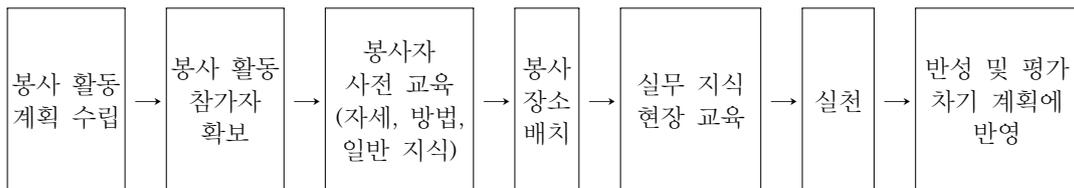
나) 봉사 활동의 추진

봉사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활동과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 활동은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계획하고 운영되는 활동으로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시간 또는 별도의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 활동은 주로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 즉, 학생 개개인이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활동을 뜻하고, 학교에서 교육과정 이외에 방과 후 또는 방학 중에 학교 계획으로 봉사 활동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봉사 활동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1)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 활동

학교의 연간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봉사 활동으로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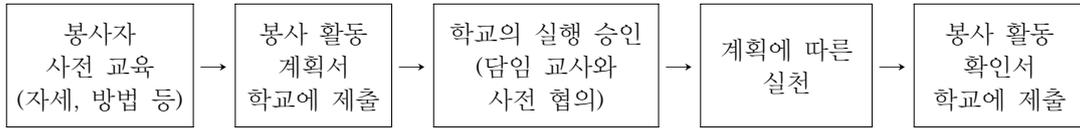
지도에 있어서 다소 타율적으로 흐르거나, 단순히 점수를 따려는 형식적인 활동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교사의 타율적인 지도보다는 학생의 자율적인 계획과 실행을 존중하며, 사전 지도와 사후 반성 및 평가에 역점을 두어 봉사 활동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활동의 단위는 개인별 활동과 모둠별, 부서별, 학급별 등 집단별로도 다양하게 활동하도록 권장하여 봉사 활동 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2)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 활동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에는 학생 개인의 계획에 따라 학생 개인, 자발적으로 형성된 학생 집단, 또는 가족 단위의 봉사 활동 등이 포함된다.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일지라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안내·지원해야 하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 계획에 의한 활동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미숙함을 고려하여 학부모나 다른 성인이 동참하는 것을 권장하며, 학교 홈페이지나 학부모 연수 및 가정 통신문을 통하여 학생의 봉사 활동을 돕는 방법과 필요성을 자세히 안내하는 것이 좋다.

학생 및 학부모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 봉사 활동을 운영할 수도 있다.

라. 행사 활동

1) 행사 활동의 지도 방법

행사 활동의 목표는 각종 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갖는 데 있다. 행사 활동에서 추구하는 교육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사 활동의 지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행사 활동의 계획 수립, 준비, 시행, 반성 등에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고,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자치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2)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사명, 목적, 시기, 장소, 대상, 행사 과정, 역할 분담, 유의점, 배치도, 상황 변동 시의 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사전 답사 및 사전 교육을 실시한다.
- (3) 교류 활동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문화적인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사전에 지도한다.
- (4) 학교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항상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되, 지역 사회의 요청에 의한 학교 행사에 대해서는 그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5)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돌발적 사태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밀히 배려하며, 필요한 경우 사전에 참가하는 학생의 건강 진단이나 상담을 실시하여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행사 활동은 행사 활동별로 계획 수립 시 행사명, 행사의 목적, 시기, 장소, 대상, 행사 과정, 역할 분담, 유의 사항, 행사 배치도, 상황 변동 시의 대책 등을 고려하고, 가급적 학생 스스로 계획

을 수립하여 준비, 시행, 반성 등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1) 행사 활동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사 활동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준비를 하며, 시행하고 평가하는 각 단계에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학생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적절한 역할을 분담하고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맞게 참여하도록 한다.
- (2) 행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사명, 목적, 시기, 장소, 대상, 행사 과정, 역할 분담, 유의점, 배치도, 상황 변동 시의 대책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학급, 학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수련 활동, 수학 여행 등은 사전에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으면 교육적 효과가 반감되기도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답사를 통해 행사를 위한 사전 조치를 강구하고, 학생들에게는 사전 교육을 통해 행사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3) 교류 활동은 서로 다른 지역과 환경에 처해 있는 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와 농촌의 차이, 살고 있는 주거에 따른 생활 방식의 차이 등 학생들이 접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 문화는 서로 다르다. 교류 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문화적인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해야 한다.
- (4) 학교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항상 지역 사회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 사회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 축제, 지역 시설이나 인적 자원을 활용한 학교 예술 활동 등 학교와 지역 사회가 연계하여 학교 행사를 추진할 때 지역 사회에서 학교의 위상이 강화되고 지역 사회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사회에서 요청하는 학교 행사의 경우 학생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학생과 함께 하는 행사의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5) 교내·외 행사 활동에서는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행사 계획 단계에서 안전 교육 실시 방안을 수립하고, 행사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 사고 유형을 분석하여 이를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한다. 또한 각종 행사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학생의 건강에 맞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행사 활동의 실제

행사 활동은 교과 활동 및 특별 활동의 다른 영역에 속하지 않는 학교 내·외의 모든 행사를 총칭하는 것으로, 대체로 다른 활동보다 큰 집단 활동이며, 전교생이 참여하여 실천하는 경우가 많

다. 이와 같은 행사 활동의 성격상 교사들이 주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가능성이 많다. 그 결과 학생의 자주성, 자율성이 결여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행사 활동의 계획 수립·준비·시행·반성 등에 있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자치적인 활동이 되도록 한다.

행사 활동을 계획 운영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 V-7〉 행사 활동의 운영 단계

운영 단계		활동 내용	지도 요소
사전 준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를 통한 교육의 목표 설정 행사명 행사 기간, 소요 시간 행사 장소 행사 대상, 참가 범위, 인원 수 준비물, 시설 사전 협의, 지도 교사, 프로그램 협조 사항 소요 예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의 의의 행사의 목표 행사의 내용 운영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 과정 역할 분담 기대하는 교육 효과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프로그램 작성 초청장, 안내장 발송 행사장 준비(안내원 배치, 좌석 배치, 정리 정돈) 행사 진행시 지휘 계통, 도우미 조직 우천 시, 기타 문제 발생 시 대비책 마련 사전 연습, 미비점 보완 	
행사 활동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영 계획에 따른 행사 진행 적극적인 참여와 질서 지키기 협업과 분업 : 역할 분담, 협동 실천 문제 발생 시 대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질서, 책임 의식 고취 자발적인 참여 의식 협동·봉사 정신 공동체 의식, 소속감
사후 지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후 지도 프로그램 작성 소감문 쓰기, 평가회 자기 표현 기회 제공 목표 달성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치 의식의 내면화 상호 인간 관계의 변화 반성, 평가, 개선

행사의 목표에 따라 행사 기간, 소요 시간, 장소, 참가 대상 및 범위, 예산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행사 준비 단계에서는 행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초청장이나 안내장을 발송한다. 행사를 위한 안내원 배치, 좌석 배치, 정리 정돈 등 행사장 준비를 하고, 행사 진행 시 지휘 계통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둔다.

행사 진행 과정에서는 운영 계획에 따라 행사를 진행하고,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행사 완료 후에는 사후 지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도록 한다. 소감문 쓰기, 평가회, 행사에 대한 자기 표현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행사 참여자들이 행사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평가 및 반성을 통해 이를 다음 행사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의식 행사 활동

의식 행사는 학교가 주관하는 것과 지역 사회가 주관하는 것이 있으며, 국가·사회적 행사와 학교 내의 일상적인 행사, 주기적·비주기적 행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에서 거행되는 행사로서 우리나라의 경축일인 국경일과 각종 기념식, 입학식, 졸업식, 시업식, 종업식 등의 집회 활동 및 결연, 결단식 등이 있다.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학생의 학교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의식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행사 계획·진행에 있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학생들에게 역할을 부여하여 행사의 교육적 의의가 고양될 수 있도록 한다.

학기 초 신입생과 재학생이 처음 만나는 행사는 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행사를 하기 전에 행사의 필요성, 의의 등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이 진지하게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애교심 증진, 선후배 간 유대 강화 등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나) 학예 행사 활동

학예 행사는 교과 활동 혹은 계발 활동 등에서 얻은 지식과 기능을 종합적으로 심화·발전시킨 미적 표현 활동으로서,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종합 예술제), 합창 대회, 백일장과 같은 경연 대회, 실기 대회 등이 있다. 이들 행사는 학생 교육 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교육 활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취미와 특기를 확인하며 동시에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행사 활동 전 과정에서 특별 활동의 특성인 협동심, 사회성 등 바람직한 인간 관계 형성의 계기가 되는 등 교육적 의의가 매우 큰 활동이다.

학예 행사 활동은 그 종류나 내용이 매우 다양한데, 학예 행사 준비 과정에서 평가까지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학교와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 보건·체육 행사 활동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 태도와 습관, 그리고 강인한 체력을 기르게 한다는 것은 전인 교육의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따라서 보건·체육 행사는 체육 학습의 연장일 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 필요한 보건 위생과 체육의 중요성을 종합적·포괄적으로 지도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체육 행사 활동의 내용은 보건 활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건강 검사, 예방 접종 등과, 체력 단련과 인간 관계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체육 대회, 친선 경기 대회 등을 예로 들 수 있으며, 그밖에 약물 오·남용 지도와 음주·흡연 유해성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사제 동행 산행, 건강 달리기 행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성취감, 기본 질서 의식, 봉사 정신 등을 종합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수련 활동

수련 활동은 학교 밖의 자연과 문화에 직접 접촉하고, 동료 학생들과 어려운 일에 직접 부딪혀 보면서 견문과 함께 풍부한 감성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을 기르는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학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수련 활동의 내용은 다양하다. 현장 학습, 수학 여행, 수련 활동 등은 전통적으로 많이 해 왔던 활동이며, 그 외에 다양한 형태의 야영, 등산·등반, 하이킹, 국토 순례 등을 계획해 볼 수 있다. 또, 문화재·명승지 답사, 학술 조사, 견학, 채집 활동, 탐사 활동 등 학예 활동과 관련 있는 내용도 있으며, 교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국토 순례나 해외 문화 체험 등이 있다.

수련 활동을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사전 답사를 통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학생의 안전이나 프로그램의 교육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해야 한다.

마) 안전 구호 활동

안전 구호 활동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 활동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기본 정신을 인식하고, 안전한 생활에 대한 지식과 안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그 의의와 목적이 있다. 학교에서의 안전 교육은 안전 관리와 안전 지도가 있다. 안전 관리는 일상 생활을 안전하게 정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고, 안전 지도는 사고와 재해를 극복하고 안전하게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육성하는 교육 활동이다.

안전 교육에 포함되는 내용은 학생의 생활 속에서 안전을 의식하고 주의하도록 지도하는 안전 생활 훈련, 전쟁이나 화재, 수재 등 각종 재해 발생 시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동료들을 보호하는 대피 방호 훈련, 재해를 당한 사람을 구조하고 도와주는 재해 구호 활동 등이 있다.

바) 교류 활동

교류 활동은 폭넓은 시야와 진취적 기상을 기르고자 지역 사회를 넘어 타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와 문화를 익히고, 여러 가지 인적·물적 교류를 추구하는 활동이다.

교류 활동은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 확대·도입된 분야로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단위 학교에서는 지역 사회와 학교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추진이 용이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교류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사전 교육 시간을 두어 교류할 지역의 예절과 풍습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화적 특징을 미리 익히도록 하고, 교류 상대와 일시 장소, 활동 내용, 방법, 준비 사항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예측 가능한 문제점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교류 대상의 문화적 특수성 등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지도해야 한다.

Ⅵ. 특별 활동의 평가

1. 특별 활동 평가의 특징

특별 활동은 근본적으로 집단적 성격을 지닌 교과외 활동으로 교과와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와 같은 특별 활동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특별 활동의 평가는 학생들의 태도 및 행동의 변화를 주된 대상으로 삼는다. 교과 활동에서는 주로 학생들의 지식, 이해, 기능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반하여, 특별 활동은 전인적인 성장 발달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 변화가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된다.

둘째, 특별 활동의 평가에서는 개인적인 성취도 평가는 물론, 활동 집단의 변화도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교과 활동이 궁극적으로 학생 개인의 성취도 평가를 목표로 하는 것에 비하여 특별 활동은 참여와 봉사를 통한 개인의 변화는 물론, 집단 구성원 전체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셋째, 특별 활동의 평가는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더 중요시한다. 교과 활동의 평가에서도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나, 특별 활동의 평가에서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활동 과정에 참여하는 태도, 노력의 정도, 집단 내에서의 역할 수행, 인간관계, 봉사 의식 등이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다.

넷째, 특별 활동의 평가에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이 요구된다. 지필 평가에 주로 의존하는 교과 활동과는 달리 관찰법, 질문지법, 자기 평가, 상호 평가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이 활용된다.

다섯째, 특별 활동 평가에서 특별 활동의 지도 계획·과정·방법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지도 계획의 평가는 학생의 참가 범위, 활동의 조직, 시간 계획, 지도 체제 및 지도 교사 조직, 실시 계획, 작성 과정 등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 태도, 습관 등의 함양에 적당인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지도 과정이나 방법의 평가는 지도자 자신의 자기 평가보다는 교사 상호 평가 등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지도 과정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는 동료 교사의 상호 평가 외에 지도 교사의 자기 성찰, 질문지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장학사, 연구사 등 외부 인사의 평가나 조연도 이용할 수 있다.

2. 특별 활동 평가의 지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는 평가의 기본 지침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 가. 특별 활동 평가는 학생이 참여한 활동 영역과 활동 상황을 고려하여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하되, 담임교사가 종합한다.
- 나. 특별 활동의 평가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목표에 비추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 (1) 학생 자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활동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 (2) 각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여 평가 척도를 작성, 활용한다.
 - (3)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특별한 활동 실적 등이 골고루 반영되게 한다.
 - (4) 교육 목표의 설정, 평가 장면의 선정, 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의 실시 및 결과 처리,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의 절차를 고려한다.
- 다. 평가의 결과는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록하고, 평가 결과는 학생의 계속적 진보와 계발을 돕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 라. 특별 활동 평가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발달, 변화, 성취를 평가함과 아울러, 학급 또는 학교 차원에서 전체 집단의 성장, 발달, 변화 등도 평가하여 지도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 마. 특별 활동 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운영 계획의 현실성, 활동 내용의 타당성, 운영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 또는 학급의 차후 특별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한다.

위의 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특별 활동 평가는 활동 영역과 상황별로 각 영역별 활동이 지닌 특성을 살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객관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수시로 평가하고 계속적으로 누가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는 학생의 발달을 도모하고, 교사의 지도 방법 및 특별 활동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하여 차후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계획 수립 및 운영의 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 영역별 평가의 주체

특별 활동은 다양한 집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집단적 활동임과 동시에 학생 개개인이 스스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전개하는 실천적 활동이다. 따라서 특별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한 평가 활동에 있어서도 활동 내용이나 활동 영역, 활동 방법이나 활동 상황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자치 활동이나 적응 활동의 경우에는 주로 학급 담임의 지도하에 학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학급 담임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봉사 활동이나 행사 활동, 계발 활동은 학급 담임 교사뿐만 아니라 동학년 또는 타 학년 교사, 학부모 등 지역의 자원인사가 지도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활동 상황이나 내용에 따라 평가를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별 활동의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담당자 또는 평가 주체와 관련한 지침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별 활동 평가는 학생이 참여한 활동 영역과 활동 상황을 고려하여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하되, 담임 교사가 종합한다.

특별 활동을 지도하고 활동 상황을 평가함에 있어서 학생이 참여한 활동 영역 및 집단에 따라 평가의 주체가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될 수 있다. 특별 활동 평가의 담당자 또는 평가 주체와 관련하여 영역별로 평가자를 달리하여 수시로 학생의 활동 내용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담임교사가 이를 종합하여 기록한다.

〈표 Ⅶ-1〉 특별 활동 영역별 평가 주체

특별 활동 영역	평가 주체
자치 활동	학생회 담당 교사, 담임 교사 등
적응 활동	담당 교사, 담임 교사 등
계발 활동	계발 활동 담당 교사 등
봉사 활동	담당 교사, 담임 교사 등
행사 활동	행사 활동 담당 교사, 담임 교사 등

나. 평가의 유의 사항

특별 활동의 평가는 현재의 활동 상태나 활동 상황에 대하여 활동의 계획, 조직, 실천 등의 여러 과정에 걸친 교육활동을 반성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일정한 준거를 바탕

으로 한 가치 판단의 과정이다. 특별 활동의 평가는 소정의 목표나 목적에 대한 추진 성과의 비교, 검토와 함께 평가 결과를 모든 단계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된 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도움을 얻고자 함이다. 따라서 특별 활동의 평가는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평가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특별 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첫째, 특별 활동의 평가는 전인교육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 활동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실천되는 활동이므로 평가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지적인 측면보다는 학생들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 등 전인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특별 활동의 평가는 활동 결과 나타난 성취도뿐만 아니라, 활동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과정적 평가의 원리도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 활동의 평가는 학생들의 능력 차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개인차를 발견하여 각기 다른 모습으로 발달시키기 위한 것이다.

셋째, 특별 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이나 기능보다는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참여도, 의욕, 교우관계 등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넷째, 특별 활동의 평가는 특별 활동의 집단적 특성을 살리기 위한 집단적 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 특별 활동에서는 개인의 성장, 발달뿐만 아니라, 집단의 성장이나 발달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특별 활동의 평가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발달, 변화, 성취를 평가함과 아울러 학급 또는 학교 차원에서 전체 집단의 성장, 발달, 변화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별 활동의 평가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특별 활동의 평가는 주로 학생들의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평가에 있어서 가급적 양적 평가보다는 활동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질적 평가에 중점을 두고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여섯째, 특별 활동의 평가는 특별 활동의 평가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 활동의 활동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여 활동 내용의 평가 시기, 내용, 방법에 대한 사전 계획에 의해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특별 활동의 평가는 총체적인 결과를 기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특별 활동의 평가는 담당 교사 한 개인에 의한 평가보다는 가능한 한 그 활동과 관련된 모든 교사들에 의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술한다. 특별 활동의 평가 결과는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진보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평가

하여 기술한다.

여덟째, 특별 활동의 평가 결과는 특별 활동의 계획, 운영 및 성과에 대해 특별 활동 운영의 질적 개선에 활용되도록 한다.

1) 평가 방법

특별 활동의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나. 특별 활동의 평가는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및 교육 목표에 비추어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실시한다.

(1) 학생 자기 평가, 학생 상호 평가, 활동 및 관찰 기록, 질문지, 작품 분석,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특별 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고,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보다는 학생의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교적 주관적인 평가 방법을 많이 쓰고, 양적인 평가 방법보다는 질적 평가 방법을 많이 쓰게 된다. 따라서 특별 활동의 평가에서는 다양한 방법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평가 자료의 수집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특별 활동의 평가는 활동의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중시해야 한다. 평소에 특별 활동의 실천적인 활동 속에서 학생들의 반응이나 태도, 기능, 행동의 변화 등을 포착하여 누가 기록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가능한 한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특별 활동에 활용되는 평가 방법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표 VI-2〉 특별 활동에 활용되는 평가 방법

구 분	평가 방법	평 가 요 령
활 동 상황의 관 찰	일화 기록법	학생의 활동 상황을 자유롭게 수시로 기록하여 평가하는 방법
	체크리스트법	활동에의 참가 태도, 실천 상황 등을 미리 준비된 리스트에 의거하여 체크하는 방법
	평정 척도법	관찰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활동을 일정한 척도에 맞추어 평정하는 방법
질문지를 이용한 조 사	의식·태도 조사	활동에의 생각, 흥미, 관심, 태도 등을 설문식으로 조사하는 방법
	자기 평가	집단 활동의 참가 태도, 행동의 정착도를 학생 스스로가 반성,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

	상호 평가	학생 상호 간의 집단 활동에의 참가 태도, 공동으로 산출한 결과에의 기여 정도를 평가하도록 하는 방법
학생의 작품과 기 록	작품 평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방법
	활동의 기록 분석법	활동의 계획이나 활동의 과정을 실제 기록하도록 한 것을 분석하는 방법
	작문, 소감문 분석법	활동의 계획, 실시에 대한 의견, 참가 후, 활동 후의 감상 등을 글로 쓰도록 하거나 활동하는 동안의 일지를 분석하는 방법
교사의 협의, 의견 교환	동 학년 협의, 타 학년 또는 전교 단위의 협의	활동 영역별 지도에 관한 정보 교환, 반성, 평가, 학생회, 계발 활동 부서 및 역할 분담 활동과 학교생활에 관한 정보 교환, 반성, 평가

가) 활동 상황의 관찰을 통한 평가 방법

(1) 일화 기록법

교사의 누가기록부에 학생 개개인의 평상시의 행동이나 태도 등을 자유 기록으로 기록해 나갈 수 있는 학생 지도록이나 학생별 기록 카드 등을 마련하여 학생의 일상생활이나 학습 장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동 사례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하게 기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대상 학생의 성격 및 행동 특성, 적응 양식 등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교사의 의지와 관심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특별 활동 누가 기록 ()번 성명 ()	
월 일	내 용
4. 6 (금)	□ 병원에 입원한 학우 ○○○에 대한 도움을 학급에 제안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함
5. 24(수)	□ 아침 일찍 등교하여 교실 문을 열고 칠판 주변 정리정돈 함

(2) 체크리스트법

체크리스트법은 관찰하려고 하는 학생의 행동을 미리 준비한 조사표에 분류하여 작성하고, 해당되는 항목을 체크해서 활동의 경향을 파악하려는 평가 방법이다. 특별 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각 활동 참가 태도, 자세, 관심과 실천 상황 등을 교사가 미리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능

를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 다른 방법과 같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크리스트법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관찰항목	학생성명				
	○○○	○○○	○○○	○○○	...
1.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갖고 자신해서 적극적으로 발언하는가?	◎	△	○	△	
2. 근거와 이유를 들어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가?	△	○	○	◎	
3. 다른 사람의 발언이나 의견을 열심히 듣는가?	◎	○	△	○	

(3) 평정 척도법

평정 척도란 관찰하고자 하는 특성이나 활동을 일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평정의 단계별 척도를 만들어 놓고 그 척도에 따라 평정하는 것이다. 평정 척도의 종류에는 수량적, 기술적, 도식적 평정 척도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수량적 평정 척도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p>【문】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은 어느 정도인가?</p>	1	2	3	4	5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나) 질문지를 활용한 평가 방법

질문지는 학생들의 의견이나 태도, 감정 등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흔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정직한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가 어렵고, 질문지 제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질문지의 활용은 조사의 목적이나 질문의 내용에 따라 기입 형식과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질문 내용이 모호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작성해야 하고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의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의식·태도 조사

학생의 의식·태도 조사는 학생의 활동, 동기, 흥미, 관심, 참가 태도 등을 알아보고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계발 활동 : (○○○) 반
제 학년 반 성명 :
<p>1. '○○' 반을 선택한 이유는?</p> <p>① 특별 활동 오리엔테이션(안내)을 듣고</p> <p>② 선생님이나 친구의 권유로</p> <p>③ 다른 부서에 못 가서 할 수 없이</p> <p>④ 친한 친구가 부서에 있어</p> <p>⑤ 계발 활동 상황을 보고</p> <p>⑥ 특별 활동 발표회를 보고서</p>

(2) 학생의 자기 평가

자기 평가는 학생 자신이 평소의 활동 태도나 노력 정도를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여 특별 활동 상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는 방법이다.

() 반 활동 반성			
제 학년 반 성명 :			
※ 다음 항목을 읽고 알맞은 곳에 ○ 표 하시오.			
항 목	잘 함	보 통	못 함
1.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가하였는가?			
2. 친구와 협력하여 활동하였는가?			
3. 계획한 것을 예정대로 실천하였는가?			

(3) 학생의 상호 평가

학생이 지향해야 할 행동과 태도의 기준에 따라 상호판단해 보게 하는 방법이다.

※ 다음을 읽고 해당되는 친구를 2 명씩 쓰시오.	
항 목	잘 하는 사람의 이름
1. 학급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위원 활동을 더욱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의견을 낸 학생은 누구인가?	
2. 위원 활동을 할 때 도구나 물건을 잘 챙기고 정리한 학생은 누구인가?	

다) 학생의 작품과 기록을 통한 평가 방법

(1) 작품 평가

학생이 개인이나 소집단을 구성하여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하여 온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은 작품의 우수성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학생의 이전 수준에 비추어 보아 학생의 진보 정도나 변화 정도에 관심을 두고 평가한다.

특히, 특별 활동에서의 포트폴리오 평가는 단편적인 영역에 대하여 일회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변화나 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전체적이면서도 지속적인 평가를 강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동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평가 방법 중의 하나이다. 포트폴리오 평가는 장기간에 걸쳐 학생의 성장과 진보를 나타내주고, 학생들에게 학습에 대한 정리나 반성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실제적인 학습을 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2) 활동의 기록 분석법

활동 기록 분석법은 학생의 활동 계획과 기록을 분석하여 평가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학생들의 활동 과정에서 실시되는 계획 수립과 실천 과정을 스스로 누가 기록하도록 하고 활동이 끝난 후 수합하여 평가한다. 예컨대, 개인별 봉사 활동 계획을 세우고 그 기록을 통하여 봉사 활동을 통한 태도의 변화나 실천의 정도, 그리고 노력한 정도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3) 작문·소감문 분석법

활동 과정이나 활동 후 학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소감문이나 작문, 그리고 일기 등을 평가 대상으로 삼아 분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학교 행사의 영역인 수학여행, 현장 학습, 봉사 활동 등을 실시한 후의 소감문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영역별 평가 관점 및 척도

특별 활동 영역별 평가 관점 및 척도의 작성·활용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2) 각 영역별로 평가 관점을 마련하여 평가 척도를 작성·활용한다.

특별 활동에서의 평가는 특별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 학생의 인지적·정서적 성취도와 더불어 특별 활동 자체의 계획, 조직, 실천 등 활동 진행 과정의 질을 따져보고 개선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와 같은 점에서 특별 활동 영역의 각 영역별 평가 목적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특별 활동 각 영역의 평가가 보다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변별력 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특별 활동 전반의 활동 나름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평가의 관점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치 활동의 평가 관점

자치 활동의 평가 관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활동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과 아울러, 자치 활동 프로그램의 질도 평가 한다.
- ② 자치 활동에서의 학생 평가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 습득과 아울러 태도 함양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
- ③ 자치 활동에서 학생 평가는 활동 결과 못지않게 활동 과정에 높은 비중을 둔다.
- ④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학생 개인의 발달과 아울러 집단 활동 자체의 질과 변화를 평가에 포함한다.

자치 활동은 근본적으로 집단 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학생 개인뿐만 아니라 학급 또는 학교 학생들의 집단적 특성과 변화 역시 평가 대상이 된다. 교사는 전체 집단의 자주성과 자율성, 의사소통의 효율성, 학생들의 소속감과 책임 의식 등을 관찰, 평가하게 된다. 자치 활동에서의 학생 개인에 대한 평가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각 학생이 보여 주는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 자기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개별 학생의 평가 대상이 된다.

나) 적응 활동의 평가 관점

적응 활동의 평가 관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학생의 활동과 과정뿐만 아니라 사용한 적응 활동 프로그램의 질과 적정성도 평가한다.
- ② 적응 활동의 목적, 즉 학생이 환경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며, 자신의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 ③ 활동의 결과 못지않게 활동의 과정을 평가한다.
- ④ 적응 활동의 평가는 담임교사의 평가와 함께 학생 생활 지도부의 지도 기록과 진로 상담부의 상담 기록, 진로 상담 기록 등 학교생활의 전 기록을 참고한다.
- ⑤ 평가의 범위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발달은 물론, 집단 활동 자체의 질과 변화까지 포함해야 한다.

적응 활동은 다른 특별 활동 영역이 집단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상대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 많으며, 집단 속에서의 개인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상담, 진로, 정체성 확립 활동 등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며, 진로를 탐색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주로 학생 개인을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이 학급 또는 학교 집단 속에서 보여 주는 기본 생활 습관, 친교 활동 등을 관찰하며, 학생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해, 집단에 대한 소속감, 집단의 응집력 및 집단 역할 등도 평가하게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소집단 또는 학급 집단으로서의 질을 평가하여, 적응 활동 지도의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계발 활동의 평가 관점

계발 활동의 평가 관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계발 활동 지도 계획의 수준과 프로그램의 내용을 평가한다.
- ② 계발 활동의 지도 과정이나 지도 방법을 평가한다.
- ③ 학생 개인 활동에 대한 평가와 집단의 발전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계발 활동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변화와 발달에 중점을 둔다.
- ⑤ 전인 교육 지향적 평가관을 가지고 평가에 임한다.

계발 활동은 학생들의 공통된 흥미, 관심사에 대하여 학생들 자신이 자주적으로 계획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도 그러한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발 활동의 평가에 있어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는 어떤 활동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자율적이며 협력적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봉사 활동의 평가 관점

봉사 활동의 평가 관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봉사 활동의 평가는 봉사 활동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 ② 봉사 활동의 평가는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 과정에 대한 평가를 더 중시한다.
- ③ 봉사 활동의 평가는 활동 준비 단계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 봉사 활동은 성인의 자원 봉사 활동과는 달리 봉사 활동을 통한 인성 교육이 주된 목적이 다. 즉, 인성 교육을 위한 학습의 한 방법으로 실시되는 것이 학생 봉사 활동이다. 따라서 봉사 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준비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준비 단계에는 문제 인식, 사전 학습, 실행 계획 등이 포함 되는데, 이 준비 단계의 활동이 잘 이루어져야 봉사 활동이 잘 실시될 수 있고,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행 단계뿐만 아니라 준비 단계에 대한 평가도 중요시해야 한다.

마) 행사 활동의 평가 관점

행사 활동의 평가 관점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행사 활동 지도 계획을 평가한다.
- ② 행사 활동 지도 과정이나 지도 방법을 평가한다.
- ③ 학생 개인의 평가와 집단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 ④ 행사 활동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 개인의 변화와 발달이다.

행사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생들이 각종 행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과 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목표가 행사 활동 평가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도 계획, 지도 방법 및 집단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평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평가의 의미를 가진다. 학생 개인의 발달 상황을 평가하려면 학생이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하여야 하며, 담임 교사와 함께 지도하는 동료 교사들, 학생 상호간, 학부모 등 행사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관찰자로 참여할 수 있다.

3) 활동 상황의 반영

특별 활동 평가에 있어서 활동 상황의 반영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3)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및 특별한 활동 실적 등이 골고루 반영되게 한다.

특별 활동의 평가에 있어서 영역별 활동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평가로 결과물 평가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별 활동의 평가에 있어서 활동 상황의 관찰을 통한 평가, 질문지를 활용한 학생의 활동 평가, 학생의 작품과 기록을 통한 평가 등 다양한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특별 활동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 도구와 평가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특별 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활동 상황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특별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도, 협력도, 열성도, 기타 활동 실적 등과 같은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도록 평가 기준안을 작성하여 이를 종합, 기술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활동 상황에 대한 반영의 내용은 활동의 영역 및 내용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설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 초점을 둔다(이규은, 2004: 371).

- 첫째,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가?
- 둘째, 주어진 활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는가?
- 셋째,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갖추고 의욕적인 자세로 활동에 참여하는가?
- 넷째,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며 실천력이 있는가?
- 다섯째, 학습 활동의 목표 성취를 위해 다른 사람과 협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 여섯째, 공동생활에 필요한 바람직한 생활 태도와 습관이 형성되어 있는가?

평가 기준안은 특별 활동 전반에 걸쳐 담당 교사가 활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기준안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학교에서는 이 예시 안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학교의 시설이나 여건, 학생의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적절한 기준안을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가) 참여도

특별 활동에 대한 참여도 평가는 활동에 대한 흥미와 관심, 실천 활동에 대한 적극성, 자주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참여도와 관련한 평가 기준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나) 협력도

특별 활동의 협력도에 대한 평가는 활동에 대한 집단 활동에의 참여 정도, 실천 활동에 대한 협동성, 협력의 지속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협력도와 관련한 평가 기준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 열성도

특별 활동에서의 열성도 평가는 활동에 대한 책임감, 실천의 지속성, 실천에 있어서의 능동성, 창의성 등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열성도와 관련한 평가 기준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라) 특별한 활동 실적

특별한 활동 실적은 특별 활동의 실천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 낸 실적이나 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특별 활동 내용과 관련하여 교내외 각종 대회나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을 특별 활동 평가에 반영한다. 예를 들면 교내 백일장에서 수상한 내용이나 각종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최한 행사에서의 수상 실적 등을 특별 활동의 활동 상황 평가에 반영한다.

4) 평가 절차

특별 활동 평가의 절차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4) 교육 목표의 설정, 평가 장면의 선정, 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의 실시 및 결과 처리,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의 절차를 고려한다.

특별 활동의 평가 절차는 교과 학습의 평가 절차와 마찬가지로 목표의 설정, 평가 장면의 선정, 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의 실시 및 결과 처리,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의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가) 목표의 설정

평가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일인데, 이를 통하여 활동과 지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무엇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특별 활동의 경우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특별 활동의 성격, 목표, 내용을 참작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평가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지도 과정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평가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된다. 따라서 특별 활동 계획 시 설정한 교육목표를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평가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나) 평가 장면의 선정

평가 장면의 선정이란 어떠한 행동의 성취나 습득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을 선정하는 일이다. 평가 장면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질문지, 필답 검사, 표준화 검사처럼 비교적 다루기 쉬운 방법이 있는가 하면 관찰, 평정 척도, 면접, 자기 평가, 상호평가 등 전문적인 지식과 연구가 필요한 평가도 있다.

다) 평가 도구의 제작

평가의 장면이 결정되면 특별 활동의 영역에 따라 목표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도구를 새로 제작 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평가도구를 선정하여 제작한다.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바로 이 평가 도구의 제작인데, 이는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도구가 평가의 수준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라) 평가의 실시 및 결과 처리

학생들의 발전 과정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활동의 처음, 중간, 마무리 과정 등의 단계에서 세 번 정도는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평어 또는 평정 척도로 학생 개인별 특별 활동 카드에 누가 기록하고, 이를 담임교사가 학년말에 종합하여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마) 평가 결과의 해석 및 활용

평가는 목표의 실현 정도를 측정해 보고 다음의 지도 계획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활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특별 활동의 평가 결과도 개인은 물론, 그 부서의 다음 과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 별, 부서별, 평가 기록 카드가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다음 과정의 담당 교사에게 넘겨져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특별 활동 평가의 절차를 나타내면 [그림 VI-1]과 같다.



[그림 VI-1] 특별 활동 평가의 절차

다. 평가의 기록과 활용

특별 활동 평가의 기록과 활용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다. 평가의 결과는 평소의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기록하고, 평가 결과는 학생의 계속적 진보와 계발을 돕는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 라. 특별 활동 평가에 있어서 학생 개개인의 발달, 변화, 성취를 평가함과 아울러, 학급 또는 학교 차원에서 전체 집단의 성장, 발달, 변화 등도 평가하여 지도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한다.

1) 평가의 기록

특별 활동의 평가는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소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한 결과를 문장으로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평가에서 숫자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의 목표인 전인적이고 발달적인 평가의 관점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특별 활동 평가에 있어서는 ‘관찰 누가 기록부’ 등을 만들어 평소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발달 및 성취와 관련되는 결과물들도 수집하여 평가에 반영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기록의 내용은 이러한 누가 기록 자료를 근거로 활동 실적, 발달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 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평가 문장은 ‘소극적임’, ‘적극적임’, ‘양호함’, ‘부족함’ 등 추상적인 표현보다는 활동의 영역과 내용이 명시되고, 그 활동에서 참여도, 활동 과정, 성취 의욕, 소질, 취미, 관심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 활동의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데 있어서 특별 활동의 5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고, 활동 상황은 영역별 이수시간을 입력한다. 자치·적응·행사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의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특기사항을 입력하되, 특기사항(참여도, 활동의욕, 태도의 변화 등)은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구체적인 문장으로 입력한다.

봉사 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 활동 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 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 기관명, 활동 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 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봉사 활동 특기 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특히, 특별 활동의 활동 상황을 평가하여 기록함에 있어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²⁵⁾

2) 평가의 활용

특별 활동의 평가 결과는 반드시 특별 활동의 운영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 평가의 결과가 교육과 연결되지 못할 때 그것은 진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결과를 환류시킬 뿐 아니라, 교사의 교육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혹은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자료로도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특별 활동 평가의 결과는 학생 개개인의 발달, 성취에 대한 환류할 뿐만 아니라, 학급 또는 학교 차원에서 전체 집단의 성장, 발달, 변화 등도 평가하여 지도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 활동의 평가는 개별 학생들이 자신의 성취 수준을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보충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므로, 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환류되어야 한다. 또한 지도 교사의 지도 방법, 특별 활동 계획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자료로 활용될 필요가 있으며, 단위 학교 특별 활동 운영의 질적 개선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 활동의 평가 결과는 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와의 협의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가 학부모에게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평소의 학습 활동, 태도와 자세, 학습 의욕, 성취도, 교우 관계 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 주고,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의 지침은 다음과 같다.

마. 특별 활동 평가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운영 계획의 현실성, 활동 내용의 타당성, 운영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 또는 학급의 차후 특별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선에 활용한다.

특별 활동 평가에는 앞에서 설명한 학생 활동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특별 활동 프로그램 및 학

25)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 제13조(특별 활동 상황)을 근거로 함.

교 특별 활동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별 활동의 평가는 학생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특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특별 활동 교육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도 실시되어야 한다. 프로그램 평가는 운영 계획의 현실성, 활동 내용의 타당성, 운영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 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는 해당 학급 또는 학교의 후속 특별 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 개선에 활용되어야 한다.

특별 활동 교육과정 평가는 일반적으로 전체 학교 교육과정 평가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나,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 활동 영역만 따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평가를 위해서는 먼저, 평가하고자 하는 기준, 즉 평가에 대한 내용과 척도를 미리 정하여야 한다. 평가 기준은 학교에서 지역과 학교의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야겠지만, 기준이 될 만한 평가 요소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291).

- 특별 활동 상위 교육 과정의 목표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이를 학교 교육 과정에 적합하게 적용하였는가?
- 특별 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사·지역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수용하였는가?
- 지역 사회와 학교의 교육 여건상의 특수성을 특별 활동 계획 수립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 특별 활동 계획과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 간의 역할 분담은 편중되지 않았으며, 지도 교사 배정도 적절하였는가?
- 특별 활동에 배정된 시간의 영역별 배당과 별도 시간의 확보는 적절하였는가?
- 학생, 학부모에 대한 교육 내용 홍보는 충실했는가?
- 특별 활동반 편성에 있어서 학생의 요구는 충분히 수용하였으며, 충분한 조정을 거쳤는가?
- 특별 활동 운영에 필요한 총 수업 시수는 충분히 확보하여 운영하였는가?
- 특별 활동 하위 영역별 지도 내용과 지도 방법이 적절하였는가?
- 특별 활동을 위한 장소 선정, 시간 운영은 영역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였는가?
- 특별 활동 운영에 필요한 외부 인사, 자원 인사를 포함하여 지도 교사를 폭넓게 확보하였는가?
- 학생의 특별 활동 평가는 영역별로 적절하게 평가되었는가?
- 특별 활동 지도를 위한 자료 개발, 확보, 관리, 활용 상태는 양호한가?
- 학생의 특성에 맞는 지도와 특수아 또는 부진·조기진급대상자에 대한 고려는 적절하였는가?
- 전년도 특별 활동의 평가 결과와 문제점 해결 방안이 충실히 반영 되었는가?

평가 장면은 질문지를 제작하여 실시하는 것도 좋으나, 담당교사와 관련교사의 참여하에 수시로 평가 관련 협의회를 가지고 특별 활동 개선을 위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협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질문지 제작은 앞에서 예시한 평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질문지 제

작자가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항목도 포함해야 한다. 또, 평가자가 그 반응과 결과를 보다 쉽게 처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평정 척도로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별 활동 교육과정 평가 결과는 필요에 따라 학부모와의 협의 자료로 활용하여 가정과의 연계 지도를 도모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특별 활동 교육과정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특별 활동 운영의 개선에 있으므로 평가 결과를 학생의 특별 활동 평가와 함께 분석하여 차기 특별 활동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하여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VII. 특별 활동 신·구 교육과정의 비교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다음 <표 VIII-1>²⁶⁾과 같다.

<표 VII-1>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비교 표

구분	제7차 교육 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개정의 중점 및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활동 본질에 접근하는 영역의 특성화 ◦학교급별 통합 구성과 하위영역별 구체 목표의 제시 ◦학생의 집단적, 자주적, 실천적 활동의 강조 ◦학생의 인간, 사회, 자연과의 접촉 활동 강화 ◦편성·운영상의 학교 자율권 확대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 활동 본질에 접근하는 영역의 특성화 ◦학교급별 통합 구성과 하위 영역별 구체 목표의 제시 ◦학생의 집단적, 자주적, 실천적 활동의 강조 ◦학생의 인간, 사회, 자연과의 접촉 활동 강화 ◦편성·운영상의 학교 자율권 확대 ◦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사회적 요구 수용 ◦평가의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차의 개정 중점을 견지(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정신 반영)하면서 단위 학교 편성·운영 및 평가의 실효성 강조
시간 배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1학년: 30시간 2~3학년: 연간 34시간 이상 4~6학년: 연간 68시간 이상 ◦중학교 1,2,3학년: 연간 68시간 이상 ◦고등학교: 이수 단위를 총괄 단위 배당으로 전환 - 총 12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1학년 : 30시간 2~3학년: 연간 34시간 이상 4~6학년: 연간 68시간 이상 ◦중학교 1,2,3학년: 연간 68시간 이상 ◦고등학교 : 이수 단위를 총괄 단위 배당으로 전환- 총 12단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유지
교육과 정의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통합 제시 ◦구성 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 2. 목표 3.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내용 체계 나. 영역별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계획과 운영 나. 영역별 유의 사항 5.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통합 제시 ◦구성 체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격 2. 목표 3. 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내용 체계 나. 영역별 내용 4. 교수·학습 방법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계획과 운영 및 지원 나. 영역별 지도 방법 5.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7차의 체제 유지 및 특별 활동 편성·운영 지원 측면 강조 ◦초·중·고 교육과정의 일관성과 체계성 확보

26)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p. 293의 <표 24>를 재구성함.

구분	제7차 교육 과정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비고
성격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외 활동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외 활동	◦현행 유지
목표	◦총괄 목표, 하위 목표 5개항, 하위 영역별 구체 목표 제시	◦총괄 목표, 하위 목표 5개항, 하위 영역별 구체 목표 제시	◦목표 설정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조
영역별 설정	◦내용 중심의 5개 영역 설정 - 자치 활동 - 적응 활동 - 계발 활동 - 봉사 활동 - 행사 활동	◦내용 중심의 5개 영역 설정 - 자치 활동 - 적응 활동 - 계발 활동 - 봉사 활동 - 행사 활동	◦현행 유지 ◦영역별 하위 내용은 예시적 성격임을 명시 ◦영역 운영에 대한 단위 학교의 자율권 확대 ◦시대·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별 내용의 재조정
영역별 목표	◦영역별 목표 제시(신설)	◦영역별 목표 제시	◦현행 유지 ◦적응 활동의 '정체성 확립 활동'에 관한 목표 제시
활동 내용	◦영역별 활동 내용의 재구성 - 활동 내용의 구체적 제시	◦영역별 활동 내용의 재구성 - 활동 내용의 구체적 제시	◦시대·사회적 상황, 요구를 반영한 활동 내용의 재구성
방법	◦학교 및 지역 사회의 실정에 따라 융통성 있는 운영 ◦필요에 따라 가정 및 지역 사회와 연계성 있는 내용 선정과 운영 ◦시간 운영의 학교 자율성 확대	◦학생의 요구, 지역 및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운영 ◦지역 사회와의 연계 운영 ◦영역 및 시간 운영의 학교 자율성 확대 ◦특별 활동 편성·운영에 관한 지원 강조	◦단위 학교의 자율권 확대 - 5개 영역의 선택적, 집중적 운영
평가	◦영역별 평가자 구분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평가 준거 및 척도, 평가 관점 활용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함 ◦평가 상의 유의점 제시 ◦교육과정 운영 평가의 실시와 결과 활용을 강조	◦활동 영역과 활동 상황을 고려한 평가자 구분 ◦평가 상의 유의점 제시 - 다양한 평가 방법 활용 - 영역별 평가 관점, 척도 작성·활용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함 ◦특별 활동 평가의 실시와 그 결과 활용을 강조	◦평가의 실효성 제고 ◦일반적이고 당위적인 지침 및 중복 되는 지침의 수정 및 삭제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8a).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 광주: 한솔사.
- 교육과학기술부(2008b).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광주: 한솔사.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고시 제2007-79호).
- 교육인적자원부(2007). '2007년 개정 교육과정 개요'.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728호(2007. 7. 27) 제13조.
- 교육부(1999a).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1999b).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서울특별시교육청(2004). 자치 활동 운영 사례.
- 서울특별시교육청(2006a). 교무실편람.
- 서울특별시교육청(2006b). 2006학년도 고교 특별 활동 및 자치 활동 담당 부장 교사 연수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2008). 2007학년도 특별 활동 우수 사례집.
- 교육인적자원부(2004a). 중학교 특별 활동 교사용 지도서(자치 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4b). 중학교 특별 활동 교사용 지도서(적응 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인적자원부(2004c). 중학교 특별 활동 교사용 지도서(계발 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2001a). 중학교 특별 활동 교사용 지도서(봉사 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부(2001b). 중학교 특별 활동 교사용 지도서(행사 활동).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이규은(2004).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동문사.
- 이규은(2004). 재량 활동 교육과정의 이해. 서울: 경안기획.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5). 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시안)연구 개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 재량·특별 활동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록〉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변천

우리나라의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정부 수립 후 모두 여덟 차례 바뀌어 왔다. 특별 활동이 교육과정 영역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제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이다. 그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 활동은 줄곧 교과 활동과 더불어 교육과정의 양대 축을 형성해왔다. 교수요목 시기부터 2007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고등학교 특별 활동 교육과정 변천 과정의 주요 특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변천

가. 교수요목 시기(1946~1954)

교수요목 시기의 특별 활동은 문서화된 내용이나 명칭이 따로 없었고, 학교 교육에서도 ‘교과 외 활동’으로 정규 시간에 들어 있지 않았다.

나. 제1차 교육과정 시기(1954~1963)

제1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특별 활동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각 교과의 교육과정만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과과정’의 시기라고도 한다. 특별 활동과 관련해서는 문교부령 제35호(1945.4.20.)로 공포된 ‘국민 학교·중학교·고등학교·사범학교 교육 과정 시간 배당 기준령’의 총칙 제6조의 규정을 살펴볼만하다. 여기서는 특별 활동을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 이외의 기타 교육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 각론으로서의 특별 활동에 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다만 총칙 제6조에 특별 활동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개괄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① 집회, 기타 민주적인 조직으로 운영되는 학생 활동에 관한 것
- ② 학생의 개인 능력에 의한 개별 성장에 관한 것
- ③ 직업 준비 및 이용후생에 관한 것
- ④ 학생의 취미에 관한 것

따라서 이 시기의 특별 활동 교육과정은 매우 간략한 대강적 기준으로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제2차 교육과정 시기(1963~1973)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 활동, 반공·도덕 생활, 특별 활동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특별 활동 교육과정이 ‘목표’, ‘활동의 예’, ‘지도상의 유의점’으로 나뉘어 제시됨으로써 특별 활동이 학교 교육의 정규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당시의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특별 활동의 내용을 그 성격상의 활동 범위로 보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① 학생의 개인 능력에 따른 개성 신장에 관한 것
- ② 개인의 취미 향상에 관한 것
- ③ 직업적 요구에 응할 수 있는 특수 기능에 관한 것
- ④ 민주적 집회 운영과 생활 태도의 양성에 관한 것

제2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특별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교과 활동과 긴밀한 관련 밑에 개인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생활에 유용한 힘을 기른다.
- ② 실천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취미를 높이고, 생활에 필요한 건전하고 명량한 기능과 태도를 기른다.
- ③ 아동의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직업적 특수 기능을 기른다.
- ④ 자치적인 활동을 지도하고 이에 참여시켜,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생활 태도를 기른다.

제2차 교육과정 시기의 특별 활동 영역은 ‘홈룸’, ‘학생회’, ‘클럽활동’, ‘학생 집회’의 4가지로 설정되었다. 특히 ‘학생 집회’라는 영역을 설정하여 학생의 자율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만하다.

한편, 특별 활동의 ‘지도상의 유의점’에서는 교육과정 문서에 예시된 바가 교과 이외의 활동에 관한 부분적 시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각 학교에서 적절히 계획하여 모든 학생의 개

성의 신장과 함께 사회적 태도의 발달에 적합한 구체적인 활동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시기의 특별 활동 시간 배당 기준은 주당 시간 량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총 단위 시간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시간을 배당 시간 안에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교육 과정의 특별 활동은 1969년 9월 4일 부분 개정되어 문교부령 제 251 호로 공포된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의거, 변화되었다. 우선, 특별 활동의 영역이 ‘학급 활동’, ‘학 생회 활동’, ‘클럽 활동’, ‘집단 활동’의 네 영역으로 변경되었다. 특히, ‘집단 활동’은 교풍 수립과 학교생활 개선에 관한 활동, 학예 연구 발표에 관한 활동, 취미 오락 수양에 관한 활동, 보건 체육에 관한 활동, 생산 건설에 관한 활동, 방호 방위에 관한 활동, 향토 문화 향상에 관한 활동, 자연 답사와 심신 단련에 관한 활동, 문화, 사회, 산업 조사에 관한 활동, 합숙 생활 훈련, 기타 등 그 지도 내용을 광범위하게 제시하였다. 또한 시간 배당 기준도 변화하였는데 종래 백분율로 표시되 던 것이 주당 최소 시간 량을 제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졌다. 변화된 시간 배당 기준에 의하면, 고등학교 특별 활동에는 인문, 자연, 직업 과정 모두 3년 동안 12 단위(216 시간)가 배당되었다.

라. 제3차 교육과정 시기(1973~1981)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 편제는 ‘도덕’이 교과가 됨에 따라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의 이원적인 구조로 구성되었다. 특별 활동의 각론 체제는 ‘목표’, ‘내용’, ‘지도상 유의점’으로 바뀌었고, ‘목표’는 다시 ‘일반 목표’와 ‘활동 목표’로 구분되었다. 그리고 ‘지도상 유의점’은 ‘운영상 유의점’과 ‘영역별 유의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 시기의 특별 활동 목표는 각 활동 영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 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생활 경험을 통하여 사회성의 신장을 꾀하고, 민주적이며 협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민으로서의 소양을 기른다.
- ② 집단생활에의 참여와 봉사 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이며 진취적인 생활 태도와 국가 발전에 봉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 ③ 자기표현의 기회를 가지게 하고 개성을 발견하게 함으로써 창조의 힘을 기르고 개개인이 지닌 소질을 신장시킨다.
- ④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조장하고 실천력을 길러, 건전하고 풍부한 생활을 개척할 수 있게 한다.

특별 활동의 영역은 ‘학급 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 등 4개 영역으로 설정되었다. 각 영역의 하위 구성 체계는 ‘소영역명’, ‘소영역 지도 목표’, ‘활동 내용 예시’의 순으로 제시하였다. 예시의 끝에는 ‘기타’를 두어 학교의 재량권을 보장하였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급 활동’은 학급회 활동과 위원 활동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생회 활동’은 전교 학생회 활동과 위원회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클럽 활동’은 교과 학습 내용의 심화 확충을 위한 클럽 활동, 체육을 위한 클럽 활동, 취미·학예를 위한 클럽 활동, 생산·근로를 위한 클럽 활동, 봉사관리를 위한 클럽 활동의 5가지로 이루어졌으며, ‘학교 행사’는 의식, 학예 행사, 보건·체육 행사, 소풍 및 여행 행사, 안전지도 행사,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을 위한 행사의 6가지로 구성되었다.

특별 활동에 대한 단위 배당은 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 12 단위가 배정되었다.

그러나 1977년 2월 28일에 부분 개정, 공포된 인문계 고등학교 교육 과정(문교부령 제 404 호)에 의해서 특별 활동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우선 영역에 있어서, ‘학생회 활동’을 ‘학도 호국단 활동’으로 변경하고 그 활동 내용을 국가 안보에 관한 정신 교육 실시, 면학 기풍의 진작, 군사 훈련, 새마을 운동에의 참여, 의료 봉사, 근로 봉사, 계몽 활동 등의 각종 봉사 활동, 비상사태 하에 있어서의 사회 질서 유지, 전시 하에 있어서의 구호 사업의 전개, 파괴 시설의 복구, 작전 지역에서의 군사 지원, 협조 또는 지역 방위 분담, 부서의 주관에 의한 학·예술 및 체육 활동, 기타 학도 호국단의 기능에 따르는 활동 등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학도 호국단 활동에는 안보와 군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별도의 학도 호국단 운영 규정을 따르게 한 점이 특징이었다.

마. 제4차 교육과정 시기(1982~1987)

제 4차 교육 과정은 1981년 12월 31일에 문교부 고시 제 442 호로 고시되었다. 지금까지 부령으로 공포되었던 교육 과정이 장관 고시로 변경(1979. 3. 1.)되었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개정과 고시에 관한 형식, 절차 등이 보다 간편해졌고 장관의 결재만으로 교육 과정의 수정, 보완이 가능하여 기동성 있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고시로 변동된 후 처음으로 발표된 교육 과정이 제 4차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4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 과정은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시기에 들어서서 고등학교 특별 활동은 보다 체계화된 모습을 선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 목표는 총괄 목표와 하위 항목별 목표의 복합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하위 항목별 목표는 ‘공동체 의식과 민주적 생활 태도 육성’, ‘소질 계발과 개성의 신장’, ‘취미 신장, 여가 선용’, ‘협동 봉사 정신 형성’ 등으로 설정되었다.

특별 활동의 영역은 ‘학도 호국단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 등 3대 영역으로 구성되었고, 각 영역별로 ‘목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운영상의 유의점은 ‘계획’, ‘지도’,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으나, 그 중 ‘지도’만은 3대 영역별로 그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그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학도 호국단 활동’은 제3차 교육 과정의 ‘학급 활동’과 ‘학도 호국단 활동’을 통합하여 구성한 것으로서, 협의 활동과 위원 활동, 기타 활동의 소영역으로 구분하고, 협의 활동과 위원 활동은 각각 그 특성에 맞게 활동 내용을 제시하였다. ‘클럽 활동’은 그 내용을 체육 활동, 학예 활동, 생산 근로 활동, 봉사·관리 활동, 학교 특정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교 특정 활동이란, 앞에 제시한 활동 이외에 학생의 요구, 지역 사회의 특성,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클럽 활동을 말한다. ‘학교 행사’는 의식, 학예 행사, 보건 체육 행사, 현장 학습 행사, 안전 지도 행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와 학교 특정 행사로 되었다. 학교 특정 행사는 클럽 활동의 학교 특정 클럽과 같은 성격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제4차 교육 과정에서 특별 활동에 대한 단위 배당은 제3차 교육 과정기와 마찬가지로 12단위가 배정되었다. 특별 활동에 배당된 단위는 학도 호국단 활동 및 클럽 활동에 배정한 것이므로, 학교 행사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제4차 특별 활동 교육 과정역시 1985년 12월 17일에 부분 개정, 고시되었다. 문교부 고시 85-10호로 고시된 고등학교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의 주요 부분 개정 내용은 ‘학도 호국단 활동’ 영역을 다시 ‘학생회 활동’ 영역으로 환원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의 영역은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의 3개 영역이 되었다.

바. 제5차 교육과정 시기(1987~1992)

제5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제4차 교육과정의 부분 개정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시기의 교육과정 체제와 구조는 제4차 교육과정 시기와 거의 동일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교의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은 목표와 영역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우선 제5차 교육 과정에서 특별 활동의 각론의 체제는 ‘목표’, ‘영역별 목표 및 내용’, ‘운영상의 유의점’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별 활동의 목표는 ‘개성과 소질의 신장’, ‘진로 결정 능력’, ‘풍부한 정서 생활’, ‘자주적 생활 태도’, ‘공동체 의식 함양’, ‘협동 봉사 정신 육성’ 등으로 변화되었다.

특별 활동의 영역은 ‘학급 활동’, ‘클럽 활동’, ‘학생회 활동’, ‘학교 행사’의 4개 영역으로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급 활동’은 협의 활동, 위원 활동, 상담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클럽 활동’은 학예 활동, 체육 활동, 생산 근로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여가 활동, 학교 특정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학생회 활동’은 협의 활동, 위원 활동으로 나누어졌고, ‘학교 행사’는 의식 행사, 학예 행사, 체육·보건 행사, 현장 학습 행사, 안전 지도 행사,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행사, 학교 특정 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제 5차 교육 과정에서 특별 활동에 대한 단위 배당은 제 4차 교육 과정기와 마찬가지로 12 단위가 배정되었다. 특별 활동에 배당된 단위는 학급 활동 및 클럽 활동에 배정한 것이므로, 학생회 활동과 학교 행사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시간 운영, 장소 활용, 교과 조직, 주제 선정, 집단 편성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운영을 강조하였다.

사. 제6차 교육과정 시기(1992~1997)

제6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 특별 활동, 학교 재량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는 교육 과정 사상 가장 큰 변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시기에 처음으로 교육 과정 편성·운영 체제에 대폭적인 개혁이 이루어져 학교 교육 과정과 시·도의 교육 과정 편성·운영 지침이 마련되는 등 중앙집권형 교육 과정이 지방분권형 교육 과정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특별 활동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국가 수준 교육 과정에 처음으로 특별 활동의 성격이 공식적으로 밝혀졌고 내용 체계가 제시되었다. 특별 활동의 목표는 ‘학급 구성원의 역할 수행과 자신의 진로 설계’,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과 자율적 실천 능력’, ‘개성과 소질 계발 및 건전한 정서 생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강인한 의지와 사회 적응력’ 등으로 집약되었다.

특별 활동의 영역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활동 집단의 범위와 규모를 단위로 하여 영역을 체계화하였다. 즉, ‘학급 활동’, ‘학교 활동’, ‘클럽 활동’, ‘단체 활동’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학급 활동’은 학급회 활동과 역할 분담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학교 활동’은 학생회 활동과 행사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클럽 활동’은 학예 활동, 체육 활동, 노작 활동, 취미 활동, 청소년 육성 단체 활동으로 구성되었고, ‘단체 활동’은 극기 활동, 탐사 활동, 안전 구호 활동, 지역 사회 봉사 활동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고등학교 특별 활동에 처음으로 신설된 ‘단체 활동’은 교련과 담당 교사들이 지도를 맡도록 하였다.

고등학교의 특별 활동에서는 학생의 자주적, 자율적 계획, 실천, 평가를 중시하였다. 운영 지침은 ‘방법’과 ‘평가’로 구분하여 제시되었다. 특별 활동에 대한 단위 배당은 학급 활동과 클럽 활동에 12 단위, 단체 활동에 4 단위가 배정되었다. 이와 같이 특별 활동에 배당된 기준 단위는 학급 활동, 클럽 활동 및 단체 활동에 배정한 것이므로, 학교 활동 시간은 별도로 확보하도록 하였다. 학교에서는 특별 활동의 각 영역이 균형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각 학교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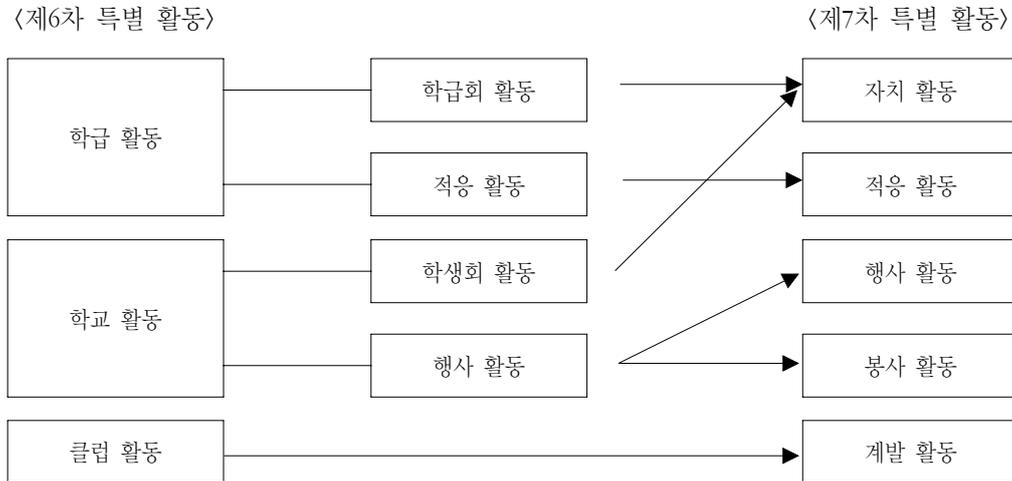
로 특색 있는 중점 영역을 설정하여 육성함으로써 학교의 전통을 가꾸어 나가도록 하였다.

아. 제7차 교육과정 시기(1997~2007)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교육과정 편제는 교과 활동, 특별 활동, 재량 활동의 3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제7차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은 특별 활동 교육 과정 사상 가장 큰 변혁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특별 활동 영역의 명칭을 살펴보면 뚜렷한 근거나 기준이 없이 학급 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 등으로 구분되어 오다가, 제6차 교육 과정에서 처음으로 집단을 단위로 하여 학급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활동, 단체 활동으로 구분되어 그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 활동의 영역 구분은 특별 활동을 편성, 운영할 때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변인 중에서 오직 방법 변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집단을 단위로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특별 활동의 본질에 입각하여 구분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7차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의 목표 및 영역 설정과 내용 구성이 이전과 크게 다른 점은 특별 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목표로 설정하고 그 목표에 맞게 특별 활동의 영역을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즉, 특별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달성하기를 바라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영역 설정의 근거로 하여 '자치 활동', '적응 활동', '계발 활동', '봉사 활동', '행사 활동'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그림 II-11²⁷⁾). 이렇게 함으로써 특별 활동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학습 목표와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특별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양한 수준의 집단에서 특별 활동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각각의 목표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27) 교육과학기술부(2008),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II), p. 189의 [그림 6]을 그대로 인용함.



[그림 II-1] 제6차 특별 활동과 제7차 특별 활동 영역의 비교

제 7차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의 목표 설정 및 활동 내용 체계는 지금까지의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의 영역이나 내용에 대한 보완 내지는 재구성이라기보다는 ‘특별 활동은 왜 하는지’, ‘특별 활동의 목표는 무엇인지’, ‘특별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길러 주고자 하는 궁극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특별 활동의 목표와 활동 내용을 새롭게 설정하였으며, 지금까지의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의 모든 영역과 활동들을 근본적으로 재편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제 7차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현실 감각에 부응하고 미래 지향적인 교육적 관심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특별 활동의 하위 활동에 민주 시민 활동, 정체성 확립 활동, 여가 문화 활동, 정보 통신 활동, 교류 활동 등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제 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다.

- 초·중·고등학교의 특별 활동 교육 과정을 학교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하여 제시하였다.
- 총괄 목표 외에 하위 영역별 구체 목표를 제시하였다.
- 단위 학교의 편성·운영상의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기간인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연간 최소 68시간 이상의 시간을 배정하고, 선택 중심 교육 과정 기간인 고등학교 2, 3학년 기간의 총 이수 단위는 8단위 이상으로 배정하였다.
 - 특별 활동의 각 영역별 시간 수의 배정은 단위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영역별로 제시된 활동 내용이 예시적 성격임을 분명히 하였다.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는 다음 <표 II-2>와 같다. 제7차 특별 활동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제시한 내용이 예시적 기준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즉, “이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각 영역별 활동 내용은 예시적 기준이므로,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에 적합한 활동 내용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 II-2> 제7차 특별 활동의 내용 체계

영역	내용
자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활동 ◦ 역할 분담 활동 ◦ 민주 시민 활동
적응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생활 습관 형성 활동 ◦ 친교 활동 ◦ 상담 활동 ◦ 진로 활동 ◦ 정체성 확립 운동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술 문예 활동 ◦ 보건 체육 활동 ◦ 실습 노작 활동 ◦ 여가 문화 활동 ◦ 정보 통신 활동 ◦ 청소년 단체 활동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손 돕기 활동 ◦ 위문 활동 ◦ 캠페인 활동 ◦ 자선 구호 활동 ◦ 환경·시설 보전 활동
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 행사 활동 ◦ 학예 행사 활동 ◦ 보건 체육 행사 활동 ◦ 수련 활동 ◦ 안전 구호 활동 ◦ 교류 활동

교수·학습 방법은 ‘계획과 운영’, ‘영역별 유의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나 학교급별로는 구분하지 않고 일관되게 제시하였다. 특별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도 초·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학생 평가, 특별 활동 교육과정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평가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시한 것은 단위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재량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①

총론, 재량 활동, 특별 활동

2008년 12월 15일 초판 인쇄

2008년 12월 21일 초판 발행

저 작 권 자 교 육 과 학 기 술 부

발 행 인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18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생인쇄조합

인 쇄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생인쇄조합

전 화 (02) 426-4415

팩 스 (02) 429-9562